

2009年

京畿鄉土史學

제 14집



남한산성

㉠ 韓國文化院聯合會京畿道支會

京畿鄉土史學

第 14 輯

韓國文化院聯合會京畿道支會

발 간 사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은 한민족이라는 어원의 발상지로서 무수한 민족문화 유산이 산재 되어있으나, 수도를 안고 있어 외침이 있을 때마다 격전지가 되어 수많은 문화유적이 소실됨은 물론 그 관리마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한의 수도가 광주시 경안동 이었고, 한성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하남시 춘궁동 또는 송파구 일대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도 경기지역이었으며, 조선의 수도 한양 역시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삼한시대부터 한민족의 문화를 꽃피워온 민족의 자부심이 바로 경기지역에서부터 뿌리내린 근거가 되는 것이며, 역사의 중심이 경기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찬란한 민족문화가 담긴 경기지역의 향토사를 하나하나 발굴조사, 연구하고 총정리 하여 지역향토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으로 1집에서 13집까지 향토사 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 14집을 2009년도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각 시,군에 산재한 향토역사와 구비문화 속에 전해오는 문화유적을 추적 발굴, 조사하여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논문집<경기향토사학14집>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한동익 소장님을 비롯한 8명의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발간사에 대신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오 용 원

목 차

1. 삼국사기에 나타난 경기지역 성터 및 지명연구-한동익 / 7
2. 남한산성에 서린 민족정기의 재인식-윤종준 / 55
3. 신라사의 재조명-김택기 / 83
4. 태종실록에 나타난 소요산 태상왕 이성계 변궁리 연구-이명수 / 113
5. 팔대수(八大藪)와 청심루(淸心樓)의 문화생태적 고찰(文化生態的 考察)-조성문 / 135
6. 대보단의 설치 · 운영을 통해본 선비정신-신일균 / 153
7. 파주지역 별묘(別廟) 및 재실(齋室) 조사연구-권효숙 / 177
8. 한북지역(漢北地域)의 항일의병전(抗日義兵戰)-안국승 / 213
9. 매국노 송병준(宋秉峻)이 용인에 남긴 자취 소고(小考)-김장환 / 243

삼국사기에 나타난 경기지역 성터 및 지명연구

한 동 역(경기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목 차 >

1. 서 론(序論)
 - 1) 성지(城址)
 - 2) 지리(地理)
2. 맺은말

1. 서 론(序論)

우리나라 역사(歷史)는 수많은 전란(戰亂)을 겪으면서 외세(外勢)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책(歷史冊)들을 강제(強制)로 모두 수거(收去)하여 불살라 버렸다는 것이 사실(事實)로 입증(立證)되고 있다. 단기고사(檀奇古史)의 서문(序文)이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서문(序文)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서(歷史書)를 구(求)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심정(心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끈질긴 우리 선조(先祖)들의 집념(執念)으로 인하여 구전(口傳)으로나마 희미하게 전(傳)해지고 있는 사실(史實)을 찾아 해매 이었고 수집(收集)된 자료(資料)들을 모아 역사서(歷史書)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역사서(歷史書)에서 명시(明示)되어 있으면서도 차츰 잊혀져

가는 우리의 고유(固有)한 역사(歷史)속의 성터(城址)와 같이 친근감(親近感)있고 정(情)겨운 지명(地名)이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現實)이 되었다. 이제라도 2,200년간 한민족(韓民族)의 정통국가(正統國家)들이 끈질기게 계승(繼承)하여온 수도권(首都圈)으로서의 역할(役割)과 성곽(城郭)및 지명(地名)의 변천사(變遷史)를 간파(看破)하여야 하고 경기도지역(京畿道地域)의 뜻 깊은 지명(地名)을 파악연구(把握研究)하여 골짜기마다 특이(特異)하고 심오(深奧)한 지명(地名)의 전설(傳說)과 설화(說話)를 되찾아 재정립(再定立)하여 후손(後孫)들에게 자랑스럽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時代的)사명(使命)이요 역사적(歷史的)소명(召命)이라는 사실(事實)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속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역사적(歷史的)요충지(要衝地)였던 성곽(城郭)은 오늘에는 유실(遺失)되어 흔적(痕迹)조차 없어지고 그 이름은 잊혀진지 오래되었더라도 한번만이라도 우리가 합창(合唱)할 수 있는 계기(契機)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성곽(城郭)의 이름과 현재(現在)의 우리지역(地域)의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상고(詳考)하여 보고자 함이다. 특히 지명(地名)의 변천사(變遷史)는 변화(變化)하는 시대(時代)마다의 어떤 특징(特徵)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시대(時代)를 이해(理解)하고 그 시대(時代)의 사회변화(社會變化)의 추세(趨勢)와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전해지는 성곽(城郭)의 이름과 지명(地名)을 연구(研究)하여 경기도내(京畿道內)의 역사문화(歷史文化)가 진취적(進取的)이고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을 이룩하는데 기여(寄與)할 수 있기를 기원(祈願)하면서 이 글을 쓴다. 충분(充分)하지 못한 자료(資料)때문에 서울시스템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국역(國譯)한 C, D에서 발췌(拔萃)한 내용(內容)들이 많지만 이것은 원본(原本)을 읽고 본 것보다도 더 정밀(精密)하게 연구(研究)하고 추론(推論)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특(特)히 이제는 원본위주(原本爲主)의 확인정리(確認整理)작업(作業)도 중요(重要)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共感帶)가 형성(形成)될 수 있는 전설(傳說)과 설화(說話)에 얹힌 멋있는 지명(地名)도 시대적(時代的) 논지(論旨)에 흡수(吸收)되어야 하고 시대변화(時代變化)에 따른 고유지명(固有地名)의 우수성(優秀性)을 재평가(再評價)하여볼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記錄)되어 전해오는 고유(固有)의 지명(地名)을 확인조사(確認調査)하고 깊이 연구(研究)하여 후대(後代)에 전함으로써 역사적(歷史的)인 지명(地名)의 변화(變化)를 숙지(熟知)하여 지역(地域)의 지명변천

사(地名變遷史)를 총정리(總整理)하여야 하겠다.

삼국사기역사(三國史記歷史)속의 지명(地名)과 대조(對照)하여 시대적 변화(時代的變化)에 따른 지명(地名)의 위상(位相)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인 지명(地名)을 각인(刻印)시키기 위하여 지명의 반복설명(反復說明)을 하였음을 양지(諒知)하여 주기 바란다.

1)성지(城址)

우리의 선조(先祖)들이 수천(數千)년을 살아오면서 수(數)없이 많은 성곽(城郭)과 보루(堡壘)가 있었을 것지만은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희미하게 전(傳)해오고 있어 그 시대(時代)의 찬란(燦爛)하였던 역사(歷史)와 문화(文化)를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실제(實際)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수(數)많은 성곽(城郭)의 이름이 거명(擧名)되고 있지만 수많은 학자(學者)들이 상고(詳考)하고 연구(研究)하여 많은 논문(論文)들을 발표하였으나 정확(正確)한 위치(位置)와 성곽(城郭)이 지닌 사명(使命)이나 축성연대(築城年代)와 축성방법(築城方法)등의 기술적(技術的)인 고도(高度)의 문제점(問題點)들이 제대로 전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現在)의 경기도내(京畿道內)에 예속(隸屬)되었던 성곽(城郭)외에 지금의 서울에 있던 일부성곽(一部城郭)만을 발췌조사(拔萃調査)하여 성곽(城郭) 또는 성지(城址)의 축성시기(築城時期)와 규모(規模)를 밝혀내고 역사가(歷史家)들이 연구결과(研究結果)로 전(傳)하는 비교적(比較的)정확(正確)한 위치비정(位置比定)을 세분연구(細分研究)하여 성지(城址)의 확실(確實)한 근거(根據)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200년간의 수도권(首都圈)으로서의 경기지역(京畿地域)의 역사성(歷史性)을 살펴보고 시대적(時代的)감각(感覺)에 맞추어진 성곽(城郭)의 이름과 여타지명(餘他地名)에 관하여 더욱 심도(深度)있게 연구하고 정밀(情密)하게 분석(分析)하여 비록 작은 지명(地名)의 설화(說話)라도 주의 깊게 관찰(觀察)하여 엄격(嚴格)한 잣대로 정립(再定立)하여야 한다.

마수성(馬首城).

한주(漢州)견성군(堅城郡)의 고구려(高句麗)때의 지명(地名)인 마홀성(馬忽城)과 음(音)이 상사(相似)하므로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경기도(京畿道)포천군(抱川郡). 고구려시대에는 마홀(馬忽)로 부르고 신라가 견성군(堅城郡)으로 고쳤다. 고려초에 포주(抱州)로 고쳤다. 명지(命旨)와 청화(淸化)는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

포천과 합병된 영평(永平)의 옛 이름은 고구려시대에는 양골(梁骨)로 불렸는데 신라가 동음현(洞陰縣)으로 하여 견성군(堅城郡)에 속현으로 하였고 고려 예종(睿宗)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후에 위사공신(衛社功臣)강윤소(康允紹)의 고향이라서 영흥현(永興縣)승격시켰다.¹⁾의 군내면(郡內面)²⁾, 일대(一帶)로 비정(比定)할 수 있다.

병산책(瓶山柵).

마수성(馬首城)과 이웃한 성(城)으로 표현(表現)되어 있다. 마수성(馬首城)을 경기도(京畿道)포천군(抱川郡.)의 군내면(郡內面)이라고 비정(比定)한다면 병산책(瓶山柵)은 경기도(京畿道)포천군(抱川郡. ※ 1)쪽 번호 마수성(馬首城)의 포천기록(抱川記錄)참조(參照).)의 한 지역부근(地域附近³⁾)의 어느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확실(確實)한 위치비정(位置比定)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史實)의 증명(證明)이다.

곤미천(昆彌川).

현재(現在)위치(位置)는 미상(未詳)이라고 기록(記錄)되어 있고,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예성강(禮成江)⁴⁾으로 비정(比定)하는 견해(見解)도 있다. 《천관우(千寬宇)삼한(三韓)의 국가형성(國家形成)하(下),》 한국학보(韓國學報)3 일지사(一志社), 1976년 발행(發行) 120쪽.

청목산(靑木山).

청목산(靑木山)에 위치(位置)에 대하여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4 개성부(開城府)상(上)산천(山川)송악(松嶽)조(條)에서 송악산(松嶽山)이룡(二龍)의 하나가 청목산(靑木山)이 되었다는 고사(古事)와 관련(關聯)하여 현재의 경기도(京畿道)개성시(開城市, 개성(開城)과 해풍(海豐)이 합병된 이름이다. 고구려에서는 부소갑(扶蘇岬)개성군(開城郡)일명 동차홀(冬比忽)로 불렸고 신라는 송악군(松嶽郡)으로 부르다 고려 태조(太祖)2년에 개주(開州)로 고쳐 불렀다. 고려 광종(光宗)11년에 황도(皇都)로 고쳤다. 성종(成宗)14년에 개성부(開城府)로 고쳤다가 현종(顯宗)원년에 거

1) (신증동국여지승람 명문당 1994년 8월 10일 중간본200쪽 永平, 201쪽 抱川.)

2)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 온조왕 본 2월)

3)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8년 가을 7월 기록)

4)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10년 가을 10월 기록)

란의 침입으로 개성부를 폐(廢)하였다가 문종(文宗)16년에 다시 개성부(開城府)로 환원(還元)하였다. 촉막군(蜀莫郡)은 송나라 역사서(歷史書)에 고려(高麗)왕(王)거(居)개주(開州)촉막군(蜀莫郡)왈(曰)개성부(開城府)의(依)대산(大山)치(置)궁실(宮室)입(立)성벽명(城壁名)기산(其山)왈(曰)신숭(神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동국여지승람 군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다. 합병된 풍덕군은 고구려 때에는 정주(貞洲)로 불렸고 고려 현종(顯宗)9년에 개성현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3년에는 승천부(昇天府)로 격상(格上)하고 충선왕(忠宣王)2년에 해풍군(海豐郡)으로 격하(格下)하였다. 하원(河源)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실려 있다.)의 송악산(松嶽山)으로 비정(比定)하였고, 안정복(安鼎福)은 동사강목(東史綱目)제1 상(上)임자(壬子) 마한(馬韓), 백제(百濟)시조 10년 조에서 개성(開城)금천(金川)경계(境界)에 청석동(현재의 경기도(京畿道)개풍군(開豐郡. ※개성시(開城市)의 기록(記錄)참조(參照).)의 영남면(嶺南面)천마산(天馬山))으로 추정(推定)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京畿道)포천군(抱川郡. 고구려시대에는 마홀(馬忽)로 부르고 신라가 견성군(堅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포주(抱州)로 고쳤다. 명지(命旨)와 청화(淸化)는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 1)쪽번호 참조.5))의 영평지역(永平地域)6)으로 비정(比定)하는 견해(이병수(李丙壽 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 1976년 355쪽)도 있다.

봉현(烽峴)

삼국사기(三國史記)권37 잡지(雜誌)지리(地理)4에는 삼국유명미상 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실려 있다 정확(正確)한 위치(位置)는 미상(未詳)이다.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大東地志)권 3 마전(麻田) 및 연천(漣川)의 산수(山水)조(條)에서 현재의 경기도(京畿道)연천군(漣川郡. 고구려 때에는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불렀는데 일명(一名)웅섬산(雄閃山)으로도 불렀다. 신라 때에는 공성(功城)으로 고쳐서 철성군(鐵城郡)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때에 장주(漳州)로 고쳤는데 장주(獐州)로도 쓰였다. 고려 충선왕(忠宣王)때에 연천현(漣川縣)으로 고쳤다. 연주(漣州), 장연(獐涓)은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이다. 연천(漣川)에 통합된 삭령(朔寧縣)은 고구려 때에는 소읍두현(所邑豆縣)과 승량현(僧梁縣, 일명 비물(非勿).)으로 부르다가 신라가 삭읍(朔

5) (신증동국여지승람 명문당 1994년 8월 10일 重刊本88쪽,102쪽 개성, 200쪽 영평, 201쪽 포천)

6)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10년 가을 10월 기록)

邑)과 동량(幢梁)으로 고쳐 불렀다. 고려시대에 승령(僧寧)과 삭령(朔寧)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또 연천군에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 때에는 마전천(麻田淺)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임단(臨湍)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마전으로 고쳤다 니사파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⁷⁾)의 왕징면(旺澄面)⁸⁾ 일대(一帶)로 비정(比定)하고 있다.

독산책(禿山柵).

일명(一名)구천책(九川柵)이라고도 하는데 경기도(京畿道)와 황해도(黃海道)⁹⁾와 경계(境界)의 어느 지역(地域)으로 비정(比定)한다.

한산(漢山).

백제(百濟)가 하북(河北)위례성(慰禮城)에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옮긴 이후에 나오는 한산(漢山)은 현재(現在)의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가리킨다. 남한산(南漢山)은 경기도(京畿道)광주군(廣州郡, 고조선(古朝鮮)의 마지막 왕(王)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지금의 광주시(廣州市)일원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은 진국(辰國)또는 진한(辰韓)이라고 하고 소도읍지(所都邑地)를 회안(淮安)으로 불렀으므로 회안이 최초의 이름이다. 백제 때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렀는데 백제 온조(溫祚)13년에 이도(移都)하면서 위례성(慰禮城)으로 고치고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산주(漢山州)로 고쳤는데 일명(一名)남한산주(南漢山州)로도 불렀다. 신라 경덕왕(景德王)15년에 한주(漢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23년에 광주(廣州)로 고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 성종(成宗)2년에는 봉국군(奉國軍)으로 고쳤다는 기록도 있다.¹⁰⁾)의 중부면(中部面 山城里)¹¹⁾에 위치(位置)하여있다. 한산(漢山)은 통일신라(統一新羅)이후에는 남한산(南漢山)으로 불리다가 조선 광해군(光海君)때에 와서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백제(百濟)가 새로이 도읍(都邑)을 정(定)한 곳에 대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권1 왕전(王傳)편

7) (신증동국여지승람 명문당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227쪽 朔寧, 228쪽 麻田, 230쪽 連川.)

8)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10년 가을 10월 기록)

9)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11년 가을 7월 기록)

10)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15쪽 廣州.)

11)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13년 가을 7월 기록)

및 같은 책(三國遺事)권 2 기이(奇異)편 남부여(南夫餘), 전백(全百)조에서 이도한산(移都漢山)금(今)광주(廣州)라하여 경기도(京畿道)광주(廣州, 一名남한산(南漢山), 한산주(漢山州), 한주(漢州), 회안(淮安), 봉국군(奉國軍). 10)쪽 번호 참조)로 나온다. 한편 홍경모(洪敬模)의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는 온조(溫祚)가 도읍(都邑)한 곳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아니라 광주(廣州, 一名, 남한산(南漢山), 한산주(漢山州), 한주(漢州), 회안(淮安), 봉국군(奉國軍). 10)쪽 번호 참조.)의 고읍(古邑)인 지금의 검단산(黔丹山)아래 이성산성(二城山城, 現 하남시(河南市, 옛 광주(廣州).)이 있던 춘궁동(春宮洞)일대(一帶)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백제왕궁(百濟王宮)터가 발굴(發掘)되어 보존가치(保存價值)가 높은 한성백제(漢城百濟)의 고급문화유적(高級文化遺跡)으로 높이 평가(評價) 받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경기도(京畿道)가 직할관리(直轄管理)하면서 많은 문화유적(文化遺蹟)이 복원(復元)되고 있다.

패하(溍河)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 예성강(禮成江)에 비정(比定)할 수 있다.

※황주목(黃州牧, 고구려시대에는 동홀(冬忽), 一名 우동어홀(于冬於忽)로 불렸다. 신라 헌덕왕(憲德王)때에는 취성군(取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황주(黃州)로 고치었다가 고려군(古寧郡)으로 고쳤다가 다시 황주목(黃州牧)으로 바꾼 지명(地名)이다. 제안(齊安), 용흥(龍興), 성성(聖城), 대룡(大龍), 동울(冬鬱), 대홀(大忽), 천덕군(天德軍)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이름이다.¹²⁾의 평주조(平州條)의 일운 저천(一云 渚江, 삼각주 강)이라고 한 기사(記事)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41 황해도(黃海道)평산도호부(平山都護府, 고구려 때에는 대곡군(大谷郡)一名 다지홀(多知忽)로 불렸는데 옛날 한사군(漢四郡)중에 현토군(玄菟郡)에 속한 땅이며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불렸던 곳이다. 신라가 영풍(永豐)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평주(平州)로 고친 곳이다. 연덕(延德), 동양(東陽)은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있는 지명이다.¹³⁾의 산천 조(山川 條)에 저천(渚川)또는 저탄(渚灘)이라한 기록(記錄)에 의(依)할 때 현재(現在)의 예성강(禮成江)¹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주

12)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2719쪽 黃州, 724平山)

1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2719쪽 黃州, 724平山)

14)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13년 가을 8월 기록)

석(註釋)30참조(參照).

웅천(熊川)

웅천(熊川)의 위천에 대하여서는 충남공주(忠南公州)의 금강(錦江)설과 경기도(京畿道)안성군(安城郡. 고구려 때에는 나혜홀(奈兮忽)로 불렀는데 신라경덕왕(景德王)때에 백성군(白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안성(安城)으로 고쳐 부르고 충청도(忠淸道)에 관할(管轄)이었다가 조선 태종(太宗)13년에 경기도(京畿道)로 이관되었다. 안성에 합병된 죽산(竹山)은 고구려 때에는 죽 개차산군(皆次山郡)으로 불렸다. 신라가 개산군(皆山郡)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太宗)13년에 죽산(竹山)으로 개명(改名)하였다. 일부 합병된 음죽현(陰竹縣)은 고구려때에 노음죽(奴陰竹)으로 불리던 곳이 신라때에 음죽(陰竹)으로 고쳐 개산군에 합병(合併)되었다가 조선 태종(太宗)13년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移屬)되었다.¹⁵⁾)의 안성천(安城川)¹⁶⁾이다. 안성천(安城川)설(說)은 본(本)기사(記事)의 웅천(熊川)을 곰 내로 일컬었고 마한(馬韓)의 맹주국(盟主國)인 목지국(目支國)이 직산, 성환(成歡)지역(地域)에 위치(位置)한 것을 보고 또 안성천(安城川)유역(流域)인 안성군(安城郡. 一名. 나혜홀(奈兮忽), 백성군(白城郡), 죽주(竹州), 개차산(皆次山), 노음죽(奴音竹), 개산(皆山). 15)쪽 번호 참조)의 공도면(孔度面)에 있는 웅천교(熊川橋)가 속칭(俗稱)곰의 다리(고무다리)로 불렸고 안성천(安城川)하류(下流)에 있는 평택(平澤)의 군물진(軍物津)이 군물지진이(군문(軍門)이 나루) 불린다는 사실(事實) 등에 근거(根據)하여 주장(主張)한 것이다.

《이병수(李丙壽), 한국고대사(韓國古代史)연구(研究)1976년 247, 248쪽》 한편 본서에 나오는 웅천을 충남공주지역(忠南公州地域)을 흐르는 금강(錦江)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史實)에 입각(立脚)하여 충남(忠南)공주지방(公州地方)으로 비정(比定)하는 견해(見解)도 있다. 《천관우(千寬宇) 삼한(三韓)의 국가형성(國家形成)하(下). 한국학보(韓國學報)3의 기사1976년.》

1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47쪽 竹山, 167쪽 安城, 180쪽 陽城.)

16)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13년 가을 8월 기록)(稷山)

한강서북성(漢江西北城)

한강(漢江)서북성(西北城)에 대하여서는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大東地志)권(券)3 경기도(京畿道)양주성(楊州城. 고구려 때에는 매성군(買省郡)一名 창화군(昌化郡)으로 불렸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내소(來蘇)라고 부르다가 고려 초에 견주(見州)로 고쳤고 조선태조(太祖)3년에 양주로 개명하였다.¹⁷⁾)의 지조(池條)에 등장(登場)하는 온조(溫祖)14년에 쌓은 성(城)을 양주성(楊州城. 18)一名. 매성(買省), 창화(昌化), 내소(來蘇), 견주(見州). 17)쪽 번호 참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根據)로 하여 이렇게 비정(比定)하였는지는 분명(分明)하지 않다.

칠중하(七重河)

칠중성(七重城)과 관련(關聯)되는 강(江)은 현재(現在)의 임진강(臨陣江)에 비정(比定)된다.

칠중성(七重城)은 본래(本來)고구려(高句麗)의 지명(地名)으로 난음변이(亂音變異)라고 하였는데 신라(新羅)가 중성현(重城縣)으로 고쳤으며 《본서 권35 잡지 지리2 한주(漢州) 내소군(來蘇郡)중성현(重城縣) 조》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파주군(坡州郡, 고구려시대에는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일운(一云) 액봉(嶺蓬), 신라(新羅)경덕왕(景德王)이 파평(坡平)으로 고치고 내소군(來蘇郡)영현(領縣)으로 하였다가 고려 현종(顯宗)때는 장단현(長湍縣)소속이 되었다. 고려 문종(文宗)17년에는 개성부(開城府)소속으로 되었다. 조선조에는 서원군(瑞原郡)소속으로 하였는데 고구려 때의 지명인 술이홀(述尔忽)이었고 신라가 고쳐 부른 봉성(峯城)이었는데 교하군(交河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명종(明宗)때에 서원군(瑞原郡)으로 개명하였고 조선 태조(太祖)2년에 서원과 통합하여 원평(原平)군으로 개명하고 세조(世祖)6년에 왕비의 고향이라서 목(牧)으로 격상하고 이름도 파주(坡州)라 하였다. 파주시와 합병된 교하현(交河縣)의 옛 이름은 천정구(泉井口)인데 일명 굴화(屈火)였는데 신라경덕왕(景德王)이 교하로 고쳤다. 고려 현종(顯宗)때에 양주(楊州)소속으로 하였다. 곡성(曲城), 선성(宣城), 원정(原井)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있다. 파주시와 합병된 또 하나의 현인 적성현(積城縣)은 고구려 때에는 칠중성(七重城)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

1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84쪽 楊州.)

18)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 1 온조왕(溫祚王)14년 기록)

(景德王)이 중성(重城)으로 고쳤다. 내별(乃別)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⁹⁾)의 적성면(積城面)²⁰⁾이다.

구곡(臼谷)

일명(一名)절구곡이라는 구곡(臼谷)을 정약용(丁若用)은 강성고(江城考)권1 낙랑별고(樂浪別考)에서 금(今)소양강(昭陽江)양수(兩水)합(合)금(今)지처(地處)유(有)대촌(大村), 왈(曰)우두(牛頭)기(其)리면(里面)유(有)소위(所謂)맥환(狹園)고허(古墟)차랑(此郎)고락도국(古樂渡國)지(之)유허야(遺墟也)우(又)춘천(春川)남계(南界)수촌(水村)유왈(有曰)아기자(牙子者)역지이문(逆地二門)즉(卽)구곡야(臼谷也)라고 하여 구곡(臼谷)을 방아골로 읽어 춘천(春川)남(南)쪽 경계(境界)인 수촌(水村)의 방아 올로 비정(比定)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京畿道) 양주(楊州. 17)쪽 번호 참조 조선태조(太祖)3년에 양주로 개명하였다.²¹⁾)로 비정하거나 또는 경기도(京畿道)가평(加平. 고려(高麗)현종(顯宗)9년에 춘주도(春州道)에 속(屬)하였다가 조선(朝鮮)태종(太宗)13년에 경기도에 속하게 한 군(郡)이다. 고구려(高句麗)때에는 근평(斤平), 심천현(深川縣), 一云 복사매(伏斯買)로 불리었고 신라(新羅)가 ,준천현(浚川縣), 준수현(浚水縣)으로 고쳐 부르다가, 고려(高麗), 현종(顯宗)때에는 가평(嘉平), 병평(並平), 으로 불렸다.²²⁾)의 구곡역(九谷驛)²³⁾으로 보는 견해(見解)《천관우(千寬宇)삼한(三韓)의 국가형성(國家形成) 하(下) 118쪽》도 있다.

석두성(石頭城)

석두성(石頭城)은 신라(新羅)한주(漢州)토산군(兔山郡)삭읍현(朔邑縣)의 고구려(高句麗)때의 지명(地名)인 소읍두성(所邑豆城)과 음운(音韻)이 비슷하므로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7)쪽 번호 참조 니사파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²⁴⁾)의 삭령면(朔寧面)²⁵⁾일대(一帶)로 비정(比定)할 수 있다. 《이병

19)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92쪽 坡州, 203쪽 積城. 205쪽 交河).

20)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18년 가을 8월 기록).

2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84쪽 楊州. 206쪽 加平,).

22)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84쪽 楊州. 206쪽 加平,).

23)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18년 가을 11월 기록).

24) (신증동국여지승람 명문당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5)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22년 가을 8월 기록).

수(李丙壽)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3556쪽 참조(參照)》

고목성(高木城)

고목성(高木城)은 신라(新羅)한주(漢州)공성현(功成縣)의 고구려(高句麗)때의 지명(地名)인 공목달현(功木達縣)과 음운(音韻)이 비슷하므로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7)쪽 번호 참조²⁶⁾)의 연천읍(連川邑)²⁷⁾에 비정(比定)할 수 있다. 《이병수(李丙壽) 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356쪽. 천관우(千寬宇) 삼향(三韓)의 국가형성(國家形成)하(下)120쪽 참조.》

술천성(述川城)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여주군(驪州郡. 고구려시대에는 골내근현(骨乃斤縣)으로 불렀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황효(黃驍)로 고치고 기천군(沂川郡)의 속현(屬縣)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 황려(黃驪)一名 황리(黃利)로 고쳤고 고려 고종(高宗)이 영의(永義)로 고쳤다가 충렬왕(忠烈王)의 순경왕후(順敬王后)김씨의 고향이라서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昇格)하였다. 우왕(禡王)때에 황려부(黃驪府)로 승격하였다가 공양왕(恭讓王)이 다시 군(郡)으로 강등(降等)시켰다. 조선 태종때에 원경왕후(元敬王后)의 고향이라서 다시 부(府)로 승격(昇格)시키고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移屬)시켰다. 예종(睿宗)원년에 세종대왕(世宗大王)의 능침(陵寢)을 옮기고 여주(驪州)로 개명(改名)하였다. 려강(驪江), 려성(驪城)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지명(地名)이다.²⁸⁾)의 흥천면(興川面)²⁹⁾일대(一帶)인데 이병수(李丙壽)의 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1981년 359쪽 및 천관우(千寬宇)의 삼국(三國)의 국가형성(國家形成) 하(下), 한국학보(韓國學報) 3, 1976년과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35 잡지(雜誌)지리(地理)4 한주(漢州) 술천군(述川郡)은 본(本)고구려(高句麗)술천군(述川郡)으로 나온다. 말갈(靺鞨)은 초고왕(肖古王)49년에도 술천지역(述川地域)을 공격(攻擊)하여 온 기록(記錄)이 있다.

26) (신증동국여지승람 명문당 1994년 8월 10일 중간본230쪽 連川.)

27)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溫祚王) 22년 가을 8월 기록).

28)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25쪽 驪州.)

29)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 40년 가을 9월 기록)

위례성(慰禮城)

백제(百濟)초기(初期)에 도성(都城)인 위례성(慰禮城)의 명칭(名稱) 기원(紀元)에 대해 위례(慰禮)는 “우리” 또는 “울타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성곽(城郭)을 의미(意味)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見解)와 옥리하(郁利河)의 아리 옥리(郁利)가 크다(大)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기원(紀元)하였다고 보는 견해(見解)와 백제(百濟)에서 왕(王)을 가리키는 어라하(於羅瑕)의 어라(於羅)에서 기원(紀元)하였다는 견해(見解)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주석(註釋)30을 참조(參照). 위례성(慰禮城)에는 하북(河北)위례성(慰禮城, 서울시 중랑천 변(中浪川邊)일대(一帶)로 추정(推定)함)과 하남(河南)위례성(慰禮城, 서울시 송파구(松坡區, 옛 광주(廣州)의 오금동(梧琴洞)풍납동(豐納洞)일대(一帶))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기도(京畿道)하남시(河南市, 옛 광주(廣州), 고조선(古朝鮮)의 마지막 왕(王)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지금의 광주시(廣州市)일원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은 진국(辰國)또는 진한(辰韓)이라고 하고 소도읍지(所都邑地)를 회안(淮安)으로 불렀으므로 회안이 최초의 이름이다. 백제 때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렀는데 백제 온조(溫祚)13년에 이도(移都)하면서 위례성(慰禮城)으로 고치고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산주(漢山州)로 고쳤는데 일명(一名)남한산주(南漢山州)로도 불렸다. 신라 경덕왕(景德王)15년에 한주(漢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23년에 광주(廣州)로 고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 성종(成宗)2년에는 봉국군(奉國軍)으로 고쳤다는 기록도 있다.³⁰⁾의 춘궁리(春宮里)³¹⁾일대(一帶)로 비정(比定)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한강(漢江)남쪽으로 정치적(政治的)중심지(中心地)를 옮긴 이후(以後)의 위례성(慰禮城)이라고 한다.

횡악(橫嶽)

현재(現在)의 서울시 삼각산(三角山, 一名 부아악(負兒岳), 적악(赤岳), 적산(赤山), 북한산(北漢山).³²⁾)에 비정(比定)된다.

김정호(金正浩)대동지지(大東地志)한성부(漢城府)산천조(山川條)에 삼각산(三角山)재(在)북(北)십오리(十五里)백제(百濟)칭(稱)부아악(負兒岳)우 운(又云)횡악(橫嶽)우

30)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15쪽 廣州.)

31) (삼국사기 권 제 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 41년 봄 2월 기록).

32)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다루왕(多婁王) 4년 가을 9월 기록).

운(又云)적산(赤山)이라 한 기사 참조(參照).

백제본기(百濟本紀) 진사왕(辰斯王) 7년(309)에 이곳에서 왕(王)이 전렵(田獵)을 하고 진사왕(辰斯王) 11년(402)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것에서 미루어 볼 때 횡악(橫岳)은 한성시기(漢城時期)에 신성지소(神聖支所)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성(北漢山城)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고양시(高陽市, 고구려(高句麗)시대에는 달을성현(達乙省縣)이라 불렀는데 신라(新羅)가 고봉(高峰)으로 고쳤다. 고양(高陽)과 통합된 행주(幸州)는 고구려시대에는 개백(皆백)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우왕(遇王)으로 고쳐 불렀는데 일명(一名)왕봉(王逢)으로도 불렀다. 고려 초에 와서 행주(幸州)로 고쳐서 불렀다. 덕양(德陽)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지명기록이다.³³⁾)의 신도읍(新都邑)북한리(北漢里)³⁴⁾에 위치(位置)하였다. 도성(都城)위례성(慰禮城)을 지키기 위해 축조(築造)하였다. 그러나 과연(果然) 2세기(世紀)전반(前半)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축조(築造)하였는지 의문(疑問)이다.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大東地志)권(券)3, 경기도(京畿道)양주(楊州)고성(古城)조(條)에서 백제(百濟)개루왕(蓋婁王) 5년 축(築)북한산성(北漢山城).....

차성시어백제시(此城始於百濟時)이비백제지도성(而非百濟之都城地)이라고 하여 개루왕(蓋婁王) 5년에 북한산성(北漢山城)축조(築造)설을 부정(否定)하고 있다. 비류왕(沸流王) 24년에는 내신좌평(內臣佐平)우복(于卜)이 이곳을 근거(根據)로 반란(叛亂)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도성(沙道城)

사도성(沙道城)은 음운(音韻)상으로 볼 때 신라(新羅)의 한주(漢州)토산군(兎山郡)삭읍현(朔邑縣)의 옛 지명(地名)인 소읍두현(所邑豆縣), 또는 석두성(石豆城)과 같은 곳으로 생각되는데 이곳을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7)쪽 번호 참조. 또 연천군에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 때에는 마전천(麻田淺)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임단(臨端)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마전으로 고쳤다 니사파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³⁵⁾)의 삭령읍(朔寧邑)³⁶⁾에 해당(該當)된다. 본서(本書)권

3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97쪽 高陽.)

34)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개루왕(蓋婁王) 5년 봄 2월 기록).

(券)37, 주석(註釋) 451, 460 참조(參照).

한천(寒川)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37 잡지(雜誌)지리(地理)4에는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오는데 한천(寒泉)으로 표기(表記)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를 경기도(京畿道)용인시(龍仁市, 고구려시대에는 구성(駒城)一名 멸오(滅烏)로 불렸고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거서(巨黍)로 고려 초에 용구(龍駒)로 개명(改名)하였고 고려 명종(明宗)때에 처인(處仁)으로 바꾸었다. 태종(太宗)13년에 용인으로 개명되었다. 용인에 합병된 양지현(陽智縣)은 양량(陽良)으로 불리다가 양지(陽智)로 바뀐 지명이다. 조선 태종(太宗)13년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移屬)되었다.³⁷⁾ 양산(陽山), 추계(秋溪)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記錄)되어있는 지명(地名)이다.³⁸⁾)가 아닌가? 추론(推論)하는 견해(見解)도 있다.

《이병수(李丙壽)국역(國譯) 삼국사기(三國史記)367쪽 참조》

부산(釜山)

삼국사기(三國史記)권37 잡지(雜誌)지리4에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부산(釜山)은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35, 지리(地理)2 한주(漢州)당은군(唐恩郡)진위현(振威縣)조「振威縣 본(本)고구려(高句麗)부산현(釜山縣)경덕왕(景德王)개명(改名)」에 보이는 부산현(釜山縣)과 같은 곳으로서 현재의 경기도(京畿道)평택시(平澤市, 옛날 지명(地名)은 하팔(河八)이었는데 고려시대에 평택(平澤)으로 고쳤다. 평택(平澤)에 합병(合併)된 진위현(振威縣)은 고구려시대에는 부산현(釜山縣)으로 불리었는데 옛 연달부곡(連達部曲)이었는데 송촌활달(松村活達)로도 불리었다. 신라의 진흥왕(景德王)이 진위현(振威縣)으로 고쳤다. 평택(平澤)에 일부가 합병된 양성현(陽城縣)은 고구려 때에는 사복홀(沙伏忽)이라 불렸고 신라 경덕왕(景德王)때는 적성(赤城)으로 부르다가 고려 초에 양성(陽城)으로 개명(改名)하였다.³⁹⁾ 조선 태조(太祖)7

3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36)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초고왕(肖古王) 45년 봄 2월 기록).

3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71쪽 龍仁, 146쪽 陽智.)

38)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제2 구수왕(仇首王) 16년 겨울 10월 기록)

39)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325쪽 平澤.)

년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관하였다.)에 비정(比定)된다.

독산성(禿山城)

접경지대(接境地帶)인 경기북부(京畿北部)와 황해도(黃海道)남부(南部)방면(方面)의 어느 곳으로 생각되나 자세(仔細)한 위치(位置)는 알 수 없다 이를 경기도(京畿道)화성군(華城郡. 고구려시대에는 당성군(唐城郡)으로 불렀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당은(唐恩)으로 고쳐불렀다. 고려 충렬왕(忠烈王)때에 지익주사(知益州事)로 부르다가 승격(昇格)하여 강령도호부(江寧都護府)로 하였다가 다시 격상(格上)하여 익주목(益州牧)으로 하였다. 충선왕(忠宣王)때에 남양(南陽)으로 개명하였으나 다시 부(府)로 격하(格下)하였다. 영제(寧提), 과포(戈浦)는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는 지명이다.⁴⁰⁾)이 아닐까? 추정(推定)⁴¹⁾하는 견해(見解)도 있다. 오산시라고도 한다. 《이병수(李丙壽) 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 을유문화사(乙酉文化史)1977년 376쪽 참조(參照)》

석현성(石峴城)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37잡지(雜誌)지리(地理)4에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석현성(石峴城)에 위치(位置)에 대하여 한강(漢江)과 임진강(臨陣江)사이에 있던 성(城)으로 보는 견해(見解), 《지내평(池乃宏)의 고구려(高句麗) 멸망(滅亡)후(後)유민(流民)반란(反亂)및 당(唐)신(新)관계(關係), 만선(滿鮮)지리역사(地理歷史)연구보고(研究報告)12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문학부(文學部)1927.》과 현재의 경기도(京畿道)개풍군(開豐郡. 개성(開城)과 해풍(海豐)이 합병된 이름이다. 고구려에서는 부소갑(扶蘇岬)개성군(開城郡)일명 동차홀(冬比忽)로 불렀고 신라는 송악군(松嶽郡)으로 부르다 고려 태조(太祖)2년에 개주(開州)로 고쳐 불렀다. 고려 광종(光宗)11년에 황도(皇都)로 고쳤다. 성종(成宗)14년에 개성부(開城府)로 고쳤다가 현종(顯宗)원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개성부를 폐(廢)하였다가 문종(文宗)16년에 다시 개성부(開城府)로 환원(還元)하였다. 촉막군(蜀莫郡)은 송나라 역사서(歷史書)에 기록된 고려(高麗)왕(王)거(居)개주(開州)촉막군(蜀莫郡)왈(曰)개성부(開城府)의(依)대산(大山)치(置)궁실(宮室)입(立)성벽명(城壁名)기산(其山)왈(曰)신숭(神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동국여지승람군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다. 합병된 풍덕군은 고구려 때에는

40)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58쪽 南陽.)

41)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古爾王) 16년 봄 2월 기록)

정주(貞洲)로 불렀고 고려 현종(顯宗)9년에 개성현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3년에는 승천부(昇天府)로 격상(格上)하고 충선왕(忠宣王)2년에 해풍군(海豐郡)으로 격하(格下)하였다. 하원(河源)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실려 있다.⁴²⁾)의 청석동(靑石洞)⁴³⁾으로 보는 견해(見解), 《이병수(李丙壽) 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380쪽.》등이 있다. 한편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권(券)18에는 석현성(石峴城)을 황해도(黃海道)곡산(谷山)서남(西南)이십(二十)리(里)지점(地點)으로 보고 있다.

관미성(關彌城)

백제(百濟)의 북방요충지(北方要衝地)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 37 잡지(雜誌)지리(地理)4,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실려 있다. 이 관미성(關彌城)은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에 보이는 각미성(閣彌城)과 동일(同一)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18,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즉위년(卽位年. 391)조에는 기성(其成)사면(四面)순절(純絶)해수환요(海水環繞)로 나온다. 이 관미성(關彌城)의 위치(位置)에 대해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권18 교하(交河)성지조(城址條)에는 오두성(烏頭城), 임진한수화합처(臨陣漢水和合處) 본(本)백제(百濟)관미성(關彌城)주여진(州如津)칠십이척(七十二尺)사면순절(四面純絶)유동연산록(有洞連山麓)삼면환(三面環)이 해수(海水)라 하여 경기도(京畿道)파주시(坡州市). 고구려시대에는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일운(一云)액봉(額蓬), 신라(新羅)경덕왕(景德王)이 파평(坡平)으로 고치고 내소군(來蘇郡)영현(領縣)으로 하였다가 고려 현종(顯宗)때는 장단현(長湍縣)소속이 되었다. 고려 문종(文宗)17년에는 개성부(開城府)소속으로 되었다. 조선조에는 서원군(瑞原郡)소속으로 하였는데 고구려 때의 지명인 술이홀(述尔忽)이었고 신라가 고쳐 부른 봉성(峯城)이었는데 교하군(交河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명종(明宗)때에 서원군(瑞原郡)으로 개명하였고 조선 태조(太祖)2년에 서원과 통합하여 원평(原平)군으로 개명하고 세조(世祖)6년에 왕비의 고향이라서 목(牧)으로 격상하고 이름도 파주(坡州)라 하였다. 파주시와 합병된 교하현(交河縣)의 옛 이름은 천정구(泉井口)인데 일명 굴화(屈火)였는데 신라경덕왕(景德王)이 교하로 고쳤다. 고려 현종(顯宗)때에 양주(楊州)소속으로 하였다. 곡성(曲城). 선성(宣

42)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88쪽, 102쪽 開城府.)

43)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8년 가을 7월 기록).

城), 원정(原井)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있다. 파주시와 합병된 또 하나의 현인 적성현(積城縣)은 고구려 때에는 칠중성(七重城)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중성(重城)으로 고쳤다. 내별(乃別)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⁴⁴⁾)의 교하읍(交河邑)⁴⁵⁾에 비정(比定)하고 있다. 이외(以外)에 관미성(關彌城)을 비정(比定)한 설(說)로는 경기도(京畿道)에 예속(隸屬)되어있던 현(現)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강화군(江華郡. 一名. 혈구(穴口), 갑비고차(甲比古次), 해구(海口), 강도(江都).⁴⁶⁾)의 교동도(橋洞島)⁴⁷⁾로 추론(推論)하는 견해(見解)《이병수(李丙壽)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380쪽,》 또 예성강(禮成江)중류(中流)남안(南岸)으로 추정(推定)되는 관미령(關彌嶺)에 축조(築造)된 성(城)으로 보는 견해(見解). 《이도학(李道學), 백제(百濟)관미성(關彌城)에 관(關)한 일고찰(一考察)》과 《가야통신(伽倻通信)19. 20 합집(合集)1990》등이 있다.

청목령(靑木嶺)

명칭(名稱)에서 미루어 볼 때 청목산(靑木山)과 연관(聯關)된다. 청목산(靑木山)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4 개성부(開城府)산천조(山川條)에는 송악(松嶽)재부(在府)북(北) 오리진산(烏利眞山)초명(初名)부소(扶蘇)우(又)초곡령(稍鶴嶺)안(按)백제시조십년백제군패(百濟始祖十年百濟軍敗績)의(依)청목산(靑木山)자보(自保)적내퇴(敵乃退)소위(所謂)청목산(靑木山)의랑차(疑郎此)라 하여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개성시(開城市. 42)쪽번호 참조. 촉막군(蜀莫郡)은 송나라 역사서(歷史書)에 고려(高麗)왕(王)거(居)개주(開州)촉막군(蜀莫郡)왈(曰)개성부(開城府)의(依)대산(大山)치(置)궁실(宮室)입(立)성벽명(城壁名)기산(其山)왈(曰)신숭(神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동국여지승람군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다. 합병된 풍덕군은 고구려 때에는 정주(貞洲)로 불렸고 고려 현종(顯宗)9년에 개성현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3년에는 승천부(昇天府)로 격상(格上)하고 충선왕(忠宣王)2년에 해풍군(海豐郡)으로 격하(格下)하였다. 하원(河源)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실려 있다.⁴⁸⁾)의 송악산(松嶽山)⁴⁹⁾에 비정(比定)하

44)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0192쪽 坡州, 203쪽積城 205쪽 交河.)

45)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8년 겨울 10월 기록).

46)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25쪽 江華, 232쪽 喬桐.)

47)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辰斯王) 8년 겨울 10월 기록).

고 있다. 한편 안정복(安鼎福)은 동사강목(東史綱目)제1 상 임나마한(任那馬韓)백제(百濟)시조(始祖)10년 조에 개성(開城)서북(西北)의 청석동(靑石洞)현재 경기도(京畿道)개풍군(開豐郡)의 영남면(嶺南面)천마산(天馬山)⁵⁰⁾으로 비정(比定)하였다.

옥리하(郁里河)

지금의 한강(漢江)을 말한다 한강(漢江)에 대한 표기(表記)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옥리하(郁里河)외에 한수(漢水)와 한강(漢江)이 나오고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에는 아리수(阿利水)로 나온다. 옥리하(郁里河)의 옥리(郁里)는 아리(阿利)와 음(音)이 유사(類似)하다.

한강(漢江)에 대하여는 경기도(京畿道)내에 북한강(北漢江)은 가평(加平, 고구려시대에는 근평군(斤平郡)一名 병평(並平)으로 불리었고 신라때 경덕왕(景德王)이 가평(嘉平)으로 개명(改名)하였다.⁵¹⁾)에서 흘러들어오고 남한강(南漢江)은 여주(驪州, 28)쪽 번호 참조. 외 려강(驪江), 려성(驪城)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지명(地名)이다.⁵²⁾)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다.

승산(崇山)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37 잡지(雜志)지리(地理)4에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에 실려 있다.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하남시(河南市). 옛 광주(廣州, 고조선(古朝鮮)의 마지막 왕(王)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지금의 광주시(廣州市)일원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은 진국(辰國)또는 진한(辰韓)이라고 하고 소도읍지(所都邑地)를 회안(淮安)으로 불렀으므로 회안이 최초의 이름이다. 백제 때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렀는데 백제 온조(溫祚)13년에 이도(移都)하면서 위례성(慰禮城)으로 고치고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산주(漢山州)로 고쳤는데 일명(一名)남한산주(南漢山州)로도 불렸다. 신라 경덕왕(景德王)15년에 한주(漢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23년에 광주(廣州)로 고쳐

48)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88쪽, 102쪽 開城府.)

49)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아신왕(아신왕) 4년 겨울 11월 기록).

50)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아신왕(아신왕) 4년 겨울 11월 기록).

5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6쪽 加平, 125쪽 驪州.).

52)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蓋鹵王) 21년 기록).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 성종(成宗)2년에는 봉국군(奉國軍)으로 고쳤다는 기록도 있다.⁵³⁾)의 동남방(東南方)의 검단산(黔丹山)⁵⁴⁾에 비정(比定)된다. 이곳은 조선 초기(朝鮮初期)에 여러 왕들이 천제(天祭)와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기록(記錄)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명산(名山)이다. 태종(太宗)14년 3월 18일에는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이튿날인 3월 19일에는 사냥을 하였는데 사슴(鹿)을 8마리를 왕이 손수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종(太宗)17년 3월 24일⁵⁵⁾에도 상왕(上王)인 태조(太祖)와 사냥하였고 세종(世宗)1년 2월 27일에는 사냥을 위한 물이꾼으로 군사(軍士)4000명을 동원(動員)한 기록(記錄)과 세종(世宗)4년 3월 20일에는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이 함께 세 왕(王)이 사냥을 하였는데 태상왕(太上王)이 사슴(鹿)4마리를 잡았다. 세종(世宗)7년 9월 28일⁵⁶⁾에는 세종(世宗)이 친(親)히 사슴 한 마리를 잡았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광주(廣州), 교하(交河), 죽산(竹山), 음성(陰城)등 4곳의 검단산 중에 광주(廣州)의 검단산이 신령하여 진산(鎭山)으로도 불렸다는 기록(記錄)도 있다. 성종(成宗)1년 4월 23일⁵⁷⁾에는 검단산(黔丹山)에서 물이하여 사냥을 하면 비가 내린다고 하였으니 물이하였다는 기록(記錄)도 있음으로 보아 검단산(黔丹山)의 신성(神聖)스럽고 영험(靈驗)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냥은 군사훈련(軍事訓練)의 일환(一環)이었으므로 신성(神聖)하고 산자수명(山紫水明)한 명산(名山)을 가려 훈련(訓練)하였던 것을 감안(勘案)하면 검단산(黔丹山)의 위명(威名)은 더할 나위없는 것이다. 《이병수(李丙壽)국역(國譯)삼국사기(三國史記)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1977 393쪽》.

북성(北城)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依)하면 백제왕성(百濟王城)은 북성(北城)과 남성(南城)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백제(百濟)의 왕성(王城)에 대하여서는 몽촌토성(夢村土城)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다. 왕성(王城)이 몽촌토성(夢村土城)일 경우 몽촌토성(夢村土城)의 북쪽에 있는 풍납동(風納洞) 토성(土城)이 북성(北城)에 비정

5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15쪽, 廣州.).

54)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蓋鹵王) 21년 기록).

55)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원전2집 155면).

56)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원전2집 693면).

57)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원전3집 490면).

(比定)될 수 있겠다. 서기 475년에 고구려(高句麗)장수왕(長壽王)이 남침(南侵)하여 북성(北城)을 쳐서 빼앗고 개로왕(蓋鹵王)이 도주(逃走)하여 머물던 남성(南城)을 쳐서 함락(陷落)시키고 남문(南門)으로 빠져나가 지금의 성남시(城南市)수정구(壽井區)창곡동(倉谷洞)에 있던 세자궁(世子宮)으로 피신(避身)하려다가 잡혀 죽은 기록(記錄)이 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본기(百濟本紀)개로왕(蓋鹵王)편에 나오는 것이므로 확인(確認)이 가능(可能)한 것이다. 옛 경기도(京畿道)광주군(廣州郡, 고조선(古朝鮮)의 마지막 왕(王)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지금의 광주시(廣州市)일원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은 진국(辰國)또는 진한(辰韓)이라고 하고 소도읍지(所都邑地)를 회안(淮安)으로 불렀으므로 회안이 최초의 이름이다. 백제 때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렀는데 백제 온조(溫祚)13년에 이도(移都)하면서 위례성(慰禮城)으로 고치고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산주(漢山州)로 고쳤는데 일명(一名)남한산주(南漢山州)로도 불렸다. 신라 경덕왕(景德王)15년에 한주(漢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23년에 광주(廣州)로 고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 성종(成宗)2년에는 봉국군(奉國軍)으로 고쳤다는 기록도 있다.⁵⁸⁾)의 구천면(龜川面)인 바람드리(豐納里,) 現서울시 송파구(松坡區, 옛 광주(廣州))풍납동(豐納洞)⁵⁹⁾에 속(屬)하였던 몽촌토성(夢村土城)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大學校)박물관(博物館)에 《몽촌토성(夢村土城)-동부지구(東部地區)발굴보고서(發掘報告書)1997참조》한편 풍납토성(風納土城)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大學校)고고인류학과(古古人類學科)의 《풍납리(風納里)지(址)포함(包含)조사보고(調查報告), 서울대학교(大學校)고고인류학(古古人類學) 총간(叢刊) 제(第)3책(冊) 1967 참조(參照)》 그런데 근간(近刊)에 풍납토성(風納土城)내부(內部)의 발굴결과(發掘結果)백제시대(百濟時代)의 주거지(住居地)등의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되고 있어 향후(向後)의 연구(研究)가 기대(期待)된다.

남성(南城)

여기에서의 남성(南城)은 왕(王)이 살고 있던 거성(居城)을 말한다. 앞의 주석(註釋)130에서 언급(言及)한 것처럼 북성(北城)이 풍납토성(風納土城)이라면 남성(南城)은 경기도(京畿道)광주군(廣州郡, 10)쪽, 번호 참조.)의 중대면(中垔面)에 있던 몽

58)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15쪽 廣州.)

59)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蓋鹵王) 21년 기록).

촌토성(夢村土城)에 비정(比定)할 수 있다. 몽촌토성은 현재의 서울시 송파구(松坡區, 옛 광주(廣州).⁶⁰⁾)의 방이동(芳夷洞)⁶¹⁾ 일대에 걸쳐있다. 한편 일본사기(日本史記)권(券)14 웅략기(雄略記)20년 조(條)에 백제기(百濟記)운(云)개로왕(蓋鹵王)25년 향동대(降冬戴)대군래공(大軍來攻)대성(大城)칠일칠야(七日七夜)왕성(王城)향함(降陷)수실위례(遂失尉禮)라 하여 대성왕성위례(大城王城尉禮)가 보인다. 여기에 지칭(指稱)하는 대성(大城)은 바로 왕성(王城)이며 북성(北城)과 남성(南城)을 합하여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례(尉禮)는 도성(都城)을 지칭(指稱)하는 말이다. 한성시기(漢城時期)의 백제(百濟)의 도성구조(都城構造)에 대해서는 《김기섭(金起燮)의 백제전기(百濟前期)도성(都城)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청계사학(淸溪史學)7 1990참조》.

아차성(阿且城)

아차산성(阿且山城)으로 불리던 아차성(阿且城)은 고구려(高句麗)장수왕(長壽王)이 서기 475년에 남침(南侵)하여 한수유역(漢水流域)의 기름진 백제(百濟)땅을 취(取)하고 점령지(占領地)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고구려(高句麗)의 마지막 보루(堡壘)였다고 전(傳)해오고 있는데 옛 경기도(京畿道)고양군(高陽郡, 33쪽 번호 참조.) 덕양(德陽)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지명기록이다.⁶²⁾.)의 뚝도(斗島)면 중곡리(中谷里)⁶³⁾로 지금의 서울시 광진구(廣津區)중곡동(中谷洞)의 아차산성(阿且山城)을 말한다. 아차산성(阿且山城)은 몇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發掘調査)되어 각종유물(各種遺物)과 당시(當時)의 보루(堡壘)의 원형(原形)이 발굴(發掘)되었다. 사적(史蹟)234호로 지정(指定)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24 주석(註釋)참조.》

한산성(漢山城)

한성(漢城)이라고도 하였는데 백제(百濟)가 한성(漢城)에 도읍(都邑)을 정(定)하고 있을 때에는 한산성(漢山城)은 경기도(京畿道)광주시(廣州市, 고조선(古朝鮮)의 마지막 왕(王)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지금의 광주시(廣州市) 일원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은 진국(辰國)또는 진한(辰韓)이라고 하고 소도읍지(所

60)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15쪽 廣州.)

61)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蓋鹵王) 21년 기록).

62)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97쪽 高陽.)

63) (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蓋鹵王) 21년 기록).

都邑地)를 회안(淮安)으로 불렀으므로 회안이 최초의 이름이다. 백제 때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렀는데 백제 온조(溫祚)13년에 이도(移都)하면서 위례성(慰禮城)으로 고치고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산주(漢山州)로 고쳤는데 일명(一名)남한산주(南漢山州)로도 불렸다. 신라 경덕왕(景德王)15년에 한주(漢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23년에 광주(廣州)로 고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 성종(成宗)2년에는 봉국군(奉國軍)으로 고쳤다는 기록도 있다.⁶⁴⁾)의 중부면(中部面)⁶⁵⁾의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가리킨다. 그런데 공주(公州)로 수도(首都)를 옮긴 이후(以後)에는 아산만(牙山灣)에서 영덕(盈德)을 잇는 지역(地域)의 북쪽은 고구려(高句麗)의 영토(領土)가 되었기 때문에 시대(時代)에 따라서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만 비정(比定)할 수만은 없다. 민호(民戶)를 옮겨 살게 한 기록(記錄)의 한산성(漢山城)은 웅진(雄鎭)천도(遷都)후에 옮겨진 한성(漢城)의 위치(位置)는 위례성(慰禮城)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오는 충남(忠南)천안시(天安市)직산(稷山)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권(券)16, 직산현(稷山縣)건치연혁(建置年革)으로 비정(比定)하는 견해(見解)도 있다. 《이기백(李基白) 웅진시대(雄津時代)백제(百濟)의 귀족세력(貴族勢力) 백제연구지식산업사(百濟研究知識産業社)1962. 38-39쪽》

마수책(馬首柵)

백제(百濟)가 한성(漢城)에 도읍(都邑)을 하고 있을 당시(當時)에도 보이는 지명(地名)으로서 고구려(高句麗)의 마홀군(馬忽郡,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포천군(抱川郡, 고구려시대에는 마홀(馬忽)로 부르고 신라가 견성군(堅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포주(抱州)로 고쳤다. 명지(命旨)와 청화(淸化)는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 포천과 합병된 영평(永平)의 옛 이름은 고구려시대에는 양골(梁骨)로 불렀는데 신라가 동음현(洞陰縣)으로 하여 견성군(堅城郡)에 속현으로 하였고 고려 예종(睿宗)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후에 위사공신(衛社功臣)강윤소(康允紹)의 고향이라서 영흥현(永興縣)승격시켰다. ⁶⁶⁾의 군내면지역(郡內面地域)⁶⁷⁾으로 비정(比定)된다.

그러나 웅진(雄津)천도이후(遷都以後)에는 마수책(馬首柵)의 위치(位置)는 알 수 없

64)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15쪽 廣州.)

65)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동성왕(東城王) 4년 가을 9월 기록).

66)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2쪽 抱川, 200쪽 永平)

67)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무령왕(武寧王) 3년 가을 9월 기록).

다. 이 지명(地名)도 남천(南遷)후에 한성지역(漢城地域)의 지명을 그대로 이치(移置)하여 사용(使用)한 결과(結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고목성(高木城)

마수성(馬首城)과 함께 백제(百濟)가 한성(漢城)에 도읍(都邑)을 하고 있을 당시(當時)에도 보이는 지명(地名)이다. 한성(漢城)에 도읍(都邑)할 당시의 고목성(高木城)은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고구려 때에는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불렀는데 일명(一名)웅섬산(雄閃山)으로도 불렀다. 신라 때에는 공성(功城)으로 고쳐서 철성군(鐵城郡)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때에 장주(漳州)로 고쳤는데 장주(獐州)로도 쓰였다. 고려 충선왕(忠宣王)때에 연천현(連川縣)으로 고쳤다. 연주(連州), 장연(獐涓)은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이다. 연천(連川)에 통합된 삭령(朔寧縣)은 고구려 때에는 소읍두현(所邑豆縣)과 승량현(僧梁縣, 일명 비물(非勿).)으로 부르다가 신라가 삭읍(朔邑)과 동량(幢梁)으로 고쳐 불렀다. 고려시대에 승령(僧寧)과 삭령(朔寧)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또 연천군에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 때에는 마전천(麻田淺)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임단(臨湍)으로 고치고 고려초에 마전으로 고쳤다. 니사파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⁶⁸⁾)의 연천읍(連川邑)⁶⁹⁾이다. 그러나 웅진(雄津)으로 도읍(都邑)을 옮긴 이후에 고목성(高木城)의 위치(位置)는 알 수 없다.

장령성(長嶺城)

고목성(高木城)과 함께 말갈(靺鞨)의 침입(侵入)에 대비(對備)하여 쌓았다고 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백제(百濟)한성(漢城)에 도읍(都邑)을 정(定)할 당시(當時)의 장령성(長嶺城)은 고목성(高木城)의 남쪽 방면(方面)은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⁷⁰⁾)의 연천읍(連川邑)의 어느 지점(地點)⁷¹⁾으로 비정(地點)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장령성(長嶺城) 또한 웅진천도(熊津遷都)이후(以後)의 위치(位置)에 대하여서는 비정(比定)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68)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69)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무령왕(武寧王) 3년 가을 9월 기록).

70)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71)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무령왕(武寧王) 7년 여름 5월 기록).

한성(漢城)

백제(百濟)가 한강유역(漢江流域)에 도읍(都邑)을 하고 있을 당시(當時)의 수도(首都)의 명칭(名稱)이다. 현재 경기도(京畿道)광주시(廣州市, 고조선(古朝鮮)의 마지막 왕(王)인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지금의 광주시(廣州市)일원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이름은 진국(辰國)또는 진한(辰韓)이라고 하고 소도읍지(所都邑地)를 회안(淮安)으로 불렀으므로 회안이 최초의 이름이다. 백제 때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불렀는데 백제 온조(溫祚)13년에 이도(移都)하면서 위례성(慰禮城)으로 고치고 근초고왕(近肖古王)때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한산주(漢山州)로 고쳤는데 일명(一名)남한산주(南漢山州)로도 불렸다. 신라 경덕왕(景德王)15년에 한주(漢州)로 고쳤고 고려 태조(太祖)23년에 광주(廣州)로 고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 성종(成宗)2년에는 봉국군(奉國軍)으로 고쳤다는 기록도 있다.⁷²⁾)의 중부면(中部面)산성리(山城里)에 있는 남한산성(南漢山城)⁷³⁾이다. 그러나 수도(首都)한성(漢城)은 개로왕(蓋鹵王)이 장수왕(長壽王)의 군대(軍隊)에 의해 패배(敗北)하고 전사(戰死)함으로서 고구려(高句麗)의 영역(領域)이 되었다. 그러므로 백제(百濟)가 웅진(雄津)으로 도읍(都邑)을 옮긴 이후의 한성(漢城)의 위치(位置)가 어디인지는 분명(分明)히 하기 어렵다. 이를 충남(忠南)천안시(天安市)직산(稷山)위례성(慰禮城)으로 보는 견해(見解)도 있다.

《이기백(李基白)웅진시대(熊津時代)백제(百濟)의 귀족세력(貴族勢力)백제연구(百濟研究)지식(知識)산업사(產業社), 1978 참조》

신책(新柵)

신라(新羅)진흥왕(眞興王)이 553년에 백제(百濟)의 한강유역(漢江流域)을 점령(占領)한 이후 새로이 설치(設置)한 주(州)이다. 동일(同一)한 내용이 삼국사기(三國史記)권4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진흥왕(眞興王) 14년(553)조 에는 추(秋)칠월(七月)취(取)백제(百濟)동북면(東北面)치신주(置新州) 이 아수(我首)무력(武力)위(爲)군주(軍主)로 나온다. 이때 설치(設置)된 신주(新州)는 남천주(南川州, 경기도(京畿道)이천시(利川市, 고구려시대에는 남천현(南川縣)으로 불렀는데 신라의 진흥왕(眞興王)이 군주(軍主)를 두었다가 경덕왕(景德王)이 황무(黃武), 로 고쳤다. 고려태조(高麗太祖)

72)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15쪽 廣州.)

73) (삼국사기 권 제26 백제본기 제4 무령왕(武寧王) 3년 겨울 10월 기록).

왕건(王建)이 남정(南征)할 때에 이천(利川)서씨(徐氏)의 시조(始祖)가 된 서목(徐穆)이 물길을 잘 인도하여 이로움(利)을 얻었다고 하여 이천(利川郡)으로 승격(昇格)개명(改名)하였다. 고려 고종(高宗)44년에 영창군(永昌郡)으로 고쳤다. 고려 공양왕(恭讓王)이 조비(祖妣)의 고향이라고 하여 남천군(南川郡)으로 고쳤다가 조선 태조(太祖)2년에 다시 이천(利川)으로 고치고 현(縣)으로 격하(格下)되었다. 세종(世宗)13년에 지현사(知縣事)를 두었다가 세종(世宗)26년에 천호(千戶)이상에는 도호부사(都護府使)를 두던 전례(前例)로 인하여 도호부사(都護府使)로 격상(格上)시켰다. 남매(南買)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⁷⁴⁾ 이천(利川)에 일부 합병(合併)된 음죽현(陰竹縣)은 고구려시대에는 노음죽현(奴音竹縣)이었는데 신라가 개산(介山)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충청도(忠淸道) 충주(忠州)로 이속(移屬)시켰다가 조선 태종(太宗)13년에 경기도(京畿道)로 이속(移屬)되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설성(雪城)⁷⁵⁾은 이천시(利川市)에 편입(編入)되었다.)와 북한산주(北漢山州. 현재(現在)의 서울시, 옛 漢山州)이다.

경기도(京畿道)광주시(廣州市. 10)쪽 번호 참조.) 현재의 경기도(京畿道)하남시(河南市. 옛 광주(廣州).⁷⁶⁾)의 춘궁동(春宮洞)일원(一圓)⁷⁷⁾으로 치폐(置廢)를 거듭 반복(反復)하였다. 신라(新羅)진흥왕(眞興王)의 신주(新州)설치과정(設置課程)은 다음과 같다. 백제(百濟)의 성왕(聖王)은 재위(在位)29년(551)에 고구려(高句麗)에게 빼앗긴 한강유역(漢江流域)을 회복(回復)하기 위해 신라군(新羅軍), 가야군(伽倻軍)과 연합(聯合)하여 고구려(高句麗)를 공격(攻擊)하였다. 이 싸움에서 백제(百濟)는 한성(漢城)과 평양(平壤)을 비롯하여 6군(郡)을 회복(回復)하였다. 《일본기(日本記)권(券)19 흥명기(欽命記)12년 조(條)에 시세(是歲)백제성명왕(百濟聖明王)친솔(親率叢及)이국병(二國兵)이국(二國)신라(新羅)임나(任那)야(也)정벌(征伐)고구려(高句麗)획(獲)한성지(漢城地之)우진군토평양(又進軍討平壤)범 육군지야(範陸軍地也)수복고야(收復古也)라고 한 기사(記事)참조(參照).》

신라(新羅)는 죽령(竹嶺)이외(以外)고현(古峴)이내(以內)의 10군(郡)을 차지(此地)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44, 열전(烈傳)거칠부전(巨柒夫傳)에 <12년 신미(辛未)왕

74)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39쪽 利川.)

75)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제5 성왕 31년 가을 7월 기록).

76)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15쪽 廣州.)

77)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제5 성왕 31년 가을 7월 기록).

명(王命)거칠부(巨柒夫). 위(爲)구진(仇珍)대각수(大角樹), 각찬(角餐), 비태(比台), 잡찬(雜餐) 탐지(耽知), 잡찬(雜餐) 비서(比西), 파진찬(把眞餐)노부(奴夫), 파진찬(把眞餐)서력부(西力夫) 대아찬(大阿餐)비차부(比次夫), 아찬(阿餐)미진부(未珍夫)등 팔장군(八將軍)여(余)백제침(百濟侵)고구려(高句麗)백제인(百濟人)선공(先攻)파(破)평양(平壤)거칠부(巨柒夫)등 승승(勝勝)취(取)죽령(竹嶺)이외(以外)고현(古峴)10군(郡)이라 한 기사(記事)참조.》 그러나 553년에 진흥왕(眞興王)은 군사(軍士)를 돌이켜 백제(百濟)가 점령(占領)한 지역(地域)마저도 차지(此地)하여 여기에 신주(新州)를 두고 아찬(阿餐)김무력(金武力)을 신주도행군총관(新州道行軍總管)이라는 직함(職銜)을 주고 군주(軍主)로 삼아 다스리도록 하였다.

석두성(石頭城)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제(第)37, 잡지(雜誌)지리(地理)4에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支分)에 나오는 석두성(石頭城)은 온조왕(溫祖王)22년에도 나오는데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7)쪽 번호 참조.) 또 연천군에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 때에는 마전천(麻田淺)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임단(臨湍)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마전(麻田)으로 고쳤다 니사과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⁷⁸⁾)의 삭령면(朔寧面⁷⁹⁾)일대(一帶)로 비정(比定)된다.(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23, 주석(註釋) 71 참조(參照)) 그러나 백제(百濟)가 남천이후(南遷以後)의 석두성(石頭城)의 위치(位置)는 알 수 없다.

가잠성(假岑城)

가잠성(假岑城)은 신라(新羅)의 한주(漢州)개산군(介山郡)의 옛 지명(地名)인 개차산군(介次山郡)과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안성군(安城郡). 고구려 때에는 나혜홀(奈兮忽)로 불렀는데 신라경덕왕(景德王)때에 백성군(白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안성(安城)으로 고쳐 부르고 충청도(忠淸道)에 관할(管轄)이었던가 조선 태종(太宗)13년에 경기도(京畿道)로 이관되었다. 안성에 합병된 죽산(竹山)은 고구려 때에는 죽 개차산군(皆次山郡)으로 불렸다. 신라가 개산군(皆山郡)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죽주(竹州)로 고쳤다가 조선 태종(太宗)13년에 죽산(竹山)으로 개명

78)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79) (삼국사기 권 제27 백제본기 제5 무왕(武王) 8년 여름 5월 기록).

(改名)하였다. 일부 합병된 음죽현(陰竹縣)은 고구려때에 노음죽(奴陰竹)으로 불리던 곳이 신라때에 음죽(陰竹)으로 고쳐 개산군에 합병(合併)되었다가 조선 태종(太宗)13년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移屬)되었다.⁸⁰⁾)의 죽산면(竹山面)⁸¹⁾에 비정(比定)할 수 있다. 무왕(武王)12년에는 가잠성을 공격(攻擊)하여 신라장수(新羅將帥)찬덕(讚德)을 죽이고 성을 함락(陷落)시켜 백제 영토(百濟領土)로 만들었으나 무왕(武王)29년⁸²⁾에 신라(新羅)의 공격(攻擊)을 받아 빼앗긴 성(城)이다. 《김봉식(金奉植), 〈백제(百濟)의 가야지역(伽倻地域)관계사(關係史): 교섭(交涉)과 정복(征服)〉 〈백제(百濟)의 중앙(中央)과 지방(地方)〉 〈백제연구논총(百濟研究論叢)5집(集)〉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백제연구소(百濟研究所)1977. 77쪽》이를 현재(現在)의 충북괴산군(忠北槐山郡)으로 보는 견해(見解)《정상수웅(井上秀雄)삼국사기(三國史記). 118쪽》도 있다.

가봉성(假峰城)

가봉성(假峰城)은 삼국사기(三國史記)권 47 열전 해론전(奚論傳)에 가잠성(假岑城)이 나오는데 같은 성(城)으로 생각되므로 이명동성(異名同城)으로 본다. 가잠성(假岑城)을 현재의 경기도(京畿道)안성군(安城郡. 15)쪽 번호 참조.)의 죽산면(竹山面)에 비정(比定)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券)37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의 주석(註釋)74 참조(參照).

당항성(黨項城)

오늘의 경기도(京畿道)화성시(華城市. 40)쪽 번호 참조.)령제(寧提)와 과포(戈浦)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는 지명이다.⁸³⁾)의 남양면(南陽面)⁸⁴⁾지방(地方)에 비정(比定)된다. 중국(中國)과 통교(通交)하는데 중요(重要)한 요충지(要衝地)였다. 신당서(新唐書)권 220 백제전(百濟傳)에는 당(黨)이 당(棠)으로 표기(表記)되어 있다. 이 지역(地域)은 본래(本來)백제지역(百濟地域)이었는데 고구려(高句麗)장

80)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67쪽 安城. 180쪽 陽城片).

81) (삼국사기 권 제27 백제본기 제5무왕 12년 겨울10월 기록).

82) (삼국사기 권제 27 백제본기 제5 무왕12년, 무왕29년 기록).

8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58쪽 南陽).

84) (삼국사기 권 제28 백제본기 제6 의자왕(義慈王) 3년 겨울 11월 기록).

수왕(長壽王)이 서기475년에 한성(漢城)을 점령(占領)하면서 당성군(堂城郡)으로 하였고 후일(後日)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이 이곳을 차지(此地)한 후 경덕왕(景德王)이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다. 삼국사기(三國史記)35 잡지(雜誌)지리(地理)2, 한주(漢州)당은군(唐恩郡)편(偏)에 당은군(唐恩郡)본(本)고구려(高句麗)당성군(堂城郡)경덕왕(景德王)개명(改名)금(今)복고(復古)라 한 기사(記事) 참조(參照).

덕물도(德物島)

백제(百濟)가 망(亡)한 년대(年代)인 의자왕(義慈王)20년에 등장(登場)하는 덕물도(德物島)는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웅진군(甕津郡. 고구려시대에는 웅천(瓮遷)으로 불리었는데 고려 초에 웅진(瓮津)으로 고쳤다. 현종(顯宗)때에 이르러 현령(縣令)을 두었다. 조선 태조(太祖)6년에 병마사(兵馬使)겸 판현사(判縣事)를 두었다. 세종(世宗)5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다가 다시 현령(縣令)으로 바꾸었다. 웅진(甕津)과 일부가 합병(合併)된 장연현(長淵縣)은 고구려시대부터 장연(長淵)으로 불리었고 신라와 고려 때에도 장연으로 불렸다. 현종(顯宗)때에 웅진현(瓮津縣)의 속현(屬縣)으로 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조원년에 만호(萬戶)를 두었고 태종(太宗)2년에는 병마사(兵馬使)겸 판현사(判縣事)를 두었고 영강현(永江縣)과 병합(併合)하여 연강현(淵康縣)으로 고쳤다가 다시 각각(各各)의 원명(原名)으로 정리하였다. 세종(世宗)5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면서 현감(縣監)을 두었다.⁸⁵⁾)의 덕적도(德積島)⁸⁶⁾이다.

2)지리(地理)

경기지역(京畿地域)내의 옛 지명(地名)이 상당히 많이 기록(記錄)되어 있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記錄)중 신라(新羅)의 한주(漢州)소속(所屬)의 주현(州縣)의 지명내용(地名內用)을 전부(全部)옳기지 않고 지명(地名)만을 상고(詳考)함을 양해(諒解)하여 주기 바란다.

◎소(騎)천군(川郡)

고구려(高句麗)에서는 술천군(述川郡)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천녕군(川寧

8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771쪽 甕津. 777쪽 長淵.).

86) (삼국사기 권 제28 백제본기 제6 의자왕(義慈王) 20년 여름 6월 기록).

郡)이라 불렸던 곳은 지금의 경기도(京畿道)여주군(驪州郡. 고구려시대에는 골내근현(骨乃斤縣)으로 불렸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황효(黃驍)로 고치고 기천군(沂川郡)의 속현(屬縣)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 황려(黃驪)一名 황리(黃利)로 고쳤고 고려 고종(高宗)이 영의(永義)로 고쳤다가 충렬왕(忠烈王)의 순경왕후(順敬王后)김씨의 고향이라서 여흥군(驪興郡)으로 승격(昇格)하였다. 우왕(禡王)때에 황려부(黃驪府)로 승격하였다가 공양왕(恭讓王)이 다시 군(郡)으로 강등(降等)시켰다. 조선 태종때에 원경왕후(元敬王后)의 고향이라서 다시 부(府)로 승격(昇格)시키고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移屬)시켰다. 예종(睿宗)원년에 세종대왕(世宗大王)의 능침(陵寢)을 옮기고 여주(驪州)로 개명(改名)하였다. 려강(驪江), 려성(驪城)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지명(地名)이다.⁸⁷⁾)의 흥천면(興川面)⁸⁸⁾일대(一帶)이다.

◎황효현(黃驍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는 골내근현(骨乃斤縣)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황려현(黃驪縣)은 현재(現在)의 경기도(京畿道)여주군(驪州郡. 一名. 골내근(骨乃斤), 황효(黃驍), 영의(永義), 황려(黃驪), 려강(驪江), 려흥(驪興), 려성(驪城), 황리(黃利),)여주읍(驪州邑)일대(一帶)이다.

◎빈양현(濱陽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양근현(陽根縣)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양근현(陽根縣)으로 불렸는데 지금의 경기도(京畿道)양평군(楊平郡. 고구려시대에는 양근군(楊根郡)으로 불렸는데 일명(一名)항양(恒陽)으로도 불렸다. 신라때에 빈양현(濱陽縣)으로 고쳤는데 고려 때에 양근(楊根)으로 복구(復舊)하였다. 고려 명종(明宗)5년에 현감을 두었다. 고종(高宗)때에 영화현(永化縣)으로 개명(改名)하였는데 원종10년에 위사공신(衛社功臣)김자정(金自廷)의 고향이라서 현령(縣令)으로 승차(陞差)시키고 지명(地名)도 익화(益和)로 바꾸었다. 공양왕(恭讓王)5년에 다시 양근(楊根)으로 바꾸고 군(郡)으로 승격(昇格)시켰다. 속현(屬縣)으로는 미원현(迷原縣)을 두었다. 양평에 합병된 지평(砥平)은 고구려시대에는 지현현(砥峴縣)으로 불렸고 신라가 지평(砥平)으로 고쳐

8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25쪽 驪州.).

88) (삼국사기 권 제35잡지 제4지리 2신라 한주(漢州)조).

삭주(朔州)의 속현(屬縣)으로 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13년에 현감(縣監)을 두기 시작 하였다. 지제(砥堤)는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⁸⁹⁾)의 양평읍(楊平邑)⁹⁰⁾이다.

◎개산군(介山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

의 죽주(竹州)였는데 지금의 경기도(京畿道)안성군(安城郡. 15)쪽 번호 참조.) 일부 합병된 음죽현(陰竹縣)은 고구려때에 노음죽(奴陰竹)으로 불리던 곳이 신라때에 음죽(陰竹)으로 고쳐 개산군에 합병(合併)되었다.⁹¹⁾ 조선 태종(太宗)13년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속(移屬)되었다.)의 죽산면(竹山面)⁹²⁾일대(一帶)이다.

◎음죽현(陰竹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노음죽현(奴音竹縣)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음죽현(陰竹縣)은 경기도(京畿道)이천시(利川市. 75)쪽 번호 참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설성(雪城)은 이천시(利川市)에 편입(編入)되었다.⁹³⁾)의 장호원읍(長湖院邑)이황리(梨黃里)⁹⁴⁾일대(一帶)이다.

◎백성군(白城郡)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나혜홀(奈兮忽)이었고 고려시대(考慮時代)에는 안성군(安城郡)은 지금의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15) 쪽 번호 참조.)이다.

◎적성현(赤城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사복홀(沙伏忽)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양성현(陽城縣)은 경기도(京畿道)안성군(安城郡. 一名. 나혜홀(奈兮忽), 백성(白城), 죽주(竹州), 개차산(皆次山), 개산(皆山).⁹⁵⁾)의 양성면(陽城面)⁹⁶⁾일대(一帶)이다.

89)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41쪽 楊根. 143쪽 砥平.)

90) (삼국사기 권제35 잡지 제4지리 2신라 한주(漢州)조)

9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67쪽 安城. 144 陰竹, 147쪽 竹山.)

92) (삼국사기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9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39쪽 利川, 144 陰竹.).

94) (삼국사기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수성군(水城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매홀현(買忽縣)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수주(樹州)로 불린 곳은 경기도(京畿道)화성시(華城市. 고구려시대에는 당성군(唐城郡)으로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당은(唐恩)으로 고쳐불렀다. 고려 충렬왕(忠烈王)때에 지익주사(知益州事)로 부르다가 승격(昇格)하여 강령도호부(江寧都護府)로 하였다가 다시 격상(格上)하여 익주목(益州牧)으로 하였다. 충선왕(忠宣王)때에 남양(南陽)으로 개명하였으나 다시 부(府)로 격하(格下)하였다.령제(寧提), 과포(戈浦)는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는 지명이다. 97) 봉담면(逢潭面)⁹⁸⁾ 일대(一帶)이다.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58쪽 南陽.)

◎당은군(唐恩郡)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당성군(唐城郡)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당성군(唐城郡)으로 불렸던 곳은 경기도(京畿道)화성시(華城市. 一名. 당성(唐城), 당은(唐恩),익주(益州), 강령(江寧),령제(寧提), 과포(戈浦),⁹⁹⁾)남양면(南陽面)¹⁰⁰⁾ 일대(一帶)이다.

◎차성현(車城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상(차)홀현(上(車)忽縣)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용성현(龍城縣)은 경기도(京畿道)평택시(平澤市. 옛날 지명(地名)은 하팔(河八)이었는데 고려시대에 평택(平澤)으로 고쳤다. 평택(平澤)에 합병(合併)된 진위현(振威縣)은 고구려시대에는 부산현(釜山縣)으로 불리었는데 옛 연달부곡(連達部曲)이었는데 송촌활달(松村活達)로도 불리었다. 신라의 진흥왕(景德王)이 진위현(振威縣)으로 고쳤다. 평택(平澤)에 일부가 합병된 양성현(陽城縣)은 고구려 때에는 사복홀(沙伏忽)이라 불렀고 신라 경덕왕(景德王)때는 적성(赤城)으로 부르다가 고려 초에 양성(陽城)으로 개명(改名)하였다. 조선 태조(太祖)7년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관하

9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67쪽 安城. 144 陰竹, 147 竹山.)

96)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9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58쪽 南陽.)

98)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99)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58쪽 南陽.)

100)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였다.¹⁰¹⁾)의 안중면(安中面)용성리(龍城里)¹⁰²⁾ 일대(一帶)이다.

◎진위현(振威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부산현(釜山縣)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용성현(龍城縣)인 곳은 경기도(京畿道)평택시(平澤市, 39)쪽 번호 참조.) 조선 태조(太祖)7년에 충청도(忠淸道)에서 경기도(京畿道)로 이관하였다.¹⁰³⁾)진위면(振威面)¹⁰⁴⁾ 일대(一帶)이다.

◎울진군(栗津郡)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의 울목군(栗木郡)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과주(菓州)는 경기도(京畿道)과천시(果川市, 고구려 때에는 울목군(栗木郡)一名 동사힐(冬斯盼)로 불렀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울진군(栗津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는 과주(菓州)로 고치고 현종(顯宗)9년에 광주(廣州)의 속현(屬縣)으로 하였다. 조선 태종(太宗)13년에 과천(果川)으로 개명하여 현감(縣監)을 두게 하였고 태종(太宗)14년에 금천(衿川)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개명(改名)하였다가 몇 달 후에 다시 과천(果川)과 금천(衿川)으로 분리 하였다. 부림(富林), 부안(富安), 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 과천과 합쳐졌던 양천현(陽川縣)은 고구려시대에는 재차파의(齋次巴衣)로 불렀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공암(孔巖)으로 고쳤다. 고려충선왕(忠宣王)2년에 양천(陽川)으로 개명(改名)하였다. 재양(齋陽), 파능(巴陵), 양평(陽平), 양원(陽原)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는 지명이다.¹⁰⁵⁾)일대(一帶)이다.

◎곡양현(穀陽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잉벌노현(仍伐奴縣)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검주(黔州)인데 지금의 서울시 구로구(九老區) 시흥동(始興洞)남단(南端)이라고 하나 경기도(京畿道)광명시(光明市)소하동(沼下洞) 일대(一帶)와 경기도(京畿道)안양시(安養市,

10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325쪽 平澤, 169쪽 振威, 180쪽 陽城.)

102)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0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325쪽 平澤, 169쪽 振威, 180쪽 陽城.)

104)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0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49쪽 果川, 176쪽 衿川, 170쪽 陽川.)

安養의 전신(前身)인 금천현(衿川縣)은 고구려시대에는 잉벌노현(仍伐奴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곡양(穀壤)으로 고쳐 울진군(栗津郡, 果川의 옛地名)의 속현(屬縣)으로 하였다. 고려 초에는 금주(衿州)로 고치면서 一名 금(검)주(黔州)로도 병용(倂用)하였다. 조선 태종(太宗)14년에 금과(衿果)로 고쳤다가 몇 달 후에 금양(衿陽)으로 고쳤다가 태종(太宗)16년에 금천(衿川)으로 고쳤다.¹⁰⁶⁾)의 석수동(石首洞)¹⁰⁷⁾ 일대(一帶)를 포함(包含)한다.

◎공암현(孔巖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공암현(孔巖縣)은 서울시 강서구(江西區) 가양동(加陽洞)일대(一帶)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옛 경기도(京畿道) 과천(果川, 105)쪽 번호 참조.) 과천(果川)과 합쳐졌던 양천현(陽川縣)은 고구려시대에는 재차파의(齊次巴衣)로 불렸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공암(孔巖)으로 고쳤다. 고려충선왕(忠宣王)2년에 양천(陽川)으로 개명(改名)하였다. 재양(齋陽), 파능(巴陵), 양평(陽平), 양원(陽原)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는 지명이다.¹⁰⁸⁾)이었던 현 양천구(陽川區)일대(一帶)¹⁰⁹⁾이다.

◎장구군(獐口郡)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의 장항구현(獐項口縣, 一名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을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안산현(安山縣)으로 불렀는데 경기도(京畿道)안산시(安山市, 옛地名은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였다. 고구려시대에는 장항구현(獐項口縣)으로 불렀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장구(獐口)로 고쳤던 것을 고려 초에 안산현(安山縣)으로 고쳤다가 충렬왕(忠烈王)34년에 문종(文宗)의 탄생지(誕生之地)라서 군(郡)으로 승격(昇格)시켰다. 연성(蓮城)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지명(地名)이다.¹¹⁰⁾) 일대(一帶)¹¹¹⁾이다.

106)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76쪽 衿川.)

107)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08)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49쪽 果川, 170쪽 陽川.)

109)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10)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64쪽 安山.)

111)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장제군(長堤郡)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주부토군(主夫吐郡)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수주(樹州)로 불린 곳은 지금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북구(北區)계산동(桂山洞),임학동(林鶴洞)일대(一帶)가 되었으나 원래(原來)경기도(京畿道)김포군(金浦郡. 고구려시대에는 김포현(黔浦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김포(金浦)로 개명하였다. 조선 태종(太宗)14년에 양천과 병합하여 금양현(金陽縣)으로 고쳤고 이어 금천(衿川)과 병합하여 부평부(富平府)로 격상시켰다. 태종16년에 다시 김포현(金浦縣)으로 환원하였다. 금능(金陵)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 김포와 병합된 통진현(通津縣)은 고구려시대에는 평회(유)압현(平淮(唯)押縣)으로 불리다가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분진(分津)으로 고쳤고 고려 때에 통진(通津)으로 개명하였다. 비사성(比史城)一名 비아성(比兒城)과 별사파의(別史波衣)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의 계양면(桂陽面)일대(一帶)였었다.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75쪽 김포, 170쪽 陽川, 181쪽 通津.)

◎술성현(戌城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수이홀(首了忽)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서는 수안현(守安縣)인 곳은 경기도(京畿道)김포시(金浦市. 고구려시대에는 김포현(黔浦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김포(金浦)로 개명하였다. 조선 태종(太宗)14년에 양천과 병합하여 금양현(金陽縣)으로 고쳤고 이어 금천(衿川)과 병합하여 부평부(富平府)로 격상시켰다. 태종16년에 다시 김포현(金浦縣)으로 환원하였다. 금능(金陵)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 김포와 병합된 통진현(通津縣)은 고구려시대에는 평회(유)압현(平淮(唯)押縣)으로 불리다가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분진(分津)으로 고쳤고 고려 때에 통진(通津)으로 개명하였다. 비사성(比史城)一名 비아성(比兒城)과 별사파의(別史波衣)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는 지명이다.¹¹²⁾)의 대곶면(大串面)¹¹³⁾ 일대(一帶)이다.

◎김포현(金浦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김포현(黔浦縣)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김포현(金浦

112)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75쪽 김포, 170쪽 陽川, 181쪽 通津.)

113)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縣)으로 쓴 곳은 경기도(京畿道)김포시(金浦市. 112)쪽 번호 참조.)의 김포읍(金浦邑)¹¹⁴⁾ 일대(一帶)이다.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75쪽 김포, 170쪽 陽川, 181쪽 通津.)

◎동성현(童城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동자홀현(童子忽縣)또는 동산현(彤山縣)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동성현(童城縣)으로 불린 곳이 경기도(京畿道)김포시(金浦市. 112)쪽 번호 참조.) 一名. 검포(黔浦), 금능(金陵), 평회압(平淮押), 비사성(比史城), 비아성(比兒城), 별사파의(別史波衣), 분진(分津).)의 하성면(霞城面)¹¹⁵⁾ 일대(一帶)이다.

◎분진현(分津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평유압현(平唯押縣)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통진현(通津縣)은 경기도(京畿道)김포시(金浦市. 112)쪽 번호 참조.) 비사성(比史城) 一名 비아성(比兒城)과 별사파의(別史波衣)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는 지명이다.¹¹⁶⁾)의 월곶면(月串面)통진(通津)¹¹⁷⁾일대(一帶)이다.

◎황양현(荒壤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골의노현(骨衣奴縣)을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풍양현(豐壤縣)은 지금의 경기도(京畿道)남양주시(南楊州市. 양주(楊州)에서 분리된 곳인데 양주(楊州)는 고구려 때에는 매성군(買省郡) 一名 창화군(昌化郡)으로 불렸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내소(來蘇)라고 부르다가 고려 초에 견주(見州)로 고쳤고 조선 태조(太祖)3년에 양주(楊州)로 개명(改名)하였다.¹¹⁸⁾)의 진접읍(津接邑)¹¹⁹⁾ 일대(一帶)이다.

114)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15)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16)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75쪽 김포, 170쪽 陽川, 181쪽 通津.)

117)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18)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84쪽 楊州.)

119)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우왕현(耦王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개백현(皆伯縣)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행주(幸州)로 불린 곳은 경기도(京畿道)고양시(高陽市. 고구려(高句麗)시대에는 달을성현(達乙省縣)이라 불렀는데 신라(新羅)가 고봉(高峰)으로 고쳤다. 고양(高陽)과 통합된 행주(幸州)는 고구려시대에는 개백(皆백)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우왕(遇王)으로 고쳐 불렀는데 일명(一名)왕봉(王逢)으로도 불렀다. 고려 초에 와서 행주(幸州)로 고쳐서 불렀다. 덕양(德陽)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지명기록이다.¹²⁰⁾)의 행주(幸州)내(內), 외동(外洞)¹²¹⁾ 일대(一帶)이다.

◎래소군(來蘇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매성현(買省縣)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견주(見州)로 불린 곳은 경기도(京畿道)양주시(楊州市. 고구려 때에는 매성군(買省郡)一名 창화군(昌化郡)으로 불렀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내소(來蘇)라고 부르다가 고려 초에 견주(見州)로 고쳤고 조선태조(太祖)3년에 양주로 개명하였다.¹²²⁾)의 주내면(州內面)고읍리(古邑里)¹²³⁾ 일대(一帶)이다.

◎중성현(重城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칠중현(七重縣)이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적성현(積城縣)인 곳은 경기도(京畿道)파주시(坡州市. 고구려시대에는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일운(一云)액봉(額蓬), 신라(新羅)경덕왕(景德王)이 파평(坡平)으로 고치고 내소군(來蘇郡)영현(領縣)으로 하였다가 고려 현종(顯宗)때는 장단현(長湍縣)소속이 되었다. 고려 문종(文宗)17년에는 개성부(開城府)소속으로 되었다. 조선조에는 서원군(瑞原郡)소속으로 하였는데 고구려 때의 지명인 술이홀(述尔忽)이었고 신라가 고쳐 부른 봉성(峯城)이었는데 교하군(交河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명종(明宗)때에 서원군(瑞原郡)으로 개명하였고 조선 태조(太祖)2년에 서원과 통합하여 원평(原平)군으로 개명하고 세조(世祖)6년에 왕비의 고향이라서 목(牧)으로 격상하고 이름도 파주

120)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97쪽 高陽.)

121)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22)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84쪽 楊州.)

123)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坡州)라 하였다. 파주시와 합병된 교하현(交河縣)의 옛 이름은 천정구(泉井口)인데 일명 굴화(屈火)였는데 신라경덕왕(景德王)이 교하로 고쳤다. 고려 현종(顯宗)때에 양주(楊州)소속으로 하였다. 곡성(曲城), 선성(宣城), 원정(原井)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있다. 파주시와 합병된 또 하나의 현인 적성현(積城縣)은 고구려 때에는 칠중성(七重城)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중성(重城)으로 고쳤다. 내별(乃別)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²⁴⁾의 적성면(積城面)¹²⁵⁾ 일대(一帶)이다.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92쪽 坡州, 205쪽 交河, 203쪽 積城.)

◎파평현(波平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는 파해평사현(波害平史縣)으로 불렸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파평현(波平縣)으로 부르는 곳은 경기도(京畿道)파주시(坡州市, 19)쪽 번호 참조.) 내별(乃別)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²⁶⁾의 파평면(坡平面)¹²⁷⁾ 일대(一帶)이다.

◎교하군(交河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천정구현(泉井口縣)으로 불렸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교하현(交河縣)이던 곳은 경기도(京畿道)파주시(坡州市, 19)쪽 번호 참조.) 내별(乃別)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²⁸⁾의 교하읍(交河邑)¹²⁹⁾일대(一帶)이다.

◎봉성현(峯城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술이홀현(述了忽縣)이라 하였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다시 봉성현(峯城縣)으로 불린 곳이 경기도(京畿道)파주시(坡州市, 19)쪽 번호 참조.)의 파주읍(坡州邑)¹³⁰⁾ 일대(一帶)이다.

124)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92쪽 坡州, 205쪽 交河, 203쪽 積城.)

125)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26)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92쪽 坡州, 205쪽 交河, 203쪽 積城.)

127)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28) (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192쪽 坡州, 205쪽 交河, 203쪽 積城.)

129)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30)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고봉현(高峰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달을성현(達乙省縣)이었고 신라시대(新羅時代)에는 다시 고봉현(高峰縣)으로 불린 곳은 경기도(京畿道)고양시(高陽市, 고구려(高句麗)시대에는 달을성현(達乙省縣)이라 불렀는데 신라(新羅)가 고봉(高峰)으로 고쳤다. 고양(高陽)과 통합된 행주(幸州)는 고구려시대에는 개백(皆백)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우왕(遇王)으로 고쳐 불렀는데 일명(一名)왕봉(王逢)으로도 불렀다. 고려 초에 와서 행주(幸州)로 고쳐서 불렀다. 덕양(德陽)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지명기록이다.¹³¹⁾)의 관산동(關山洞)¹³²⁾ 일대(一帶)이다.

◎견성군(堅城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마홀군(馬忽郡)이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포주(抱州)로 불린 곳은 경기도(京畿道)포천군(抱川郡, 고구려시대에는 마홀(馬忽)로 부르고 신라가 견성군(堅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포주(抱州)로 고쳤다. 명지(命旨)와 청화(淸化)는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 포천과 합병된 영평(永平)의 옛 이름은 고구려시대에는 양골(梁骨)로 불렀는데 신라가 동음현(洞陰縣)으로 하여 견성군(堅城郡)에 속현으로 하였고 고려 예종(睿宗)때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 후에 위사공신(衛社功臣)강윤소(康允紹)의 고향이라서 영흥현(永興縣)으로 승격(昇格)시켰다.¹³³⁾)의 군내면(郡內面)¹³⁴⁾ 일대(一帶)이다.

◎사천현(沙川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내을매현(內乙買縣)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그대로 사천현(沙川縣)으로 불리는 곳은 경기도(京畿道)동두천시(東豆川市, 양주(楊州)일부와 포천(抱川)일부를 떼어와 합치면서 만든 지명(地名)이다.¹³⁵⁾)의 송내동(松內洞)¹³⁶⁾ 일대(一帶)이다.

13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97쪽 高陽.)

132)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3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1쪽 抱川, 200쪽 永平.)

134)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3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84쪽 楊州, 201쪽 抱川)

136)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동음현(洞陰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양골현(梁骨縣)이던 것을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부른 그대로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동음현(洞陰縣)으로 불렀는데 지금의 경기도(京畿道) 포천군(抱川郡, 1)쪽 번호 참조.) 그 후에 위사공신(衛社功臣)강윤소(康允紹)의 고향이라서 영흥현(永興縣)승격시켰다.¹³⁷⁾)의 영중면(永中面)영평리(永平里)¹³⁸⁾일대(一帶)이다.

◎동량현(棟梁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승량현(僧梁縣)이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승령현(僧嶺縣)인데 지금은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인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7)쪽 번호 참조.) 또 연천군에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 때에는 마전천(麻田淺)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임단(臨湍)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마전으로 고쳤다 니사파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¹³⁹⁾)의 인월면(隣月面)¹⁴⁰⁾일대(一帶)이다

◎공성현(功成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공목달현(功木達縣)이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장주(獐州)로 불리던 곳은 지금의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一名 골목달(骨木達), 웅섬산(熊閃山), 공성(功成), 장주(漳州), 연주(連州), 장포(獐浦), 삭읍(朔邑), 안삭(安朔), 승령(僧嶺), 배물(非勿), 동량(幢梁).¹⁴¹⁾)의 연천읍(連川邑)¹⁴²⁾일대(一帶)이다.

◎삭읍현(朔邑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때에는 소읍두현(所邑豆縣)으로 불렀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삭녕현(朔寧縣)으로 불린 곳은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一名 골목달(骨木達), 웅섬산(熊閃山), 공성(功成), 장주(漳州), 연주(連州), 장포(獐浦), 삭읍(朔邑), 안삭(安朔), 승령(僧嶺), 배물(非勿), 동량(幢梁).¹⁴³⁾)의 삭령면(朔寧面)¹⁴⁴⁾일대(一帶)이다.

13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1쪽 抱川, 200쪽 永平.)

138)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39)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140)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4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142)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임강현(臨江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장항현(獐項縣)을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불렀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임강현(臨江縣)으로 사용한 곳은 경기도(京畿道)장단군(長端郡. 고구려시대에는 장천성현(長淺城縣) 一名 야야(耶耶),와 야아(夜牙)로도 불렀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장단(長端)으로 고치고 고려 충목왕(忠穆王)이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고향(故鄉)이라서 단주(湍州)로 고쳤으나 현종(顯宗)9년에 다시 장단으로 고쳤다. 조선 태종(太宗)14년에 임강(臨江)과 장임(長臨)으로 병칭(竝稱)하게 하였다가 또 고쳐 임진(臨津)과 임단(臨湍)으로 고치게 하였다. 장단과 일부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시대에는 마전천현(麻田淺縣)으로 불렀으나 신라가 임단(臨端)으로 고쳤고 고려 초기에 마전(麻田)으로 개명하였다. 현종(顯宗)9년에 장단(長端)소속으로 하였고 상서도성(尙書都省)소장(所掌)으로 하였다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開城府)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니사과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⁴⁵⁾)의 강상면(江上面)임강리(臨江里)¹⁴⁶⁾ 일대(一帶)이다.

◎장단현(長湍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장천성현(長淺城縣)이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장단현(長湍縣)은 경기도(京畿道)파주시(坡州市, 124)쪽 번호 참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장단(長端)으로 고치고 고려 충목왕(忠穆王)이 시중(侍中) 한언공(韓彦恭)의 고향(故鄉)이라서 단주(湍州)로 고쳤으나 현종(顯宗)9년에 다시 장단으로 고쳤다. 조선 태종(太宗)14년에 임강(臨江)과 장임(長臨)으로 병칭(竝稱)하게 하였다가 또 고쳐 임진(臨津)과 임단(臨湍)으로 고치게 하였다. 장단과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시대에는 마전천현(麻田淺縣)으로 불렀으나 신라가 임단(臨端)으로 고쳤고 고려 초기에 마전(麻田)으로 개명하였다. 현종(顯宗)9년에 장단(長端)소속으로 하였고 상서도성(尙書都省)소장(所掌)으로 하였다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開城府)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니사과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⁴⁷⁾)의 강

14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144)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4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146).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4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92쪽 坡州, 203쪽 積城, 228쪽 麻田.)

남면(江南面)¹⁴⁸⁾ 일대(一帶)이다.

◎임단현(臨端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마전천현(麻田淺縣)이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마전현(麻田縣)이었던 곳은 경기도(京畿道)연천군(連川郡). 고구려 때에는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불렀는데 일명(一名)웅섬산(雄閃山)으로도 불렸다. 신라 때에는 공성(功城)으로 고쳐서 철성군(鐵城郡)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때에 장주(漳州)로 고쳤는데 장주(獐州)로도 쓰였다. 고려 충선왕(忠宣王)때에 연천현(連川縣)으로 고쳤다. 연주(連州), 장연(獐涓)은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이다. 연천(連川)에 통합된 삭령(朔寧縣)은 고구려 때에는 소읍두현(所邑豆縣)과 승량현(僧梁縣, 일명 비물(非勿).)으로 부르다가 신라가 삭읍(朔邑)과 동량(幢梁)으로 고쳐 불렀다. 고려시대에 승령(僧寧)과 삭령(朔寧)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또 연천군에 합병된 마전(麻田)은 고구려 때에는 마전천(麻田淺)으로 불렀는데 신라가 임단(臨端)으로 고치고 고려초에 마전으로 고쳤다. 니사과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지명이다. ¹⁴⁹⁾의 미산면(美山面)마전리(麻田里)¹⁵⁰⁾ 일대(一帶)를 부르는 이름이다.

◎송악군(松嶽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부소갑(扶蘇岬)이었는데 신라(新羅)효소왕(孝昭王)3년(694)에 성을 쌓고 송악(松嶽)으로 불렀는데 경덕왕(景德王)이 그대로 송악군(松嶽郡)으로 정(定)하여 고려시대(高麗時代)까지 송악(松嶽)으로 불렀다. 지금의 경기도(京畿道)개성시(開城市, 개성(開城)과 해풍(海豐)이 합병된 이름이다. 고구려에서는 부소갑(扶蘇岬)개성군(開城郡)일명 동차홀(冬比忽)로 불렀고 신라는 송악군(松嶽郡)으로 부르다 고려 태조(太祖)2년에 개주(開州)로 고쳐 불렀다. 고려 광종(光宗)11년에 황도(皇都)로 고쳤다. 성종(成宗)14년에 개성부(開城府)로 고쳤다가 현종(顯宗)원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개성부를 폐(廢)하였다가 문종(文宗)16년에 다시 개성부(開城府)로 환원(還元)하였다. 촉막군(蜀莫郡)은 송나라 역사서(歷史書)에 고려(高麗)왕(王)거(居)개주(開州)촉막군(蜀莫郡)왈(曰)개성부(開城府)의(依)대산(大山)치(置)궁실(宮室)입

148)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49)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 230쪽 連川, 227쪽 朔寧, 228쪽 麻田.)

150)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立)성벽명(城壁名)기산(其山)왈(曰)신숭(神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동국여지승람 군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다. 합병된 풍덕군(豐德郡)은 고구려 때에는 정주(貞洲)로 불렸고 고려 현종(顯宗)9년에 개성현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3년에는 승천부(昇天府)로 격상(格上)하고 충선왕(忠宣王)2년에 해풍군(海豐郡)으로 격하(格下)하였다. 하원(河源)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실려 있다.¹⁵¹⁾)를 부르는 이름이다.¹⁵²⁾

◎여비현(如備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약두치현(若豆恥絃)이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와서 송림현(松林縣)으로 불린 곳은 경기도(京畿道)장단군(長端郡, 147)쪽 번호 참조.) 현종(顯宗)9년에 장단(長端)소속으로 하였고 상서도성(尙書都省)소장(所掌)으로 하였던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開城府)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니사과홀(泥沙波忽)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⁵³⁾)의 진서면(津西面)불일리(拂日里)¹⁵⁴⁾ 일대(一帶)이다.

◎개성군(開城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동비홀(冬比忽)로 불리었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송악(松嶽)이 수도(首都)가 됨으로서 개성부(開城府)에 속(屬)하게 되었던 곳인데 지금의 경기도(京畿道)개풍군(開豐郡, 151)쪽 번호 참조.)에 합병된 풍덕군은 고구려 때에는 정주(貞洲)로 불렸고 고려 현종(顯宗)9년에 개성현의 속현으로 하였던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3년에는 승천부(昇天府)로 격상(格上)하고 충선왕(忠宣王)2년에 해풍군(海豐郡)으로 격하(格下)하였다. 하원(河源)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⁵⁵⁾)의 서면(西面)개성리(開城里)¹⁵⁶⁾ 일대(一帶)이다.

15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88쪽, 102쪽 開城府. 222쪽 豐德.)

152)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5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8쪽 長湍. 228쪽 麻田)

154)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5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88쪽, 102쪽 開城府. 222쪽 豐德)

156)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덕수현(德水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덕물현(德勿縣)이라 하였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덕수현(德岫縣)으로 부르던 곳은 경기도(京畿道)개풍군(開豐郡. 151)쪽 번호 참조.)에 합병된 풍덕군은 고구려 때에는 정주(貞洲)로 불렸고 고려 현종(顯宗)9년에 개성현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문종(文宗)17년에 개성부에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3년에는 승천부(昇天府)로 격상(格上)하고 충선왕(忠宣王)2년에 해풍군(海豐郡)으로 격하(格下)하였다. 하원(河源)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실려 있다.¹⁵⁷⁾)의 봉동면(鳳東面)흥왕리(興旺里)¹⁵⁸⁾ 일대(一帶)이다.

◎임진현(臨津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때에는 진림성(津臨城)이라 하였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임진현(臨津縣)으로 고쳤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와서도 계속(繼續)하여 임진현(臨津縣)으로 불린 곳이다. 지금의 경기도(京畿道)파주시(坡州市. 19)쪽 번호 참조.) 파주시와 합병된 교하현(交河縣)의 옛 이름은 천정구(泉井口)인데 일명 굴화(屈火)였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교하로 고쳤다. 고려 현종(顯宗)때에 양주(楊州)소속으로 하였다. 곡성(曲城). 선성(宣城), 원정(原井)은 동국여지승람 군명(郡名)에 있다. 파주시와 합병된 또 하나의 현인 적성현(積城縣)은 고구려 때에는 칠중성(七重城)이라 하였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중성(重城)으로 고쳤다. 내별(乃別)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지명이다.¹⁵⁹⁾)의 근내면(近內面)¹⁶⁰⁾ 일대(一帶)이다.

◎해구군(海口郡)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 혈구군(穴口郡)이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강화군(江華郡)으로 바꾸어 부른 곳이 지금은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에 속(屬)하였지만 옛 경기도(京畿道)강화군(江華郡. 강화군(江華郡. 고구려 때는 혈구(穴口), 신라 때에는 해구(海口), 고려 초에 강화(江華)로 고쳐 부르다가 몽고난 후에 강도(江都)로 불리기도 하였다. 갑바고차(甲比古次), 심주(沁州)는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강화(江華)

15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88쪽 102쪽 開城府. 222쪽 豐德.)

158)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59)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192쪽 坡州 205쪽 交河, 203쪽 積城.)

160)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와 합병(合併)된 교동현(喬桐縣)은 고구려시대에는 고목근현(古木根縣)一名 대운도(戴雲島), 고림(高林), 달을신(達乙新)으로 불리었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교동현(喬桐縣)으로 바꾸었다. 조선 태조(太祖)4년에 만호(萬戶)겸 지현사(知縣事)를 두었다가 현감(縣監)을 두었다.¹⁶¹⁾)의 강화읍(江華邑)¹⁶²⁾ 일대(一帶)이다.

◎호음현(湖陰縣)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의 동음나현(冬音奈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호음현(湖陰縣)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하음현(河陰縣)으로 부른 곳은 옛 경기도(京畿道) 강화군(江華郡. 161)쪽 번호 참조.) 조선 태조(太祖)4년에 만호(萬戶)겸 지현사(知縣事)를 두었다가 현감(縣監)을 두었다.¹⁶³⁾)의 강화읍(江華邑) 주변(周邊)인데 지금은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강화군(江華郡)의 강화읍(江華邑)¹⁶⁴⁾으로 행정구역(行政區域)이 변경(變更)된 지역(地域)이다.

◎교동현(喬桐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고목근현(高木根縣)이었는데 강화도(江華島)앞 바다 속의 섬인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교동현(喬桐縣)으로 사용(使用)하였다. 옛 경기도(京畿道)강화군(江華郡. 강화군(江華郡. 161)쪽 번호 참조.) 또 교동현(喬桐縣)의 옛 이름은 고구려 때에는 고목근현(高木根縣)으로 일운 대운도(戴雲島), 고림(高林), 달을신(達乙新)으로 불리었는데 신라의 경덕왕(景德王)이 교동현(喬桐縣)으로 바꾸었다. 조선 태조(太祖)4년에 만호(萬戶)겸 지현사(知縣事)를 두었다가 현감(縣監)을 두었다.¹⁶⁵⁾)의 교동면(喬洞面)¹⁶⁶⁾ 일대(一帶)인데 지금의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강화군(江華郡)교동면(喬洞面)지역(地域)이다.

◎수진현(守鎭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때의 수지현(首知縣)을 고쳐 불렀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

16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25쪽 江華. 232쪽 喬桐.)

162)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63)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25쪽 江華. 232쪽 喬桐.)

164)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65)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25쪽 江華. 232쪽 喬桐.)

166)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와서는 진강현(鎭江縣)으로 불렸다. 군사용(軍事用)진지(陣地)가 많아서 수진(守鎭)으로 하였다는 설(說)도 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강화군(江華郡, 161)쪽 번호 참조.) 조선 태조(太祖)4년에 만호(萬戶)겸 지현사(知縣事)를 두었다가 현감(縣監)을 두었다.¹⁶⁷⁾)에 속하였으나 옛 경기도(京畿道)의 강화군(江華郡)랑도면(狼島面) 일대(一帶)에 있었던 고을이고 현부청사(縣府廳舍)¹⁶⁸⁾가 있던 곳이다.

※삭주(朔州)소속(所屬)으로 있던 경기지역(京畿地域)내의 고을 이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평군(嘉平郡)

고구려(高句麗)시대(時代)에는 근평군(斤平郡)으로 불리던 고을 이름인데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불렀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계속(繼續)하여 가평군(嘉平郡)으로 사용(使用)하였다. 지금의 경기도(京畿道)가평군(加平郡, 고려(高麗)현종(顯宗)9년에 춘주도(春州道)에 속(屬)하였다가 조선(朝鮮)태종(太宗)13년에 경기도에 속하게 한 군(郡)이다. 一名, 고구려(高句麗)때에는 근평(斤平)과 심천현(深川縣), 一云 복사매(伏斯買)로 불리었고 신라(新羅)가 ,준천현(浚川縣), 준수현(浚水縣)으로 고쳐 부르다가, 고려(高麗), 현종(顯宗)때에는 가평(嘉平), 병평(並平), 으로 불렸다. 169)) 가평읍(加平邑)¹⁷⁰⁾ 일대(一帶)이다.

◎준수현(浚水縣)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심천현(深川縣)이었다가 경덕왕(景德王)이 준수현(浚岫縣)으로 바꾸었는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조종현(朝宗縣)으로 불리던 곳은 지금의 경기도(京畿道)가평군(加平郡, 22)쫄고가 169)쪽 번호 참조.) 고려(高麗), 현종(顯宗)때에는 가평(嘉平), 병평(並平), 으로 불렸다. 171))의 하면(下面)현리(縣里)¹⁷²⁾ 일대(一帶)이다.

167)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25쪽 江華, 232쪽 喬桐.)

168)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한주(漢州) 조).

169)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5쪽 加平.)

170)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삭주(朔州) 조).

171) (신증동국여지승람 明文堂 1994년 8월 10일 重刊本206쪽 加平.)

172) (삼국사기 권 제35 잡지(雜誌) 제4 지리(地理)2 신라(新羅)삭주(朔州) 조).

2. 맺는말

경기도(京畿道)는 한민족(韓民族)의 역사상(歷史上) 가장 긴 세월을 수도권(首都圈)으로 모든 문화(文化)창시(創始)의 중심축(中心軸)에 서 있는 특수지역(特秀地域)이다. 한민족(韓民族)기록(記錄)의 역사(歷史) 속에서 진한(辰韓)으로부터 2200년간 수도권(首都圈)의 위상(位相)이 이어져 오고 있는 한민족 역사(歷史)의 산실(産室)이며 문화(文化)의 최대발상지(最大發祥地)인 것이다.

논문(論文)과 같이 삼국사기(三國史記)기록(記錄)에 나타난 성곽(城郭)의 이름과 군현(郡縣)의 지명(地名)을 상고(詳考)하여 본 결과 경기도(京畿道)내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지명(地名)이 사장(死藏)된 사실이 입증(立證)되었고 계속(繼續)적으로 소멸(消滅)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現實)앞에 경악(驚愕)을 금(禁)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심정(心情)이다.

특히 한성백제(漢城百濟)의 군사문화(軍事文化)를 창출(創出)할 수 있었던 것은 시조(始祖)온조대왕(溫祚大王)의 강병부국(强兵富國)의 이념(理念)과 사상(思想)을 바탕으로 수많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 산재(散在)하여 있었으나 수없이 많은 전란(戰亂)으로 인하여 멸실(滅失)되어 관심(關心)있는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문화유적(文化遺迹)에 대한 발굴복원(發掘復元)과 구증(口證)또는 전문가(專門家)들의 협의재현(協議再現)이 이루어지기를 기대(期待)하고 있는 상황(商況)이다. 이 지역(地域)에 수천 년간(數千 年間)전해오는 전설(傳說)과 설화(說話)만 채집분석(採集分析)하여도 엄청난 문화유적(文化遺迹)의 재현(再現)이 이루어 질수 있을진대 이처럼 많은 성곽(城郭)과 지명(地名)이 소용돌이치는 수천(數千)년의 역사(歷史)속에 서도 본래(本來)의 뜻과 선인(先人)들이 의도(意圖)한 내용(內用)이 끊이지 않고 전하여오는 것은 문화유적재현(文化遺迹再現)의 가치(價值)를 한층 높이는 계기(契機)가 될 것이다. 순차적(順次的)으로 하나 둘씩의 문화유적(文化遺迹)의 재현(再現)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늦은 감이 있어도 경기도민(京畿道民)에게는 크나큰 영광(榮光)이 아닐 수 없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지명(地名)을 재확인(再確認)하기 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시대(時代)의 변화(變化)에 따른 지명(地名)들을 일일이 상고(詳考)하여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意味)가 깊은 이름들이 잊혀가고 있는 현실(現實)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개발논리(開發論理)에 밀리고 주택보급(住宅普及)이라는 미명(美名)으로 진행(進行)되는 신도시(新都市)라는 이름의 도시개발(都市開發)과 무슨 복합도시(複合都市)니 특화도시(特化都市)니 하는 개발우선순위(開發優先順位)로 말미암아 고유지명(固有地名)의 훼손(毀損)이 더욱 극심(極甚)하게 진행(進行)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우리민족(民族)의 선각자(先覺者)들이 아름답고 뜻깊은 의미의 좋은 이름으로 지어준 지명(地名)의 연원(淵源)이야 말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책무(責務)요 이 시대(時代)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時代的)인 소명(召命)이요 역사적(歷史的)사명(使命)이라고 생각한다.

선인들이 아끼고 사랑하던 지명과 설화속의 전해오는 민족의 긍지를 지키기 위하여 멸실(滅失)문화유적을 신속히 재현하여 후대에게 물려주면 민족정기(民族精氣)를 되살리는 획기적(劃期的)전환기(轉換期)를 맞이하는 계기(契機)가 될 것이 분명(分明)하여진다. 또한 관광경기(觀光京畿)의 위상(位相)이 영원(永遠)토록 격상발전(格上發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민(京畿道民)의 자부심(自負心)과 응집력(凝集力)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여 백

남한산성에 서린 민족정기의 재인식

윤 중 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 1) 남한산성의 지리적 특징
 - 2) 남한산성의 역사
 - 3) 남한산성의 주요 문화유산

1. 서 론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은 광주시·성남시·하남시의 3개 시에 걸쳐 있는 남한산 정상에 둘레 9,050m에 면적 2.3km² 규모로 삼국시대에 쌓은 석축산성이다. 삼국시대에 한강을 둘러싼 고구려와 신라와의 쟁탈전에서 백제의 진산(鎭山)이었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도 신주(新州) 또는 한산주(漢山州)를 설치하여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고군과 홍건적을 물리치는 등 축조된 이후로 우리 민족의 주요한 운명을 가름하는 호국의 성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 한민족 역사상 1300회에 이르는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남한산성은 민족의 정기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산성은 우리 나라의 문화유적 가운데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많은 숫자를 헤아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한산성은 유난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한 때 해외 관광이 활발하기 전에는 남한산성을 다녀가는 사람도 많았고, 단풍이 드는 때나 꽃이 피는 봄날의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남한산성이다.¹⁷³⁾ 또한 병자호란의 쓰라린 역사는 누구나 인식할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병자호란의 아픈 역사만 기억하면서 남한산성이 지닌 민족정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수치의 문화유산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역사는 항상 민족의 고난에 대비하는 호국의 성지였으며, 심지어 병자호란 때에도 산성 자체가 함락당한 것은 아니었다. 1만 2천여 명의 성 안 군사와 백성들이 더 이상 농성할 수 있을 만한 식량이 완전히 고갈되므로 인조의 출성(出城)은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남한산성을 국가안전보장지로 인식하고 항상 전시를 대비하여 수차례의 수축과 보수를 실시하였고, 이곳에서 민족사에 뚜렷이 기록될만한 사건들이 전개되었다. 기록상으로 남한산성이 처음 축성 되었다는 신라 문무왕 12년 이후로 굵직한 사건만 해도 대몽항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천주교 박해, 한말 의병전쟁, 3.1만세운동, 신간회 활동과 사회주의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품고 있다. 남한산성은 조선 인조 때 대대적인 재수축을 할 당시에 전국 8도 승군들이 축성을 하여 호국불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조선 후기의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천주교 성지가 되기도 하며, 한말 의병전쟁 시에는 서울진공작전의 거점이 되었고, 이후로 만세운동이나 신간회 운동 등을 통한 애국 계몽 운동의 중심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남한산성에 얹힌 역사적 사건과 문화유산에 대한 선조들의 인식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찾아보고 남한산성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남한산성의 지리적 특징

남한산성은 주봉인 청량산(497.9m)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 연주봉(467.6m), 동쪽으로 망월봉(502m)과 벌봉(515m), 남쪽으로 몇 개의 봉우리를 연결하여 쌓았다. 성벽의 바깥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성 안은 경사가 완만하고 평균고도 350m 내외의 넓은 구릉성 분지를 이루고 있다. 넓은 성 내부에는 10여석의 벼를 파

173) 경향신문 1970년 10월 3일자 7면, 동아일보 1970년 3월 11일

중할 수 있는 논이 있어 식량생산이 가능하고 우물 80여개에 샘 45개가 있을 정도로 사시사철 수량이 풍부하여 많은 인원이 장기간 농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 안의 물이 수문을 통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형성된 침식 협곡을 따라 경사가 완만한 교통로가 조성되어 있어 성안으로의 물자 수송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팔당에서 한강 하류에 이르는 넓은 수계가 영향권에 들어와 내륙 수운을 장악할 수 있고 한강 이북의 아차산 일대와 불암산, 인왕산 까지 조망이 가능하여 유적의 서쪽에 개설된 교통로인 좌로(서울 ~ 부산간 간선도로)를 통제하는 등 남쪽으로부터 한양 도성으로 가거나 북쪽으로부터 한강이남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남한산성은 천혜의 전략적 요충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성이었다. 특히 남한산성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 일대와 수원, 개성, 강화 4곳은 수도 한양의 안전을 보장(保障)하는 중요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중환이 “청나라 군사가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刀)도 대보지 못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도 성을 끝내 군사적으로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인조가 성에서 내려온 것은 식량이 고갈되고 강화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었다.”¹⁷⁴⁾고 한 것처럼 城 자체로서는 최적의 방어 요건을 지닌 자연의 요새이다. 남한산성은 고대로부터 한강유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할 만큼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남한산성 주변에는 몽촌토성,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 이성산성 등의 유적이 많이 있어서, 일찍이 온조왕대의 성으로 인식되어 왔다.¹⁷⁵⁾ 서거정의 시, <광진(廣津)의 노상(路上)에서 옛일을 생각하다 2수>에,

당시 고구려 백제가 웅강을 겨루던 곳이니 / 當年麗濟角雄強
한 강물이 흘러 피차의 강토를 갈라놓았네 / 一水中分彼此疆
전쟁하던 곳은 지금도 역력히 남아 있건만 / 歷歷戰場今尚在
태평스러운 여염에 농상이 다 풍요롭구려 / 昇平閭落富農桑

일장산성 아래가 바로 예전의 왕도인데 / 日長城下故王都
궁전의 옛터가 쓸어버린 듯 흔적 없네 / 宮殿遺基掃地無
오늘날엔 광주에 큰 목을 설치하고 보니 / 今日廣州開大牧
강산은 예전 그대로되 성곽은 아니로다 / 江山雖是城郭殊

174) 『擇里志』 <팔도총론>, 『택리지(擇里志)』는 1751년 이중환이 편찬한 지리서인데 후일에 붙여진 책이름이다.

175) 『사가시집』 제50권 「시류(詩類)」 <광진의 노상에서 옛일을 생각하다.>

위 시에서 언급된 주장성은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한산주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고 하는데 둘레가 4,360보로서 현재 남한산성의 규모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¹⁷⁶⁾

고려시대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조선 초기에는 일장산성(日長山城)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둘레가 3,993보이고, 성내에는 군자고(軍資庫),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7개, 또한 논과 밭이 124결이나 되었다고 하였다.¹⁷⁷⁾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성스러운 진산(鎭山)으로 여겼다. 이러한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왜란을 겪으면서 수도 방위를 위한 안전보장 시설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남한산성은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산성을 다시 수축하였을 뿐 아니라, 숭렬전(崇烈殿) 사당을 지어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溫祚大王)을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연 평균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자연휴식처로 크게 애용되고 있다.

2) 남한산성의 역사

남한산성이 백제의 왕궁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조선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백제는 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다시 한산, 한성 등으로 몇차례 천도를 하였다. 남한산성의 전략적인 입지조건과 수차에 걸친 백제의 천도 기사로 인해 어느 때부터인가 남한산성이 백제의 왕도 중 하나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⁷⁸⁾ 다만, 홍경모는 유형원의

176)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2년 7월, ‘한산주의 주장성을 쌓으니 주위가 4360보였다.’

177) 『세종실록』 「지리지」, 경기도 광주목, ‘일장 산성(日長山城)은 주치(州治)의 남쪽에 있다. 【높고 험하며, 둘레가 3천 9백 93보(步)요, 안에 군자고(軍資庫)와 우물 일곱이 있는데, 가뭄을 만나도 물이 줄지 아니한다. 또 밭과 논이 있는데, 모두 1백 24결(結)이다. 《삼국사(三國史)》에는, “신라 문무왕(文武王)이 비로소 한산(漢山)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 고 하였다.】 그 밖에 다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제3권, 「청석곡행(靑石谷行)」에도 일장성이 언급되었고, 사가정 서거정의 『사가시집』 제50권, 「제부 촌서(諸富村墅) 3수」 중에서도 일장성이 언급되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경기도 광주 기록에서는, ‘일장산성(日長山城)은 바로 신라 때 주장성(晝長城)이다. 문무왕(文武王)이 쌓은 것인데, 안에 여섯 우물과 시내가 있다. 주위가 8만 6천 8백 척, 높이는 24척인데 석축이다.’라고 하여 일장성은 곧 신라 때의 주장성이라고 밝혔다.

178) 이러한 견해를 보이는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 『신증동국여지승람』 · 『대동야승』 · 『연려실기술』 · 『여지도서』 · 『대동지지』 등 대부분의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는 남한산성이 백제의 옛 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계수록(磻溪隧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애초부터 한산 위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건만 세상 사람들이 사실을 살피지 아니하고 곧장 이르기를 백제의 고도는 남한산에 있으며 남한산성은 온조가 쌓은 것이라고 하는데 백제사는 기록이 소략하여 문헌에 근거할 것이 없으니 어떻게 온조왕의 옛 성임을 정확히 알겠는가? 그래서 특히 첫머리에 써서 의심스러운 바를 알리고 성은 산 아래 있었고, 그 산 위에 있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하였다.¹⁷⁹⁾ 그는 백제의 도읍이 지금의 검단산 아래인 광주의 고읍에 있으며, '온조의 고성'은 이성산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남한산성이 온조와 직접 관련을 맺게 된 것은 병자호란이다. 충청도 직산현에 있던 온조왕 사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인조는 예조판서 김상헌을 온조왕 사당에 보내어 제사를 지낸 바 있다. 당시는 남한산성을 온조 도읍지라 이해하고 있었기에, 인조는 온조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었을 것이다. 마침내 인조는 꿈속에서 온조의 도움을 받아 남한산성을 공격하는 청군을 물리치는 일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인조는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온조사당을 남한산성으로 옮겼으며, 또한 신하로 이서를 함께 배향했다.

한산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은 신라 문무왕 12년(672) 무렵은 삼국통일 직후 당나라와 충돌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한산에 해당되는 지역의 산성으로는 남한산성이 있고, 북쪽으로 5km 지점에 이성산성(둘레 1,653m), 서쪽으로 9km 지점에는 대모산성(둘레 567m)이 있을 뿐인데, 남한산성을 제외하고는 둘레가 4,360보에 달하는 성은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남한산성이 주장성인 것은 명확하다.

수도가 개성인 고려는 남한산성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성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 몽고군의 침입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광주부사 이세화는 1231년과 1232년의 두차례에 걸친 몽고군의 침입시 광주군민들을 지휘하여 '광주성(廣州城)'에서 몽고군을 방어하였다. "살례탑(撒禮搭)이 이끄는 몽고군이 온갖 계략으로 여러 달 동안 공격을 계속하니 이세화는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되 기이한 계책을 내어 혹은 사로잡고 죽인 것이 심히 많으니 오랑캐가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¹⁸⁰⁾ 그러므로 조서를 내리기를 "광주는 신묘 · 임진년(고종 18·19년)에 적병(몽고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으나 성을 고수하고 항복하지 않으니, 광주의 정상적인 부역과 잡역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¹⁸¹⁾ 이 사실에서

179) 홍경모, 『증정 남한지』, 「서례(敍例)」 및 「성지(城池)」

180) 『동국이상국집』 후집 12, 「고 조의대부 사재경 우간의대부 보문각직학사 지제고 사자금어대 이군 묘지명 병서」, 『하남시사료집』 제1집(하남문화원, 1998)

광주성은 읍치에서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서 방어하기 유리한 산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성산성과 남한산성이 해당된다. 이성산성은 늦어도 6세기 중엽 이전에 축성되었으며,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지만 규모가 작고, 해발 209m 정도여서 공격적 전진기지이자 행정중심의 성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장기간 농성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반면 남한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성 내부 면적이 넓고 많은 적을 상대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광주성으로 기록된 성은 남한산성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광주성은 임금이 의지하는 '남방의 요충지'로서, 몽고군의 침입시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전략적인 필요에 의하여 부분적인 개수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 10만이 개경을 함락시키자 왕이 안동으로 파천하면서 광주에 수레가 머물 때 백성들이 모두 산성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다.¹⁸²⁾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하면서 태종 때 일장산성(남한산성) 수축 문제가 제기 되어 현지에 신하를 파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¹⁸³⁾ 세종 때 강화의 교동산성과 함께 일장산성을 풍년을 기다려 수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¹⁸⁴⁾ 타당성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실제로 수축이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남한산성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양 방위의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선조 26년에 유성룡은 남한산성 수어책(守禦策)을 주장하였고¹⁸⁵⁾, 선조29(1596)년에는 사명당(泗溟堂/四溟堂) 유정(惟政)의 승군 60여명을 주둔시켰다.¹⁸⁶⁾ 정유재란(1597)이 발발하자 남한산성 수축론이 대두되었고, 1603(선조36)년에는 수축론이 재론되기에 이르러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 이기빈으로 하여금 도형을 그려오게 하였으나,¹⁸⁷⁾ 전란 후의 피폐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광해군 13년(1621)에 후금의 침입을 막고자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 하였으나 준공하지 못하였는데, 인조가 집권 한 이후 이귀, 이원익 등이 남한산성의 수축을 적극 주장하는 중에 이괄(李适)의

181)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흙 은면지제, 고종22년 5월

182)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10년 11월, 무진.

183) 『태종실록』 10년 경인(1410,영락 8) 1월 14일 (신사)

184) 『세종실록』 즉위년 무술(1418,영락 16) 10월 27일, 계묘.

185) 『선조실록』 26년 계사(1593,만력 21) 10월22일 (임인),
29년 병신(1596,만력 24) 4월17일 (계축)

186) 『선조실록』 30년 정유(1597,만력 25) 1월 29일 경신

187) 『선조실록』 36년 계묘(1603,만력 31) 2월18일 (을사)

난이 일어났다. 이에 인조 2년(1624)에 축성공사를 서둘러, 2년 후인 인조 4년에 개축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던 것이다.

수축을 마친 후, 1626년 11월 현재의 하남시에 있던 광주의 읍치(邑治)를 산성으로 옮기고 광주 주민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300호를 모집하여 산성으로 이주시켰다. 이들에게는 신역(身役)과 전세(田稅)를 면제해 주므로, 산성안의 인구가 1천여 호에 이르게 되자 숙종 17년(1691) 7월 13일 더 이상 주민들을 모집해 들이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마침내 모민정책(募民政策)이 중단되었다. 이후로 19세기 말까지 1,000여 호 4,000여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¹⁸⁸⁾

병자호란 후, 역대 임금들은 남한산성에 와서 병자호란 수난사를 되새겼으며, 방어시설을 보수, 유지하면서 국가보장처로서 관리하였다. 현종 9년(1668)에는 수어사 김좌명이 연무당을 연무관으로 개칭하였고, 현종 13년(1672)에는 부윤 이세화가 지수당을 건립하였다. 1686(숙종12)년 윤4월에는 윤지선의 감독아래 한봉성(한봉외성) 신축을 시작하여 5월에 완공하였다. 1688(숙종14)년 유수 이세백이 재덕당과 현절사 건립, 1693(숙종19) 수어사 오시복이 한봉 외성 신축, 현절사에 사액 내림, 1693(숙종19)년 우의정 민암이 남한산성 봉암과 한봉에 돈대 축조 주장, 1705(숙종31)년 한봉성에 포루 두 개 증축하였는데 청인이 한봉성을 헐어버림, 1711(숙종37)년 행궁 좌전 26칸, 우실 4칸을 증설하였고, 1719(숙종45)년에 수어사 민진후가 신남성(남격대)을 신축하였다.¹⁸⁹⁾

19세기, 외세의 압력이 강화되자 개화당에서는 신식군대의 양성을 꾀하게 되었다. 1883년 4월 광주유수 겸 수어사 박영효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관 신복모 등을 중심으로 하여 남한산성에서 1,000여명의 신식군대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박영효가 면직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¹⁹⁰⁾ 1895년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의병항쟁이 펼쳐졌다. 이 때, 경기의병의 투쟁 거점이 남한산성이었다. 그 후 1907년 정미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의 국방과 사법, 조세징수권을 강제로 빼앗고, 8월 1일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면서 일본군은 조선군의 병기와 탄약을 회수할 때 남한산성의 각 사찰에 보관중인 무기와 탄약은 신속히

188)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1999. p.30

189) 홍경모의 『증정 남한지』 기록.

190) 『증정원일기』 고종 20년 계미(1883, 광서 9) 10월 1일 (무신)
하교하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 교련 병대(敎鍊兵隊)를 어영청으로 옮겨 배속시켜 연습하게 할 일로 분부하라.” 하였다.

제거하기 위해 폭파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므로, 이 때 사찰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1919년 3월 27일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만세 시위는 새벽에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남한산성 남문 아래 계곡에 중부면 단대리 · 탄리 · 수진리 주민 300여 명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후, 산성 안으로 진입하여 면사무소를 향해 만세시위를 계속하였고 돌마면 율리(율동공원) 마을 주민들도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¹⁹¹⁾ 이 때의 만세운동 주동자들은 1927년 신간회를 조직하여 계몽운동을 펼쳤고 남한산성 역시 그 운동의 중심지였다. 1930년대 들어 남한산성은 항일민족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당시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남한산성 내에도 이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민족운동단체가 결성된 것이다. 1930년 석혜환, 정영배 등이 중심이 되어 중부면 산성리에 조직한 남한산노동공조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의식화하는 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자 지하로 잠적하였다. 수년 후 다시 조직을 재건, 광주공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1934년 12월에는 광주공산당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월 1회씩 노동회관에 모여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노동야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서울 영등포와 인천 등지에까지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러던 중 1936년 1월 조직원이 실수로 노상에서 분실한 조직관련 문건이 일본경찰 손에 우연히 들어가 조직은 붕괴되고 말았다. 당시 남한산성에서 조직된 운동단체가 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와 인천에까지 조직원을 파견하였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점이다.¹⁹²⁾ 한편 산성 마을에는 산성 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금림조합이 결성되어 1945년까지 활동하여 산성 내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해방 이후 한동안 산성 마을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한국전쟁 당시 산성 마을은 '제2의 모스크바'로 불려 질 정도였다. 일제시대 경찰 사찰주임을 지낸 면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가택에 연금된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1950년대에 들어 남한산성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¹⁹³⁾ 당시 주민들은 산성 마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행궁 터

191) 윤종준, 『하남시사료집5-경기도 하남지역 독립운동사』, 하남문화원 2007.

윤종준,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성남문화연구』 제14호, 성남문화원, 2007

192) 서승갑,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성남문화원 '성남지역독립운동사재조명' 학술토론회, 2009. 8

193) 일반적으로 남한산성이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4.19혁명으로 이승만

에 남한산성과 관련된 문화유산과 물산이 진열된 물산 진열관이 있었다. 산성 주민들은 이 진열관이 장차 남한산성 공원 박물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 하였기에 박물관이라고 부른데서, 그 같은 그들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3) 남한산성의 주요 문화유산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수를 한 것은 광해군 13년(1621) 후금(청나라)의 침입을 막고자 석성으로 개축키 시작하였으나 준공치 못하고,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과 이괄(李适)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년)이다. 즉, 인조반정 때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평안병사 이괄이 선조의 열 번째 아들 흥안군(興安君) 제(璉)를 왕으로 추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순식간에 한양으로 쳐들어와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가야했다. 이 사건으로 유사시 종묘사직을 지켜 내기 위한 대안으로 남한산성을 축성하게 되었다.

1) 전국 8도 승려들이 쌓은 성곽

인조2년 총융사 이서(李曙)에게 명하여, 2년 뒤에 둘레 6,297보, 여장 1,897개, 웅성 3개, 성량 115개, 문 4개, 암문 16개, 우물 80개, 샘 45개 등을 만들고 광주읍의 치소를 산성 내로 옮겼다. 이때의 공사에는 벽암 각성(碧巖 覺性)대사를 도총섭으로 삼아 팔도의 승군을 사역하였으며, 장경사를 비롯한 7개의 사찰이 새로 건립되었다.

남한산성의 원성은 인조 2년(1624)에 수축한 영역으로서 하나의 폐곡선으로 연결되는 본성이고, 이외에 외성으로 동쪽에 봉암성과 한봉성이 있고, 남쪽에 신남성이 있는데 이곳에는 동·서 두 개의 돈대가 구축되어 있다. 봉암성은 바위가 포개어 가파르게 솟았고, 아래에는 돌구멍이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만 하다. 옛날에는 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봉암성은 1636년에 청나라가 성안의 허실을 엿보았던 곳이므로 1686(숙종12)에 부윤 윤지선이 외성을 쌓았다. 한봉성은 1627년에 청나라 군사가 이곳에 올라가 홍이포를 쏘았던 곳이므로 1693(숙종 19)년에 수어사 오시복이 망월봉에서 한봉에 이르기까지 708보의 각성을 쌓고, 신성에서 한봉을 이어 하나로 완공

대통령이 해야 한 후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구전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립공원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것은 제2공화국이 들어선 이후라서 실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산성에 대하여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념식수와 송수탑(頌壽塔)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다. 송수탑은 이승만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세워졌다가 4.19혁명 때 파괴되었다.

하였다.

남한산성의 규모와 면적은 측정방법에 따라 많은 이론이 있다. 토지박물관에서 정밀 측량을 한 결과로는 남한산성의 전체 규모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웅성과 외성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둘레가 12,355m이고, 폐곡선을 이루지 않는 한봉성을 제외한 성내부의 면적은 2,209,270㎡(약 668,303평)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원성은 대부분 인조 2년(1624)부터 인조4년 까지 축성된 것으로 둘레는 7,545m이고, 내부 면적은 2,216,637㎡(643,307평)이다. 성의 구조물로는 4대문이 있고, 신남성의 두 돈대에 각각 홍예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남웅성 포루로 들어가는 홍예문이 1개소 있다. 암문은 16개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원성에 11개 봉암성에 4개, 한봉성에 1개소가 있다. 치는 각 남웅성과 연주봉 웅성에 1개소 및 봉암성에 1개소 등 5개소가 설치되었다. 포루는 각 남웅성과 장경사 부근의 웅성 및 장경사 신지웅성, 연주봉 웅성, 한봉성 등 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포루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연주봉 웅성을 제외하면 포루는 모두 28개소이다. 또한 성내의 물을 성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수구문은 동문 근처에 1개소가 있었으며, 28개의 수구가 확인되고 있다.

2) 수어장대(守禦將臺, 경기도유형문화재 제 1호)

선조 28년 축성 때 동서남북에 4개의 장대를 설치했는데, 이 중 수어장대는 가장 넓은 시야가 열려 있는 청량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남한산성 전체의 군사 통솔에 유리한 위치이다. 산성 내에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데, 원래 단층누각으로 축조하고 '서장대'라 부르던 것을 영조27(1751)에 유수 이기진이 2층 누각으로 증축하고, 안쪽에는 무망루(無忘樓), 바깥쪽에는 '수어장대'라는 편액을 내걸었으며, 서대(西臺)라고도 불렀다.

숙종의 장인 김만기(金萬基)는 “비록 한강의 흐름을 기울여도 그날의 비린내는 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만약에 흑시라도 풍경이나 구경하고 유람이나 탐하면서 다시는 감개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는 이른바 그 양심을 잃은 자”라고 하여 병자년의 참상을 전해 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여 경계하였다.¹⁹⁴⁾

무망루(無忘樓)는 인조가 겪은 시련과 효종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로 북쪽 땅을 정벌하려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못하고 죽은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안석경의 <무망루기(無忘樓記)>에 그 이름의 유래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¹⁹⁵⁾

194) 김민기, <서장대기(西將臺記)>

조선이 국운을 다하는 고종 때 까지 역대 임금들은 이곳 서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특히 네 곳의 장대가 있는데 중간에 있어야 할 중장대(中將臺)는 애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 서장대가 그 중심 역할을 함께 맡았다. 정조대왕의 기해주필(정조3, 1779) 때 임금은 성의 곳곳을 다니며 병자호란 때의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을 던졌다. 서장대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 하였다.

” 동서남북에 다 장대가 있는데 중장대(中將臺)라는 명칭만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성안의 지형이 가운데는 오목하고 사방이 높아서 그런 것인가?” 하니, 송환억이 아뢰기를, “중장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지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였다.¹⁹⁶⁾

이처럼 지형적 이점으로 인하여 서장대는 중심 지휘소로서의 수어청 지휘소가 설치되어 ‘수어장대’ 라고 불려 지게 되었다. 역대 임금들은 이곳에서 옛 일을 회상하였다. 숙종은,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지나간 일을 추상(追想)하니, 저절로 서글픈 감회가 일어난다.” 라 하였고, 또 시를 짓기를

대낮 교장에서 군사훈련을 보고나니 / 해질 녘 날씨는 비 온 뒤라 한결 맑구나.
 불빛이 성가퀴(성위에 낮게 쌓은담)를 연하여 밝히니 / 바로 서장대에서 북과 피리 소리 울리는구나
 험준한 곳에 성을 쌓으니 하늘의 조화인가?/검각(劍閣)의 깊고 험함이 이와 같겠느냐.
 전일 내가 오를 적에는 강개함이 많더니/ 옛 생각에 잠기니 눈물짐을 깨닫지 못하네.
 197)
 말 멩에 돌려 서장대에 올라 / 군신이 지난 일 말하는데 어두워 오네 / 홀연히 강개함을 누르지 못하니 / 오직 좋은 이름만이 있도다.¹⁹⁸⁾ 하였다.

정조는, “이 대에 올라보니 나도 모르게 비감(悲感)해진다. 그러나 그 뜻을 잘 계승해야만 크게 추모하는 것이 된다.” “인심은 편안한 데에 익숙하면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습성을 이루게 된다. 효종(孝宗)께서 성취하지 못하신 뜻을 우러러 생각하면 강개(慷慨)한 마음이 격앙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하였다.¹⁹⁹⁾ 조선 후기 까지도

195) 안석경(安錫敬, ? ~ 1782), 『삼교집(雪橋集)』 <무망루기(無忘樓記)>

196) 정조실록, 3년 8월

197) 숙종대왕 35(1709)년에 지은시

198) 영조대왕

199) <정조대왕 즉위년>

이러한 전통은 이어졌으니, 철종은, "세월이 흘러가니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안일에 젖어 의리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군신 상하가 함께 노력하고 권면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능침에 전배하는 길에 이곳에 들러서 효종 임금께서 미처 이루지 못하신 일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북바쳐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겠다."200) 고 하였다.

3) 숭열전(崇烈殿, 경기도유형문화재 제 2호)

조선은 역대 왕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는데, 환인·환웅·단군을 제사 지내는 삼성사(三聖祠)를 비롯하여 숭의전(崇義殿), 숭령전(崇靈殿), 숭인전(崇仁殿), 숭령전(崇靈殿), 숭덕전(崇德殿)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처음 숭열전은 충청도 직산 '온조왕묘(溫祚王廟)'로 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인조 때 남한산성으로 옮겨 건립하였다. 남한산성으로 옮기게 된 것은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 적의 침입을 알려주어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해주필 때, 왕이 서장대에 나아가 성조(城操)를 행하였는데, 대신들과 수어사에 게 묻기를,

“병자년에 적병이 밤을 타서 널빤지를 지고 성에 오르는 것을 아군이 발각하고 끓인 물을 부으니 모두 문드러져 물러갔다 하는데, 이곳이 바로 그곳인가?” 하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그때 인조 대왕께서 꿈에 온조왕이 와서 적병이 성에 오른다고 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조(聖祖)께서 놀라 깨어 곧 명하여 정탐하게 하셨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아서 장사(將士)를 시켜 격퇴하게 하셨는데 참획이 매우 많았으므로, 환도한 날에 특별히 명하여 온조묘(溫祚廟)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하게 하였으니, 일이 매우 영이(靈異)합니다.” 하였다.201)

1637년 1월 2일 이서가 죽으니 임금이 통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의복과 명주를 하사하여 염습하게 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하였으며, 환도한 뒤에는 빈소를 그 집안에 들이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그는 남한산성의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고 군자(軍資)와 기계(器械)를 구비하지 않음이 없어 마침내는 대가가 머물면서 의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였다. 영의정에 추증하고 특별히 1638(인조 16)년 겨울, 온왕묘를 세워 이서를 배향하도록 명하였다. 전설에는 인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서 신

200) <철종 4년>

201) 정조3년 기해주필 때 영의정 김상철의 답변

하 한 사람을 배정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그 다음날 이서가 죽었다고 한다. 1639(인조 17)년 2월 2일에 사당이 완공되었고, ‘백제 시조왕(百濟始祖王)’이란 위판을 만들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사서(史書) 및 『여지승람』에 모두 온조왕으로 썼는데, 세대가 멀어져서 명호 및 시호를 분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사서에 기록된 바에 의거하여 위판에 쓰자고 했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온조는 이름인 듯한데, 위판에 바로 쓰는 것이 어떠할지?” 했다. 예조가 ‘백제 시조(百濟始祖)’라고 쓰기를 청하니, 상이 ‘왕(王)’자를 더 써 넣도록 명하였다.

광주 판관 이시원(李始源)의 건의에 따라 승렬전이라 정하고 편액을 다는 날에는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지어 내려주고, 전감(殿監) 2인과 수복(守僕) 2인을 배치하였다. 승렬전 관리는 지위와 문벌 있는 사람을 영문(營門)에서 차출하여 복색은 모자와 띠를 갖추게 하고 입직 수복은 붉은 옷을 입고 건을 쓰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하게 하였다. 왕이 하교하기를,

“역대 후왕(后王)을 제사지내는 곳에는 모두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 예컨대 기자(箕子)의 숭인전(崇仁殿)이나 단군과 동명왕의 승령전(崇靈殿)이나 신라 시조의 숭덕전(崇德殿)이나 고려 시조의 숭의전(崇義殿)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유독 백제 시조의 사당에만 아직껏 전호(殿號)가 없으니 이는 흠이 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공사 간의 문적에 이름을 가지고 임시로 일컫는 것은 외람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일단 그런 줄 안 이상에는 즉시 바로잡아 고쳐야 마땅하니, 승렬전이라는 칭호로 『문헌비고』와 『대전통편』·『오례의』 등 책을 즉시 세보개정(洗補改正)토록 하라. 그리고 마침 연석(筵席)에서 하교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승렬전의 편액은 대신에게 명하여 쓰도록 하고, 현판을 거는 날에는 수신(守臣)을 보내어 제사지내 주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내가 직접 짓겠다.” 하였다.²⁰²⁾

정조가 지은 제문 몇 구절을 보면,

산천이 기운을 더하고 / 초목이 빛을 내도다. / 억년에도 만년에도 /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 우리에게 수(壽)와 복(福)을 내려서 / 바다는 편안하고 시내는 맑네 / 무엇으로 보답하리오 / 살찐 희생과 향기로운 단술이로다.

4) 청량당(淸涼堂,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3호)

성을 쌓은 각성대사, 전설적 인물인 이회와 그의 부인의 영혼을 모신 사당이다. 이회는 동남쪽 축성의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를 시기한 무리의 모함으로 교수형을

202) 정조실록 19년(1795) 9월 18일

당하였다. 훗날 이희의 무고함이 밝혀진 이후 그와 부인의 영혼을 위안할 목적으로 청량당이 세워졌다고 한다. '청량당'이란 이름은 저장대가 서 있는 산이 곧 청량산이므로 산명을 당집 이름으로 부른 것이며 '청량'은 '맑고 서늘한 기운'을 뜻한다. 청량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중엽부터 사용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선비들이 좋아하는 '맑고 서늘한 기운'이 서린 산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남한은 본래 이름이 일장산이었으나 국조 중엽 이후에 비로소 청량산이라 칭하니 사람들이 청(淸)나라 군병이 침범할 징조라고 하였다.”²⁰³⁾

벽암은 김해 김씨이고, 호는 벽암(碧巖), 각성(覺性)은 법명이다. 충북 보은에서 그의 어머니가 북두칠성께 기도하여 백발노인으로 부터 거울을 받아 지니는 태몽을 꾸고서 낳았다. 풍채는 서릿발 같았고 눈빛은 전기처럼 빛났으며,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돈독하였는데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므로 상을 마치고 출가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와 함께 해전에 참여하였으며, 광해군은 그를 봉은사에 머무르게 하고 판선교도총섭(判禪敎都摠攝)의 직함을 내렸다. 남한산성을 쌓을 때 팔도도총섭으로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3년 만에 성을 완성시켰다. 이에 나라에서는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의 직함과 함께 의발(衣鉢)을 하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지리산에 있던 벽암은 의승군 3천명을 모아 이를 항마군(降魔軍)이라 하고, 호남의 관군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 전쟁이 끝났으므로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갔다.²⁰⁴⁾

5) 현절사(顯節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4호)

현절사는 병자호란 후 심양에 끌려가 충절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순절한 삼학사²⁰⁵⁾인 홍익한(洪翼漢, 1586~1637) · 윤집(尹集, 1606~1637) · 오달제(吳達濟, 1609~1637)를 모신 사당이다. 삼학사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여 전쟁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청에 끌려가 끝내 충정을 굽히지 않다가 심양의 서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현절사는 숙종 14년(1688)에 유수 이세백(李世白)의 주도로 세워졌으며 1693년(숙종 19) 봄에 사액하였다. 윤집 · 오달제는 용골대의 심문을 받으면서 “죽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내 머리를 이고 왔으니 잘라야 할 것이면 즉시 자를 일

203) 정조대왕 기해주필(1779)

204) 백헌 이경석, 벽암대사 부도비문(지리산 화엄사 소재)

205) 삼학사는 1671년에 송시열이 <삼학사전>을 지으면서 홍익한, 윤집, 오달제 이들 세 분을 삼학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요, 더 이상 다른 말을 말라.” 하였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자, 두 학사는 결박되어 끌려 나가면서도 오히려 용골대에게 호통을 치니 재신(宰臣)들이 나와서 보고는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만 마리의 소를 가지고도 끌어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였다. 홍익한은 심양에서 용골대에게 “네 머리를 베라고 청했던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었다.” 고 하였고, 청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대의를 주장하다가 처형당하면서도, “내 피를 복에다 발라서 친다면 내 뉘은 하늘로 날아 고국으로 갈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밖에는 다시 할 말이 없다.” 는 유언을 남겼다. 삼학사에 대해서는 우암 송시열의 <삼학사전>으로 널리 알려졌고, 성남문화원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널리 그 공적을 재조명한 바 있다.²⁰⁶⁾

숙종 25(1699)년에 좌의정 김상헌(金尙憲), 이조참판 정온(鄭蘊)의 위패도 함께 배향 되었다. 이조참판 정온은 척화를 주장하면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고는 덕유산에 은거하였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선전후화론(先戰後和論)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대세가 항복으로 기울자 최명길(崔鳴吉)이 작성한 항복문서를 찢고 통곡하였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결을 기도하다가 실패하였고, 안동의 학가산에 들어가 두문불출하였다. 청나라에서 명을 칠 군대 파병을 요청하자 분연히 반대하였다가 1641년 심양(瀋陽)에 끌려가 4년여 동안을 청에 억류되었다.

삼학사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조선 정부는 유가족들의 생계를 돌보고 관직도 주었으나, 삼학사를 현창하는 데에는 청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1661(현종2)년에 와서 평택의 홍익한 허장묘(虛葬墓)앞에 사당을 짓고 삼학사의 위패를 모신 것이 삼학사에 대한 제향의 시작이 되었다. 풍기군수 어상준(魚相儔)이 1668년에 사당 건립을 건의하고, 다음해에 송시열이 삼학사의 절의를 표창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실현되지 못하였다. 1681(숙종7)년, 시강관 조지겸이 말하기를,

“인조께서는 그들이 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술을 내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시하시기를, ‘그대들의 부모와 처자는 내가 마땅히 무휼(撫恤)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 조정에서 그 자손에게 모두 벼슬을 주었으나, 세 집안의 자제들이 모두 요사(夭死)하고 차차 몰락하였습니다.” 하고, 후손들을 잘 돌봐 줄 것을 건의하니 숙종 임금이,

206) 성남문화위 제1회 국제학술회의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1996년 10월 9일
 성남문화원 제2회 국제학술회의 <남한산성과 삼학사>, 1997년 10월 9일

“오달제 등 3인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의리를 지켜 순절하면서 사지(死地)에 나아가기를 낙토(樂土)에 나아가는 것같이 하고, 마침내 이역(異域)에서 운명하는 데 이르렀으나, 또 어느 땅에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니, 더욱 불쌍하고도 가없다.” 207)하고 담당 부서에 명하여 그 자손을 거두어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해주도록 하였다.

또, 승지 이사명(李師命)의 건의에 따라 마침내 사당을 세우고, 이름을 현절(顯節)이라 했는데, 이 무렵 흉년이 들고 추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가 1688(숙종14)년에 이르러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여주 능행길에 임금을 모시던 중 다시 건의하여, 그 해 5월 광주유수 이세백이 <삼신사(三臣祠)>를 건립하였고, 숙종25년에 와서 <현절사>라 이름하여 사액하였다. 이때 <현절>이라는 사당의 명칭은 예문관 대제학 이민서(李敏鉉)가 지었고, 편액의 글씨는 영의정 남구만의 친필이다. 1701(숙종27)에는 개원사 올라가는 길 옆에 있던 <삼신사>의 위치가 습하여 목조건물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길 것을 청하는 광주 선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711년에 공조(工曹)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여 현재의 위치에 새로 짓게 되었다. 1721년 7월에 숙종 임금이 돌아가시기 직전, 3월에 임금이 친히 지은 시문을 새겨 현절사 본전 안쪽 벽에 붙였으니, 그 시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슬프도다 삼학사여, 늙름한 그 절의(節義) / 오로지 황조(皇朝)가 있음만을 알았기에
힘을 다해 오랑캐와 화친을 배척했네 / 하직 인사말에서도 충성은 더 더욱 참되었고,
죽을 고비에 임해서도 그 뜻 더욱 굳건했도다. / 옛 사우(祠宇)를 다시 고쳐 짓고 빛내려
함께 / 그대들 돌이켜 생각하니 감회가 실로 많도다.

6) 남한행궁(南漢行宮, 또는 廣州行宮, 국가사적 제 480호)

조선조의 행궁으로는 수원, 강화, 전주, 의주, 양주, 부안, 온양행궁 등과 함께 광주 낙생(현재 성남) 지역에 낙생행궁(樂生行宮)이 있었고, 남한산성의 행궁은 '광주행궁' 또는 '남한행궁'이라 하였다. 남한행궁은 상궐, 하궐로 구분되고 좌전(左殿, 종묘), 우실(右室, 사직단)이 훗날에 설치되었다. 하궐 앞에는 인화관과 정조 때 한남루라는 외삼문의 누문이 세워졌다

상궐은 내행전(행궁의 내전)으로서 1625년(인조3)에 준공한 70여 칸 건물이며, 서쪽 담에 문이 있어 좌승당으로 통하였다. 하궐은 외행전으로서, 상궐의 삼문 밖에 있으며, 서쪽담의 문으로 일장각과 통한다. 하궐은 154칸으로 『광주부읍지』에 전한다.

207) 숙종 7년 신유(1681,강희 20) 1월30일 (갑신)

넓은 의미에서는 좌승당, 일장각, 교련관청, 완대정, 옥천정 등의 건축물도 행궁에 포함된다. 처음에는 행궁을 관청 집무실로 삼다가 1817(순조17)년에 비로소 좌승당과 일장각을 세웠다.

행궁 터는 1999년 토지박물관에서 1차 발굴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2002년에 상궐 72.5칸의 복원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좌전(26칸), 남행각, 북행각, 재덕당, 좌승당, 하궐 등이 차례로 복원되었다. 5차 조사에서 백제시대의 주거지와 8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어 백제시대부터 사용되었음을 밝혔고, 6차 조사에서는 하궐 동쪽에서 정면 12칸이 넘고 길이 50m에 달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형건물터에서 한 장의 무게가 18kg이나 되는 암키와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국내 최대 규모의 건물임이 밝혀졌다.

남한행궁은 북한산성 행궁보다 더 큰 규모였고, 내외의 행전과 부속건물, 누각 뿐 아니라 종묘와 사직 등을 봉안할 좌전과 우실까지 갖추고 있다. 상궐과 하궐은 인조임금이 사용한 이후로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임금 때 까지 역대의 왕들이 남한산성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곳을 수시로 찾아와서 머무르며 군사 훈련과 무과 시험을 열기도 하였다. 재덕당은 상궐 뒤의 언덕위에 있으며 1688(숙종 14)년에 유수 이세백이 세웠다. 한남루는 곧, 행전 외삼문의 상루인데 1798년(정조22)년에 유수 홍억이 지었다. 동남쪽으로 가는 나그네들이 광주를 지날 때는 붉은 난간이 하늘을 찌를을 바라보고 반드시 올라 보고 갔다. 기둥에는 연구(聯句) 4대가 걸려 있었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비록, 원수를 갚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할 지라도, 항상 아픔을 참고 원통한 생각을 잊지 말지라.” 고 하였다. 인화관(人和館)은 행전의 동쪽에 있는데 곧, 객관이다. 정전의 가운데 감실에 전패(殿牌)를 모시고 삭망에 뜰에서 망하례를 행하였다. 1624(인조)년에 세우고 목사 이태연이 ‘人和’ 라는 간판을 걸었다. 일찍이 ‘국가를 보장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전하여 말하기를 땅의 이로움은 인화와 같지 않다고 한 것을 뜻하는 것’ 이다.

상궐 담장 바깥에는 행정용 건물로서 1817(순조17)년에 유수 심상규가 좌승당(坐勝堂)을 지었는데 안쪽 기둥에는 “우뚝하게 장성이 되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씩씩하고, 언제나 싸움터에 있듯이 하여, 편안한 중에도 위급함을 잊지 않는다.” 하였고, 바깥 기둥 주련에는 “술자리 앉아 싸움을 의논해도 놀러 보장이 되겠으나, 승리할 계획은 낭묘(廊廟)위에 있으며, 산과 계곡만을 믿지 아니한다.” 고 하였다.²⁰⁸⁾

1637(인조15) 년 정축 1월 24일 적이 대포를 남격대(南格臺) 망월봉 아래에서 발

208) 심상규, <좌승당기>

사하였는데, 포탄이 행궁으로 날아와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피하였고, 적병이 남성에 육박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격퇴시켰다. 정조대왕은 영릉(寧陵)²⁰⁹⁾에 전배(展拜)하려고 1779년 8월 3일 남한산성에 행차하였는데, 임금이 행궁에 들어가서 호가(護駕)한 대신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행행(行幸)이라는 것은 백성이 거가(車駕)의 행림(行臨)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거가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백성에게 미치는 은택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다 이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내 거가가 이곳에 왔으니, 저 백성이 어찌 바라는 뜻이 없겠는가? 옛 사람이 이른바 행행의 의의를 실천한 뒤에야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였으니, 경들은 각각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을 아뢰라.” 하여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방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 궁(宮)에 임하였으니, 옛일을 생각하여 느껴지는 마음을 참으로 스스로 누를 수 없다. 일찍이 고사(古事)를 보니, 병자년 성조(聖祖)께서 이 궁에 계실 때에 한군(汗軍)이 한봉(汗峰)에 올라 대포를 쏘아서 포환이 전주(殿柱)를 쳤으므로 성조께서 후내전(後內殿)으로 옮겨가셨다 하였는데, 이 전이 바로 그때 계시던 전인가?” 하매, 서명응이 “그렇습니다.” 하였다.²¹⁰⁾

행궁 현(軒)의 기둥에 걸었던 주련에 이르기를, “성군(聖君)이 다스리는 세상이 세 번의 풍속으로 돌아왔으니, 대궐 숲에는 오래도록 만년의 봄이 머물지로다. 봄은 성군의 마음속에 있고 백성은 모두 원기가 지극히 화(和)한 가운데 있도다. 모든 백성은 변화한 거리에서 매달마다 노래 불러 춤추고, 천리에 뻗친 연기와 노을은 태평한 세상의 봄이로다.”²¹¹⁾라고 한 것처럼 37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무심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도 같이 태평세월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반석처럼 튼튼하라고 ‘반석(磐石)’이라 새긴 바위는 바로 선조들의 염원이 담긴 금석문이다.

7) 연무관(演武館,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

1624(인조2)년 축성 때 건립되었으며,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연무당(演武堂)’이라 부르던 것을 뒷날 ‘연병관(鍊兵館)’이라 하였다가 연무관으로 고쳤다. 2009년 현재 복원을 위해 해체한 상태이나, 연무관의 특징적인 부분은 전면의 원기둥에, 4개의 주련(主聯)을 걸어놓았는데, 통나무에 글을 쓰고 그 안쪽을 파내어 기둥을 감싸듯

209) 효종대왕과 인선황후 장씨의 능

210)

211)

이 부착하였으니, 마치 주련이 기둥을 보호하는 갑옷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련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玉壘金城萬似山 옥루금성만인산
角羽宮商動界林 각우궁상동계림

風雲龍虎生奇力 풍운용호생기력
密傳葱本空三本 밀전총본공삼본

“만 길 높은 산에 옥처럼 단단한 보루와 철벽같은 산성 / 바람과 구름, 용과 호랑이 기이한 힘을 발한다. / 각우궁상 음악소리 계림(界林: 이곳 연무관)에 진동하고, / 은밀히 파뿌리를 전하자 삼본(三本)이 텅 비었네.”

군사 조련에는 깃발과 음악이 사용되고, 특수한 비밀 지령을 사용하게 된다. 군사 작전의 여러 진법 가운데에는 8진(8陣)이 있어 天, 地, 風, 雲, 龍, 虎, 鳥, 蛇의 8가지를 기묘하게 운용하여 무궁한 변화를 꾀하고, 깃발에도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진군이나 후퇴, 이 모든 것이 음악소리에 의한다. 철벽같은 산성 안 연무관에는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8진법을 비롯한 다양한 진법이 펼쳐지고, 각종 명령이 악기를 사용한 음악 신호에 의해 전달된다. 그리고 몰래 파뿌리를 전하자 3개의 군영이 일시에 자취를 숨기는 상황이 연출되는 장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종임금이 남장대에 친림한 뒤 연무관으로 가서 야간 훈련을 거행한 내용에는 햇불을 비롯한 깃발, 각종 악기, 대포 등의 여러 가지 신호를 사용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212)

신호 가운데 비밀리에 장군이 은밀하게 전하는 내용물에 따라 군대의 움직임을 약속하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비밀의 명령 같은 것이 있어서, 나뭇가지(木枝)를 비밀리에 전하면 一軍이 모두 멈추고, 비밀리에 돌덩어리(石塊)를 전하면 一軍이 모두 앉으니, 이와 같은 종류이다. 대장이 여러 장교들과 약속하여 말하기를, 비밀히 계란을 전하면 둥근 진(圓陣)으로 변하여 만들고, 네모난 판자(方版)를 전하면 네모난 진(方陣)으로 변하여 만든다. 비밀히 파뿌리를 전하면 곧, 에워싸서 셋으로 둘러싸니 이와 같은 종류이다.” 213)

이처럼 어떤 물건의 형태에 따라서 사전에 약속된 진법을 구사하는 훈련방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는 파뿌리도 암호 전달의 한 가지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

212) 『승정원일기』 고종4(1867)년 9월 11일

213) 정약용 『여유당전서』

이다.

연무관은 임금이 백성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기해 주필²¹⁴⁾ 때, 정조대왕은 산성에 머무르는 동안 거의 매일 연무관에 들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한편, 남한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승군의 폐단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했다. 수어사·경기감사·광주부윤이 백성을 거느리고 명을 받고 나아가니, 승지 이병모(李秉模)를 시켜 백성을 위로하는 글을 읽게 하고, 또 이병모를 시켜 하유하기를,

“나 과인(寡人)은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 혜택이 아래까지 미치기에 부족하여 …… 매양 나도 모르게 잠을 자는 것이 편치 않다. …… 산성 백성의 노고는 다른 곳보다 더욱이 심하거니와 무릇, 너희들의 근심되고 고생되는 단서를 모름지기 내 앞에서 모두 아뢰어야 한다. 내가 묘당(廟堂)의 신하와 수령으로 하여금 바로 잡고 고칠 방도를 강구하게 하겠다.” 하였다.²¹⁵⁾

다음 날에는 연병관에서 문사·무사를 시험하여 문과에 민태혁(閔台赫) 등 3인을 뽑고 무과에 이상연(李尙淵) 등 15인을 뽑았는데, 이 때 문과에 응시한 선비가 800명이 넘었고 무과에 응시한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시험의 주제는 ‘재덕부재험(在德不在險 ; 덕에 달려 있지 힘준한 데 달려 있지 않다.’로 삼았다. 임금이 수어사 서명응에게, “남한산성은 국가에서 급할 때에 믿는 곳이다.” 하고, 승군의 좌작진퇴(坐作進退)하는 방법도 직접 시열(試閱)하였는데, 승군들이 방진(方陣)·원진(圓陣)을 법식대로 벌여 이루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련(操鍊)하지 않은 군사가 오히려 절제(節制)를 아니니, 가상하다.”고 칭찬했다. 한편 근년 이래로 이미 조련에 부지런하지 않거니와 또 노역(勞役)을 돌보지 않아서 점점 이산(離散)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단결(團結)하여 군사를 만드는 것이 급할 때의 도움이 될 뿐이 아니라 다 같은 내 백성” 이므로, 구제할 방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²¹⁶⁾

8월 9일에는 임금이 황금으로 장식한 갑옷을 입고 서장대에서 주야간 훈련을 점검하고 산성의 여러 곳을 차례로 순시한 후 연무관에 들러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폐단이었던 보홀고(保恤庫)의 빛을 탕척해 주었다. 서명응이 백성들의 고통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214) 효종대왕의 60주기(週忌)가 되는 기해(1779)년에 여주에 있는 효종의 능인 영릉(寧陵)을 참배하려 오가면서 정조대왕이 남한산성에 들렀던 일을 기해주필이라 한다.

215) 『정조실록』 1779년 8월 7일

216) 정조 1779년 8월 8일

“숙묘(肅廟:숙종)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백성에게 이롭다면 살갓인들 어찌 아까우랴?’ 하셨고, …… 무릇 백성을 편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어찌 피부가 아깝지 않을 뿐이겠는가? 국용(國用)이 줄어지는 것은 돌볼 것도 못된다.” 하고, “성 안 백성의 빚돈을 탕척하고 문권(文券)을 불사르라.” 하여 빚돈 4천 냥을 탕척해 주었다. 이 때 수어청 교련관이 당초에 빚을 내 줄때부터 20년 동안 쌓인 보홀고의 채무 문서를 연병관 뜰 아래 가져다 놓으니, 임금이 “문권이 어찌 그리 많은가?” 하고 이를 모두 불사르게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우리 임금의 은덕(恩德)이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 하였다.²¹⁷⁾

8) 지수당(地水堂,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과 관어정(觀魚亭)

남한산성 역사관 주차장 옆에 있는 지수당과 관어정 터가 있는 연못이 있다. 흔히 양반들이 낚시를 즐긴 곳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지수당은 세 개의 연못으로 조성되었는데 지금은 두 개만 남아 있다. 1672(현종13)년에 부윤 이세화가 엄고개에 주정소를 새로 지으면서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세운 것이다. 지수당은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른다는 뜻” ²¹⁸⁾이고, 관어정은 “제갈량이 못에 임하여 고기를 구경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아! 못에 임하여 방책을 결정하며 고기를 보고 적을 헤아려, 앉아서 위나라 군사 10만을 막으니, 그 관찰은 진실로 술(術)에 있고, 취(取)함은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후일 이 정자에 올라 ‘관어정’ 이름을 따라서 경계할 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²¹⁹⁾는 기록이 전한다.

9) 남한산성의 호국 사찰

남한산성의 절 가운데 망월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옥정사가 다음이며, 그 나머지 일곱 사찰은 모두 인조2년에 축성할 때 새로 세운 것인데 동림사가 가장 늦고 영원사도 또한 늦게 세웠다. 모두 성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맡겼으며, 각 사찰에 군사무기와 화약을 저장하였다. 이후로 1894년 까지 승군들이 9개 사찰에서 산성의 수비를 맡았다.

개원사(開元寺)는 불경을 많이 소장했고, 무게가 각각 200여근이나 되고, 쌀 몇 섬을 담을 수 있는 큰 놋쇠 동이가 4개 있었으며, 연못에 금붕어를 길렀다. 1637년 가을에

217) 정조 1779년 8월 9일

218) 남학명, 「지수당기」

219) 김재찬의 「관어정소지」

한 조각배가 서호(西湖)에 흘러 들어왔는데, 배 안에 대장경 책상자만이 들어 있었고, 상자에는 ‘중원 개원사 개간(中原開元寺開刊)’이라는 일곱 글자가 있었다. 이를 임금에게 전달하니, 임금이 말하길, “사람이 배를 이끈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왔으니, 이는 신령스럽고 기이한 일이다. 이 책이 중국 개원사에서 나왔으니, 우리 사찰에 같은 이름을 가진 절을 찾아서 길이 간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는데, 그 때 8도에서 <개원>이라는 이름은 남한산성에만 있는 까닭에 금란보(金欄漚) 열 벌로 싸고 따로 사신을 보내 이 절에 간수하게 되었다. 1666(현종7)년에 화약고에 불이 났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바람이 일어 불을 껐다. 1694(숙종20)년 겨울에도 불이 나서 다섯 칸 누각이 모두 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불을 껐기 때문에 누중(樓中)에 보관하던 군사 무기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1636), 12월 21일 개원사의 승려 삼인(三印)이 말과 소를 한 마리씩 바쳤는데, 임금이 이를 군사들에게 먹이도록 명했다. 또, 꿀 세 말을 진상하니 모두 상으로 주었다. 이경석(李景奭)은 형인 이경직(李景稷)과 이안눌(李安訥), 장유(張維)와 함께 개원사에 거처하면서 밤마다 한두 차례 일어나 행궁까지 걸어가서 임금에게 문안하였고, 물러 나와서는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서로 충의(忠義)로써 권면하였다. 개원사는 또한 승은전(崇恩殿)에 있던 인조의 생부인 원종(元宗：定遠君)의 영정과, 문묘의 위판(位版)을 봉안하였던 남한산성 최고의 사찰이기도 하다.

개원사 동쪽 기슭의 한흥사(漢興寺)는 산성이 오래도록 포위되어 공여(供御)하는 물자가 모두 부족하였는데, 한흥사의 승려 희안(希安)이 백지 40권, 산채와 무나물 한가마니씩을 바쳤다. 종이는 비변사에 하사하고 나물은 왕자 · 대신 · 부마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문 안, 국청사(國淸寺)는 현재의 국청사 삼성각 뒤편에 터가 남아 있다. 절의 위치가 부국(富局)에 있어서 부승(富僧)이 많다고 한다. 1624년에 각성스님이 <한흥>과 <국청> 두 절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다가 호란 후에 비로소 한(汗)은 한(漢)과 음이 같고, 금나라가 이 해에 청(淸)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을 깨달았다. 인조도 이를 기이하게 여겨 각성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고 한다.

동문 북쪽의 장경사(長慶寺)는 진남루 남쪽에 망대가 있어 그곳에 오르면 그윽한 경치가 여러 사찰 가운데 으뜸이었다. 호란 때, 한밤중에 적이 동쪽 성으로부터 돌격해 들어와 성이 거의 함락되니, 남녀가 성을 넘어 달아나는 자가 몹시 많아 성안이 가마속 꿇듯 하였다. 이 때, 어영별장 이기축(李起築)이 장경사에 있다가 죽을 힘을 내어

몸을 빼내 독전하니, 적이 물러갔다. 이에 임금이 친림하여 위로의 말을 내리고 특별히 가선대부를 가자하고 완계군(完溪君)을 봉하였다. 이기축은 종형제인 이서(李曙)와 함께 인조반정에 참여하고 능양군(綾陽君:인조)의 잠저(潛邸)에 내왕했다. 서장대 아래의 천주사(天主寺)는 누 앞에 연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천주사」 시가 전해 온다.

천고의 온조왕 자취가 묘연하며 / 유치(遺恥)에 올라 흘려보니 눈물의 흔적이로다./
 산승은 흥망의 일 간여치 않고 / 창문 향하여 연화경을 공부하네. / 피리 불며 높은 누각
 기대니 / 누각 밖으로 옛 싸웠던 언덕 흰히 보이네. / 바람 불 때 변방으로 나가라는 부름
 기다리지 아니하고 / 외로운 성의 달빛에 견디어 시를 짓네.²²⁰⁾

북문 안 남쪽 기슭의 옥정사(玉井寺)는 절 뒤에 큰 우물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 지었고, 현재는 지름 150cm의 맷돌만이 남아 있다. 망월사(望月寺)는 장경사 뒤 기슭에 있는데, 예부터 망월암이 있던 곳이라 남한산성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고려 때 한양에 있던 장의사(壯義寺)를 태조가 한양성을 쌓으면서 이를 헐고 불상과 금자(金字) 화엄경 일부와 금정(金鼎) 하나를 여기에 옮겨 두었다. 동림사(東林寺)는 봉암아래에 있었는데, 청나라 사람이 봉암에 올라가 성 안의 허실을 염탐하였기에 1686(숙종12)년에 부윤 윤지선이 비로소 외성을 쌓으니 이것이 봉암성이다. 둘레가 962보, 7리가 되며, 여첩이 294개, 암문이 4곳이며, 군포가 15곳이다. 동림사를 지어서 이곳을 지키게 하였고, 숙종31년에 수어사 민진후가 5개의 포루를 증축하고 정조 기해년에 고쳐쌓았다. 이민서가 시를 읊기를, “산 머리에는 성이 백장(百丈)이요, 정자 벽은 둘레가 너그럽다. 보호하고 취하는 데 전 일을 참고하겠으나, 올라보니 장관을 얻었네. 오색구름은 하늘이 지척이요, 유월인데도 땅이 높아 찬 기운이 드는구나. 사전에 대비책을 계획하여, 길이 나라가 편안토록 하겠다.” 고 했다. 남단사(南壇寺)는 한홍사 서쪽 기슭에 있었다. 남단사 오른쪽 옆에 사단(社壇)이 있었다. 사단은 좌사(左社)와 우직(右稷)의 양단이며, 담장을 둘렀고, 4문과 각(閣)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지금의 남단은 바로 옛날 하늘에 제사하던 환단(圜壇)이다. 이 땅에 이 나라를 단군이 처음 세우셨는데 역사에 의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무더기를 쌓고 하늘에 제를 올렸다 한다. … 광묘(光廟 : 광해군) 이후로 ‘환단’ 을 고쳐 ‘남단’ 으로 불려왔다. 대체로 군 · 국 · 주 · 현(郡國州縣)이 각기 풍사(風師) · 우사(雨師)에 제

220) 김석주(金錫胄), 「천주사」

올리는 곳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출하게 모시는 정성이야 환단이거나 남단이거나 그 이름이 다르다 하여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라고 한 것처럼 광해군 때부터 남단이라고 불렀던 것이다.²²¹⁾ 남단은 한강 가 청파역 옆의 소나무 숲속에 있었는데, 풍(風) · 운(雲) · 뇌(雷) · 우(雨) · 산천 · 성황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곳이었다. 남단은 남방토룡단(南方土龍壇)이라고도 하고, 5방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던 곳이다. 기우제를 열한 번 지내도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열두 번째로 지내는 기우제가 5방토룡제인데, 정 3품으로 제관을 삼고 흙으로 용을 만들어 동서남북 중앙의 노상(路上)에 놓고 채찍질하여 기우제를 지냈다. 백제에서도 남단에 제사를 지냈으니, 다루왕 2년(AD 29) 봄 정월에 왕이 동명왕묘를 알현하고, 2월에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하였고, 고이왕 14년(AD 247) 봄 정월에도 왕이 동명묘를 참배하고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하였다.²²²⁾

이들 호국 사찰은 일본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다. 1883년 4월 광주유수 겸 수어사였던 박영효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관 신복모 등을 중심으로 하여 남한산성에 1천여 명의 신식 군대를 양성하고자 했으나, 당시 집권세력이 박영효를 면직시킴에 따라 무산되었다. 이어서 1895년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의병전쟁이 전개되면서 남한산성에는 의병 1,600명이 집결하여 국권회복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이때 성 안에는 식량과 각종 대포, 조총, 탄환, 철환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1907년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조선군 소유의 무기를 회수했는데, 남한산성의 무기는 의병들에게 점거될 것을 우려하여 회수보다는 폭파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때 9곳 사찰의 무기가 폭발하면서 천지가 진동하였고, 이로써 호국 사찰은 잿더미가 되었다.²²³⁾

10) 천주교 순교 성지

천주학은 전통적 가치관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 남한산성은 천주교의 순교성지로서의 역사를 추가하게 되었다. 경기도 광주 일대는 권철신, 권일신 형제를 비롯하여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이 앵자산 주어사(走魚寺)에서 천주학 연구 모임을 가졌고, 1779(정조3)년 천진암(天真菴)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 강학회를 열었다. 강학회는 남인 학자 이벽이 참가하면서 활기를 띄어 가톨릭 신앙의 수

221) 정조대왕 행장

222) 안정복, 『동사강목』

223)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

용단계를 앞당기게 되었다. 이들은 이승훈을 북경 천주교회로 파견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영세를 받고, 이벽은 이승훈으로부터 영세를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세를 주는 방식으로 신자 수를 늘려 갔다. 결국 천진암 강학회는 서학(西學)을 서교(西敎)로, 천주학을 천주교로, 즉 학문적 지식을 종교적 신앙으로 변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천주교 박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처참하게 진행되었다. 교인들을 사학(邪學) 죄인으로 치죄한 최초의 광주 토포사, 즉 광주부윤은 이가환(李家煥)이었다. 이가환은 실학자 이익의 종손이며, 이승훈의 숙부로서,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였는데,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하여 일식·월식이나 황도·적도의 교차 각도를 계산하고, 지구의 둘레와 지름에 대한 계산을 도설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수준이었다. 그 자신이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고 자신할 정도였고, 정약용이 ‘귀신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천재였다.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도리어 설득되어 열렬한 천주교인이 되었고,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다.

남한산성은 신유박해(1801) 때 광주 의일리(현 의왕시)에 살던 한덕운(韓德運) 토마스가 체포되어 1801년 12월 28일(음력) 동문 밖에서 처형되는 등 300여명이 순교하여 천주교 신앙의 잇을 수 없는 순교지가 되었다. 남한산성 순교자로는 박중환, 한덕운, 한덕원 형제와, 임희영, 정중호, 이중배, 정순매, 최창주 등의 이름이 전해온다. 이어서 기해박해(1839)에는 구산의 김우집(金禹集), 만집(萬集), 문집(金文集) 3형제와 4촌 주집(冑集)과 아들들이 체포되었고, 병인박해(1866) 때에는 구산의 김성희(金聖熙), 차희(次熙), 경희(敬熙), 윤희(允熙) 그리고 최지현(崔址鉉), 심칠여(沁七汝)와 서문 밖의 홍희만(洪喜萬), 홍학주(洪鶴周) 등 40여 명이 순교하였다. 이들 순교자들은 1925년 7월 5일 교황 피우스 11세에 의해 복자위에 올랐고, 한국 가톨릭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는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 성인과 함께 시성되었다. 순교하기 전 김성우가 남긴 말은 천주교인으로서 반석처럼 굳은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것이다.”

병인박해 때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이 순교하였고 그 후로 10여년 사이에 또 8천여 명이 순교했는데, 이처럼 여러 차례의 박해 때 광주 일대에서도 상당수의 순교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구체적인 이름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전모를 알기 어렵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 때 구산마을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김교영은 곧 구산마을 천주교 순교자

들의 후손으로서 굳은 신앙과도 같이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224)

11)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

남한산성은 독립 운동의 역사 또한 간직하고 있다. 의병항쟁, 만세운동, 신간회 활동, 금림조합 활동, 사회주의 운동 등이 맥을 이어 전개되었다.

박은식은 ‘의병은 우리 민족의 정수(精粹)’ 225)라고 했는데, 남한산성은 을미사변²²⁶⁾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 의병(1895~1896)의 거점이 되었다. 남한산성 의진은 의병운동사상 처음으로 서울진공작전을 계획, 실행 한 점,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항전하였다는 점에서 독립투쟁사에 길이 남을 의거로 평가된다. 심진원(혹은 심영택) 의진을 비롯한 연합의진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김하락, 조성학, 구연영, 김태원, 신용희 등과 이천 화포군 도영장 방춘식(方春植)이 포군 100명을 선발하는 등 단기에 최소한 900명이 모집되어 결성된 ‘이천 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는 1896년 1월, 일본군 수비대 100여명을 백현(魄峴)²²⁷⁾에서 섬멸시키는 쾌거를 올렸고, 2월 28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심진원의 의병과 연합하였다. 여기에는 광주, 이천 외에 양근(양평) 의진도 합세하여, 『동경조일신문』에는 연합의진이 1,60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남한산성 의진은 3단계의 서울진공작전을 수립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시키고자 하였는데, 이 작전은 상당한 전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곳에 주둔했던 의병들은 양근 및 양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안동 지방을 거쳐 1896년 6월에는 경주성을 점령하는 등 끝까지 항쟁을 계속하였는데 이들의 창의대장은 김하락이었고 중군은 광주의 안시흥(安時興)이었다.

일본은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4일 전문 7조로 된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바, 조선의 군사권, 재판권, 징세권이 박탈되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1907년 8월 1일에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광주의 화약고 2곳과 무기고 4곳을 폭파시켰다. 대량의 무기와 화약이 저장되어 있던 남한산성의 화약고는 의병에게 넘어갈 경우 일본군에게 치명적이었으므로 일본군은 황급히 폭파하고 말았

224) 한춘섭, 남한산성 가톨릭 순교사 고찰, 『성남문화유산』, 동명사, 1999

225)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226)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공사 삼포오루(三浦梧樓)의 지령을 받은 일단의 낭인(浪人)들이 명성황후를 소살(燒殺)한 사건

227) 광주-이천 사이에 있는 고개이름, 냇고개. 일명 넓고개(廣峴)이라고 표기하기도 함.

다. 이 시기에 성남 출신의 남상목 의병장은 구식총 40자루와 신식총 10여 자루로 무장하고 전투를 벌였으며, 윤치장 의병장도 광주 묵동에서 일본군 기병대와 교전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양주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19년 2월에 고종황제가 홍서(凶逝)하자, 국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한백봉, 한순회 등은 돌아면 율리(栗里)에서, 낙생면에서는 남태희 전 면장이 주도하여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만세운동은 3월 26일 저녁 5시경에 율리 마을 뒷동산인 모란봉에서 주민 100여명이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 27일 분당리 장날에는 돌마, 낙생면의 연합시위로 이어졌고 대왕면 주민들까지 합세하였을 때에는 그 수효가 3,000명에 이르렀다. 또 동부면과 서부면에서는 이대헌, 김교영, 구희서 등이 3월 26일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송파, 오포, 실촌, 대왕, 구천, 중부면 등지에서 26일과 27일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발발하였는데, 이때 일시에 봉화를 올려 신호를 함으로써 일본측을 당황케 하였다. 중부면 탄리(炭里), 단대리, 수진리에서 운집한 300명의 군중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3월 27일 남한산성으로 진입하였다. 횃불을 신호로 일사불란한 단결력을 과시한 시위군중은 면사무소에 집결하여 평소 친일 행각을 보이던 면장이 시위 동참을 거부하자 곤봉으로 면장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일본 헌병이 발포하여 강제해산 되기에 이르렀다. 남한산성이 조선시대 저항정신의 상징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자주적인 군대 양성지였음을 감안하면 중부면의 만세시위운동은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격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⁸⁾

3.1운동을 주도하였던 인사들은 ‘천도교 성미(誠米)사건’ 에도 관련되었다. 천도교 광주교구장이던 한순회를 비롯하여 김정봉, 한치백, 박무호 등 이 지역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모두 대거 소환조사를 받았다. 1923년부터 민족지도자들이 주도한 ‘물산장려운동’ 은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활발한 국민계몽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신간회 활동으로 이어져 나갔다. 1927년 6월부터 시작된 신간회활동은 한백봉, 한순회, 한진회, 한용회, 한백호, 이대헌 등이 주축이 되어 ‘광주지회’ 를 이끌었다. 신간회는 순회강연을 통하여 민족자존의 독립정신함양과 노동야학, 교양강좌, 웅변대회와 각종연설회 등을 통하여 국민계몽운동을 벌이는 한편,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폐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횡포에 대한 거족적 저항의식 고취, 관리와 경찰의 부정불의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하였다. 광주지회는 1927년 8월 24일 설립되었는데, 경성지회가 6월 10일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에 설치된 것이어서 신간회에 대한 지지

228) 윤종준, 경기도 하남지역 3.1운동의 특징,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의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혜환, 정영신 등이 주도하여 산성리에서 조직한 남한산노동공조회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 단체이다. 남한산노동공조회는 야학을 설립하는 한편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노동계급의 의식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석혜환은 신간회 광주지회에서 1929년에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후반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9년 3월, 석혜환은 원산과업단에 격문을 발송한 혐의로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고, 1935년 1월 광주공산당협의회를 결성하고 비서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6년 4월 경성지법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현재 남한산성의 푸른 소나무들은 바로 남한산성의 주민들이 ‘금림조합(禁林組合)’을 결성하여 일제의 무차별적인 벌목에서 지켜낸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라 할 수 있다.

3. 맺음말

남한산성은 삼국시대에 한강을 둘러싸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세력을 다퉴 때 백제인들에게는 진산이었고, 이 지역을 신라가 차지 할 때에도 역시 중요한 행정구역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문헌기록상 보이는 문무왕 12년 이전부터 남한산성은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 되었다.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고려시대의 몽고군 방어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조선 초기부터 수도 한양을 방위하는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하여 개성, 강화, 수원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4대 보장처로 유지 관리되었다. 그리하여 역대 임금은 이곳에 와서 군사조련과 백성들을 통치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다.

남한산성은 (1)축성 과정에서 전국 8도의 승려가 참여한 호국불교의 성지이며, (2)청나라 20만~30만의 대군이 12,000명의 조선군을 깨트리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이다. 인조가 출성을 한 것은 식량의 재고가 바닥난 때문이었다. (3)남한산성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인 삼학사의 혼이 서려있고, (4)축성 후 인구를 의도적으로 이주시킨 계획도시의 초기 모델이며, (5)천주교 순교의 성지이며, (5)한말 의병항쟁과 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과 신간회 활동, 사회주의 계열을 비롯한 금림조합 등의 활동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항일 운동의 중심지였다.

남한산성은 처음 축조된 이래로 호국 방어 시설로서, 또는 8도문화의 융합과 애국운동의 총체적 사상이 결집된 문화유산이다.

신라사의 재조명

김택기

(동두천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 목 차 〉

1. 서론
2. 신라의 혈통
3. 육촌과 육부
4. 신라의 건국
5. 진한과 진한(秦韓과 辰韓)
6. 신라의 도읍지
7. 신라 왕능
8. 결론

1. 서론

나라가 혼란한 것은 역사가 날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민족의 흔히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1905년 을사강제 조약이 있는 후부터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기위해 한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조작하기 위한 만행을 서둘러 왔던 것이다.

일제는 우리 역사책을 20만권이상 불태워 버리거나 없애버렸으며, 그 결과 한민족의 역사는 완전히 동강나고 잘려버렸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민족정기는 땅에 떨어져 사회는 혼란해지고 교육은 폐쇄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는 속속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날로 어린 학생들은 외국유학의 길로 떠났다.

이러한 일이 너도나도 잇따라 생기게 되자 유학을 보낸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경향이 생겼다. 심지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정은 학자금을 댈 수 없게 되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는 혼란을 틈타 범죄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도박장들이 끊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할 무렵의 현상과도 같다. 가까이 있는 조선왕조 말기와 비슷한 현상이어서 국민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구조속에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집단 이기주의 심리가 팽배하게 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심리가 만연하게 되어 한탕주의 심리로 인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인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는 사실상 불확실해지고 국민은 안정성을 잃고 방황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경제의 안정 없이는 교육이 잘 될리없고 교육이 무너지면 경제는 공황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

즉 경제의 본질은 교육이다.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않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경제의 본질은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교육이 잘 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바로 경제의 원리인 것이다. 교육이 잘되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거울이기에 교육의 본질은 역사라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칭이 경제이다 즉 진리의 글로써 세상의 백성을 이롭게 다스리라는 것이 성현들의 말씀이며, 경제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왜곡된 역사를 가진 나라는 망한다. 그러기에 일제는 한민족의 역사를 조작 또는 날조하고 왜곡시켰던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배워온 역사는 일제 때 민족의 역사를 왜곡,날조시킴은 물론 아예 뭉개버렸다는 사실을 배워왔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사회는 진정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혼돈과 혼란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조선과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던 것이 진실임을 모든 역사원전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중원 대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려까지도 한반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고려도경과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럼 왜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배워 왔는가? 그것은 일제가 왜곡시킨 식민사학을 광복이후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이병도는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가 일정 때 날조한 역사를 그대로 가르쳐 왔다. 만약 역사가 왜곡된 것이 발각된다면 민

족의 번역자가 될까봐 두려워 영원히 은폐를 시도한 것이 한글 전용이다.

국회에서 한글 전용을 통과시켜 한자로 적힌 역사책을 볼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모든 역사책을 한자로 기록해 두었다.

한글 전용자들은 한자(漢字)는 중국글이라고 오도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자는 중국글이 아니며 중국의 역사는 역사상 눈을 닦고 보아도 없는 것이다. 예를 보면 황제(黃帝 BC 2679년)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 BC 2578년 신라원시조), 고양씨(高陽氏 BC 2554년), 고신씨(高辛氏 BC 2476년 고구려원시조), 요왕검(堯王儉 2357년 당나라 시조), 하우씨(夏禹氏 BC 2224년), 성탕씨(成湯氏 BC 1776년), 주무왕(周武王 BC 1122년), 기자조선(箕子朝鮮 BC 1122년), 진(秦 BC 255년), 한(韓 BC 255년), 조(趙 BC 255년), 위(魏 BC 255년), 초(楚 BC 255년), 연(燕 BC 255년), 제(齊 BC 255년), 한(漢 BC 206년) 그리고 당(唐 AD 618년)등 중원대륙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중국 나라가 아니었음을 역사원전에서 밝히고 있다.

신라는 한반도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우리 조상들이 쓴 수 많은 한자원전을 조사해 보면 신라는 한반도에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간략하게 결론을 말한다면 황제의 손자인 고양씨 손녀인 여수로부터 시작하여 진(秦)나라 진시황제에 이른다. 진(秦)나라가 망한 후 150년후에 시림(始林)에서 계림(鷄林) 그리고 신라(新羅)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신라의 직계 선조는 진시황제(秦始皇帝)이고, 신라의 원 조상은 황제의 아들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혈통과 시조 그리고 건국은 모두 한반도가 아니고 중원의 넓은 대륙에서 이루어졌음을 수많은 역사원전으로 고증하려 한다.

오늘날까지 교육부와 역사학자들이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나 축소 조작하여 가르쳐 온 것인지를 논문을 통해 널리 밝히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는 교육의 본체이자 경제의 원천임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신라가 한반도 경주(慶州)에 있었다고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엉터리로 짜 맞추어 온 것은 따지고 보면 민족에게 크나 큰 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 말살되면 교육도 경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중재 선생이 중국대륙을 열한번에 걸쳐 답사하였다. 고구려, 백제의 무덤은 보이지 않았으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신라는 27대 선덕왕(善德王

AD 629년)과 31대 신문왕(神文王 AD 678년)의 묘지 터가 지금도 중국 대륙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1대 헌덕왕(憲德王 AD 806년)의 무덤이 있었던 묘지터도 찾아 사진도 찍어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원 시조인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의 묘지도 찾아 제사지내고 답사 한 바 있다. 경주에 있는 무덤은 신라 후손들이 선조의 유물을 가져와 묻은 가짜 묘이므로 비석이나 비문이 없는 것이다.

만약 한두개 있다면 후손들이 후에 옮겨와 먼 훗날에 새겼을 것이다. 왕릉에 비석이 없다는 것은 가묘이다. 고로 고고학은 민족이 이동한 이동의 역사이지 역사의 정사(正史)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가 한반도 경주에 있었다고 가르쳐온 교단 사학자나 고고학자는 민족의 역사를 축소, 조작, 날조한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오도하면 국가와 민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로 역사를 날조, 조작하는 자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제 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만에 찾았지만 역사를 빼앗긴 채 100년이 넘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좇아 자기의 역사라고 우기는 민족적 치욕을 당하게 한 자들은 바로 식민사학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사학자들이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국이 부강하려면 하루 빨리 한민족사를 찾아 정리하여 세계만방에 알리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그래야만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긍심이 되살아나 부흥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사학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원전을 연구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라(新羅)의 혈통(血統)

신라의 최초 조상은 황제(黃帝 BC 2679년)의 아들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 BC 2578년)이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 의자왕 마지막 편에 적혀 있으며, 신라가 형성되는 혈통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등극한 후 소호금천씨가 대를 이었고 다음으로 전옥고양씨(顓頊高陽氏 BC 2554년)이다. 고양씨 다음으로는 제곡고신씨(帝嚳高辛氏 BC 2476년)이다. 고신씨의

뒤를 이은 사람은 요왕검(堯王儉 BC 2357년)이며, 요임금의 뒤를 이은 왕은 순왕검(舜王儉 BC 2284년)이다. 그 뒤를 이어 하우씨(夏禹氏 BC 2224년)이다. 다시 뒤를 이은 왕은 성탕씨(成湯氏 BC 1766년)이다. 성탕씨가 세운 나라는 상(商)이다. 상나라는 17대에 이르러 반경씨(盤庚氏 BC 1401년)때 은(殷)나라로 고쳤다. 그 후 주(周 BC 1134년) 무왕(武王)이 등극할때 주나라는 낙양(洛陽)에 도읍했다. 이때 기자조선(箕子朝鮮 BC 1122년)은 지금의 산서성 태원(山西省 太原)에 도읍하였다.

그리고 진(秦)나라의 계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의 아들 창의(昌意)는 전욱고양씨(顓頊高陽氏 BC 2554년)를 낳았다. 황제 아들 소호금천씨가 황제 자리에 오른 후 84년 왕위에 있다가 물러날 때 소호금천씨(BC 2578년)와 형제간이었던 창의를 아들 전욱고양씨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 이때 고양씨의 손녀는 여수(女修)였다.

여수는 비자(非子)를 낳았으나 왕위에 오르지 아니했다. 비자는 진중(秦仲)을 낳았으나 역시 왕위에 오르지 아니했다. 진중은 장공(莊公)을 낳았으나 이도 왕위에 오르지 아니했다. 장공에 이어 양공(襄公 BC 778~766년)때 와서 비로소 진(秦)나라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였다. 이때가 주(周)나라 무왕으로부터 12대째인 유왕(幽王)때 이르러 처음으로 진나라가 서게 되었다.

양공에 이어 2대는 문공(文公 BC 766~716년)으로 이어졌다. 문공의 태자인 정공(靖公)이 있었으나 왕위는 오르지 못했다. 3대는 령공(寧公 BC 716~704년)이며, 이어서 4대는 출자(出子 BC 704~698년)이다. 5대는 무공(武公 BC 698~678년)이며, 6대는 덕공(德公 BC 678~676년)이었다. 7대는 선공(宣公 BC 676~664년)이며, 8대는 성공(成公 BC 664~660년)이다. 9대는 목공(穆公 BC 660~621년)이며, 10대는 강공앵(康公罃 BC 621~609년)이다. 11대는 공공화(共公和 BC 609~604년)이며, 12대는 환공(桓公 BC 604~577년)이다. 13대는 경공(景公 BC 577~537년)이며, 14대는 애공(哀公 BC 537~501년)이다. 애공은 태자 이공이 있었으나 왕위는 오르지 못했다. 15대는 혜공(惠公 BC 501~491년)이며, 16대는 도공(悼公 BC 491~477년)이다. 17대는 여공공(厲公共 BC 477~443년)이며, 18대는 조공(躁公 BC 443~429년)이다.

19대는 회공(懷公 BC 429~425년)이며, 회공의 아들 태자소공(太子昭公)이 있었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20대는 영공(靈公 BC 425~415년)이며, 21대는 간공(簡公 BC 415~400년)이다. 22대 혜공(惠公 BC 400~387년)이며, 23대는 출자(出子 BC 387~385년)이며, 24대는 헌공사습(獻公師隰 BC 385~362년)이며, 25대는 효공

거양(孝公渠梁 BC 362~338년)이다. 26대는 혜문왕사(惠文王泗 BC 388~311년)이며, 27대는 무탕(武蕩 BC 311~307년)이다. 28대는 소양왕칙(昭襄王則 BC 307~251년)이며, 29대는 효문왕주(孝文王柱 BC 251~250년)이다.

30대는 장양왕초(莊襄王楚 BC 250~247년)이며, 31대는 진시황제(秦始皇帝 BC 247~210년)이다.

진시황제인 정(政)으로부터 후기 진나라가 건국되었다. 32대는 후기 진나라 이세(二世)인 황제 호해(胡亥 BC 210~207년)이며, 33대는 후기 진나라 3대 진왕자영(秦王子嬰 BC 207년)에 진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라최초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으나 후기 진나라 3대에 이르러 멸망하게 된다. 후기 진나라가 망하자 군신(君臣)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신라의 혈통(血統)은 끊이지 않고 먼 훗날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신라는 황제로부터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 BC 2578년)대를 이어 오면서 손자인 전옥고양씨(BC 2554년)가 천자(天子)에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황제의 아들 창의를 낳은 전옥고양씨이다. 그렇다면 천자에 오른 소호금천씨는 아들이 없었던 것일까? 금천씨와 창위는 형제간이긴 하지만 금천씨가 조카인 고양씨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는데는 의문이다.

고대 사회는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천자 자리를 물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소호금천씨가 황제로부터 천자 자리를 물려 받은 지 84년이 지나고 보니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형제였던 창위의 아들 전옥고양씨(BC 2554년)를 천자로 등극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황제는 2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14명만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기록이 사마천 사기(사기)에 나타나 있다. 성과 이름을 받지 못한 자식은 죽임을 당하거나 두려워 멀리 변방으로 도망간 자식들은 흉노(匈奴)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달아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름을 물려받은 14명의 자식 중 6명만 산해경(山海經)에 이름이 있을 뿐이다.

그중 역사적으로 이름이 나타난 것은 소호금천씨(BC 2578년)이며, 천자이다. 다음으로 창위(昌意)이며 현효(玄囂)이다.

혈통을 간략하게 보면 소호금천씨는 천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직계의 혈통을 잇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조카인 전옥고양씨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 주었다. 고양씨가 등극하여 78년간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아들인 곤(鯀)은 변방에 제후왕(諸侯王)으로 있었지만 천자의 자질이 부족하였는지 물려 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없이 이 황

제의 아들 현호의 손자인 제곡고신씨(帝嚳高辛氏)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고신씨는 아버지가 교극(蛟極)이며 할아버지가 현호이며 증조부가 황제(BC 2679년)였다. 다음으로 고신씨의 후계자는 요단군왕검(堯檀君王儉)이다. 제곡고신씨(BC 2476년)의 큰 부인은 상비(上妃) 강원(姜嫄)씨이며 아들은 후직(后稷)이다. 후직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훗날 버릴棄(기)자로 이름을 棄(기)라고 했다. 둘째 부인 즉 차비는 간적씨(簡狄氏)로 아들 이름을 설(契)이라 했다. 그러니까 고신씨의 장남 후직과 차남 설은 왕위를 받지 못하고 변방으로 나아가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천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버지 고신씨와 어머니 진풍(陳豐)씨 사이에 낳은 세째 아들 요단군왕검이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다. 그후 순(舜), 하(夏), 은(殷), 주(周)로 이어졌다.

진(秦)나라는 황제(황제 BC 2679년)의 아들 소호금천씨(BC 2578년)로부터 전욱고양씨(BC 2554년)로 이어지면서 고양씨의 손녀 여수로부터 역사속으로 혈통을 타고 내려왔으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나라왕 12세 유왕(BC 781~771년)때에 비로소 진(秦)나라는 제후국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진나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대 장양왕초(莊襄王楚)를 마지막으로 진(秦)나라는 소멸되고 후기로 이어진 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했으나 농민의 봉기로 인해 아들 호해에게 살해되었다.

고로 기원전 207년 진왕자 영이 등극할 때에 진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기 진나라는 불과 40여년만에 역사속으로 살아져 갔다. 하지만 진시황제의 후손들은 살아 남아 150년간 갖은 고난을 겪으며 세워지는 나라가 시림(始林), 계림(鷄林), 신라(新羅)로 이어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신라의 건국설을 여러 정사(正史)를 탐독 후 수록하였다.

3. 육촌(六村)과 육부(六部)

신라가 한반도 경주에 도읍했다는 것은 일제 때 날조 조작된 설에 지나지 않는다. 앞장에서 누누이 언급한 바와 같이 황제(黃帝 BC 2679년)의 아들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 BC 2578년)는 분명히 중원 대륙에서 뿌리로 이어져 온 동이족(東夷族)이며, 고대 환인씨(桓因氏 BC 8936년) 이래로 혈통이 내려온 단군의 후예들이다. 고로 한반도에서 나라를 세운 사실이 없는 것이다. 고조선(古朝鮮)은 물론 삼한(三韓)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 중원 대륙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지배해왔던 위대한 백의 민족(白衣民族)이자 배달(倍達)의 자손들이었다.

한편 신라가 한반도 경주에 있다고 하여 사학자들은 60년이 넘도록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학생 그리고 국민들에게 교육해 왔다. 이중재 선생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역사의 원전(原典)을 수만권 보아오면서 역사가 잘못됨을 통분을 금할 길 없었다고 한다. 또한 선조님들이 한문(漢文)으로 남긴 역사책을 닥치는 대로 접할 때마다,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의 오류를 보고 통탄한 나머지 중원대륙을 11차례 답사 하면서 온갖 정사들을 수집하여 숙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가 건국될 당시 육촌과 육부에서 시작 되었다고 했으므로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제1(第一)에 기록되어있는 육촌과 육부에 대하여 건국 당시 지명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시조의 성은 박씨이며, 돌아가신 후 휘호는 혁거세(赫居世)라 했다. 중원대륙에서는 고대부터 박씨(朴氏)란 성은 없었다. 그럼 고려 때 김부식은 왜 박씨(朴氏)라고 했을까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김부식(金富軾)은 고려(高麗) 16대 혜종 2년 4월에 부필(富弼), 부일(富侁), 부식(富軾) 삼형제는 과거에 급제한다. 명문 집안이 된 김부식은 진(秦)나라가 망한 후 군신들이 15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옷과 음식을 얻어먹고 다녔다는 뜻으로 훗날 나라가 세워졌을 때 결의식국(乞衣食國)이라 별칭하였다는 사실은 당나라 때 저술된 유양잡조전집(酉陽雜俎前集)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삼국사기를 지을 당시 김부식은 신라의 시조를 박씨라고 고친 곳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라초기에는 아무리 문헌을 살펴봐도 박씨란 성씨는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김부식은 김씨인 성을 고의로 명문집안의 치욕이 될까봐 고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오봉(五鳳 BC 57년)때 거서간(居西干)은 13세라고 되어 있다. 거서간이란 서역에서 살던 하늘사람 즉 동이인(東夷人)이란 뜻이다. 이 당시 조선유민(朝鮮遺民)들이 산골에 흩어져 살면서 육촌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호칭을 서나벌(徐那伐)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서나벌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 고대 동이들은 이름 하나도 소홀히 짓는 법이 없었다. 반드시 연유가 있는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보아 서나벌이라 했을 것이다. 아마 일정때 원문을 고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서나벌이란 서역에 있는 나라들을 칼로 치겠다는 뜻이다.

그 이유로는 진나라가 세워질 때 지금의 대륙 감숙성 동남부에 있는 천수현(天水縣)에서 섬서성(陝西省) 함양(咸陽)으로 도읍을 옮긴 후 망하였다. 즉 망한 진(秦)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지은 이름이 서야벌(西耶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유민들이 산골에 흩어져 살았는데 여섯 촌을 모아 나라를 세운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섯 촌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고대 역사를 보면 상식밖의 일이다.

신라본기 제1권의 앞줄에서는 여섯 촌에서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기록했으나 뒷 부분에서는 육부 즉 여섯 부족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진한(辰韓)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섯 부족을 모은 어른들이 함께 부족 국가를 세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섯 촌이 있었던 지역을 조사함으로써 신라가 어디서 나라를 세운 것인지 밝혀질 것이다.

첫째,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은 사천성 통강현(通江縣)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사천성 동북부에 있다. 다시 말해 섬서성 남서쪽에 가까운 곳이다

둘째,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은 사천성 고현(高縣) 남쪽 120리이다. 이곳은 사천성 성도(成都) 남단쪽에 있는 곳이다.

셋째, 자산진지촌(觜山珍支村)은 사천성 배능현(배陵縣)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사천성 동남쪽이며, 귀주성 북쪽 변방에 가까운 곳이다.

네번째,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은 사천성 무현(茂縣)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사천성 성도 서북부 지방이다.

다섯번째,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은 지금의 감숙성 난주시로 되어 있다. 이곳은 청해성 서녕의 동남쪽으로 난주와 가까운 곳이다. 난주시는 본시 신라의 금성이 있던 것이다.

여섯번째, 명활산고야촌(明活山高耶村)은 지금의 사천성 봉계현이다. 이곳은 사천성 성도의 바로 동쪽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는 시림(始林) 즉 계림(鷄林)을 중심으로 하여 육촌이 아닌 진한(辰韓)의 육부(六部)로서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재 선생은 없어진 지역을 찾기위해 온갖 정사(正史)와 역사원전을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명을 찾았던 것이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일정때 이병도와 금소룡은 철저히하리만큼 역사를 날조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왜곡된 식민사관을 2009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60년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온 교육부와 식민사학자들은 알고 보면 민족의 치욕적 행위를 앞장 서 해왔고, 또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과 후손들이 알았다면 과연 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한 일이며, 통탄함을 금할 길 없다. 우리들은 하루 빨리 한민

죽 역사를 바로찾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신라(新羅)의 건국(建國)

신라(新羅)가 과연 경주에 도읍했을까? 라는 의문은 나쁜만이 아니었다. 경주에 도읍한 후 신라가 992년간 한곳에서 있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마저 잘못 알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도읍지가 경주에 있다고 하여 온갖 고고학을 꿰맞추어 낭설을 퍼뜨리는 교단학자와 사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늘 방석에 앉아 살아가는 피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중재 선생은 고대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 온 위대하고 찬란했던 역사를 찾기 위해 굶주림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신라의 기원과 도읍지를 찾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졌던 곳이다. 그 결과 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뜻밖에도 유양잡조전집(酉陽雜俎前集)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양잡조전집은 당나라 태종(太宗 AD 627년)때 당나라 태상(太常) 하성식(瑕成式)이 지은 것으로 총 44권으로 되어 있었다. 책 1권 지낙고상(支諾皋上)편에는 신라에 대한 비사(秘史)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라국(新羅國), 유제일귀족(有第一貴族), 금가기원조명방이(金哥其遠祖名旁佉), 유제일인(有第一人), 심유가재기형방이(甚有家財其兄旁佉), 인분거결의식국인(因分居乞衣食國人), 유여기극지(有與其隙地), 일묘내구잠곡종어제제(一苗乃求蠶穀種於第第), 증이여지(蒸而與之), 증이여지부지야(蒸而與之不知也), 지잠시유일잠생언(至蠶時有一蠶生焉), 목장촌여(目長寸餘), 거순대여우식수(居旬大如牛食數), 수엽부족(樹葉不足), 기제지지사간살(其弟知之伺間殺), 기잠경일사방백리내(其蠶經日四方百里內), 잠비집기국가인(蠶飛集其國家人), 위지거잠의지잠지왕야(謂之巨蠶意其蠶之王也), 사린공조지불공곡(四鄰共縲之不供穀), 유일경식언(唯一莖植焉), 기수장척여방이(其穗長尺餘旁佉), 상수지홀위조소절함거방이(常守之忽爲鳥所折啣去旁佉), 축지상산오육리(逐之上山五六里), 조입일석하일물경흑방이(鳥入一石罇日沒徑黑旁佉), 인지석측(因止石側), 지야반월명견군소아적의공희(至夜半月明見群小兒赤衣共戲), 일소아운(一小兒云), 이요하물(爾要何物), 일왈요주소아로일(一曰要酒小兒露一), 김추자격석주급준실구(金錐子擊石酒及樽悉具), 일왈요식우격지병이갱적라어(一曰要食又擊之餅餌羹炙羅於), 석상양구음식이산이(石上良久飲食而散以), 김추삽어석하방이(金錐插於石下旁佉), 대희취기추이환소(大喜取

其錐而還所), 옥수격이변인시부모국(欲隨擊而辨因是富侔國), 역상이주기섬기제방시회(力常以珠璣贍其弟弟方始悔), 기전소기(其前所欺), 잠곡사잉위방이(蠶穀事仍謂旁缶), 시이잠곡기(試以蠶穀欺), 아아혹여형득김추야(我我或如兄得金錐也), 방이지기우유지불급(旁缶知其愚諡之不及), 여기언제잠지지득일(如其言弟蠶之止得一), 잠여상잠곡종지복일경식언(蠶如常蠶穀種之復一莖植焉), 장숙역조소(將熟亦鳥所), 함기제대열(啣其弟大悅), 수지입산지(隨之入山至), 조입처우군(鳥入處遇郡), 귀노왈(鬼怒曰), 시절여김추자내집지(是竊予金錐者乃執之), 위왈(謂曰), 이욕위아축강(爾慾爲我築糠), 삼판호(三版乎), 욱이비장일장호(慾爾鼻長一丈乎), 기제청축강삼판삼일(其弟請築糠三版三日), 기인불성구애(饑因不成求哀), 어귀내원기비비여상이귀국(於鬼乃援其鼻鼻如象而歸國), 인괴이취관지(人怪而聚觀之), 참에이줄기후(慚恚而卒其後), 자손희격추구낭분(子孫戲格錐求浪糞), 인뢰진추실소재(因雷震錐失所在)

; 본문을 해석해보기로 한다

신라국에는 제일 귀족인 김가(金哥)가 있었다. 그의 먼 조상의 이름은 방이(旁缶)이다. 방이에게는 동생이 한명이 있었는데 집이 매우 부유하였다.

형 방이는 분가하여 살았으나 나라가 망한 후 옷과 음식을 구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걸의식국(乞衣食國)’이라 하였다. 백성들은 버려진 땅에서 한 무(畝), 즉 백 평 정도의 밭만 지니고 살았으므로 동생에게 누에 종자와 곡식의 씨앗을 구하였다. 동생은 누에 종자와 곡식의 씨앗을 써서 주었으나 방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누에 종자가 성장하여 한 마리의 누에가 생겨났는데 누에의 눈의 길이가 한마디 정도나 되었다. 열흘이 지나자 몸집이 소만큼 커져 수십 그루의 나뭇잎을 먹고도 부족할 정도였다. 동생이 그것을 알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누에를 죽였다.

하루가 지나자 사방 백리 안에서 누에가 날아와 나라에 모여드니 비집기국가(飛集其國家)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길 누에가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 누에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방 이웃들과 함께 고치를 쳤지만 그 수확물은 바치지 않았다.

심었던 곡식의 씨앗은 단지 한 줄기만 자랐다. 그 이삭의 길이는 1척(30cm 정도) 정도 되었다. 방이는 항상 그 이삭을 보살폈는데, 어느 날 새가 날아와 꺾어 물고 날아갔다. 방이는 새를 쫓아서 산을 5,6리나 올랐다. 새는 어느 바위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해도 저물고 길도 어두워져 방이는 바위 근처에서 머물렀다. 밤이 되어 반달이 밝게 비추자 어린 아이들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모두가 재미있게 노는 것이었다.

한 아이가 말하였다.

“이와 같을 때 어떤 물건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를 말한다면 술인 것이다.”

그러자 한 아이가 쇠로 된 송곳 한 개를 꺼내어 바위에 두드렸다. 그러자 술과 술그릇이 다 갖추어졌다.

“다시 말한다면 음식인 것이다”

다시 바위를 두드리자 떡, 경단, 국, 산적이 바위 위에 차려졌다. 오래도록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다가 쇠 송곳을 바위틈에 끼워놓고 사라졌다.

방위는 크게 기뻐하며 송곳을 가지고 돌아왔다. 바라는 바를 쫓아 두드려보니 모든 것이 갖추어져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 재물을 동생에게 주어 도와주었다. 그러자 동생은 지난날에 누에 종자와 곡식의 씨앗을 속인 일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형 방이에게 누차 말하였다.

“제가 속였던 누에 종자와 곡식의 씨앗을 가지고 저도 형님처럼 해본다면 혹시나 쇠 송곳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이는 그 어리석음을 알고 동생을 타일렀다.

“너의 말처럼 될 수는 없느니라”

동생은 누에를 둘러보고 하나의 누에를 가져다가 형과 같이 누에 종자와 곡식의 씨앗을 항상 보살폈고 또한 줄기의 심었다.

씨앗이 돌아나 무르익자 역시나 새가 날아와 물어가는 것이었다. 동생은 크게 기뻐하면서 새를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새가 들어간 곳에 이르자 도깨비 무리가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우리의 쇠 송곳을 훔친 놈이구나! 너를 잡아들이겠다”

하면서 또 말하였다.

“나를 위하여 쌀겨(벼 껍데기) 세 판을 쌓든지 아니면 너의 코를 한 장(一丈 : 약 3m) 늘리든지 네가 바라는 대로 해라”

동생은 쌀겨 세 판을 쌓겠다고 청하였다. 3일 동안 굶주리면서 힘을 들였으나 다 쌓지는 못하였다. 도깨비에게 애걸하였으나 결국 코가 길게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난 코는 코끼리 코 같았다. 나라로 돌아오니 사람이 괴상하다면서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부끄럽고도 걱정이 돼서 갑자기 죽고 말았다.

그 후 자손들은 선조인 김추(金錐)를 구하기 위해 이리 똥을 구해 송곳으로 두드리며 놀았다. 천둥과 벼락이 치듯이 김추는 갑작스럽게 사라져 그의 소재를 잃어버렸다.

이상의 본문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 “신라”라는 나라는 제일 귀족이다. 김가의 먼 조상은 왕족이며 이름은 “방이”라고 했다. 그 형 방이는 재산이 부유했으나 전란으로 인하여 얻어먹고 다니다 만들어진 나라라 해서 별칭으로 길의식국(乞衣食國)의 사람이라 했다. 어쩌다 땅이 구멍 나듯 갈라져 버리고 겨우 땅 100평을 구해 누에와 곡식 종자를 동생과 함께 심었다. 그 당시 누에가 있을 때 한마리의 누에를 살려 눈길 이만큼 열흘 동안 크게 기르니 소처럼 끝없이 먹어 치웠다. 그리하여 사방 백리에 누에치는 집들이 모여 들었다고 해서 별칭을 비집기국가(飛集其國家)의 사람이라 했다. 사방 이웃들은 다 같이 줄기를 심어 이삭이 자라나서 길이가 길게 한 사람은 방이었다고 되어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는 한반도가 아닌 중원대륙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는 고대사회 때부터 누에를 쳐서 비단을 만든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당)나라 때 태상(태상)벼슬을 한 사람이 신라의 비사를 왜 집필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신라(신라)는 넓고 넓은 중원대륙에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육촌과 육부설에서 지역을 밝힌 바와 같이 현 중국대륙의 감숙성 남쪽 끝머리에서 신라는 최초로 시림(시림)으로 나라가 서게 되었다.

그것은 앞에서도 누누이 언급한 바와 같이 누에치는 사람들이 사방 백리까지 모여 나라를 일구었던 것이다. 그 당시 고대 최초로 비단을 짜서 서역으로 교역을 한 나라가 신라(新羅)이다. 다시말해 실크로드 길을 열게 한 나라가 바로 신라임을 밝히고 있다.

신라의 먼 조상은 김방이(金旁佉)라 했는데 먼 훗날 김추(金錐)에 의해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로 신라의 시조는 거서간(居西干)이며, 돌아가신 후에는 혁거세이다. 그러나 신라의 뿌리 조상은 소호금천씨(BC 2578년)로부터 내려온 김씨였던 것이다.

5. 진한(秦韓)과 진한(辰韓)

진한(秦韓)과 진한(辰韓)에 대하여 뿌리를 찾아 기술해보기로 한다. 삼한(三韓)중 고대,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장자는 대부한만(大夫韓萬)이며, 둘째 아들은 성왕(成王)이다. 그리고 셋째아들은 진당숙우(晉唐叔虞)이다. 주(周)무왕의 대를 둘째 아들 성왕(成王)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큰 아들인 대부(大夫)였던

한만(韓萬)은 한나라 제후국의 왕이 되었다. 셋째 아들 진당숙우 역시 진(晉)나라 제후국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주무왕의 3형제(三兄弟)는 각각 왕이 되었다. 그러나 천자(天子)의 왕위는 둘째 아들 성왕(成王 BC 1115년)이 된다. 큰 아들 한만은 한(韓)나라를, 셋째아들 진당숙우는 진(晉)나라 제후국을 세웠으나, 형제간에 서로 연대하여 진(晉)나라로 통칭하여 왔다. 그러나 주나라 후반기 제후국들의 분쟁이 잦아지자 주나라 30대 위열왕(威烈王 BC 425년)때인 23년에 진(晉)나라가 멸하면서 삼한(三韓)인 한(韓), 조(趙), 위(魏)나라의 형제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물론 한원(韓源)이하의 변한은 하(夏)나라때부터 작은 제후국이었다. 그 후 마한(馬韓)역시 은(殷)나라 말기에 소제국(小諸國)으로 있었다.

삼한(三韓)은 제후국이지만 큰 나라로 비길만한 국가 체제로 갖추게 된 것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의 삼한(三韓)시대이다. 삼한이 서로 정립된 것은 형제 나라이다. 주(周)나라 위열왕때 삼한이 선 이후 146년이 지나자 칠웅시대(七雄時代)가 시작되었다. 이때는 춘추시대(春秋時代 ; BC 770 ~ 476년)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춘추전국시대(BC 475 ~ 221년)로 접어들었다. 칠웅이란 일곱나라가 경쟁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진(秦)나라, 한(韓)나라, 조(趙)나라, 위(魏)나라, 초(楚)나라, 연(燕)나라, 제(齊)나라이다. 일곱나라는 모두 주(周)나라 말기 때의 제후국이다. 이들 나라 외에도 주(周)나라 말기에는 약 2,000개의 나라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중재 선생이 저술한 한민족사 책에는 1,327개 나라를 찾아 기록하였다. 칠웅시대가 접어들면서 중원대륙은 혼란의 조짐이 보였다. 마침내 주(周)나라가 망하자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진(秦)나라는 6국 즉 여섯 나라를 정복하고 천하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진나라는 불과 40여년만에 농민의 봉기로 인하여 진시황제(秦始皇帝)는 아들 호해(胡亥)에게 죽임을 당하고 2세 황제인 호해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호해가 왕위에 오른지 3년 조(趙)나라 제왕이던 고소(高所)가 진나라 2세 황제인 호해를 살해하고 아들 영(嬰)을 왕위에 올렸다. 기원전 207년 9월 진나라 3세 황제인 영은 복수를 하기 위해 조나라 왕이었던 고소(高所)를 토벌해 죽였으나 패공(沛公)이 요관으로 들어와 이르자 진왕인 영은 항복하여 진나라는 망하였다.

후한서 동이열전(後漢書 東夷列傳)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한기로자언진망지인(辰韓耆老自言秦亡之人), 진한(辰韓)의 늙은 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秦)나라는 망한 사람들이다.

유사진어혹명지위진한(有似秦語或名之爲秦韓)이란 진(秦)나라 말과 같은 고로 혹은 이름은 진(秦)나라라 했다.

다음은 양서(梁書) 동이지국(東夷之國)에 대하여 기록해 보기로 한다.

신라진한역왕진한상거만리(新羅辰韓亦曰秦韓相去萬里)라 했다. 즉 신라는 진한(辰韓)이며 역시 말한다면 진한(秦韓)이다. 서로 만리의 거리이다. 다시 말해 진나라가 있을 당시는 중원대륙인 감숙성의 동남쪽에 천수현(天水縣)에 도읍하고 있을 때이다. 신라 사람은 함께 같은 같은 뿌리로 진(秦)나라의 백성으로 있었으나, 진나라가 망한 먼 훗날은 신라가 강국으로 부상할 때는 만리 이상 떨어져 있었다. 즉 감숙성 천수현에서 만리라면 산동성이나 강소성임을 말한다. 만약 한반도라면 2만리가 넘는 길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단락에서 보면 신라의 진한은 대륙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진한(秦韓)이 망하여 후에 진한(辰韓)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계속 양서(梁書)의 원전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전언진세망인피역내적(傳言秦世亡人避役來適)이라 했다. 즉 진(秦)나라 세상은 망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적당한 곳으로 피난하여 부역 즉 살아가기로 하였다.

마한마한역할기동계거지(馬韓馬韓亦割其東界居之)이라 했다. 말하자면 진(秦)나라 사람들은 마한과 마한의 사이에 있는 동쪽 경계에서 살기로 하였다.

진인고명지왕진한(秦人故名之曰秦韓)이다. 진나라 사람인 고로 이름을 말한다면 진한이다라고 적고 있다.

삼국지(三國志) 변진편(弁辰編)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진한자시유육국초분위십이국변진역십이국(秦韓者始有六國稍分爲十二國弁辰亦十二國)이라 했다. 진한(秦韓)은 처음 여섯 나라가 나누어져 열두 나라가 되었다. 변진 역시 열두 나라이다 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진한(秦韓)이라고 하는 것은 진(秦)나라가 망한 후 진한(秦韓)을 뜻한다. 진나라가 망한 뒤 진나라 사람들이 뭉쳐 진한(辰韓)이라 했으며, 처음 여섯 나라였으나 여섯 나라가 나누어져 열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북사(北史) 구십사권(九十四卷)에 있는 기록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신라자기선본진한종야(新羅者其先本辰韓種也)이라 했다. 이는 신라는 본시 그 선조가 진한(辰韓)의 뿌리라고 적고 있다.

지재고려동남거(地在高麗東南居)란 지재 즉 신라는 고구려 동남에서 살았다. 신라는 처음 건국 당시는 감숙성 남단에 있었지만 고구려, 백제가 망할 무렵에는 대륙의 동남쪽에 있었던 것이다.

진한역왈진한전언(辰韓亦曰秦韓傳言)이란 했는데 이 또한 진한(辰韓)은 전하는 말로는 진한(秦韓)이다.

진세망인피역내적마한할기동거지(秦世亡人避役來適馬韓割其東居之)라 했다. 이 의미는 진나라 세상 때 망한 진(秦)나라 사람이 적당한 곳으로 살기 위해 피난 왔다. 그것은 마한의 동쪽경계에 나누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다.

이진인고명지왈(以秦人故名之曰)은 이런 까닭에 옛 진나라 사람의 이름이라 말한다.

진한기언어명물유사(秦韓其言語名物有似)는 진한의 그 말과 명물은 같은 것이다.

중국인명국위방궁(中國人名國爲邦弓)이란 중원국에 이름 있는 나라 사람들은 많은 활로 통치하였다.

위고적위구행주위행상상호(爲孤賊爲寇行酒爲行觴相呼)는 외로움 때문에 도적이 되어 술 먹고 다니면서 도적질을 했으며, 다니면서도 서로 의심하였다.

개위도부여마한동우진한왕상용(皆爲徒不與馬韓同又辰韓王常用)이라 했다. 모든 무리들은 도적이 아니었으며 마한과 같았고 또한 진한 왕과 항상 통했다.

마한인작지세세상전진한부득자립왕(馬韓人作之世世相傳辰韓不得自立王)이란 다음과 같다. 마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세상에 서로 전해오는 사이 진한은 부득이 스스로 왕을 옹립했다.

본문에서 보면 진나라 사람들은 피난와서 마한의 동쪽 경계에 나누어 살고 있었으나 언제나 마한왕의 지배를 받다가 진한(秦韓)은 스스로 자립하여 진한왕(辰韓王)을 옹립했다는 글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연대가 기원전 57년이고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북사(北史)의 본문에서 보면 마한(馬韓)인 고구려는 이미 앞서 건국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신라보다 훨씬 앞의 년대가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니겠는가?. 오늘날까지 고구려 역사는 750년으로 가르쳐 왔다. 이중재 선생이 연구해 본 결과 150년의 역사년대 착오가 있었기에 이중재 선생은 고구려 역사를 900년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시 북사 본문을 계속 풀어보기로 한다.

명기유이지인고야(明其流移之人故也)란 다음과 같다. 명문집안에서 흘러 옮겨온 사람들이란 뜻이다. 즉 진(秦)나라가 망한 뒤 군신들은 이동하여 만든 나라가 진한(辰韓)이라는 것을 말한다.

항위마한소제진한시유육국초분위십이, 신라척기 일야(恒爲馬韓所制辰韓始有六國稍分爲十二, 新羅則其一也)는 다음과 같다. 언제나 마한의 제도에 위해서였다. 진한은 처

음에 여섯 나라가 있었는데 나누어져 열두 나라였다. 신라는 그중 하나이다. 진나라가 망한 후 마한의 땅 동쪽에 와서 살면서 마한의 지배를 받다 쪼개지는 바람에 열 두개 나라에서 독립하였음을 뜻한다.

다음은 진서(晉書) 구십칠권(九十七卷) 진한(辰韓)편을 보기로 한다.

진한재마한지동(辰韓在馬韓之東)이란 진한은 마한이 있는 동쪽이라 했다.

자연진지망인피역입한(自言秦之亡人避役入韓), 한할동계이거지입성(韓割東界以居之立城)이라 했다. 즉 진(秦)나라에서 망한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살기위해 피신하여 한나라 즉 마한으로 들어갔다. 마한의 동쪽 경계선을 나누어 살면서 자립하기 위해 성을 세우고 살았다. 만약 마한이 한반도에 있었다면 중원대륙에서 망한 진(秦)나라 사람들이 한반도의 마한까지 피난을 왔을까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 진한 역작진한편(三國遺事 辰韓 亦作秦韓篇)을 적어보기로 한다. 후한서운(後漢書云) 진한기로자연(辰韓耆老自言), 진지망인적한국(秦之亡人適韓國), 이마한할동계지이여지(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상호위도유사진어(相呼爲徒有似秦語), 고흥명지위진한(故或名之爲秦韓), 유십이소국각만호칭국(有十二小國各萬戶稱國), 우취치원운(又崔致遠云), 진한본연인피지자(辰韓本燕人避之者), 고취탁수지명(故取涿水之名), 칭소거지읍리(稱所居之邑里), 운사탁(云沙涿), 점탁등라인방언(漸涿等羅人方言), 중략(中略), 신라전성지시(新羅全盛之時), 경중십칠만팔천구백삼십육호(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일천삼백육십방(一千三百六十坊), 오십오리(五十五里)라고 되어있다.

본문을 풀어보기로 한다. 후한서에 의하면 진한(辰韓)의 늙은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진나라가 망한 후 사람들은 적당한 곳을 찾아 한국(韓國) 즉 마한의 동쪽 경계의 땅으로 왔다. 이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부를 때는 진(秦)나라와 같은 말을 하였다. 고로 그 이름은 진한(秦韓)이다. 그당시 열두 곳에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호수가 각각 만여호로 칭하는 나라였다.

또한 최치원의 말에 의하면 진한(辰韓)은 본시 연(燕)나라 사람들이 피난온 자들이다. 고로 탁수(涿水)가 있는 땅을 취하였다. 여기서 탁수는 지금의 서안(西安)이다. 이곳은 읍과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했다. 말하자면 이곳은 사탁(沙涿) 또는 점탁(漸涿)이다. 신라 사람들은 방언(方言) 즉 사투리를 썼다. 중략.

신라는 전성시대 서울의 중심에는 17만 8936호이며, 1,360방이다. 여기서 방(坊)이란 읍과 동(洞)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읍, 동이 신라 서울안에 1360방이라면 신라 서울안에 읍과 동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을은 "55리"라고 되어있다.

삼국유사 본문에서 신라의 서울안에 178,936호라 했으므로 대략인구수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현재 경상도 경주에는 현재 도시로 발전한 상태에서도 인구는 고작 29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대에는 산아제한이나 낙태수술이 없었으므로 아이가 생긴다고 낳았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낳아서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으로 다섯명을 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아이 다섯명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한 가정에 9명을 계산해 보면 일백육십만이천사백이십사명 숫자로 표기하면 1,602,424명이나 된다. 본문에서 탁수(涿水)가 있는 지명을 취했다했으므로 중국 고금지명대사전 821쪽에 보면 재경조탁현서(在京兆涿縣西)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시대는 서경(西京)이며, 이곳을 총칭하여 경조라 부른다. 고(故)로 연(燕)나라 사람이 피난을 왔다 했는데 대부분 진(秦)나라 사람이 피난을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전국시대의 상황으로 봐서 진(秦)나라, 한(韓), 조(趙), 위(魏)등 여러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미국에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는 진한(辰韓)임이 분명하다. 진한(秦韓)인 진(秦)나라가 망한 후 진나라 사람들은 진한이 망한 칭호를 쓸 수 없게 되자 진(秦)나라가 별처럼 반짝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뜻에서 진한(辰韓)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진한(秦韓)은 진한(辰韓)임이 분명하므로 이 기회에 확실히 밝혀주고자 한다.

이외에도 정사(正史)들은 신라(新羅)가 대륙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몇가지만 적는다면 통전(通典), 통지(通志), 책부원구(冊府元龜), 자치통감(資治通鑑), 수경주소(水經注疏), 태평어람(太平御覽),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남사(南史)등 많은 책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조선(朝鮮)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고대사서(古代史書)인 산해경(山海經), 사기(史記), 죽서기년(竹書紀年)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진한(秦韓)과 진한(辰韓)은 같은 뿌리로서 고대신라의 직계는 진한(辰韓)이라면 진한의 바로 조상은 진(秦)나라의 진한(秦韓)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현중국정부에서 진시황릉의 무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신라의 직계조상임이 밝혀질까봐 철저히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사실이 밝혀진다면 현 중국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중국정부는 혼란속에 빠질 우려를 염려하여 극비 작업으로 철저한 왜곡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긴다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대사서는 얼마

든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하여 현 중국에서는 사서의 원전마저 모두 누락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어서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현 중국을 위해 몇몇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부연하려 하는 것은 신라(新羅)는 분명히 한(漢)나라 낙랑땅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서(隋書)는 수나라 역사를 쓴 책이다.

수서 팔십일권(八十一卷) 동이전본문(東夷傳本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라국재(新羅國在), 고려동남거(高麗東南居), 한시낙랑지지(漢時樂浪之地)라 했다. 이곳은 한(漢)나라때 낙랑의 땅이라고 했다. 또 1931년에 장려화가 쓴 중국고금지명대사전 1,334쪽에 계림고국명즉 신라(鷄林古國名即 新羅)라고 적고 있다. 즉 계림은 옛 나라 이름이며, 신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28대 보장왕때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현도낙랑본조선지지(玄道樂浪本朝鮮之地) 기자소봉기자교민(箕子所封箕子敎民)이라 했다.

이말을 풀면 현도와 낙랑은 본시 조선의 땅이다. 그리고 이곳은 기자가 봉작을 받아 도읍했던 곳이며, 기자는 백성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조선과 삼한은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는 현 중국대륙에 있는 사군지(四郡地)인 현도(玄道), 낙랑(樂浪), 진번(眞番), 임둔(臨屯)은 한반도에 없고, 대륙에 있었음을 정사들은 명백하게 적고 있다. 요즘 교단학자들은 삼국사기는 사대주의 사서라고 몰아세운다. 터무니없이 철저히 엄폐조작 또는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어디까지나 정사로서 대륙사관인 모든 정사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역사가 밝혀질까 봐 고의로 교단학자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신라(新羅)는 고대 진나라인 진한(秦韓)에서 진한(辰韓)으로 역사는 이어져오고 있는 곳이다.

6. 신라(新羅)의 도읍지(都邑地)

신라의 도읍지에 대하여 직접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앞장에서 간접적으로 신라 건국설에서논한 바 있다. 그러나 신라가 언제 어디서 도읍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정사

(正史)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신라의 공식 나라이름은 서나벌(西那伐)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신라의 건국설을 기준으로 보다 확실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서나벌이란 국호는 거서간(居西干)이 13세때라 했다. 이때가 BC 57년이다. 그후 122년이 지난 4대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9년 3월에 있었던 일을 삼국사기를 통해 소개한다. 왕이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의 나무사이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때, 지명(遲明)인 호공(瓠公)을 보내어 보았다. 금색의 작은 꿩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그곳에는 흰닭이 나무아래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호공은 돌아와 고했다. 왕은 신하를 시켜 꿩을 열어보니 어린 사내아이가 있는지라 용모와 자태가 기특하였다. 왕은 기뻐하면서 좌우 신하에게 말하기를 어찌 하늘에서 나에게 준 씨앗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길렀다. 아이는 장성하면서 총명하고 지략이 우수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알지(閼智)라 했으며, 금의 꿩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金氏)라 하고 시림의 이름을 고쳐 계림(鷄林)이라 했다. 이로 인하여 나라 이름은 계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문을 풀어보니 의문 나는 점이 생겼다. 그것은 금성(金城) 서쪽에 있는 시림의 숲 사이라고 한것은 현 중국서역에 있는 감숙성 난주를 뜻한다. 금성(金城)의 기록은 구당서(舊唐書)와 당서(唐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구당서 동이전(東夷傳)과 당시 동이전에서는 이왕거금성(而王居金城) 환팔리소위병삼천인(還八里所衛兵三千人)이라고 적고 있다. 즉 왕이 살던 금성의 둘레는 8리이고 주위를 지키는 병사는 삼천명이라했다. 그런데 구당서에는 지키는 병사의 부대명이 사자대(獅子隊) 즉 사자의 부대란 뜻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최초 도읍지인 옛 계림은 지금의 난주에 있는 금성(金城)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모택동(毛澤東)은 1956년 문화혁명으로 모든 유적지 즉 묘(墓)와 성(城) 그리고 비석 등 역사의 유물은 모두 파괴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 중 몇 가지만 주은래(周恩來)의 반대로 신라시조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 BC 2578년)의 묘지와 진시황제의 묘지 그리고 공자 묘지는 남아있었다. 신라의 국호가 생기기 전까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결의식국(乞衣食國)이라든가 비집기가국(飛集其家國)라든가 또는 시라(尸羅)등으로 세속에서 불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시림(始林)의 숲에서 흰 닭이 울었다는 것은 서자출신을 말한다. 고대의 언어는 해학적이며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면서 풍자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함부로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슨 이유가 합당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치가 맞아야 한

다는 것이 고대사회의 법칙이자 불문율이었다. 고로 금성(金城)은 역사상 최초로 금속이 들어간 쇠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림(始林)과 계림(鷄林)의 이름 역시 그러했다. 또한 신라(新羅)라는 이름은 더욱 의미가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라가 금성에 있을 당시는 내실을 기한 작은 나라였다. 비단을 짜서 실크로드 길을 처음 열어 나라의 부강을 점차 확산해 가려는 국가 체제였다. 고로 서역을 중심으로 누에를 치고 비단을 생산하여 생산적 기반을 닦아갔다. 지금도 서역인 감숙성, 신강성 일대 특히 곤륜산 자락을 배경으로 한 도시일대는 비단을 전문으로 짜는 곳이다. 그러기에 신강성(新疆省)이라는 이름 역시 새롭고 광대한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신라(新羅)의 이름은 새로운 비단이라는 뜻이며, 새로운 비단을 널리 벌리고 펼친다는 뜻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크로드라 했다. 실크는 비단이며 로드는 길인 것이다. 고로 실크 즉 비단길이란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옛 고대 사서에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는 서역(西域)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대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2년 봄 2월에는 월성을 쌓고 가을 7월에는 도읍지를 옮겼다. 축성명월성(築城名月城) 추칠월(秋七月), 왕이거월성(王移居月城)이라 했다. 성을 쌓은 이름은 월성이다. 가을 7월에는 왕이 월성으로 옮겨 살았다고 했다.

월성(月城)은 금성(金城) 동남쪽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 중국의 사학자들은 역사의 실체가 밝혀질까봐 철저히 지명을 없애거나 옮겨 버렸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다. 만약 역사의 실체가 들어나면 중국이란 나라는 정통성이 없어지고 사회의 혼란으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 이름만은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계속하란으로 인하월성(月城)은 삼국사기(三國史記 三十四卷) 지리지(地理志)에 보면 금성(金城)의 동남쪽에 있고로 수있기 때가 1,023걸음으로 되어으로 인하四卷) 지의 동남성현(成縣)인 것으로 보좌 인하새로 세운 월성(月城) 동남북쪽에는 만월성(滿月城)이 있고로 수있기 때는 1,838걸음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월성(月城)의 동쪽으로 명활성(明活城)이며, 주위는 1,906보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660년 후 35대 경덕왕(景德王)이 지명을 모두 바꾼 것이므로 확실한 지 의문이다.

세종 때 저술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주편(慶州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위경주부별호낙랑야(爲慶州府別號樂浪也) 순화소정(淳化所定)이라 했다.

이말을 풀어보기로 한다. 경주부를 별칭으로 낙랑이라고 했으며, 그곳은 순화로 정해

진 곳이다라는 뜻이다. 현재 한반도에는 고대로 낙랑이란 지명이 없었다. 이중재 선생은 순화의 지역을 2004년 8월 학생들과 회원일부가 대륙을 찾아갔다. 순화(淳化)라는 지명은 지금의 서안(西安)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었다. 순화현(淳化縣)사무소를 들러 그곳 현(縣)의 국장에게 고대 이곳을 경주라 불렀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다.

이중재 선생은 대륙 열 한번 답사할 때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 물었더니 삼국사기에 있는 지명과 틀림이 없었다. 특히 삼국사기 지명을 보고 여러 지명사전과 대조하여 찾아가 보니 딱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대로 묘지와 성(城) 그리고 절 등이 확실하게 나타난 지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신라(新羅)는 15대 기림이사금(基臨尼斯今)10년에 국호를 신라(新羅)로 개칭한 후 본격적으로 동진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35대 경덕왕(景德王)때 대륙 곳곳에 작은 서울 다섯 군대를 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월성에서 20대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18년에 명활성(明活城)으로 왕의 도읍지를 옮긴 이후라 할 수 있다.

신라는 명활성으로 옮긴 15년뒤 21대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10년에 다시 월성(月城)으로 도읍지를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新羅)는 도읍지를 대략 5번 이상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간 신라의 천도는 금성(金城)에서 월성(月城) 다시 월성에서 명활성(明活城)으로 다시 월성(月城)으로 옮겼음을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 35대 경덕왕(景德王 AD 739년)부터 지명을 대폭 바꾸기 시작했다고 삼국사기 지리지편에 적혀있다.

7. 신라왕능(新羅王陵)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지나대륙(支那大陸)에 남아있는 것은 혁거세(赫居世)와 김유신(金庾信), 선덕여왕(善德女王) 등 많은 신라왕능(新羅王陵)은 지명(地名)이 있으므로 추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왕능(新羅王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성종 1478년에 완성된 책이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있는 경주부(慶州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경주부별호낙랑(慶州府別號樂浪)", "순화소정(淳化所定)", "속현사안강현(屬縣四安康縣)", "본신라비화

현(本新羅比火縣)", "경덕왕개명위의창군영현(景德王改名爲義昌郡領縣)", "고려현종 9년(高麗顯宗 九年)", "무오정주부군현(戊午定州府郡縣)", "소영속경주부(所領屬慶州府)"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을 연결하여 해석해보면,

경주부는 별호로 낙랑(樂浪)이라고 한다. 이곳은 순화가 있는 곳이며, 순화현(淳化縣)은 지나대륙에 있는 운양현(雲陽縣)이다. 한(漢) 나라때 진읍(秦邑)이며 순화현 서북이다. 이곳은 안강현에 속했다. 이곳이 본래 신라의 비화현이다. 경덕왕(景德王 35대 AD 739~761 병오)때 이름을 고쳐 의창군영에 속하는 현이 되었다.

고려(高麗) 현종(顯宗) 9년인 무오(戊午)년 정주부(定州府) 군현(郡縣)이다. 바로 이곳이 경주부 영에 속하는 곳이라고 적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경주(慶州)는 처음이 정주(定州)인데, 정주는 지나대륙(支那大陸)에 있는 감숙성 무위현(武威縣) 서북이다. 그 후 두 번째의 경주가 순화현(淳化縣)이며, 순화현은 운양현(雲陽縣)이다. 운양현은 한(漢)나라때 진읍이다. 섬서성(陝西省)은 순화현의 서북이다.

세 번째의 경주는 산서성(山西省) 기현(祁縣)의 동쪽이다.

네 번째의 경주는 섬서성(陝西省) 경양현(涇陽縣)의 북쪽 30리 이다

다섯번째의 경주는 사천성(四川省) 기주부이며, "이곳은 동천도(東川道) 거리이다"라고 적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가 한반도가 아닌 지나대륙이므로 당연히 신라왕능(新羅王陵)들도 대륙에 있음은 말할 나위없다. 그런 뜻에서 혁거세의 왕능(王陵)도 대륙(大陸)에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혁거세(혹은 거서간 居西干)의 묘는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 호구산(虎丘山)에 있는 운암사(雲巖寺) 북쪽 거부(距府)에서 남으로 4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대대각간(大大角干)인 김유신(金庾信) 묘는 강소성 호구산 모지사(毛只寺) 북봉(北峰) 거부4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금부터 신라왕능을 재 조사해 보기로 한다.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은 거서간(혁거세)의 장지인 운암사 북쪽 사릉원(蛇陵園)이다.

혁거세와 같은 곳에 있는 장지는 유리이사금과 파사이사금들이다. 이분들은 호구산(虎丘山)에 있는 운암사(雲巖寺) 북쪽 사릉원(蛇陵園)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4대 탈해이사금은 성북양정구(城北壤井丘)의 언덕에 있다고 되어있다. 성북양정구는 지명을 찾아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 신라왕들 중에서 묘지가 없는

왕들을 함께 신는다.

1) 지마이사금, 2) 일성이사금, 3) 아달라이이사금, 4) 나해이사금, 5) 조비이사금, 6) 첨해이사금, 7) 유례이사금, 8) 기림이사금, 9) 글해이사금, 10) 내물이사금, 11) 실성이사금, 12) 눌지이사금, 13) 자비마립간, 14) 소지마립간, 15) 지증마립간, 16) 별휴이사금 등이다.

화장(火葬)을 한 왕들은 다음과 같다.

- 신라 30대 문무왕(文武王)은 낙랑왕(樂浪王)으로서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원자(元子)이다. 문무왕의 어머니는 문명왕후(文明王后) 34대 효성왕(孝成王), 성덕왕(聖德王)의 둘째아들로서 유해를 운구(運柩)하여 법류사(法流寺) 남쪽에서 화장하여 뼈를 동해(東海; 지금의 황해)에 뼈를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38대 원성왕(元聖王)과 37대 선덕왕(善德王)은 불교식 화장으로 뼈를 동해(東海)에 뿌렸다. 그리고 혜공왕(惠恭王)과 소성왕(昭聖王), 애장왕(哀莊王) 등은 묘지가 없다.

특히 장지의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왕들은 다음과 같다.

- 13대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은 죽장릉이라 했다. 죽장릉(竹長陵)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명만 남아 있다. 23대 법흥왕(法興王)은 애공사(愛公寺) 북쪽 봉우리라고 했다. 24대 진흥왕은 호북성(湖北省) 황강(黃岡) 황주(黃州)에 있는 영흥사(永興寺)라고 했다. 25대 진지왕(眞智王)의 장지는 영경사(永敬寺)이다. 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도 진지왕처럼 영경사(永敬寺) 북쪽이라고 했다. 26대 진평왕(眞平王)은 사천성(四川省) 금강현 동쪽 2리에 위치한 한지(漢只)이다. 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은 진평왕의 장녀이며, 장지는 랑산(狼山)이다. 31대 신문왕(神文王)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사천성(四川省)과 호남성(湖南省)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금강(今강)이 있는 지역이다.

28대 진덕왕(眞德王)은 사랑부(沙梁部)라고 했으며, 32대 효소왕(孝昭王)의 장지는 망덕사(望德寺) 동쪽이라고 했다(신문왕 [神文王]의 태자, 모는 김씨). 33대 성덕왕(聖德王)은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며, 장지는 이거사(移車寺)이다. 35대 경덕왕(景德王)의 어머니는 효성왕의 어머니의 동생이며, 장지는 모기사(毛祇寺) 서쪽인데 이곳은 산이 작고 제일 높은 곳이라 하였다. 41대 헌덕왕(憲德王)의 장지는 천임사(泉林寺) 북쪽이라고 했다. 42대 흥덕왕(興德王)은 헌덕왕의 어머니의 동생이며, 장지는 장화왕비(章和王妃)의 능이다. 43대 희강왕(僖康王)의 묘지는 소산(蘇山)이라고 했다. 44대 민애왕(閔哀王)과 45대 신무왕(神武王)은 장지가 확실하지 않다.

46대 문성왕(文聖王)과 47대 헌안왕(憲安王)은 같은 공작지(孔雀趾)라고 했다. 48대 경문왕(景文王)은 43대 희강왕의 아들인 계명아창(啓明阿倉)의 아들이며, 장지는 확실하지 않다.

49대 헌강왕(憲康王)은 경문왕의 태자이며, 50대 안강왕(安康王)도 경문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 두왕은 보제사(菩提寺) 동남쪽에 장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51대 진성왕(眞聖王)은 안강왕의 여동생이며, 장지는 황산(黃山)이다. 52대 효공왕(孝恭王)의 장지는 사자사(師子寺) 북쪽에 위치한다고 했다.

53대 신덕왕(神德王)의 장지는 죽성(竹城)이라고 했다.

54대 경명왕(景明王)은 신덕왕의 태자(太子)이며, 장지는 황복사(黃福寺) 북쪽이다. 55대 경애왕의 어머니는 경명왕의 어머니 동생이며, 장지는 남산 해목령(南山 蟹目嶺)이다. 56대 경순왕의 묘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살짝 비밀리에 이장해 간 묘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그 외 다른 왕들의 묘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태종무열왕릉(太宗武烈王陵)이 동해바다에 묻혀있다고 하여 요즘도 김씨(金氏)문중은 매년 수중제(水中祭)를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본서에서 보듯이 삼국사기 본기(三國史記 本記)에는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백제(百濟)와의 싸움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열왕(武烈王)은 8년 6월에 금마군(金馬郡)의 전쟁에서 유혈(流血) 즉 피바다가 다섯 발자국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죽은 후 장지는 영경사(永敬寺) 북쪽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죽음에 부음을 받은 당고종(唐高宗 AD, 650~655년 경술) 이치(李治)는 슬퍼하면서 직접 낙성문(洛城門)까지 거동하였다고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기록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금마군(金馬郡)이 어디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금마군(金馬郡)은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본문 637쪽에 보면 금마산(金馬山)이 있다. 이곳은 "운남성(雲南省) 곤명현(昆明縣) 동쪽 25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백제(百濟)의 광활한 강역이며, 지금 나온 지도에도 운남성(雲南省) 곤명현(昆明縣) 바로 아래에 백제(百濟)라는 지명(地名)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제껏 묘지(墓地)가 있는 곳을 검토해 보았으나 묘지의 지명(地名)이 확실(確實)한 왕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나대륙(支那大陸)에서는 철저히 땅 이름을 바

꾸고 또 바꾸고 뭉개고 지워버리는 작업(作業)을 수백년간(數百年間)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뿌리는 남아 있으므로 일부분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 신라왕(新羅王)의 묘지명(墓地名)이 확실한 왕만을 다시 한번 수록해 보고자 한다.

혁거세(赫居世)의 묘는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 호구산(虎丘山) 운암사(雲巖寺) 북 거부(距府) 남쪽 4리(四里)이다. 그리고 김유신(金庾信)의 묘는 오현(吳縣) 호구산(虎丘山) 모지사(毛只寺) 북봉(北峰) 거부(距府) 남쪽 4리이다.

신라(新羅) 9대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의 장지는 강소성(江蘇省) 구용현(句容縣) 북쪽에 있는 금성(金城)의 동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신라 47대 헌안왕(憲安王 AD 856년) 4년 9월에 왕(王)과 신하(臣下)가 함께 임해전(臨海殿)에 모여 군신(君臣)간에 회의(會議)를 하였다는 그 임해전이 절강성(浙江省) 임해시(臨海市)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정확(正確)히 말해서 금오산(金鰲山)이 있는 절강성 임해현이며, 동남(東南)으로 120리 거리에 왼쪽으로 부(府)가 있고, 서남(西南)으로 있는 것이 신라(新羅) 최초(最初)의 궁전(宮殿)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옛날 즉 신라 30대 문무왕(文武王 AD 658년)이전은 절강성(浙江省)이 백제(百濟)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41대 헌덕왕(憲德王 AD 806년)의 장지는 산둥성(山東省) 곡부(曲阜) 동쪽 10여리에 있는 사수현(泗水縣) 동쪽 50리 배미산(陪尾山) 아래에 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고구려(高句麗)왕인 동명왕(東明王)의 묘지(墓地)는 제남시(濟南市) 용산(龍山)이라고 되어 있다.

신라(新羅) 24대 진흥왕(眞興王 AD 537년)의 묘는 호북성(湖北省) 황강(黃岡) 즉 황주(黃州)의 남쪽 강남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 AD 629년)의 묘지는 사천성(四川省)과 호북성(湖北省)의 경계에 있는 금강(今江)에 31대 신문왕(神文王 AD 678년)과 같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믿어지는 것은 신라 24대 진흥왕(眞興王 AD 537년)이다. 진흥왕(眞興王)의 묘지(墓地)는 호북성(湖北省) 황강현(黃岡縣) 남쪽인 강남의 영흥사(永興寺)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확실한 지명인 것이 명백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은 있지만 실제 답사를 해야지만 확실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8. 결 론

앞에서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신라(新羅)가 한반도 경상도 경주에는 없었다는 것이 정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고대는 한반도에 한자(漢字)로 된 지명이 없었다. 한자(漢字)지명이 옮겨진 것은 고려 27대 충숙왕 즉 기원후 1,332년이다. 이때 비로소 한반도에 한문자로 된 지명이 정착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샘골, 밤골, 땃골, 모래내, 딱섬, 뚝섬, 까막섬, 빛고을(光州), 한밭(大田), 달구벌(大邱), 가마산(益山)등으로 불리워졌다. 또한 고려 초기에는 경기, 강원, 충청남도를 합해 양광도(楊廣道)라고 했다.

사학자들이 일본이 식민사관을 오늘날까지 가르쳐 온 것이 화근이 되어 교육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수많은 한자 지명이 나온다. 한자(漢字)는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글이다. 국명, 인명, 지명 그리고 강과 절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자로 표기하였다. 신라사(新羅史)의 정역본(正譯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秦)나라가 망한 후 진한(辰韓)이 생기고 진한이 6개국에서 12개국으로 나누어져 시림(始林)이 생기기까지 1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삼한전(三韓傳)에서 보면 마한(馬韓)이 54개국, 진한(辰韓)이 12개국, 변한(弁韓)이 12개국으로 이 모두를 합해 78개국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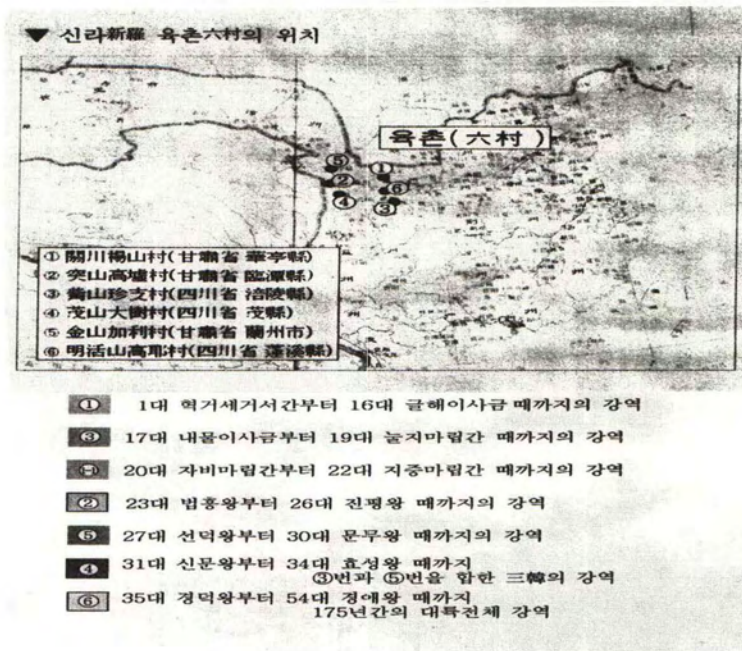
만약 한반도에 즉 남한에 삼한(三韓)을 놓고 본다면 어찌 78개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어불성설인 것이다. 신라본기 12권속에는 수많은 강과 절 그리고 지명이 등장한다. 이러한 기록등을 기초하여 답사한 결과 지금도 강소성(江蘇省)과 복건성(福建省)지방에는 신라촌(新羅村), 신라구(新羅區)가 여러군데 남아있다. 그리고 절강성에도 신라촌이 남아 있다. 또한 27대 선덕왕과 31대 신문왕 묘지도 낭산(浪山)에서 발견하였다. 선덕왕과 신문왕 묘지는 같은 곳에 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찾아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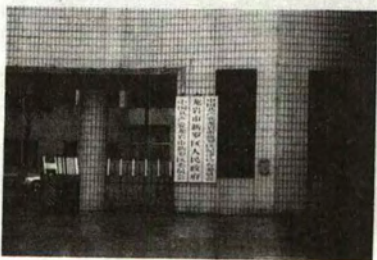
상해 동북쪽 남통시에 위치한 낭산 아래 묘지의 터가 실제로 있었다. 지금도 신라땅이라고 울부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41대 헌덕왕은 천림사 북쪽에 장사지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있다. 이 기록대로 찾아가 보았더니 천림사는 산동성 곡부에서 동쪽으로 60리에 위치해있었다. 삼국사기 기록대로 배마산 아래에 헌덕왕 능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세종실록지리지 경주편에 보면 금오산에 신라궁전이 있었는데 후손들이 궁전자리에 창림사(昌林寺)라는 절을 세웠다고 되어있다.

지금은 수안사(壽安寺)로 이름이 바뀌고 궁전의 담은 모두 헐어지고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신라왕이 56명인데 그 중 35명의 묘만 기록되어 있다. 아직 32명의

모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신라의 전쟁사는 생략한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역사의 뿌리를 찾아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라촌 주민위원회 건물



▶ 북건설현의 용암시龍巖市 신라구新羅區에는 '신라촌新羅村'이 있다.



▲ 북건설 현암시 신라촌 전경



▲ 사진에서 '新羅'라는 글자를 뚜렷이 볼 수 있다.

▼ 경상성新羅省 신거현新羅縣 황계진黃峴鎭에는 '김촌金村'이 있다.



정 오 표

페이지	인 쇄 오 류	수 정
113p ~ 133p	소요산 세종실록에 나타난 태조 이성계 별궁지〈別宮地〉연구	소요산 태종 실록에 나타난 태조 이성계 별궁지〈別宮地〉연구
목차 4. 표지 뒷면	4. 태종실록에 나타난 소요산 태상왕 이성계 변 궁리 연구	4. 태종실록에 나타난 소요산 태상왕 이성계 별 궁지 연구

소요산 세종실록에 나타난 태조 이성계 별궁지<別宮地>연구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 목 차 >

1. 서 론

1) 소요산(逍遙山)

- 1-1. 소요벽기(逍遙壁記)
- 1-2. 원효대사(元曉大師)
- 1-3. 능선(稜線)따라 이어진 보루(堡壘)

2) 태조 이성계의 낙향(落鄉)의 배경(背景)

- 2-1. 하향(下鄉)길에 동두천 어수(御水)마을
- 2-2. 함흥차사(咸興差使)
- 2-3. 태조 환궁(還宮)과 무학대사(無學大師)
- 2-4. 태조의 귀향로(歸鄉路)와 경원선(京元線)
- 2-5. 환행(還幸)과 동두천

3)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소요산 풍수학

- 3-1. 풍수지리(風水地理)로 본 별궁터
- 3-2. 별궁터의 지세(地勢)

4) 태조의 소요산 별전(別殿 : 별궁) 건축(建築)

- 4-1. 태종(太宗) 별전건축반대(別殿建築反對)
- 4-2. 별궁지
- 4-3. 별궁 기초공사(基礎工事)
- 4-4. 별궁 축대기반(築臺基盤) 현황과 방법
- 4-5. 사찰(寺刹) 건물과 비슷한 별궁

5) 태조 이성계의 별궁 생활

5-1. 경제활동

5-2. 신분계급(階級) 사회

5-3. 태조의 소요산 별궁 생활

5-4. 태상왕과 회암사(檜巖寺)

6) 소요산 별궁화재(火災)

6-1. 공주봉(公主峰)의 뜬 구름

6-2. 태조의 회한(悔恨)의 눈물길

6-3. 소요산 별궁의 옛터

2. 결 론

1. 서 론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소요산(逍遙山)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대동여지도, 적성현고지도, 양주목읍지 지행록(地行錄)등 관련된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다. 주말에는 전동차를 이용하여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소요명산(逍遙名山)은 조선을 건국(建國)한 태조(太祖) 이성계의 별궁(別宮)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시절 조선을 세우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기백(氣魄)은 어디로 가고 홀로 쓸쓸히 별궁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초기인 611년 전(前) 도성(都城)한복판에서 이복(異腹)형제간에 살육전이 벌어졌다. 1398년(태조7년)8월 하순 이방원(태종)등은 계비 신덕왕후 소생인 막내 방석을 후계자로 책봉한데다 왕실 권력기반인 사병혁파(私兵革罷)로 수세에 몰리자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고 유신(儒臣)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도전, 남은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세자(世子) 방석을 살해하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조선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이방원은 1400년 1월 세자의 지위를 놓고 형인 방간과 또다시 무력충돌을 일으켜 승리하여 제2차 왕자의 난 까지 평정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왕자들간에 싸움은 태조 이성계까지 큰 영향을 미

쳐 괴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 동두천은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함흥으로 낙향할 때 동두천에서 하룻밤 묵고 떠난 어수(御水)마을 있으며 함흥에서 환궁할 때 여러 해 동안 심신을 달랜 곳도 동두천이었다. 조선 끝자락 비운의 마지막 왕 순종(純宗[1874년[고종11] ~ 1926년])의 비(妃)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비(尹妃)의 생가(生家)터가 있는 곳도 동두천인 것이다. 흘러간 역사의 뒤편길에는 아련한 자취만이 떠나간 선인들의 숨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코스모스 피어나는 가을하늘을 보면 하늘만큼이나 멀어져간 옛 터에는 월색(月色)만 고요히 흐르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風靡)했던 태조 이성계는 초목에 바람이 쓸리듯 한세상을 다스렸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소요산에 별궁을 짓고 유배(流配)아닌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아픈 기억만큼이나 소중한 문화유산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 그 시대의 역사 인식이 먼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끝없이 가버린 역사의 자리에는 선조들이 남기고간 흔적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몫도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별궁터 연구에 대하여 역사적 부분에서 제기되는 별궁자리 예측에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먼 세월을 두고 잊혀지고 묻혀져 왔던 별궁터를 세상에 내 놓아 시대적 평가도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억에 없던 유적지를 찾아내는 것도 동두천 문화원에서 관심과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또 다시 먼 훗날 역사가(歷史家)는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무엇을 하고 남겼느냐고...

1) 소요산(逍遙山)

경기도 옛 양주목(양주시) 이담면(伊淡面 : 동두천시)에 위치한 최고봉 587m의 산이다. 산속으로 길게 들어가면 모두가 기암절벽이며 바위들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산에는 소나무 닳나무 참나무가 있으며 봄이면 진달래며 철쭉꽃이 만개(滿開)해 있다. 가을이면 자재암(自在庵) 산행길 따라 단풍잎이 붉은 옷을 갈아입고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듯 흐드러지게 피어 석양을 바라보고 있다. 삼태기 같이 휘돌아 산석(山石)이 몹시 높고 험한데 제일위에 백운대(白雲台)가 있고 그 아래 가운데 증백운대가 있으며 눈앞에 동북문(東北門)에 하백운대가 있다. 그 아래 남서쪽 능선 따라 공주봉(公主奉)오르는 그늘진 곳에 보면 이름 모를 사찰(寺刹)의 허물어져 빈터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기와장 조각만이 그 옛날 세월의 무상(無相)함을 말하여 주고 있다.

1-1. 소요벽기(逍遙壁記)

소요벽기(壁中書 : 서경의 고본[古本])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이 매우 맑아 햇빛에

비친 바위가 은빛 같도다 벽경(壁經)에 나와 있다.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소요벽기에 이르기를 신라승(新羅僧) 원효(元曉)가 이산에 머무른지 3백년 후 갑무년(甲武年)에 고려승(高麗僧) 각규대사가 고려 태조의 뜻을 받들어 정사를 지은지 2백년인 계유년에 정사가 불타 다음해인 갑술(甲戌)년에 다시 지었다. 전에는 이곳에서 물이 말라 없어 불자(佛子)들이 머물기 어려웠는데 원효가 한번 와서 기거(寄居)하니 바위굴에서 맑은 물이 솟음치더라. 암벽에 올라 구봉(九峰)을 바라보니 모든 산과 돌이 기이(奇異)한 곳이더라. 산을 감도라 높은 다리 건너 한걸음 두걸음 오솔길 가노라면 위쪽으로 백길이나 뒹직한 산마루턱에 원효성사(聖師)오셔서 지은 절이 있다네 신령한 자취는 아득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고 찻샘(茶泉)에는 차가운 옥수(玉水)가 가득 고이니 한 모금 마셔보니 뱃속이 탁 트이는 것 같구나 이곳이 예전에 물이 없어서 스님들 머물러 살기 어려웠다네 원효 스님 한번 오서 사신 뒤에는 바위틈에서 쉬지 않고 약수가 솟구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1-2. 원효대사(元曉大師)와 소요산

617(진평왕39) ~ 686(신문왕6) 신라 말기의 고승(高僧) 성은 설(薛) 어릴 때 이름은 서당(誓幢) 원효는, 호, 시호는 화정(和淨) 내마(柰麻) 담날(談捺)의 아들·설총의 아버지 상주(湘州) 경북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남. 그의 어머니가 꿈에 유정(流星)이 품속에 드는 것을 보고 원효를 배었으며 만삭(滿朔)의 몸으로 남불지촌(南佛地村) 마을을 지나다가 사라수(娑羅樹) 아래에 이르러 갑자기 낳았는데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이르기를 그때 오색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한다. 29세때 중이 되어 황룡사(黃龍寺)에 들어 갈 때 집을 회사하여 초개사(初開寺)를 세우게 했으며 사라수 옆에도 절을 세워 “사라”라 하였다. 민중속에 불교를 보급하기에 노력을 기우렸다. 하루는 마음이 들떠 거리에 나가 노래하기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느냐 내 하늘을 받칠 기둥을 깎으리로다.” 하니 사람들이 듣고 그 뜻을 몰랐으나 태종이 듣고 (대사가 귀부인을 얻어 슬기로운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하고 요석궁(瑤石宮)의 홀로된 공주로 짝 되게 하니 과연 공주가 아이를 배어 설총(薛聰) 신라 십현의 1인자를 낳았다. 원효는 소성거사(小性居士)를 자칭하면서 속세의 복장을 하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춤추고 만담을 하였다. 이 무렵 소요산까지 올라와 기거(起居)했다고 전해 오고 있다. 화엄경에 일체 무애인과 일도출생사에 무애(無碍)를 따다가 이름을 짓고 무애가 노래를 지어 전국을 돌아 다녔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중 염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가 그렇게 컸다. 그는 실로 불교사상의 종합과 실천에 노력한 정토교(淨土

敎)의 선구자이며 또한 으뜸가는 저술가이기도 하였으니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70세 되던 해 686년(신문왕6년) 3월 30일 혈사(穴寺)에서 생을 마감 했다. 동두천시에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를 기념하기 위해 원효 폭포가 흘러내리는 초입(初入)에 요석 공원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1-3. 능선(稜線)따라 이어진 보루(堡壘)

태조 이성계의 별궁 뒷산 보루터는 흙으로 토루(土壘 : 흙담)를 허리높이의 그 위에 돌담을 쌓아 연결하여 축조(築造)된 퇴모식 형태의 토축산성(외성) 정상부가 있는 공주봉에서 동서쪽으로 구분된다. 봉우리 능선군 헬기장 서쪽을 보면 조선시대에 축조된 장대(將臺)의 터가있다. 그 지하에 보면 1950년 6.25한국전쟁 때 만들어 놓은 지하 토치카(Touka : 방어진지)가 있다. 외성의 규모는 전체둘레 1080m의 보루가 장방형 형태이다. 정상을 길게 파내어 축조된 석축인 대지형과 구간에 따라 높낮음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 가파른 경사도를 보이고 있는 능선부에는 화강암 석재로 면모를 갖추어 엇물리게 쌓아 올렸다. 허물어진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보루의 형태를 보면 산봉우리와 능선을 둘러싸여 있어 태조 이성계의 별궁을 경계(警戒)하기에는 최적지(最適地)라 할 있다.

2) 태조 이성계의 낙향(落鄉)의 배경(背景)

1차 왕자난(王子亂) 이후 2대 왕위에 오른 정종(定宗)이 도읍을 개경(開京 : 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정종이후 태종이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태조가 세운 경복궁에 머물지 않고 창덕궁을 세워 그 곳에 거처 하였다. 1차 왕자난은 누가 보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거세(去勢)한 패륜적 행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원은 태조에게 있어 서로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린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다. 또한 태조는 이후 조사의 난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여전히 적잖은 물리적 힘과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따라서 태조의 선택은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원은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몰고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방원이 선뜻 국왕자리에 오를 리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방원에 대한 태조의 불편한 심기가 또한 태조는 이후 조사의 난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여전히 적잖은 물리적 힘과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따라서 태조의 선택은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원은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몰고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방원이 선뜻 국왕자리에 오를 리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방원에 대한 태조의 불편한 심기가 이러한

양보의 배경이 된 것이다.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잠시 잤든 불씨처럼 지존의 자리를 향한 열망은 잠시 물 밑으로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 이후 불씨들은 정확히 18개월 뒤에 “2차 왕자난”을 통해 폭발하게 된다.

2-1. 하향(下鄉)길에 동두천 어수(御水)마을

동두천은 예전(조선시대 양주목)에 양주군(현양주시) 북쪽 관문(關門)으로서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낙향할 때 하룻밤을 묵고 간 곳이다. 북으로 경기 소금강인 소요산이 있고 서쪽으로 마차산이 있으며 동남쪽으로 왕방산과 칠봉산이 있어 예로부터 산세가 수려하고 물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태조가 거쳐 온 의정부 양주의 덕계리 그리고 사귀와 동두천(옛 이담면) 남북으로 확트인 벌판은 멀리 연천을 바라보며 이어져 있다. 태조는 이른 아침에 수행하는 신하들과 머나먼 함흥길에 오르게 된다. 서울에서 동두천까지 100리가 넘는 길을 오다 보니 날은 저물어 해는 서산에 질 무렵 동두천 어수(御水) 마을에 하룻밤을 묵게 된다. 어수마을 촌가(村家)에서 태조 이성계는 시종(侍從)을 불러 이 곳에 소요산의 거리(距離)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다. 그리고 신라 원효대사가 지었다는 소요사(逍遙寺)가 어디쯤이나 하며 명일(明日) 날이 밝는 대로 알아보라고 태조는 하명(下命) 하였다. 어명(御命)에 따라 소요산에 다녀온 시종은 소요산 골짜기는 그렇게 깊지도 않고 거리도 원만하여 고갯길도 없다 하였다. 신라 고승 원효가 지었다는 자재암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은 절벽아래 폭포를 이루기 때문에 물도 풍부하다고 하였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괴석의 절벽들은 외부의 침입도 막을 수 있어 안전한 곳이라고 하니 아무 말 없이 태조는 고개만 끄덕 였다.

2-2. 함흥차사(咸興差使)

1398(태조7년) 세자 방석(芳碩)이 1차 왕자난(亂)으로 죽은 뒤 태조는 정치에 뜻이 없어 임금의 자리를 정종(定宗)에게 물려주고 함흥 별궁으로 거쳐(去處)를 옮기게 된다. 사랑하는 강후를 여의고 또 연달아 일어난 왕자들의 참변에 성심이 극했던 노경의 태조에게 차라리 가슴 아프고 골이 쭈셨던 한양의 호화로운 궁전보다 이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 태조의 마음을 달래 주기에는 최적지였다. 맑고 푸르른 하늘에는 남쪽에서 흘러드는 경복궁을 생각하면 먼저 보낸 두 아들과 사위 이재의 쓰라린 억울함에 슬프기도 하였다. 무력으로 고려의 왕권을 무너뜨린 태조 이성계는 되돌려 받고 있다는 심정에 기약 없는 세월에 탄식마다 입가에 맴돌고 있었다.

2-3. 태조 환궁(還宮)과 무학대사(無學大師)

1327(고려충숙왕14년) 1405 고려 말 조선 초의 스님 속성은 (朴)이름 자초(自初)

호는 무학(無學) 충남 삼기군(三岐郡)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출가 소지(小止) 선사에게서 머리를 깎고 경기 용문산(龍門山) 해명 국사에게 불법을 배운 후 묘향산 금강굴 등을 찾아다니며 수도하였다. 고려 공민왕때 연경(燕京)에 가서 지공(指空) 대사로 찾고 이듬해 법천사(法天寺)에 가서 나옹(懶翁)을 찾고 오대산 등지를 순례한 후 서산 영암사에서 다시 나옹을 만나 수년간 머물다가 1356년(공민왕5년)에 돌아 왔다. 얼마 후 나옹도 돌아와 왕사(王師)가 되어 무학을 수좌(首座) 끝내 사양 나옹이 죽은 후 공양왕이 왕사로 모시려 하다가 못하였다. 태조 이성계 원년(1392년)에 태조에게 불려가 송경에서 왕사가 되고 경기 양주시 회암사(澮巖寺)에 살았다. 이듬해 조선의 수도를 옮기려고 지상(地相)을 보려 충남 계룡산 한양 등지로 태조와 동행하여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나랏일에 태조의 신임(信任) 받았던 무학을 태종 이방원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회암사의 주지 스님 이었던 무학대사를 마지막으로 함흥으로 보내게 된다. 태종은 무학에게 무슨 계교(計巧)를 쓰든 태조를 꼭 모셔 오도록 하라고 간곡히 부탁 하였다. 무학은 상심(傷心)에 잠기게 되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차사(差使 : 각 지방의 수령[守令]이 죄인을 잡기 위해 보내는 관하인[官下人])들이 죽었던가 무학은 응낙(應諾)하고 함흥으로 내려가 석왕사에 있다가 비러 온 양으로 태조에게 아뢰었다. 태조께서도 오랜만에 만난 무학이 반가웠다. 태조는 의심치 않고 그를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파자점(破字占 : 한자[漢字]를 임의대로 짚게 하여 길흉을 점침)을 쳐 달라하여 나라의 운수를 물을 때 태조는 순할순(順)자를 짚었다. 무학은 그 자(字)를 풀어 아뢰기를 “順자는 여섯 육(六)자와 패자에 석삼(三)” 자를 합하여 된자 이온 즉 국운의 원정수는 630년이 되옵는데 六자에 한 획이 부족하여 530년이 되며 또 삼자가 뒤집혔다. 온즉 530년인가 하옵니다 “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태종의 단점은 무수히 지적하여 짐짓 태조의 비위를 맞추어 드리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입을 열었다. “금상께서 비록 과실이 많사오나 그 또한 전하의 사랑하는 아드님이 아니옵니까 이제 전하께서 만약 인륜을 끊어 버리신다면 금상께서 편안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나이다” 또한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이 옵니다. 부디 이점을 통찰 하시여 하늘이 맡기신 왕업을 영원토록 보전하소서! 나라를 걱정하며 진정이 넘쳐흐르는 이 노승의 말에 태조의 마음도 흔들려 돌아서게 되었다. 태조는 무학대사와 함께 함흥별궁을 떠나 여러 해 한양 환행 길에 올랐다.

2-4. 태조의 귀향로(歸鄉路)와 경원선(京元線)

경원선은 1914년 일제(日帝)에 의해 건설된 철도로서 한반도 중북부·동두천시를

통과하여 필자의 고향 학담(초성2리)에 위치한 한탄강 철교를 건너 전곡 연천 철원 월정역을 지나 휴전선 넘어 평강 고원지대를 거쳐 원산에서 교차하여 문천 천내 금야 정평 함흥까지 이어지는 300km의 단선 노선이다. 태조 이성계가 고향인 함흥으로 가는 길은 경원선이 놓여 있는 그 길을 600여 년 전에 밟고 떠나갔던 것이다. 먼 훗날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태조의 왕손(王孫) 고종(高宗 : 1855 ~ 1919년) 조선 26대 왕부터 순종(純宗 : 1874년(고종11년) ~ 1926년 승하[昇遐])하였다. 1905년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 일본 데라우찌 통감으로부터 한일 합방(韓日合邦)이 강제로 이루어 졌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마지막 왕 순종은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조선의 쇄국정책(鎖國政策)은 백성들마저 고통 속에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다.

2-5. 환행(還幸)과 동두천의 태종실록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기가 끈 새끼로 스스로 묶는 다는 뜻)이라 했던가!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설득에 따라 나섰지만 태종 이방원에 대한 원한(怨恨)은 풀리지 않았다. 여러 날을 보내고 동두천에 당도(當到)하니 예전에 어수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소요산세(逍遙山勢)가 생각이 났다. 태조는 무학대사와 함께 소요산에 올라 보니 남쪽 멀리 도봉산과 북한산이 눈에 들어 왔다. 태조는 이때 무학에게 이곳에 머물러 경복궁이 있는 한양을 바라 볼수 있는 별궁을 짓겠다고 하였다. 무학대사는 태조에게 회암사로 갈 것을 요청 하지만 거절한다. 태조는 조용히 이곳에 별전(別殿)을 지어 태종 이방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세자 방석과 무안대군 방번 그리고 사위 이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소요산 별궁 건축에 이르게 된다.

(원전[原典]) 1집 220면(분류) 왕실~의식(儀式) 왕실~종사(宗社) 건설-건축(建築) 재정-역(役) 태종1년(1401년) 12월 21일(之亥) 좌정승(左政丞) 김사형(金士衡)을 소요산에 보내 태상왕을 문안하고 돌아왔다. 태종2년(1402년) 1월 8일(辛卯) 태종 이방원의 몸이 불편하여 박석명을 소요산에 보내어 태상왕을 문안하다 임금(태종)이 소요산으로 가서 태상왕에게 조회 하례 하였으나 태종이 몸이 불편하여 행하지 못하자 지신사(知申事) 박석명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이 절(寺)에 명사(名師)가 있으니 소요사절아래 별전(別殿)을 짓고 거처를 하고자 한다. 태종2년(1402년 임오년) 1월 12일(乙未) 나이 많은 대신을 보내 태상왕의 환궁을 청하고자 대간(臺諫 : 사헌부의 사간원)에 건의 하였다. 대간이 상언(上言)하기를 “늙고 천한 대신을 보내어 태상왕의 환궁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이지(李至) 김이음(金爾音)등이 대궐에 나와서

아뢰기를 때가 몹시 촉사온데 태상왕께서 소요산에 계시는 지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모시는 사람들은 밖에서 자고 “나무와” 돌을 다듬는 사람들은 모두 동상에 걸려서 “살가죽이 얼어 터졌습니다. 또 경기에서 공역(公役)으로 인하여 왕래가 번거로워 폐단이 되다보니 나이 많고 덕이 높은 대신에게 명하여 돌아오시기를 간청함이 옳겠나이다.” 하니 임금(태종)이 말하였다 “경들의 말이 옳소! 짐이 병이 나서 신년(新年)에 들어 이직 조알(朝謁 : 일찍 뵈는)하지 못하였는데 신을 보내면 태상왕께서는 어떻게 여기시겠소 “ 짐이 친히 가본 뒤에 경들의 말대로 하겠소! 하였다.

3)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소요산 풍수학

무학 1327(고려 충숙왕 14년) ~ 1405년(태종5년)은 왕사(王師)로 태조 이성계의 자문(諮問)이나 충고(忠告)를 해준 고승(高僧)이다. 소요산에 별궁터를 잡아 준 것도 무학대사 였다. 주산(主山)인 소요산을 뒤로하고 별궁을 지켜 준다는 의미로서 진산(鎭山)이라고도 한다. 동두천의 주산은 소요산이고 조산(租山 : 혈[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용[龍]의 봉우리) 북한산이라 하였다. 서쪽으로 마차산이 되고 혈은 별궁터가 있는 공주봉이 되는 것이다. 오행설에서 청이 동쪽인 왕방산이고 백은 서쪽인 마차산이라 한다. 청룡의 혈의 뒤 내룡으로 부터 뻗쳐 나와 혈은 동쪽을 감돌며 혈 앞을 지나고 백호는 혈의 서쪽을 감돌아 혈 앞을 지나는 것을 말한다. 청룡과 백호는 현무(玄武 : 북쪽)와 조산이 이에 해당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룡과 백호이다. 청룡, 백호는 혈을 중심을 둘러싸고 생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혈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풍수학은 상당히 복잡한데 원칙적으로 생기를 모으는 장소인 혈을 중심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게 좋다고 했다. 따라서 청룡, 백호나 수구도 모두 이중 구조가 이상적이고 그것을 내외(内外)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터(地)라는 것은 편히 살아가려면 집터를 잘 잡아야 하고 죽어서는 묘(墓)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3-1. 풍수지리(風水地理)로 본 별궁터

일반 백성이나 불교의 관점에서 풍수설이란 가정의 행복은 물론 인간 수명마저도 좌우 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가치기준 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마음을 달래며 좋은 경관(景觀)을 나타내는 경치도 중요시 하였다. 이 곳의 전망(展望)은 멀리 바라 볼 수 있는 해발 368m에 자리 잡고 있다. 한양(서울)의 경복궁을 두고 떠난 그리움과 태종 이방원에 대한 원한(怨恨)서린 1차 왕자난(王子亂)의 비극을 삼키며 자식의 영혼을 빌어주기 위해 별궁을 지어야 했다. 이 곳은 별궁지에서 멀리 아득히 남쪽으로

도봉산과 그 넘어 북한산이 보이는 곳이다. 동두천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길게 이어진 경원선 전철은 옛날 태조 이성계가 하룻밤 머물고 함흥으로 떠나갔던 어수마을이다. 마을에서 바라보는 공주능선 남쪽 눈에 들어오는 곳 별궁 터를 앓고 있는 삼태기 형세(形勢)는 삼태기 모양으로 동남(東南)쪽으로 왕방산이 있으며 서쪽으로 마차산이 있다. 남(南)쪽으로부터 태상왕이 걸어왔던 도봉산이 보이는 곳이다.

3-2. 별궁터의 지세(地勢)

소요산 공주봉 서쪽 능선 따라 내려 오다보면 봉우리 끝에 군 헬기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곳에서 다시 150m 능선을 끼고 내려오다 보면 그 옛날 화전(火田)밭이 양옆으로 넓게 펼쳐있다. 그 뒤로 기압괴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북으로 찬 바람을 막아주고 남으로 따스한 햇볕이 들어 별궁이 들어서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동서 북으로 막혀있는 지형(地形)은 삼태기 모양을 닮아 아늑하기 그지없다.

4. 태조의 소요산 별전(別殿 : 별궁) 건축(建築)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225면(분류) 왕실 - 의식(儀式) 태종 3권 2년(1402 임오 1명 건문(建文)4년) 3월 9일(임진) 1번째 기사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 별전을 짓다 태상왕이 경기우도 도사(京畿右道都事) 이명덕(李明德)에게 말하기를 전(殿)을 하나지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 하니 이명덕이 의정부에 고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역사(役事 : 토목건축)에 나가게 하였다. 말이 손님 대접이지 실제로는 신덕왕후 강씨와 두 아들과 사위 이재의 위패당(位牌堂)인 것이다.

4-1. 태종(太宗) 별전 건축 반대(別殿建築反對)

태종 3권 2년(1402 임오 1명 건문[建文]4년) 1월 28일(신해) 태종은 소요산에 별전 짓는 것을 반대 하였다. 별전을 짓게 되면 태상왕이 그 만큼 경복궁 환궁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왕실 내부의 골육상쟁으로 지친 태상왕으로서는 상당기간 동안 소요산에 머물러 있을 것 같다. 태상왕은 자신의 뜻은 달성 했지만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로서 관찰하고 관심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고려 정권을 무너뜨린 태조 이성계의 전철을 밟으며 되풀이 되는 자식이 또 다시 아버지 길을 걷게 되는 부자의 슬픈 길인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했던가 과거 선악의 인연이 뒷날 길흉화복에 따라 갚음이 되는 결과의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권 없는 태상왕으로서 경복궁에 들어가 봐야 뾰족한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개혁

을 위해 나라를 세운지 10년도 안되어 자식들 간에 쟁탈전은 두 번의 왕자난이 일어났으니 태상왕으로서 백성들 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원진) 1집 224면(분류) 왕실 - 행행(行幸) 사상 - 불교(佛敎) 태종 2년 2월 1일(甲寅) 임금이 태종이 태상왕을 소요산에 가서 뵈었다. 임금이 태상왕에게 조용히 헌수하였다. 태상왕과 임금이 술이 거나 하자 시한수를 읊고 화답하였다. 종친과 성린 등이 태상왕 환궁을 간곡히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염불하고 불경을 읽음에 어찌 꼭 “소요산이라야만 되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뜻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태상왕은 무인년에 병이든 뒤로부터 마음이 항상 답답하여 무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놀기 위한 행사가 점점 잦아 졌다. 태조는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환궁도 거절하며 소요산에 있기를 고집 하였다. 신덕왕후 강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실록에서 엿볼 수 있다. 태상왕이 강씨 몸에서 낳은 어린 세자를 책봉한 것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던 것이다. 훗날 선조가 장성한 광해군을 제치고 어린 영창대군을 양위 하려다 환란을 불러 왔듯이 원칙과 순리를 벗어난 처사는 비극을 낳기 마련이다. 태상왕은 이렇게 되기까지 고심 끝에 유배(流配) 생활이 아닌 유배 생활을 선택했던 것이다. 태상왕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는 원인을 제쳐 두고 결과만 가지고 태종을 미워하니 그 해답을 찾기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

4-2. 별궁지

동두천 문화유적(文化遺蹟)을 대표하는 것은 소요산 공주봉 서쪽등선(군혈기장) 남쪽아래(해발368m) 태조 이성계(太祖李成桂)의 별궁터(別宮地)가 있다. 태종2년(1420 임오년) 명건문(名建文 : 기록된 주거지 건물<建物>) 4년 1월 28일(신해) 1번째 기사 내용에 보면 소요산으로 가서 태상왕(太上王)께 헌수(獻壽 : 만수무강 술잔을 올림)하고 종친(宗親 : 일가) 성석린(成石璘 : 1339~1423[세종5] 과거급제, 명신, 명필)이 환가(還家 : 집으로 돌아온 환궁[還宮])를 간청 하였으나 진노(震怒 : 화내며)하며 거절하였다. 성석린이 물러가 환궁하여 태종 이방원(太宗 李芳遠 : 1367[공민왕 16~1422 세종4조선 3대왕])에 태상왕이 환궁을 거절하였다고 아뢰었다. 그 후에 상면(相面)하는 것이 도리인 태종 임금은 태상왕을 소요산에 가서 뵈었다. 태종은 조용히 고개 숙여 술잔을 올렸다. 태상왕과 태종은 술이 거나하자 취중에 시(詩)를 읊고 화답(和答) 하였다. 시연(侍宴 : 좌석에 모든 신하가 같이함)하였던 성석린은 태상왕께 아뢰기를 “ 염불하고 불경을 읽음에 어찌 꼭 소요산이라야 되겠습니까? 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뜻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부처(佛像)를 좋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억울하게 죽은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하고 공중에 큰소리로 말하기를 “우리도 이미 서방정토(西方淨土 : 극락, 천국)로 향하여 있다고 하였다. 태상왕은 두 아들이 죽고 난 후부터 병세가 심해져 마음이 항상 답답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이 때문에 경북궁에 환궁을 인하고 유행(遊行 : 여러 지방을 다님)이 점점 잦아 졌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책 224면

[분류] 왕실 - 행행(行幸) 사상 - 불교(佛敎)

위와 같이 태조 이성계가 소요산에 별궁을 짓고 4년 3개월 머물다간 흔적이 태종실록(太宗實錄)에 기록되어 있다. 600여 년간 묻혀지고 잊혀졌던 곳 이번에 발견(發掘)되어 세상에 내 놓게 되었다. 현장 답사 조사하여 논문 작성함으로 태조 별궁지가 새롭게 조명(照明)되어 역사의 자료는 물론 문화 관광지로서 발돋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4-3. 별궁 기초공사(基礎工事)

태조 이성계는 태종 이방원으로 하여금 경기우도의 장정(壯丁)들을 동원령(動員令)을 내리게 하지만 봄·여름·가을은 바쁜 농사철이라 추수(秋收)가 끝나면 한가한 계절인 겨울 11월에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목 공사가 시작됐다. 경기우도 이웃 여러 군(郡)에서 축성하는 인부들을 강제 동원하여 별궁 짓기 위한 터(地)를 닦기 위해 길부터 내야 했다. 어차피 젊은 청년들은 태상왕이 머무를 조그만 궁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였다.

- 1) 기초 공사는 우선 사람이 왕래(往來)할 수 있는 길부터 내야했다.
- 2) 남쪽 방향으로 터를 잡기 전 물이 풍부히 샘솟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 3) 높이 건축할 수 있는 위치를 보고 땅을 파내어 돋우는 일을 한다.
- 4) 터를 돋우는 만큼 석벽(石壁)을 쌓아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한다.
- 5) 장맛비에 석벽이 손상(損傷)가지 않도록 하수구(下水溝)를 내어 물이 침수되지 않고 흘러가도록 한다.
- 6) 터를 다지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건물짓기는 시작된다고 했다.

4-4. 별궁 축대기반(築臺基盤) 현황과 방법

태조 이성계의 별궁 터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축대를 5m높게 만들어 성벽(城壁) 또는 석축(石築)으로 부르는 것은 태상왕의 안전성과 보안(保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초석(主礎石)은 기둥 밑을 괴는 넓직한 돌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춧돌을 지탱하고 있는 축대가 튼튼해야 한다. 육중하게 높이 쌓아 올린 석벽을 유지(維持)하려면 그 만큼 크고 무거운 돌 바위를 견고(堅固)하게 맞물리는 측면을 일정하게 가공하여 축대를 정연하게 단과 열을 이루고 있다. 별궁지의 특색은 축대를 성벽 같이 가지런히 자연 암반을 이용하였으며 보강시설을 축조하지 않았다. 축대의 성벽 단면은 거의 수직으로 이루고 있으며 이중 들여쌓기(군도리) 수법을 사용 하였다. 성벽의 축대를 상하로 중심을 잡아주는 바위 같은 큰 돌을 중간에 넣어 무게의 흐트러짐 없이 눌러주는 역할을 하며 성벽의 안전성을 말하여 주고 있다.

4-5. 사찰(寺刹) 건물과 비슷한 별궁

관련 건축 설계도 없는 별궁을 경복궁에 있는 별궁을 사찰과 비교해가며 미루어 설계해 본다. 사찰 또는 사원(寺院), 범찰(梵刹)이라고 하는 절과 닮은 별궁은 무학대사가 경복궁의 별채 이궁(離宮) 또는 행궁(行宮)을 모델로 하여설계하지 않았을까. 一자형의 독채로 세운 별궁은 건물의 명칭과도 같이 임시 머물러 있는 곳이다. 안정된 외관과 수평적으로 구성된 평온한 내부 공간 평명과 입면의 단조로움은 칸막이를 막지 않고 넓게 큰 공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한쪽면 제단(祭壇)을 만들어 평생 사랑했던 신덕왕후 강씨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간 세자(世子)의 의안대군 방석과 그의 바로 위인 무안대군 방번 그리고 사위 이재의 명복을 빌기 위한 별궁임을 알 수 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태조는 정쟁(政爭)의 와중에 희생되어 “죽었으나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어린 아들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자주 불사(佛師)를 벌였고 이를 핑계로 아픈 추억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태조가 동북면 쪽으로 이동하자마자 그 방면의 군사를 축으로 “난” 이 발생한점을 생각할 때 땅을 치고 통곡할 수 밖에 없었다. 태조는 신의왕후 한씨와 그의 다섯 아들 진안대군(방우), 정종(방과), 익안대군(방의), 희안대군(방간) 그리고 문제의 1 ~ 2차 왕자난을 일으키고 조선 3대왕이 된 태종(1400~1418)은 관심이 없었다. 태조는 오직 두 번째 신의왕후 강씨와 세자(방석)와 방번에게만 관심을 갖다 결국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원전) 1집 228면

(분류) 왕실 — 행행(行幸)의 교명(明) 교통 — 수운(水運)

태종 2년 3월 19일(壬寅) 태상왕을 뵈고 북방 일을 의논하다.

임금(태종)이 소요산으로 가서 뵈었다. 장차 북방의 일을 의논하려고 하였다.

왔던 길에 임금이 소요산에서 활과 화살을 차고 사냥을 하였다.

원전 1집 229면

(분류) 왕실 — 행행(行幸) 왕실 — 의식(儀式) 군정(郡政)

태종 2년 3월 24일(丁未) 임금(태종) 소요산에서 태상왕을 만나고 돌아오다 말(馬) 무역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병부의 보고가 있었다. 중국 조정의 병부에서 자문이 왔다. 본부에서 성지를 받아 들여 7천필을 바꾸기로 하여 바뀌주고 왔다고 했다. 조선에서 1만필을 채울수 없다면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신은 그냥 돌아옴이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고 축맹헌 관목지도자문을 보고 모두가 기쁘다고 말하였다. 당시 중국 명(明)나라와 실질적으로 유대를 맺게 되는 것은 조공과 회사(回賜)의 형식으로 통한 양국간의 접촉에서였다. 즉 명나라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던 사행(使行)에는 일정한 액수의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으로는 금은 마필(馬匹) 인삼, 저포, 마포, 석자류, 포피, 나전 등 이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처녀의 환관(宦官 : 내시[內侍])의 요구도 있었다.

5. 태조 이성계의 소요산 별궁 생활

태조 이성계는 소요산 기슭에서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고자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본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을 보려거든 백성(百姓)을 잘 살펴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거든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라 하였다. 세상이 태종으로 바뀌었는데도 태조는 태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세상은 위계질서(位階秩序)가 있는 법인데 원인(原因)은 따져 보지도 않고 결과(結果)만 논하다보니 풀릴 길이 없었다. 태조 이성계는 일찍이 도리(道理)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했던 것이다. 공주봉(公主峰) 골짜기 별궁을 짓고 덧없는 세월 누구를 원망 할 것인가 모두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인 것이다. 하루의 일과(日課)는 먼저 떠난 신덕왕후 강씨와 그의 소생(所生)인 방번과 방석 그리고 사위인 이재의 명복(冥福)을 빌어주는 일부터 시작된다. 충신들의 문안인사와 중국 명(明)나라와 외교 및 말(馬) 무역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어쩌다 태종과 그의 신하들이 찾아와 환궁(還宮)을 바라지만 진노(震怒)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근(隣近)에 있는 회암사 무학대사가 유일하게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친구가 되어주곤 했다. 덧없는 세월에 허무함을 느낀 태조는 무학대사를 만나러 양주 땅을 향할 때 동두천 들녘에서 일하던 백성들이 조아려 큰절하며 일어나질 않았다. 태조는 허허 내가 출행하니 모두 일을 못하는구나 하였다. 그 다음부터 둥근 보름 달밤에 출행을 했다 한다.

5-1. 경제활동

태종은 중국 명나라와 무역에 관하여 소요산 별궁에 찾아와 의논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시기(前時期)를 통하여 공업의 발달이란 거의 없었으며 또 대개는 농업에서 분업(分業)되지 못하고 농촌 사회의 가내부업(家內副業)으로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수공업(手工業)이 행하여지는 정도였다. 농민은 토지 경작과 동시에 일용품의 원료도 함께 장만하여 옷감을 짜거나 가구(家具)와 농구(農具)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썼을 뿐 중국 명나라와 무역(貿易)은 생물(生物)인 말(馬)이었다. 태종이 중국과의 교류가 있을 때마다 직접 소요산 별궁에 찾아와 문안드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태종 2년(1402) 축맹헌이 요동에서 태복시 소경 손봉을 만나 되돌아오다 그대는 어찌하여 기왕으로 일을 천자에게 주문(奏聞)하지 않고 오는가 하니 축맹헌이 자문을 받아 보고 이에 나도 따라가겠소! 하였다. 축맹헌의 생각은 먼저 번에 가지고온 말(馬)값으로 교환하지 못한 것을 지금의 값대로 바꾸려고 함에서였다. 단목지의 생각은 앞서온 말 값으로는 벌써 무역을 했으므로 이제 그 값을 제하고 가져오는 것이 미편(未便)하기 때문에 요동에 있는 새째운(運)의 말 값을 가져다가 무역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임금이 시산(時散)의 재추(宰樞)들을 자문(紫門)으로 모이라고 명하여 이를 의논한 끝에 3천필을 더 무역 할 것을 정하고 바로 지신사 박선명을 보내어 단목지에게 말하니 매우 기뻐하였다. 단목지는 축맹헌과 무역 경쟁이나 하듯 이유 없이 미워하자 태상왕 임금(태조)은 단목지가 자기의 공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단목지가 축맹헌과 불화(不和)하니 반드시 서로 황제에게 죄를 얹어 바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나라는 무역에 전력하고도 결국은 공이 없어지게 된다. 축맹헌이 다시 오는 것만 못하다하고 박선명을 보내어 단목지에게 말하니 단목지가 말하기를 축맹헌이 다시 와도 좋소! 하였다. 단목지가 감생(監生), 울견(栗堅)을 보내어 말 값을 요동에서 가져왔다. 태상왕은 박선명을 보내어 단목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요산에 돌아와서부터 안질(眼疾)이 발병하여 나갈 수 없으니 감생을 하룻밤 더 머물게 하기 바라오” 하였다. 단목지가 태조에게 말하기를 태종이 와 보시려고 하심은 오직 술을 권하려고 함이요 우리는 날마다 만족하여 취하니 태종께서 오시며 권하실 필요가 없소 조정에서는 말을 바꾸는 일에 급하니 빨리 감생을 요동으로 보내어 그로 하여금 전해 아뢰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축맹헌과 단목지가 태조에게 말하기를 중국 황제께서 조선에서 말이 생산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이 없다고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천사(天使)께서 지금 친히 이것을 보시었소! 만약에 말이 있다면 어디에다 두

겠소! 천사께서 말의 척촌(尺寸)을 낮추어 주신다면 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더딜 것입니다 하였다. 축맹헌이 척촌에 따라 말의 대·중·소를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5-2. 신분계급(階級) 사회

지위나 관직 등의 신분 재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구분되는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양반(兩班), 중인(中人), 상인(常人), 천인(賤人)의 넷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사회적인 전통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선 집권적인 정치체제의 확립 및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점점 굳어져 갔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같은 신분층에도 여러 가지 차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급과 계급의 한계를 짓는 데도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양반이란 문반과 무반을 총칭하는 말로서 이들은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유학(儒學)만을 공부하여 과거를 거쳐 아무 제한 없이 고급 관직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관료가 되면 토지와 녹봉(祿俸)등을 국가에서 받게 되므로 지주 계급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들 양반 가운데 건국 이래 속출된 각종 공신(功臣)들과 고급 관리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된 광대한 토지는 점점 세습 사유(私有) 함으로서 대지주가 되었으며 이런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로 삼아 권문세가 문벌을 이룬 양반도 임금의 은덕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5-3. 소요산 별궁(別宮)

① 태조 이성계의 별궁 터로 보는 이유(理由)

소요사(逍遙寺)는 소요산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종2년 태조가 절 남쪽 행전에 머물면서 여러 달을 두고 행궁 그림(설계) 그렸다고 했다.

태조가 소요산에 도착한 시기는 태종 2년(1402) 새해를 맞이하는 1월 하순 예년에 비해 몹시 추운 날씨였다. 소요산 절에 방 한 칸을 빌려 신하들과 기거하면서 불편을 느낀 태조는 별궁을 짓기 위해 축성부터 쌓기 시작한다. 체성(體城)을 살펴보면 성돌(城石)들이 크기를 네모나게 다듬어서 정방형(正方形) 쌓기를 함으로서 축성기술의 수준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양 날개의 무너진 성돌을 보면 여러 가지 잡돌을 끼여 틈새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성벽 아래에는 배수로를 만들어 놓아 물이 잘 빠지게 하였다. 별궁지 자리 잡은 터는 소요산의 유일한 공주봉 능선 남쪽산 아래에 있다. 북으로는 능선이 있어 따뜻한 남향에 햇볕은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다. 특히 성벽(城壁)을 보면 도저히 일반 백성들은 임의대로 쌓을 수는 없는 공법인 것이다. 나라에서 쌓았다는 것이 규모로 보아 가능했던 것이다.

② 조선시대 문인(文人)들의 건축 관련기록

건축 건물에 관한 기록은 독해(獨害)에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한 두 줄에 불과하고 모두가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거나 관련 인물에 대한 칭송 건물을 세우게 된 이유 건물을 세움으로서 얻게 되는 의의(意義) 그리고 세우고 나서 흡족함이나. 심지어 공사일 조차도 공사에 참여한 인원이나 건축 내용은 생략되고 대신 어느 날 신하가 찾아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여흥을 즐겼다는 기록만 되어 있다.

③ 건축, 건재, 건석, 설계, 도면(建築, 建材, 建石, 設契, 圖面)없는 별궁

태조 이성계의 소요산 별궁 건축은 건물의 형태(形體)도 없으며 고정된 시점에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건축에 있어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건축도면 축대 쌓은 토목은 문헌기록에도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거 별궁 건축의 사실을 유추(類推 : 어떤 일을 근거로 미루어 헤아려 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분류) 왕실 — 의식(儀式)

태종3권 2년(1402임오 / 명건문()4년) 3월 9일(임진)1번째 기사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 별전(別殿 : 따로 지은 전각, 임금이 거처하던 별궁)을 짓다.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다 별전을 지었다. 태상왕이 경기우도지사(京畿右道遲事) 이명덕(李明德)에게 말하기를 “별전을 한 채 지어 편히 쉬려한다.” 하니 이명덕 우도도사가 의정부(議政府 : 조선시대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정사를 맡은 곳 최고 행정관청)에 고(告)하고 의정부에서 태종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들을 동원(動員)하여 역사(役事 : 토목건축)에 나가게 하였다.

5-4. 태상왕과 회암사(檜巖寺)

태조 이성계는 소요산 별궁에 머무르면서 달 밝은 보름마다 양주 땅에 있는 회암사를 찾아 왕사 무학대사와 조선정치를 논의(論議)하였다. 1402년(태종) 4월부터 불교를 배척하기 위해 신진사류들이 올린 상소를 계기로 불교계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때 무학은 불교계를 보호하기 위해 회암사에서 감주(監主)가 되었다. 이때 무학은 소요산으로 태상왕을 찾아가 태종이 본격적으로 불교를 탄압한다 아뢰었다. 왕궁(경복궁)내에 모셔져 있던 인왕불(仁王佛)을 궁밖의 내원당(內願堂)으로 옮기기까지 하였다고 하였다. 무학은 태종의 불교에 대한 계획적인 탄압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상왕 태조로 하여금 회암사를 중수하고 그 곁에 궁실을 지어 회암사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서 저지하고자 하였다.

6. 공주봉(公主峰)의 뜬 구름

여기 조선 천하(天下)를 호령 했던 태조 이성계 공주봉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인생이란 한조각의 구름이며 흩어지면 그만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자문자답을 해본다. 공주봉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은 물에 몸을 씻어 보아도 개운치는 않았다. 모두가 조용하여 이름 모를 새소리만 적막한 별궁을 깨운다. 돌부리 늘어선 산길을 산세가 수려하여 그 누가 발길을 주지 못했던 곳 북쪽으로는 깎아지른 바위산이 서 있고 저 멀리 아득히 도봉산이 보인다. 그 넘어 경복궁이 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피어 있는 꽃이 없다고 했다. 한번 일어나면 쓰러질 날도 있다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지나간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태종 임금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가! 태조는 마음의 정리를 해 보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다.

1) 태종 3권 2년(1402년 임오 / 명건문[建文] 4년) 4월 21일(계유) 2번째 기사 소요산 별궁 / 박만이 울면서 태상왕께 환궁을 청하니 받아들인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만(撲滿)이 소요산(逍遙山)으로 가서 하직을 고하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동북면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다. 지난번 순문사(巡問使) 윤사덕(尹師德)이 매시끄럽게 굴었다. 경이 편안하게 어루만져 줘야 좋겠다. 하매 박만이 머리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 하겠습니다.” 하니 태상왕이 웃었다. 박만이 울면서 아뢰기를 지금 도망 온 군대가 많아 양계(兩界)에 이르러 국가에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 어려울 때에 전하(殿下)의 환궁을 바라고 있사온데 전하께서는 나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여기옵니다. 하니 태상왕이 말하였다 “옳다, 내 장차 돌아가겠다.”

2) 태종 3권 2년(1402 임오 4월 28일 행정 — 지방행정[地方行政])

태상왕이 소요산에 신도(新都)로 가서 환왕(桓王)의 기신법회를 열다

태상왕이 소요산으로부터 신도에 행차하여 승도(僧徒)를 모아 법회(法會)를 흥천사(興天寺)에서 베풀었으니 이달 그믐날이 환왕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내관(內官) 이룡진(李龍進)을 보내어 중들에게 포(布) 1백 50필을 시주하였다.

태종 2년 5월 1일 태상왕이 소요산으로 다시 행차하였다.

태종 2년 5월 3일 물이 막혀 소요산행을 그만 두다.

임금이 소요산에 가려 했으나 물이 막혀 그만 두었다.

태종 2년 5월 8일 태상왕이 능엄 법회를 베풀고 외인의 왕래를 금해서 임금이 문안 가지 못하다. 임금이 소요산에 가서 현수하려고 하였으나 행하지 못했다. 태상왕이 능엄법회(楞嚴法會)를 베풀고 외인(外人)의 왕래를 금했기 때문이었다.

3) 태종 2년 6월 1일 임금(태종) 소요산에 가려 했으나 간관이 농사철이라 민폐를 끼친다고 간(諫)하다. 임금이 소요산에 가서 태상왕께 현수하려고 하였으나 행하지 못하였다. 사간 최궁(崔兢)과 정언(正言), 신개(申慨)등이 청하기를 “때가 한참 농사철이오니 7월을 기다려서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종(侍從)을 감(減)하고 또 전중(田中)에서 사냥도 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농사일에 해로움이 있겠는가? 벌써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공역(共役)을 번거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룻밤을 자고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것이다 하였다. 최근 등이 다시 청하기를 비록 시종을 감한다 하오나 곡식(穀食)이 들에 가득하오니 어찌 밭로 밟아 손상시킬 폐단이 입는다면 마음이 편치 못할까 염려 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봄여름에는 부왕(父王)께 찾아뵙지도 못한단 말인가 태종 2년 6월 9일 태상왕이 소요산에서 회암사로 행차 사찰중수에 착수하다. 태상왕이 회암사를 중수(重修)하고 또 궁실(宮室)을 지어 머물러 살려하니 임금이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 대부(隊副) 1백 50명을 보내 부역(賦役)하게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이 망명(亡命) 하였으므로 태상왕이 잡아 죽이라 명하였다.

6-2.. 태조의 회한(悔恨)의 눈물길

변하지 않았던 그 길을 시키면 증기(蒸氣)기관차가 500년이 지난 후 일제에 의해 시키면 연기를 휘날리며 태조 이성계의 고향 함흥 역으로 달려 갈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조선의 정치도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길에 신작로를 만들고 철길을 깔았다. 방랑의 길손이 다녔던 길을 자식에게 왕권을 어쩔 수 없이 넘겨주고 낙향(落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길을 만나게 된다. 그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때로는 슬픈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힘들고 괴로워도 어차피 가야 할 길이 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正道)의 길을 걸었더라면 세자(世子) 책봉(冊封)을 제대로 했더라면 1차 왕자의 난으로 하여 같은 자식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처참한 비극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던가 쿠데타(Coudetat) 비합법적인 무력과 수단으로 고려 정권을 무너뜨린 태조 이성계는 천하를 손안에 넣었지만 자식들과 왕후 강씨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화려했던 권세를 태종 이방원에게 강제로 내어주고 함흥의 길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다. 옥새(玉璽)를 갖고 떠난 태조 임금의 도장 옥(玉)으로 만든 것을 옥새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왕(濊王)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하며 1370년(고려 공민왕 19)에는 중국 명(明)나라에서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도장을 만들어 보냈다. 옛날에는 옥새로 국새를 대용(代用)했는데 조선 영조 때 가장 많은 종류의 옥새를 새겨 각각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 고종 때까지 대보·시명지보, 이덕보(以德寶), 선사지보, 규장지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옥새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태조가 가지고 떠난 옥새는 중요 정책에 쓰이는 옥새 때문에 세자 책봉도 못하였기에 태종 이방원은 나라를 행정적으로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아 상왕인 태조왕 환궁(還宮)도 결국 옥새(玉璽) 때문이었다. 태조는 조선 3대왕으로 태종을 인정(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새를 가지고 함흥으로 떠났던 것이다.

6-3. 소요산 별궁화재(火災)

태종 5년(1405 을유 / 명영락[永樂] 3월 19일[갑인]) 두 번째 기사 소요산 별궁이 불이 났으니 산불이 연소(延燒 : 화재의 불길이 번져 다른 곳까지 탐)된 것이다. 산불이 번져 태조 이성계의 별궁까지 옮겨져 전부(全部) 전소(全燒)되고 말았다. 마침 태조와 신하들은 회암사에서 하룻밤 지내는 바람에 화를 면하게 되었다. 어차피 소요산 별궁에서 이궁(移宮)하려던 참에 불까지 났으니 하루빨리 회암사 별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6-4. 소요산 별궁 옛터

그리운 곳엔 옛터가 있다. 태조 이성계가 떠나간 지도 먼 기억 속에 60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별궁의 빈터에는 조선후기 부터 화전민(火田民)들이 삶의 터전이 되어 산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온 곳이 되고 말았다. 태조가 떠난 후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묻혀 버릴 때 빈손으로 산간벽지 들어 와 화전밭 일구었다. 나무베어 흙 빚어 미완성 토담집 지어 놓고 100년을 땀 흘리며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화전민들이 살았던 곳은 하늘아래 첫동네 오지(奧地)였다. 정부가 화전민들의 생활 대책과 국토 보존을 내세워 화전(火田) 정리 작업을 한 것은 1966년 제정된(화전 정리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고 나서부터 치산 녹화 새마을운동에 의하여 화전민들은 한 집 두 집 조금씩 산 밑으로 내려오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지금의 별궁 터엔 지금은 아무도 없고 잡풀만 무성한 곳 세월이 허무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왜 오지인 이곳에 이성계 별궁 터가 토담집을 짓고 자식을 낳아 살았는지 화전민의 불은 뜨겁고 아프고 서글프기만 하다. 깊은 곳에 불을 질러 가슴앓이를 하면서 불로서 삶을 이어간 이들은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

2. 결 론

역사적인 유적(遺蹟)속에 유물(遺物)은 사실에 관한 문헌(文獻)이나 유사(類似)한 사료(史料)를 찾아 내야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것은 과거(過去)에 관한 학술적 고증(考證)을 통하여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소요산 이성계 별궁 터는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있지만 소요산 어느 곳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市)의 도움을 받아 문헌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깊이 있게 발굴(發掘)해야 한다. 다만 미루어 보면 5m 높이의 성벽을 쌓고 3단 축대는 그 길이가 15m가 넘는다. 그 곳에서 출토된 백자(白磁)인 술병 또는 물병과 자기(瓷器) 그릇과 개와 편류(蓋瓦 片類)등 유물을 보면 상당(相當)한 인물이 머문 곳이라 생각이 든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헤일 수 없이 수많은 해를 거둬들이면서 여름 장마로 인해 흘러내린 흙더미는 오랜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지형까지 바꾸어 놓고 말았다. 태조 이성계 별궁지는 시간을 두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 찾아가며 꾸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參考文獻)

태종실록(太宗實錄)

조선왕조사(건국에서 현종까지)

이야기 조선왕조사

풍수지리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문화유적 분포지도

국사대사전

국어대사전

한국건축이야기

동양미디어 1999

교양국사연구회

고려문학사

도서출판 효림 1997

동두천시 국민대 박물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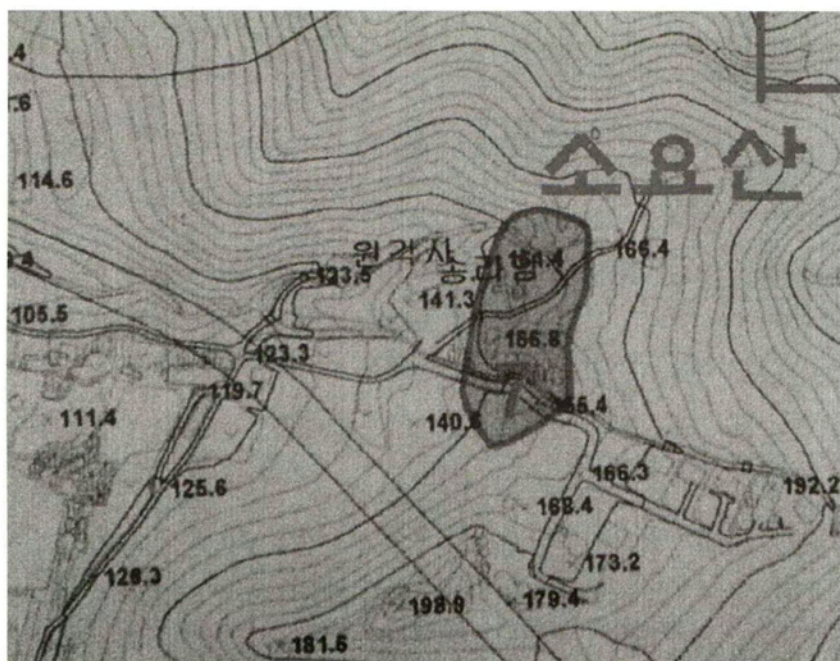
한국출판사

한국어사전편찬회

돌베개



산성터 예상지역



옛 별궁터 예상지역

별 궁 터

□ 별궁터



□ 별궁터 아래계곡



□ 우물터(옹달샘)

가로 1m 40cm, 세로 92cm

□ 주춧돌

가로70cm, 세로65cm, 두께28cm



질그릇 및 사기그릇

□ 백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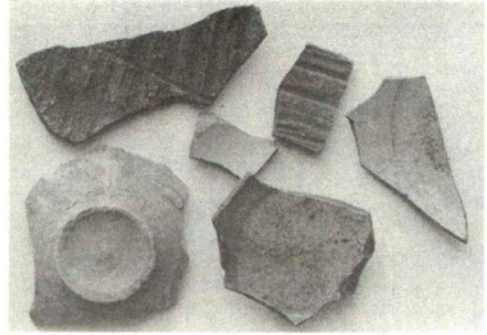
▶ 술 병



▶ 물 병



□ 잡 상(질그릇 류)



□ 특수기와



□ 막 음 새



□ 잡상(질그릇류)



□ 석축(石築) 및 담장지

석축은 사역 외곽으로 남쪽1단 그 위쪽으로 2단과 3단을 이루고 있다. 동서쪽으로 석축이 50m 이어져 있으나 흘러내린 토사로 30m가 매몰되어 있다. 1단 석축(길이23m, 높이5m10cm), 2단 석축(길이15m, 높이1m30cm), 3단 석축(길이15m, 높이70cm)



팔대수(八大藪)와 청심루(淸心樓)의 문화생태적 고찰(文化生態的 考察) - 漢詩를 中心으로

조 성 문(여주문화원 사무국장)

< 목 차 >

1. 서언(序言)
2. 유래(由來)
 - 1) 명칭(名稱)
 - 2) 위치(位置)
 - 3) 형태(形態)
 - 4) 기능(機能)
 - 5) 소명(消滅)
 - 6) 기타 문헌자료(文獻資料)
3. 결어(結語)

1. 서언(序言)

청심루(淸心樓)가 처음 지어진 것이 언제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다. 다만 1,200년대 초에 활동하던 이규보의 시에 강루가 나오고 1,200년대 후반에 주열이 청심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800여년 전에 건립되었으리라 짐작 할 뿐이다. 청심루는 여주(驪州) 관아 안에 있던 건물이었기에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문의 전부가 유명한 선비들의 작품이다. 그러나 힘없는 민초들도 청심루 앞에 펼쳐진 수려한 경관들을 보고 즐기며 느꼈을 것이다. 맑은 물 위에 번지는 잔잔한 물결을, 불타는 듯한 황혼을, 흩어지는 구름을, 짙은 초록의 연봉을, 안개 속의 모래톱을, 제 그림자를 비추며 날아가는 새를, 동대의 휘영청한 달을, 배 안에 떨어지는 종소

리를, 저절로 가라앉는 시름을, 객창을 울리는 뱃노래를, 푸르른 창공을... 비록 글로서 전해지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이란 대동소이한 것이니 남아있는 시편을 통해 당시의 풍정을 되새기며 작자의 시심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감성을 유추해 보는 것이 그리 황당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반면 팔대숲은 오랫동안 여주인들에게 친숙한 숲이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작은 짐승들을 사냥하기도 하며 때로는 강변 나무에 배를 매어놓고 쉬어가기도 하던 곳이었다. 임금이 머물렀던 곳이기에 성스러워 하기도 했을 것이고 왜병을 몰아내고는 큰 자부심에 휩싸이기도 했을 것이며 마을을 지켜주고 농사를 돕는 숲에 대해 고마워하기도 했을 것이다.

팔대숲에 관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청심루에 올라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신록사(神勒寺), 동대(東臺), 마암(馬巖), 양섬, 제비여울, 이릉(二陵), 치악산(雉岳山), 용문산(龍門山), 그리고 팔대숲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시들이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고려말기와 조선시대에 여주를 읊은 한시 중에서 청심루와 팔대숲을 함께 노래한 한시를 중심으로 그 명칭, 유래, 형태, 기능,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由來

1) 名稱

팔대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팔대수(八大薹)는 예부터 패다수(貝多薹)라 일컬었다고 되어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팔대수는 옛날에 패다수라 일컬었는데 주위가 5·6리가 된다고 하였다.

여주지명유래집(驪州地名由來集)에는 팔대수가 있던 마을의 이름이 수촌(薹村)이었고 숲이 읍의 북쪽에 있다하여 북숲이라 불렀다고 했으며 패다수에서 변천된 바다수, 바다숲 등으로도 불렀다고 되어있다. 또 크고 긴 숲이어서 팔대장림(八大長林)이라고도 불렀다.

한시에도 팔대수는 여러 이름으로 묘사되어있다.

八大, 八大林, 八藪, 八大藪

팔대림심묘연수(八大林深杳煙樹) 팔대의 숲이 무성하여 운무에 싸인 나무가 아득하네
홍귀달(洪貴達) - 기행편(紀行篇)

청심팔대무변월(淸心八大無邊月) 청심루 팔대숲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네
신광한(申光漢) - 기재집(企齋集)

요노최과팔대림(搖櫓催過八大林) 노젓기를 재촉하여 팔대숲을 지나네
조태억(趙泰億) - 황려록(黃驪錄)

장강호시려(長江號是驪) 긴 강의 이름이 '려' 이고
대수명위팔(大藪名爲八) '팔' 이 큰 숲의 이름인데
요요강포수(繚繞江包藪) 구불 구불한 강이 숲을 감싸고
미망야연대(微茫野連垓) 흐릿한 들이 집터와 맞닿아 있네
신광한(申光漢) - 요여관렵팔대수(邀與觀獵八大藪)

강안유팔대수(江岸有八大藪) 강 기슭에 팔대숲이 있는데
수산공진서여(藪產貢進薯蓣) 숲에서 생산된 서여가 진상되네
임흘(任屹) - 박승임 행장(朴承任行狀)

팔수춘채충장약(八藪春採充腸藥) 팔대숲에 장약이 가득하여 봄에 캐낸다
박장원(朴長遠) - 여강(驪江)

사목농방팔수연(四目濃芳八藪連) 사방을 둘러보니 짙은 향기가 팔대숲에 이어져있네
정범조(丁範祖) - 석북신성연만(石北申聖淵輓)

팔수여대(八藪如帶) 팔대숲은 띠와 같고
유무유위(有袤有圍) 길게 둘러싸여 있다
유한준(兪漢雋) - 청심루해전(淸心樓解轉)

팔수조휘창애권(八藪朝暉蒼靄捲) 팔대숲에 아침 해가 비치니 푸른 아지랑이가 걷히네
박윤원(朴胤源) - 청심루송응재공시(淸心樓誦凝齋公詩)

팔수괘능라(八藪挂綾羅) 팔대숲은 비단을 걸어놓은 듯 하네
박준원(朴準源) - 월야회백씨(月夜懷伯氏)

팔수지렵화(八藪之獵火) 팔대숲의 사냥불
입탄지풍범(什灘之風帆) 이십탄의 돛단배
박준원(朴準源) - 유안당 중수상량문(遺安堂重修上樑文)

총천팔대수(蔥蒨八大藪) 푸른 팔대숲에는
 니옹잡수아(泥茸雜水芽) 진흙 풀이 수초의 싹과 뒤섞여있는데
 춘심공서여(春深供蓍預) 봄이 깊으면 마를 바치고
 추지채검가(秋至採蒹葭) 가을이 되면 갈대를 채취한다네
 정약용(丁若鏞) - 귀전시초(歸田詩草)

貝藪

패수창망우로심(貝藪蒼茫雨露深) 패숲은 넓고 푸르러 비와 이슬이 더하며
 노송역대군은식(老松亦帶君恩植) 노송은 띠를 이루어 임금의 은혜를 자라게 하네
 김용(金涌)-여주청심루 상량문(驪州淸心樓上樑文)

망견청심루재여강상(望見淸心樓在驪江上) 여강에 있는 청심루 위에서 바라보니
 부림패수(俯臨貝藪) 패수가 굽어보이고
 횡조신록(橫眺神勒) 신록사가 옆으로 바라다 보이네
 신희(申欽) - 황려지발(黃驪志跋)

무단도패수(無端到貝藪) 아무런 생각이 없이 패수에 이르고 나서야
 시각과청심(始覺過淸心) 비로소 청심루를 지나쳤음을 깨달았네
 조태억(趙泰億) - 겸재집(謙齋集)

첨전패수한연렴(簷前貝藪寒烟斂) 처마 앞쪽에 있는 패수에 찬 연기가 일렁이네
 청심루각구지명(淸心樓閣舊知名) 청심루각은 예부터 알려진 이름일세
 조태억(趙泰億) - 겸재집(謙齋集)

패수신랑범석풍(貝藪新涼泛夕風) 패수에 서늘한 저녁바람이 이네
 조태억(趙泰億) - 황려록(黃驪錄)

암죽영릉동록외한야(巖卽寧陵東麓外捍也) 입암은 곧 영릉의 동쪽 기슭을 막아주는 바위다
 여패수격수상대(與貝藪隔水相對) 물을 사이에 두고 패수와 마주보고 있다
 호상하십리(湖上下十里) 호의 길이는 위 아래로 십리이고
 장여수병(長與藪並) 패수와 나란히 길게 뻗어있다
 이여(李畬) - 수곡집(睡谷集)

貝多藪

팔대수 고칭 패다수(八大藪古稱貝多樹) 팔대수의 옛 명칭은 패다수
 최숙정(崔淑精) - 여강팔영(驪江八詠)

패다고명수(貝多古名藪) 패다는 예부터 이름난 숲이다
 서거정(徐巨正) - 여강팔영(驪江八詠)

청심루

고려 때 문신 주열(朱悅; ? - 1287)의 시에 청심루 제차운(淸心樓題次韻; 청심루의 운을 써서 짓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열이 살았던 시기에 이미 청심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지은 한시의 제목으로만 살펴보면

여흥객사(驪興客舍)	- 이곡(李穀; 1298 - 1351)
여흥청심루(驪興淸心樓)	- 정자후(鄭子厚; ? - 1360)
	설문우(薛文遇; 생몰년 미상)
	신예(辛裔; ? - 1355)
	이색(李穡; 1328 - 1396)
	정추(鄭樞; 1333 - 1382)
	이직(李稷; 1362 - 1431)
	윤상(尹祥; 1373 - 1455)
	최수(崔脩; 1377 - ?)
	유방선(柳方善; 1388 - 1443)
	서거정(徐居正; 1420 - 1488)
여강루(驪江樓)	- 허웅(許邕; 생몰년 미상)
	이집(李集; 1327 - 1378)
	김구용(金九容; 1338 - 1384)
	이송인(李崇仁; 1349 - 1392)
청심루(淸心樓)	- 도원흥(都元興; 생몰년 미상)
	이구(李玖; 생몰년 미상)
	함부림(咸傅霖; 1360 - 1410)
	김수온(金守溫; 1409 - 1481)
여흥루(驪興樓)	- 한수(韓脩; 1333 - 1384)
	정몽주(鄭夢周; 1337 - 1392)
	이원(李原; 1368 - 1429)
황려루(黃驪樓)	- 이원(李原; 1368 - 1429)
여강청심루(驪江淸心樓)	- 김구용(金九容; 1338 - 1384)
	신석조(辛碩祖; 1407 - 1459)

이들 이후로는 대부분 청심루란 이름으로만 등장한다.

한무루기관편단(恨無樓記冠篇端) 관편 끝에 누기가 없음이 한이라

수명청심필서안(誰名淸心闕書顏) 누가 현판없이 청심이라 이름하였던가

이색(李穡) - 여흥청심루차운(驪興淸心樓次韻)

이색의 시에서 보듯이 청심루는 현판도 없이, 누가 지었는지도 모른 채 청심루라 구전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누정은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당 지역 관아나 사찰 부근에 세워지기도 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주사람 김약선(金若先)의 딸이 태자비(뒤에 순경태후)로 뽑히던 1235년이나, 그 다음해인 1236년 충렬왕(忠烈王)을 낳았을 때 축하의 의미로 청심루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역사의 기록 속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여주사람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노래한 ‘강루’가 청심루를 지칭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산수청연적십주(山水淸妍敵十洲) 산수가 아름다워 십주에 필적할 만 한데
 사군요아연강루(使君邀我宴江樓) 현령이 나를 초대해 강루에서 잔치를 베푸네
 군인부액광생로(郡人扶腋光生路) 고을사람들이 부축하니 생로의 영광이라
 대승주옹주금유(大勝朱翁畫錦遊) 주옹이 낮에 비단옷을 입고 다니던 것보다 더 나으니
 이규보(李奎報) - 현재요연강루(縣宰邀宴江樓)

2) 位置

팔대수

세종실록지리지 - 여강(驪江) 북쪽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주(州) 북쪽 3리에 있다.

해동지도 - 주 북쪽에 있고 둘레가 5리 이다.

이들 기록에서 보듯이 팔대숲은 여주읍 현암리와 오학리 일대에 걸쳐 강변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심루

세종실록지리지 - 객사 서북쪽 모퉁이에 있다. 북쪽으로 여강에 임하였는데 옛 어진 이들의 시와 글이 많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객관 북쪽에 있다.

해동지도 - 객사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객관 북쪽에 있으며 고려 때 지었다.

경기지방 명승사적(일제시대 간행) - 주내면(州內面) 창리 한강변에 청심루가 홀연히 서있는데 웅자한 기와건물이다.

위의 기록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청심루는 현재 여주초등학교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청심루터’라는 표석만이 남아있다.

3) 形態

팔대수

띠모양, 조개모양이었다. 강을 따라 길게 이어진 숲이었다. 숲 전체가 고르게 성장해 멀리서 보면 평평하게 보였다.

팔수여대(八藪如帶) 팔대숲은 띠와 같고

유무유위(有袤有圍) 길게 둘러싸여 있다

유한준(兪漢雋) - 청심루해전(淸心樓解轉)

지웅유대패구형(地雄猶帶貝區形) 땅의 형태는 마치 조개형상의 띠같은 모습이다

신광한(申光漢) - 패수평초(貝藪平楚)

장림모색원처처(長林暮色遠萋萋) 장림에 해가 저무니 무성한 숲이 멀게 느껴지네

정범조(丁範祖)-청심루월야서별(淸心樓月夜叙別)

장림욕진망고루(長林欲盡望高樓) 장림이 끝나가려 하니 높은 루가 바라다 보이네

신광수(申光洙)-여법정망청심루(與法正望淸心樓)

서풍삽삽동장림(西風颯颯動長林) 서풍이 갑자기 불어오니 장림이 움직이네

권두인(權斗寅) - 청심루우음(淸心樓偶吟)

평림묘묘포정주(平林渺渺抱汀洲) 평평한 숲은 아득히 정주를 감싸네

이집(李集) - 여강루(驪江樓)

평림망불궁(平林望不窮) 평평한 숲이 끝없이 바라다 보이네

최숙정(崔淑精) - 여주팔영(驪州八詠)

평림운진변요산(平林雲盡辨遙山) 평평한 숲에 구름이 걷히니 먼 산이 분명하네

범령(梵齡) - 청심루(淸心樓)

십리평림강안사(十里平林江岸斜) 십리되는 평평한 숲이 강 기슭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네

이여(李畬) - 수곡집(睡谷集)

평초운개청승염(平楚雲開靑勝染) 평평한 숲에 구름 걷히니 온통 푸른빛이네

황준량(黃俊良) - 청심루하(淸心樓下)

평초난생연(平楚暖生烟) 평평한 숲에서 이는 연기가 부드럽네

홍량호(洪良浩) - 청심루(淸心樓)

1872년 간행된 지방지도 여주목편에 보면 팔대숲은 길이가 10리이고 폭이 1리라고 되어있다.

청심루

누 가운데 방이 있었다. 대들보는 칙녕쿨 줄기였다. 싸리나무였다고도 하나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일숙루중유미족(一宿樓中猶未足) 하룻밤을 누에서 잤어도 아직도 부족하네
이곡(李穀) - 여흥객사차운(驪興客舍次韻)

루숙월여기(樓宿月如期) 누에 머무니 약속이나 한 듯 달이 떠오네
정추(鄭樞) - 숙여흥청심루(宿驪興淸心樓)

루중숙객야개창(樓中宿客夜開窓) 누중에 머무는 나그네 밤에 창문을 여네
정몽주(鄭夢周) - 제여흥루(題驪興樓)

성인수기투헌창(醒人水氣透軒窓) 창문을 통해 들어온 물안개가 사람을 깨우네
신용개(申用溉) - 차청심루운(次淸心樓韻)

야심명월루중숙(夜深明月樓中宿) 깊은 밤 달이 밝은데 누중에서 잠드네
주세붕(周世鵬) - 청심루 차가정운(淸心樓次稼亭韻)

청심루고계창호(淸心樓高啓窓戶) 높은 청심루의 창호를 열어놓네
이황(李滉) - 숙청심루(宿淸心樓)

영작사자래일숙(令作使者來一宿) 사자가 되어 돌아와 하룻밤을 묵었네
이준민(李俊民) - 청심루(淸心樓)

청심루의 대들보가 칙녕쿨 줄기였다는 이야기를 뒷받침 해 줄만한 전설이 이천(利川)시 대월면의 대대리(大垈里)와 대포리(大浦里)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마을 전설에 의하면 신륵사를 지을 때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만석고개에 있던 칙녕쿨을 대들보로 봉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륵사에는 칙으로 된 대들보가 있는 건물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신륵사 중창과 함께 청심루가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실되기 직전의 청심루 사진을 보면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었는데 교실로 사용하면서 유리창문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4)機能

팔대수

서여(薯蓣; 마), 갈대가 생산되었다. 토끼와 사슴, 꿩 사냥터로도 사용되었다. 숲 안에 천택(川澤)이 있다.

수수업대(遂收獵隊) 마침내 사냥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으니

득일미사치(得一麋四雉) 수확은 사슴 1마리와 꿩 4마리였다.

이여(李翕) - 수곡집(睡谷集)

표위천택(表爲川澤) 걸은 내와 못으로 되어있다

유한준(兪漢雋) - 청심루해전(淸心樓解轉)

청심루

조선시대 군왕(세종, 성종, 중종, 영조, 정조)들이 능행을 하였다가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객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주를 찾은 임금 이외에도 선비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직침강구루알청심(直枕江構樓曰淸心) 강에 접하여 루를 짓고 '청심' 이라 하였다.

임작숙빈지소(仍作宿賓之所) 이에 손님이 잠을 자는 장소로 삼았다.

김안국(金安國) - 사액여주영빈관기(賜額驪州迎賓館記)

가정7년 무자 동10월(嘉靖七年戊子冬十月) 1528년(중종 23) 10월

아주상전하담유효사(我主上殿下覃惟孝思) 주상전하께서 효도에 대한 생각이 깊으시매
행여양(幸驪陽) 여양(여주의 별칭)에 거둥하시어

재숙청심루(齋宿淸心樓) 청심루에서 하룻밤을 재계하시면서 지내셨다.

신광한(申光漢) - 여주영빈관어액기(驪州迎賓館御額記)

여주의 객관인데 고려 때 지은 것이다.

이유원(李裕元) - 임하필기(林下筆記)

5)消失

팔대수

여주목팔대수 신기척양전안(驪州牧八大藪新起尺量田案)에 보면 1854년(철종 5) 3월 여주목에 있는 팔대수란 숲 전체를 새로 개간한 후 양안을 작성하였고 전체 면적은 9결(結) 83부(負) 6속(束)이라고 되어있다. 개간된 토지등급이 6등이었으므로 당시

계산법에 따라 1결당 13,000평으로 환산하면 전체 면적은 약 128,000평이었다. 이를 근거로 팔대수는 이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심루

여주군사(驪州郡史)에 보면 1945년 8월 22일 해방의 기쁨에 들뜬 주민들이 군수(강진수)가 살던 관사에 불을 질렀는데 이때 옆에 있던 청심루도 함께 불에 탔다고 되어있다.

1908년 5월, 공립 여주보통학교가 사립 개진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였는데 1910년 4월, 청심루가 있던 군청 객사를 수리하여 이전해 옴에 따라 청심루는 학교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5년 8월 22일 군수 관사의 화재로 인해 청심루 서쪽 5개 교실이 소실될 때 함께 불탄 것 같다.

지역문화연구소(地域文化研究所) - 경기누정문화(京畿樓亭文化)

6)기타 文獻資料

팔대수

여주팔대수(驪州八大藪) 영릉인산후(英陵因山後) 여주팔대숲은 영릉(세종대왕) 국장 후에 팔대군각종수성수(八大君各種樹成藪) 세종대왕의 팔대군이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었다한다 안영릉천조재예종기축(案英陵遷厝在睿宗己丑) 영릉을 천장한 것이 예종 기축년(1469)이다 이팔대군재세조조(而八大君在世祖朝) 그런데 여덟 왕자는 세조조에 살았고 태반피죄(太半被罪) 대부분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았으니

하이종수성수(何以種樹成藪) 어떻게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게 할 수 있겠는가 차야인지설야(此野人之說也) 이는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정약용(丁若鏞)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다산 정약용은 팔대숲이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여덟 명의 왕자들과 연관이 없다고 말한다. 사실 첫째왕자는 문종(文宗)이요, 둘째 왕자가 세조(世祖)요, 셋째 안평대군은 계유정난(癸酉靖難)때 죽었고 넷째 임영대군은 세조의 눈을 피해 광주 산속에서 숨어살다가 1469년 1월에 죽었고 다섯째 광평대군은 20세 되던 해인 1444년(세종 26)에 창진(瘡疹; 홍역)으로 죽었고 여섯째 금성대군은 단종(端宗)의 복위를 꾀하다가 1457년(세조 3)에 사사되었고 일곱째 평원대군은 1445년(세종 27)에 천연두를 앓다가 죽었고 여덟째 영웅대군은 세종대왕릉이 여주로 천장되기 2년 전인

1467년(세조 13)에 죽었다. 세종대왕릉의 천장이 1469년 3월 6일에 이루어 졌으니 천릉 시에 살아있었던 세종대왕의 적출 왕자들은 하나도 없었던 셈이어서 정약용의 말에 일면 수궁이 간다. 그러나 패다수 맞은 편 입암(笠巖) 기슭에 숲과 병행하여 10리에 걸쳐 형성되었던 패소(貝沼) 즉 조개늪은 최근까지도 그 이름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패다수가 팔대수로 이름이 변한 데는 까닭이 있었을 것이고, 팔대수가 세종대왕의 팔대군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여주사람들의 전승(傳承)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대왕은 여주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 태종(太宗)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이포(梨浦), 팔대숲, 금당천(金堂川)에 머물렀고 청심루에도 올랐다. 1439년(세종 21)에는 외할아버지 민제(閔霽)의 영정이 봉안된 신륵사의 중수를 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여주가 어머니 원경왕후의 고향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종대왕릉이 여주로 옮겨오면서 지명이 여흥에서 여주로 바뀌었으며 안평대군은 부인을 여주에 묻었다. 여주는 세종대왕과 팔대군을 연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1421년(세종 3) 2월 27일 ; 여흥 팔대숲에서 점심을 먹는데 술을 차리다.

1767년(영조43) 7월 20일 ; 여주 팔대숲의 개간을 금지하다.

1767년(영조43) 7월 23일 ; 여주 팔대숲의 측량을 그만두게 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실록에 나타나 있듯이 팔대숲과 그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미 서여가 생산이 되고 있고 지형이 평탄하며 물을 대기가 수월하였기에 농토로서의 가치가 커서 개간의 필요성이 늘 상존하고 있었던 듯 싶다.

팔대수가 있던 자리는 지금은 자취가 없고 그저 허허벌판뿐이다.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원호(元豪) 장군과 왜병 간에 격전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바로 그 아래 강물에 치명나무가 잠겨있어 가물 때마다 동아줄로 나무를 매어 흔들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려 여주지방은 가뭄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니 여주쌀의 질이 으뜸인 것도 우연만은 아닌 듯 싶다. 치명나무가 되려면 뿌리박고 천년(千年), 건천에서 천년, 물속에서 천년을 썩지 않고 견뎌야 되는데 신기한 이 치명나무가 해방 몇 해 전 큰 장마에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여주군지(驪州郡誌) - 싸리산 전설

팔대숲은 여주8경의 하나로 해동지도(海東地圖), 여지도(輿地圖), 광여도(廣輿圖)에는 ‘팔대장림(八大長林)’이라는 명칭으로 그려져 있다.

팔대숲은 팔수장림(八葢長林)으로도 불려졌다. 원래 고려시대는 조개껍질이 많아하여 패다수(貝多葢)라고 불려 오다가 조선조에 세종대왕의 영릉을 옮기고 영릉의 화소(火巢) 밖에 있는 숲인 까닭에 세종대왕 적실 소생인 팔대군(八大君)이 그 숲과 같이 번창하라는 뜻으로 팔대숲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고 여주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보은사(報恩寺; 신륵사) 승도 중에서 산직(山直)을 정하여 이 숲을 지키게 하였고 또 진공물 중에 서여(薯蕷; 마)를 춘추로 1,000근 씩 이 숲에서 채취하여 바치게 하였다. 영조(英祖) 때 목사 이성규(李聖圭)가 숲을 벌목하고 개간하려 하여 조정에서 논란이 일자 임금이 선전관을 보내 실정을 알아본 뒤 백성들이 이익을 보기는 어려운 곳이니 측량을 중지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철종(哲宗) 때에 완전히 개간되어 숲으로서의 형태를 잃어버렸고 그 토지는 보은사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팔대수의 현황

1. 명칭 : 팔대수
2. 소재지 : 능서면 왕대리
3. 지황 : 수는 왕대리에 해당하는데 읍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팔대수의 북쪽과 남동쪽은 한강 하안(河岸)이며 서쪽은 강을 사이에 두고 왕릉(王陵)의 구릉에 접해 있고 남쪽은 읍의 외각지 대로 자갈이 많은 하반평탄지가 펼쳐져 있다.
4. 임황 : 미립목(未立木) 경작지대. 면적은 밭이 3정(町; 3,000평), 논이 50정으로 그 외는 소나무 유령림(幼齡林)이다.
5. 비설(속설) : 팔대수는 옛날에 패다수라고 불렸다. 1480년에는 연장 2km 내외의 하반임수(河畔林藪)였다. 팔대수는 수제(水堤)에 해당하는 마암의 하류에 위치한 하반의 울창한 수림으로 읍의 외곽지대의 기름지고 좋은 땅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다람쥐, 족제비, 토끼 등의 소동물이 서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원래 조류는 수림(樹林)에서 서식하고 더욱이 해충 구제력이 뛰어난 명금류(鳴禽類)의 종류와 숫자는 총림(叢林)에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하안의 평탄지는 원래부터 총림이나 수림이 생육하는 지역이고 또한 시설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팔대수는 이러한 사정을 일찍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한반도에서 적절한 사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팔대수는 보안을 위한 수해방비의 기능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농리(農利)상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곳이다. 팔대수와 같은 하반수림은 옛 한강 중류지방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쿠미쓰 노부유키(徳光宣之) - 조선의 임수(1938년)

청심루

1490년(성종21) 윤9월 15일 ; 청심루에 술자리를 베풀고 재상 2품 이상을 인견하다.

1528년(중종23) 10월 15일 ; 문과와 무과의 하례를 받고 청심루로 돌아갔다.

1779년(정조 3) 8월 5일 ; 임금이 청심루에 나아가 각영(各營)의 기를 점고하게 하고 수백척의 배를 누각 앞에 정돈하여 대령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차주청심루(此州淸心樓) 이 주의 청심루는

내세종대왕증소임어(乃世宗大王曾所臨御) 일찍이 세종대왕께서 거둥하신 곳이다.

조덕린(趙德隣) - 김응선생 행장(金涌先生行狀)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을 여강(驪江)이라 하는데 예로부터 이곳의 경치가 뛰어나서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유람하며 글을 남겼다. 특히 청심루에는 묵은 이색(李穡)과 포은 정몽주(鄭夢周), 도은 이승인(李崇仁)등 40여명의 시판(詩板)이 걸려있었다고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청심루가 언제 지어졌고 또 언제 없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던 것을 1617년(광해군 9)에 여주목사 김용이 중건하였다는 것과 숙종(肅宗) 때 우암 송시열이 '청심루'의 현판을 새로 써서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인 1856년(철종 7) 조두순(趙斗淳)이 쓴 청심루기(淸心樓記)와 1869년(고종 6) 여주목사 이인응(李寅應)이 쓴 청심루 중수기(淸心樓重修記)가 남아있다. 청심루는 서울의 낙천정(樂天亭), 광주의 청풍루(淸風樓), 파주의 화석정(花石亭), 청풍의 한벽루(寒碧樓), 남원의 광한루(廣寒樓), 제주의 관덕정(觀德亭)과 더불어 조선의 대표적인 명소로 100여명의 시인이 쓴 200여편의 한시가 전해지고 있다.

좌구월침능백암(坐久月沈陵栢暗) 앉아서 오래있으니 달이지고 능의 잣나무 어두운데

부지하처궤진사(不知何處跪陳辭) 어느 곳에도 무릎꿇고 호소드릴 지 알 수가 없네

송시열(宋時烈) - 야좌청심루 침망영릉감부(夜坐淸心樓瞻望寧陵感賦)

송시열의 이 시는 뒷날 정조(正祖)가 여주에 송시열의 사당인 대로사(大老祠)를 건립하도록 윤허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779년(정조 3) 8월 5일. 정조가 영릉(英陵; 세종대왕릉)과 영릉(寧陵; 효종대왕릉) 두 능에 전배(展拜)하고 청심루에 올라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송시열의 이 시를 외울 때마다 무릎치고 슬퍼하였다고 술회하면서 오늘 마침 이 누각에 올라 선릉(仙陵; 효종대왕릉을 가리킴)을 지적에 바라보며 선정(先正; 송시열)의 유제(遺題)를 보니 감

회가 한층 더하다.’ 고 하였다. 이날 임금은 경기유생 정운기(鄭雲紀)의 청을 받아들여 송시열의 사우(祠宇)를 짓도록 명하고 6년 뒤 건물이 완성되자 대로사라는 편액을 지어 내려주고 친필로 대로사 비문을 써서 세우도록 하였다.

3. 結語

살펴보았듯이 여주의 팔대수의 조성시점과 청심루의 최초 건립연대는 알 수가 없다. 수풀이 조성된 시기야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공 건물인 청심루의 창건 시기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그나마 선조들의 시문 속에서 팔대수와 청심루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것만도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각 문중에서 조상들의 문집을 찾아 번역해 내는 일들이 활발해졌다. 그 과정에서 감추어졌던 여주관련 역사의 자료들, 특히 팔대수와 청심루에 관한 기록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반도의 생성과 함께 그 시작을 함께 하였을 여강은, 여주의 곳곳을 적시면서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여주를 길렀다. 물이 있었기에 수목이 자라나고 그 수목에 새와 짐승들이 깃들면서 차츰 사람이 찾아왔다. 모여든 사람들이 터를 잡아 살면서 생각이 커지고 생활이 넉넉해지자 풍습이 생겨나고 제도가 들어서서 마침내 문화가 만들어졌다. 바로 여주문화다.

팔대숲과 청심루는 여주문화의 산물이다. 문화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모여 형성되지만 그로부터 형성된 문화는 다시 구성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여강에서 팔대숲이 나니 사람들의 인심이 숲처럼 풍요로웠다. 사람들은 여강가에 청심루를 세우고 세파에 물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맑은 여강에 비치며 찌든 때를 씻었다. 하늘의 축복과도 같이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지며 풍우가 순조로워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최고 아님이 없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과 북벌의 용지를 펴며 후반기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효종대왕의 영면 터가 된 것이고, 9명의 왕비가 이 땅의 정기를 받아 태어났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에 온 삶을 바쳤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생의 한 때를 이곳에서 보낸 것이 아니었겠는가!

돌이켜보면 팔대숲과 청심루가 사라지면서 여주문화는 빛을 잃기 시작했다.

팔대숲의 넉넉함을 잃은 오늘의 여주는 각박하다.

청심루의 고결함을 잃은 오늘의 여주는 혼탁하다.

모든 것을 여강에서 받았으나 여강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여강은 빛을 잃었고 여주의 비전도 사라졌다. 이제 아무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아니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기 않는다.

대운하 건설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한편에선 또 새로운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으로 혼란스러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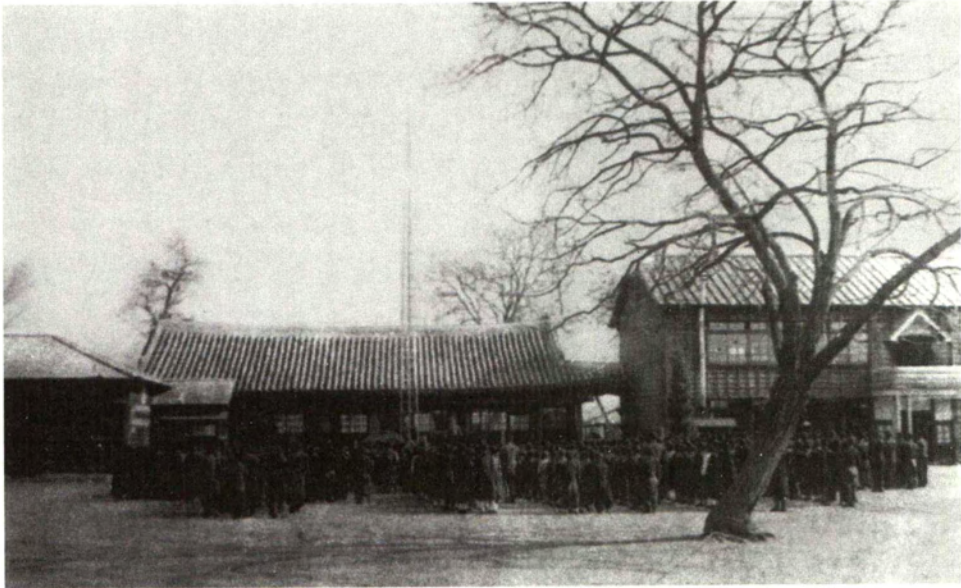
세태가 어지러울수록 사람은 늘 과거를 추억한다. 돌아갈 아름다운 과거가 있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 여강에 의지해 팔대숲의 싱그러운 바람소리를 기억해 내고, 마음을 씻던 청심루의 해맑은 자태를 떠올리는 이유는 거기서 이 무명(無明)의 구름을 걷어내고 명(明)을 향해 일어설 힘을 얻고자함에 다름 아니다.

역사의 한 장을 들춰보면서 더듬어 본 팔대숲과 청심루의 자취는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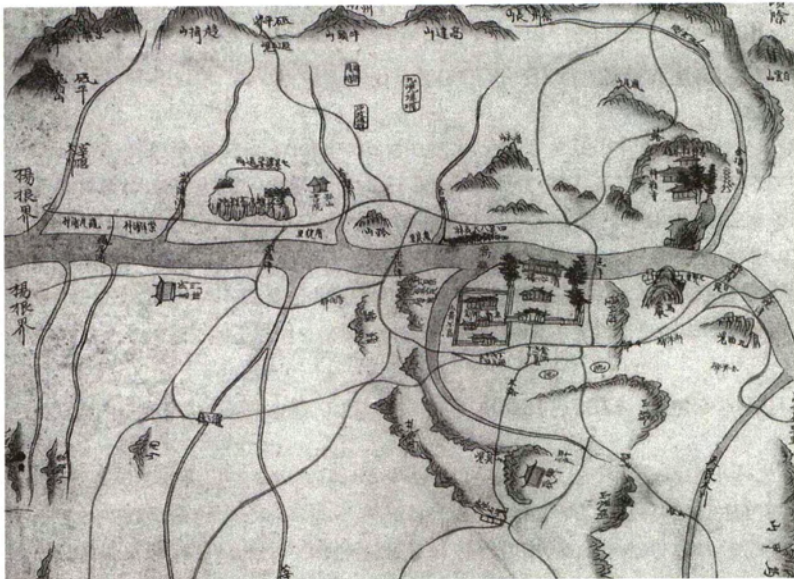
그리고 여강은 지금도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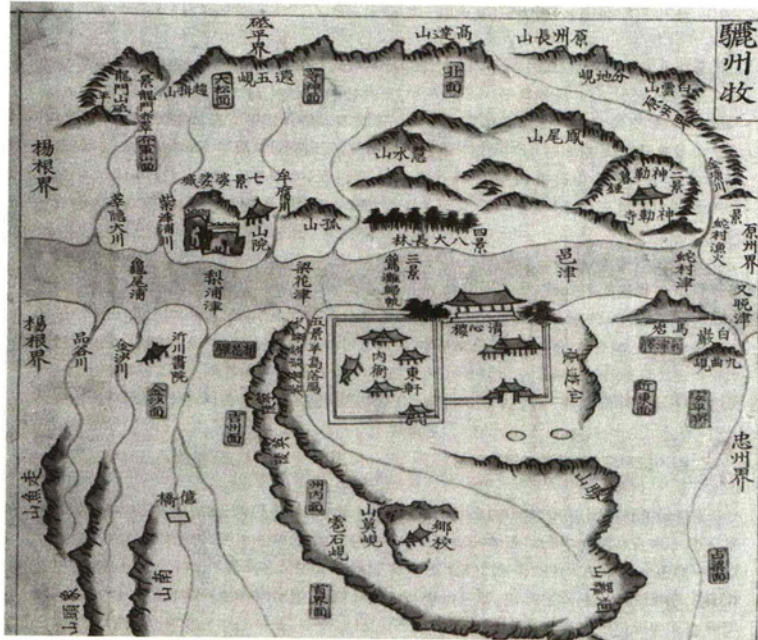
정수영의 <한강 임강 유람사경도> 여주 청심루



<여주 심상소학교> 가운데 건물이 소실되기 전의 청심루



<해동지도> 여주목의 청심루와 팔대수



<광여도> 여주목의 청심루와 팔대수

여 백

대보단의 설치 · 운영을 통해본 선비정신(교정분)

신 일 군(경기향토문화 연구위원)

< 목 차 >

1.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병자호란의 개요
- 3) 삼전도 나무의 치욕 후 반청운동

2. 본 론

- 1) 조종암의 조성경위
- 2) 조종암의 현황
 - * 조종암기설비- 번역문 및 원문
 - * 조종암 대통묘비문
- 3) 조종암 조성 및 운영의 근본정신 -대명보은 사상과 주체정신
- 4) 신위 배치도
- 5) 신위의 신상내역
 - 5-1. 한국 측 신위의 신상내역
 - 5-2. 중국 측 신위의 신상내역
 - * 9의사 심양관 중 생활 및 동도

3. 결 론

- * 첨부 사진
- 1) 사모사(의종 어필)
- 2) 제조변방 만절필동(선조 어필)
- 3) 지통재심 일모도원(효종 비사)
- 4) 조종암(낭선군 서)
- 5) 조용암 기설비
- 6) 고향제
- 7) 조종암 대통묘비

1. 서론

1) 연구의 목적

가평군 하면 대보리에는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28호로 지정(1975, 9, 5)된 조종암이 있다. 이곳에서는 근 300년 전부터 현재까지, 명나라 태조(고황제)를 비롯한 신종, 의종 3황제와 병자호란 때 주전론자로 심양에 끌려가 순절한 3학사를 포함한 9현(賢)과 효종대왕이 인질로 잡혀갔다가 석방되어 귀국할 때 함께 따라와 북벌계획을 추진하던 명나라 유신 9의사들의 제향을 올리는 행사가 계승되고 있다.

다만 명나라 3황제의 제향은 약 200여 년간 이어 오다가 일제 병탄 후(1908년)에 철폐되고, 나머지 제향도 1934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58년 다시 부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된 21세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대주의의 잔재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왕조 시대의 사적지 대보단 조종암에서, 명나라 3황제와, 명나라의 유신 9의사, 및 병자호란 주전론자 3학사와, 북벌계획에 앞장섰던 문무선현, 그 후 구한말의 척화양이를 기치로 문인들을 조종암 제향에 참석케 함으로써 춘추대의를 강조한 화서 이항로와 의병활동으로 기울어가는 조국을 수호하고자 평생을 바친 의병장 유인석장군을 함께 봉사(奉祀)하였으며, 비원 내 대보단과 충북 대통묘는 일제 때 철폐된 채 복구되지 않았는데, 오직 조종암만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복원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으니, 그 저변에 흐르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한정판으로 발간된 문헌이 국한문 혼용으로 편집되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일반인이 접하기도 해독하기도 불편하기에 그 중 근간이 되는 자료를 간추리고, 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보충하여 체계화하고 한글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하는 것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족자존, 자주독립의 대의를 밝히는 사료가 되리라고 믿고 이 연구를 추진한다.

본고에서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병자호란으로, 삼전도 나무에서 인조가 청 태종에게 항서를 받치고 왕자와 3학사 등 주전론자들이 심양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였는데, 그 참상과 당시 선비들이 어떻게 처신하였는가와 그 후대들이 그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왔는가를 문헌을 통하여 정리하고 그 밑바닥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병자호란의 개요

병자호란(인조 14년, 1636)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전인 패전이었다. 몽고항전이 40여 년간 계속되었고, 임진왜란에서는 7년간의 항전 끝에 왜군을 격퇴한데 반하여 병자호란은 불과 두 달 만에 조선의 굴복으로 끝나고 말았다.

17세기 초는 동북아에서 대변혁이 일어난 시기였다.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명나라와 조선의 틈새에서 3종족으로 흩어져서 양국에 조공을 받치며 굴종하고 있던 여진족을 통합 대금(1616)을 건국한 누루하치의 대를 이어, 인조 4년(1926년) 왕자 시절부터 조선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던 홍타이지(태종)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조선의 친명정책과 모문룡의 가도 주둔을 문제 삼고, 인조 5년 3만의 병력으로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 그 결과 “강화서약”이 맺어지고 조선국은 후금과 “형제지국”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그로부터 9년 후인 인조 14년(1936년) 후금의 홍타니지는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대하여 “형제지국”에서 “군신지의”로 바꿀 것과, 왕자 대신, 및 척화주창자를 잡아 보내지 않으면 다시 조선을 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를 거절하자 12월 1일 10만의 대병을 이끌고 조선 침략을 재개하였다.

개전 2달만인 인조15(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식을 치루었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인질로 하고, 김상헌, 삼학사 등 척화파의 주요인물들을 묶어 심양으로 보내야 하는 소위 삼전도 의 치욕을 치루었다.

그뿐만아, 수많은 아녀자들이 점령군의 성적 노리게로 끌려갔다 돌아와 환향녀라는 치욕을, 그 중에 일부 임신한 여자가 낳은 자녀는 호로자식이라는 비속어로 천대 받는 등, 나라를 지키지 못한 패전국민의 한을 평생을 품고 살아야 했다.

이러한 국가적 민족적 굴욕을 당하며 전쟁이 끝났지만, 반청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병자호란에 이어 청은 명나라마저 정복함으로써 인조22(1644)년 중원의 새로운 정치적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고 양국관계는 “군신지의”를 강요당하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3) 삼전도 나루의 치욕 후 반청 운동

선비들은 국난을 맞이하면 신명을 받쳐 국가수호에 앞장서고, 재야인사들은 의병을 일으켜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왔으나, 병자호란은 이렇다할 저항 한 번 해 보지도 못한

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강화조건으로 항복하고 왕자와 주전론자들이 인질로 잡혀 갔으니, 비록 북방의 신흥무력 앞에 역부족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그 반청감정은 극에 달하였고 그것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었다.

그 첫 번째로 정부차원에서는 북벌론이 표출되고, 불림대군이 귀국하여 효종으로 즉위(1649)하면서, 북벌 계획으로 확정되어 본격화 되었으나, 효종이 즉위 10년 만에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두 번째 반청감정은 연호의 사용으로 표출되었다. 병자호란 후에는 청국에 항복한 조건에 따라, 의당 청국연호를 쓰기로 맹서한 바 있으나, 청국에 보내는 문서에는 부득이 청국 연호를 쓰고, 국내문서, 비문(碑文), 등에는 물론 족보(族譜) 등에도 국가나 민간이 다 같이 명나라 끝의 연호인 숭정(崇禎)을 쓰고 비문 맨 위에다 『유명조선(有明朝鮮)』이라고 쓰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이는 전국의 금석문집을 보면, 병자호란 후의 비문들이 상기와 같음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남한산성 서장대 위에 무망루(無忘樓: 영조대왕이 유수 이기진에 명하여 세운 것)를 세우고 역대왕이 여주 영능(寧陵: 효종대왕능)에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이 산성에 들러 무망루에 머무르며 치욕사를 회상하고 배청송명의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네 번째는 비원(秘苑) 서북단에 대보단, 가평 대보리에 조종암, 괴산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를 조성하여, 매년 명나라 3황제(태조, 신종, 의종)와 9의사, 병자호란의 희생자인 삼학사 등의 제향을 올리니, 이른바 삼향(三享)의 성지(聖地)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종암의 설치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참고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벌론 등은 참고로 그 개요만을 적어 둔다.

* 효종대왕의 북벌계획²²⁹⁾

불림대군(후 효종)은 심양에 인질로 가 있을 때부터 장차 명나라를 회복하여 임진왜란 때 입은 은혜를 갚고 겸하여 남한산성에서 입은 치욕을 씻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한(漢) 민족 즉 명나라 유민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서는 명나라 사람 중에서 협력할 사람을 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양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명나라 사람 중에서 비밀리에 인재를 물색하여 친교를 맺어오다가 승정17(1644)년 3월 19일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국이 북경으로 천도까지 한 후, 그 다음 해 인조23(1645)년 봄 청국에서

229) 효종대왕의 북벌계획: 증수 9의사 전, 1987년 9월 31일 발행, 편간인 9의사 자손 침묵회 100부 한정판, 50쪽) 참조

조선왕자를 귀국시키는 기회에 명나라 9의사를 동반 귀국한 후, 거궁인 어의궁 조양루 남쪽 담 밖(현 연지동 1번지 부근)에 황조인 촌을 신설하여 살게 하고, 국왕으로 등극 후에는 문신으로 우암 송시열령, 무관으로 이완을 주축으로 하여 북벌준비를 진행하다가 재위 10년에 41세를 일기로 승하(1659)하심에 대계가 와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청국에 누설될까 염려하여 극비리에 취급하였으므로 한 마디도 문헌에 기록된 바 없으나, 후일 우암선생이 독대일기를 기록하고 또 효종대왕이 이 당시 영의정 백강 이경여에 내린 비사(批辭) 중 북벌의 뜻이 담긴 「지통재심(至痛在心), 일모도원(日暮途遠)」 8자를 가평 조종암(朝宗巖)과 부여 대재각(大哉閣) 바위에 새겨 효종의 뜻을 후세에 전하였다. …… 아하 생략 ……

2. 본론

1) 조종암의 조성경위(230)

숙종 10년(1684년)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경기도 가평군 하면 대보리 위에 솟은 암벽에 멸청복명(滅淸復明)의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선생이 심양옥중에서 구하여 온 명나라 의종(毅宗)황제(皇帝)의 어필 「사무사(思無邪)」를 모본(模本)하고 또 효종대왕이 영의정 이경여(李敬輿)공에게 내린 「일모도원(日暮途遠), 지통재심(至痛在心)」을 써서 당시 가평군수 이재두(李齋杜)공에게 부탁하여 보내니 이 군수가 허격(許格) 백해명(白海明) 등 여러 사림과 힘을 합하여 이를 선조 어필인 「만절필동(萬折必東) 재조번방(再造藩邦)」과 남선군(朗善君)이 수전(手篆)한 「조종암(朝宗巖)」을 함께 전각(鐫刻)하고 의종(毅宗)황제가 순사(殉死)한 날인 3월 19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종(神宗)황제에게 해마다 제전을 받들던 때로부터 비롯하였으니 비원(秘苑)의 대보단과 괴산 화양동(華陽洞)의 만동묘(萬東廟)와 아울러 이른바 삼향(三享)의 성지(聖地)가 되었다.

이어 백해명(白海明)공이 우암 선생에게 대통행묘를 세우고자 문의하던 바, 의종(毅宗)황제까지 병향(并享)토록 하였으나 마침내 건묘(建廟)는 실현하지 못하고 숙종(肅宗) 30년에 이르러 사론(士論)에 의하여 의종(毅宗)황제를 병사(并祀)하여 왔다.

1784(정조 8)년 판서 황승원(黃昇源)공이 조종암 건너편에 집 6채[정사(精舍) 6영(楹)]를 짓고 「조종암(朝宗庵)」이라 이름하고, 그 종형 문경공 황경원(黃景源) 공과

230) 조성경위: 연혁을 바탕으로 편집자가 주요사항만을 재구성함

같이 공휴여가에 와서 휴식하다.

1796(정조 20)년 왕령으로 예조에서 배신지(陪臣誌) 자료를 수집함에 군사(郡士) 성광렬(成匡烈) 김치하(金治夏)등 42인이 조종암 고사(故事)를 들어 허(許)·이(李) 2공을 배신지(陪臣誌)에 등재토록 글을 올렸다.

상국(相國) 이서구(李書九)와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 제공이 「존주(尊周)휘편(彙編)」을 편집할 때 조종암의 사적도 조사 기록하였다.

예당(禮堂) 민종현(閔鍾顯)이 상달하여 조종암 애각에 전홍(填紅)하다.

1804(순조4)년 판서 조진관 찬(撰), 상국 김달순 서(書), 상국 서매수 전(篆)으로 기실비(記實碑)²³¹를 세우다.

1824(순조24)년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공이 비석 밑에 넓은 암석위에 정자를 지을 계획으로 건너 영등촌(瀛登村)에 수간(數間) 집을 짓고 천거(遷居)코자 하다가 이루지 못하였다.

1831(순조31)년 왕 반천(盤川) 덕일(德一) 공이 그 종제 왕덕구(德九)[호 창해(滄海)]공이 9의사 후손 풍재수(馮載修) 황재겸(黃載謙) 정석일(鄭錫一) 등과 같이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거하여 지방유림의 협조를 받아 단을 모으고 매년 음 정월 4일(명나라 개국일) 새벽 명 태조 고황제 제향을 지내고 대통행묘(大統行廟)라 명칭하였고, 그 밑에 따로 단을 모으고 매년 정월 6일 새벽 구의행사(九義行祠)라 이름하고 9의사 제향을 지내다. 이 제향에는 9의사 자손은 물론이고 영남 호남지방의 유림까지 많은 선비들이 자기 집 정조(正祖) 다례를 께하고 10여 일식 보행으로 걸어와서 참사하였으니, 이는 대보단 만동묘 등 제향은 아무나 참가할 수 없는 제향이었고, 또 일정한 날짜가 아닌(택일)관계도 있었을 것이다.

대통행묘(大統行廟)란 춘추대일통사상(春秋大一統思想)과 장차 묘(廟)를 세울 예정으로 한 것이며, 그 단 밑에 제실을 지어, 열천재(冽泉齋)라 칭하고 왕반천, 왕청해, 또 그 후손이 그곳에 살면서 재사를 받들고 수호하였다.

1858(철종9)년 경기감사 김대근(金大根)공이 대보리민에게 영원히 잡역을 면제하고 조종암 수호에 전념토록 완문(完文)을 내어 명령하였다.

1859(철종10)년 도유사 왕숙열(王淑說), 부유사 풍세호(馮世鎬) 장의(掌議) 정숙(鄭淑) 호경주(胡敬周), 색장(色掌) 황한우(黃漢羽), 왕제축(王濟楅) 유재(留財)유사

231) 기실비; 비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을 이 절 말미에 첨부하여, 그 내용을 밝히니 참조 바람

(有司) 유상형(劉相亨) 정무갑(鄭茂甲) 등 제공이 묘(廟) 세울 자금을 모금함하였다.

1863년(철종14) 열천재(冽泉齋)에 왕숙열(俶說)공이 수거(守居)하다가 화재(火災)로 태우고 다시 일재(一齋)를 짓고 조종재(朝宗齋)라 명칭한다.

1865년(고종2) 대원군의 명령으로 만동묘 등 철폐에 따라 제향을 중지하였다.

1874년(고종11)에 유중교(柳重敎) 이회식(李會植) 유기일(柳基一) 이광규(李光奎) 등 제공이 참배 후 이화서(李華西)선생이 정자를 지으려든 바위에 『견심정(見心亭)』이라고 새기다.

1875년(고종12) 제향을 다시지내다 성재 유중교(盛齋 柳重敎)공이 그문인 김영록(金永祿)을 시켜 조종암지(朝宗巖誌)를 편찬하다.

1876년(고종13) 처사 김평묵(處士 金平默) 유중교(柳重敎)등 제공이 옥계동 구산자이대(玉溪洞, 龜山, 紫泥臺)²³²에 거하면서 매 3월 19일에 이곳에 문인들을 인솔하고 와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정월 4일에는 수 인식 윤변 참사케 하였다.

1878년(고종15) 진사 유중식(柳重植) 등 제공이 원근사림(袁近士林)에게 발문(發文)하여 성금(誠金)을 모아 제전(祭田)을 샀다.

동년 군수 이종영(李種永)공이 철향 후 대보리민이 잡역에 응하여 오던 것을 다시 영원히 면제하고 단수호(壇守護)에 전념하고 대통행묘 및 구의행사(九義行祠) 날에는 햇불과 돼지(豚) 2마리씩 헌납토록 하다.

이래로 경향유림에 의하여 길이 유지 수호하여 오던 중 왜정 하의 탄압과 제전(祭田)의 매각 등 재정난으로 1934년부터 1957년까지 중지하게 되었다.

천운이 돌아와 만청(滿淸)은 신해혁명(1911년)으로 이미 멸망하고, 백세의 은덕을 잇을 수 없어 8·15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 건국 10년째인 1958년 정월 4일에 가평관민과 9의사 후손의 주창으로 다시 무너진 제단을 모으고 향화를 피워 삼황제 제향을 이으며 아울러 9의사 제사를 행하여 영령을 편안케 하니 해마다 제향일에는 원근에서 많은 유림지사가 참례하였다.

제전(祭田)도 구의사 후손과 전국 유림들의 성금으로 1958년에 대 3필지(960평), 제답(祭畓) 1필(1.028평) 등을 구입, 기지 산 50평은 회사 받아 보존회 임원인 후손대표 연명으로 등기하여 제향 및 보존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5년에는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2년 뒤 전국유림 500여명의 성금으로 조종제를 복원하고 이어 조종암 문헌록을 발간하였다.

232) 옥계동 자이대(玉溪洞, 龜山, 紫泥臺): 현 가평읍 승안리 용추폭포 상류, 속칭 자리터

1978년 정월 4일 제향을 마친 뒤에 조종제에서 경향유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조종암 보존회를 창설하고 그 회장에 전 국회의원 정운근 씨를 추대하고 제향일을 다시 3월 19일 오시(午時)로 경정(更定)하였다.

그 다음 해에 대통행묘를 창건하고 그 묘 동무(東廬)에 한국의 명현 9분 (김상헌 선생, 홍익한 학사, 윤집 학사, 오달제 학사, 김응하 장군, 임경업 장군, 이완 장군, 이항로 선생, 유인석 의병대장)을 중향하고 그 서무(西廬)에는 명나라의 의사 아홉 분(왕미승 의사, 풍삼사 의사, 황공 의사, 정선갑 의사, 양복길 의사, 배삼생 의사, 왕문상 의사, 왕이문 의사, 유계산 의사)를 종사(從祀)하였다.

2) 조종암의 현황(現況)

조종암은 1975년 9월 5일자 경기도지방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고, 철책(鐵柵)이 가설되고 군에서 계시관을 건립하였으며, 1977년 조종재를 중건하고 1979년에 대통묘를 창건하고, 3황제를 정위(正位)에, 한국문무 구현(九賢)[십현(十賢)을 종형(從亨)하였다가 4년 후 직속들 요구로 우암 송시열 선생을 철향(撤享)]을 동편, 九의사를 서편에 중향하여 1980년부터 봉제하고 있으며 1984년에 송 우암선생이 쓴 『대명천지 숭면(大明天地崇明)』을 대통묘 전 암석에 조각하고 1986년(丙寅) 묘역에 담을 쌓고 『공북문(拱北門)』 현관을 달고 홍살문을 건립하고 『대통묘건립 백공봉규기공비(大統廟建立白公鳳珪紀功碑)(庚申)「조종암대통묘설명석판(朝宗巖大統廟說明石板)」갑자(甲子)「대통묘부흥재건연혁급헌성사립비(大統廟復興再建沿革及獻誠土林記費)」[정묘(丁卯)]를 낭하에 건립하여 연원 수호를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재지정서와 현재 소유토지(土地) 제답(祭畓)(목록은 후집 등재)지적도는 다음과 같다,……생략 ……

* 조종암기실비명(朝宗岩紀實碑銘)- 역문(譯文)²³³⁾을 인용하고 원문을 게재한다.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 바다가 물의 왕이 되고, 왕자의 일은 제후가 조회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는 까닭에 양자강과 한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조종"이라고 부른다. 서경(書經)에 우공(禹貢)부터 시작하여,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음에 이르러 그 뜻이 바로 밝아졌으니, 그것은 대일통(大一統)하는 까닭이다.

대체로 빈이름만 가지고, 천하 후세에 이름하게 됨에, 사람들은 슬퍼하고, 분히 여겨,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려고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233) 기실비명(紀實碑銘): 가평의 자연과 역사, 신현정 저, 1994년 8월 20, 파블뱅크 발행 523~534 쪽 참조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종암"이란 이름이 나온 바다. 조종암은 가평군에 있으니 가평이란 한국의 조그마한 고을이다. 조종이라고 특별히 부른 것은 의(義)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이름에 느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곳은 천하에 간절한 곳이다. 옛날 임진왜란 때 한국 전체가 왜군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면하게 된 것은 명나라 황제의 힘이 아니었으랴"

"아아! 슬프다 명나라 사직이 벌써 폐허가 되고, 중국이 피비린내 나는 곳이 되어, 우리들의 그 사모함을 붙일 곳이 없더니, 이제 여기에서 얻었구나." 하고 드디어 동네 북쪽에 있는 동그란 바위에 명나라 의종 황제의 어필(御筆)인 사무사(思無邪) 세자를 받들어 새기니, 바로 배신(陪臣) 문정공 김상헌(金尙憲)께서 심양(瀋陽)에 구금되었을 때에 얻어 온 것이다. 다음에 만절필동(萬折必東 : 만 번 꺾이어도 반드시 동방에 이른다) 네 자는 우리 소경왕(昭敬王 선조대왕)의 어필이며, 약간 왼쪽으로 주를 비켜 새긴 재조반방(再造潘邦 : 나라를 재건한다)이란 글은 무술년(戊戌年), 상주문(上奏文)에서 나왔고, 일모도원(日暮途遠), 지통재심(至痛在心)이라 한 것은 효종대왕께서 재상 이경여(李敬輿)에게 비사(批辭)로 내린 말로써 이것들은 모두다 문정공 송시열(宋時烈)선생이 쓰신 것이다.

그 이마에다 전자(篆字)로 조종암이라고 새긴 것은 낭선공자(朗善公子 : 선조의 손자) 우(卣)이다. 처음에 일을 시작한 이는 창해 허격(許格)이고, 이 일을 도운 사람은 가평군수 백해명(白海明)이다. 또 사당을 세워 위로 신종황제를 제사 드리려고 하였는데,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명나라 의종 황제는 어찌해서 빼었는가" 하셨는데 일이 채 이루기 전에 선생이 돌아가심에 그 문인 권상하(權尙夏)선생이 이것인 즉 조종암이 그 시작이 된 것이다.

또 대보단을 창설할 때, 선조 대왕과 효종 대왕 두 임금의 배향코자 하였다가, 의론이 한결같지 아니하여 비록 그만 두었으나, 의리를 미루어 보면, 문(文)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가. 신하가 그 임금을 따르는 것과 여러 제후가 천자를 쫓는 것 같은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 대보단에 대한 의론을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대체로 덕을 사모하는 것은 순리이고, 자나 깨나 비풍하천(匪風下泉 : 시경에 옛적 주나라 백성이, 쇠해진 고국 주나라를 추모하는 비분강개한 뜻을 담은 시) 시를 읊음은 때가 불행한 때문이며, 비유컨대 물이 쉬지 않고, 같이 바다로 흐름과 같음이니, 혹 평지로 갈 때는 아무 일도 없으나, 넓은 여울과 급한 파도가 되어서 용문산(龍門山 : 중국 황하 하류에 있는 산)을 흔들면 천하의 변괴가 여기에서 극도에 달하니, 그것이 어찌 물이

기뻐하는 바이겠는가? 그 형세로 말하면 그러한 것이다.

정종 갑진년(甲辰年 1784), 상서벼슬에 있는 황승원(黃昇源)이 가평군수로 있을 때에, 조종암 앞에 여섯 개의 집을 짓고, 조종암(朝宗菴)이라고 이름 했었는데, 여러 해가 되어 집이 파손됨에 근방 사람들이 동지를 규합하여 집을 보수하고, 또 돌을 깎아서 이 글(조종암 기실비)을 새기니 이곳이 어찌 "열 집이 사는 적은 고을에 충성되는 사람이 많다."고 한 공자의 말씀과 같다고 아니 하리오,

옛날 우암 선생이 조창강 선생 숙(涑)과 더불어, 신만(申曼)처사를 방문하여, 밤이 늦도록 말을 심하게 하니, 조공(趙公)이 김탁영(金濯纓)의 조천부(朝天賦)를 모시고, 서로 크게 한숨쉬며, "예전에 사대부가 중국에 들어가서 유람하던 때는 오늘날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아아! 오늘날 이 의리를 알 자도 또한 드물 것이다. 그 파멸되지 않은 것은 오직 돌 위에 빛나는 먹 흔적(글씨)뿐이 아니라, 천자의 나라에 조회 가서 차디찬 말을 하는 것 같은 것이 오히려 양추(陽秋)의 한 맥이 천지의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나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영력(永歷) 158년 순조(純祖) 4년(1804년) 세우고
승록대부 호조판서 홍문관제학 조진관 짓고
정헌대부 이조판서 성균관사 김달순 쓰고
승록대부 좌의정 춘추관사 서매주 전서 쓰다

* 有明朝鮮國 加平郡 朝宗巖紀實碑 (原文)

朝宗巖紀實碑

萬流灌海海爲王者之事莫尊於朝諸溪攻江漢之東之號曰朝宗自禹貢始春秋作雨其義乃著所以大一統也夫操空名以呼號於天下後世而人莫不悲咤感憤若將投袂而起者是敦使之然哉此朝宗巖所由名也巖在加平加平東海之僻陋邑也朝宗特里名爾有好義者過之感名而歎曰此天下乾淨地也在黃龍蛇之難環箕封免於侏偶非帝力耶嗟呼明社已墟中原爲腥穢吾屬寓其慕無所今於此得之遂就里北之一穹巖乃奉刻毅皇帝御書思無邪三字卽陪臣文正公金尙憲拘審陽時得者次萬折必東四字我昭敬王書翰也稍左列以鐫者曰藩邦出於戊戌奏曰日暮途遠至痛在心孝廟賜相國李敬輿批辭文正公宋時烈所書也篆其額曰朝宗巖者朗善公子僕也始滄海許格倡其事相之者邑之秀白生也從而將建建祠以上祀神皇帝宋文正聞之曰毅皇何可闕也事未成先生歿其門人寒水先生紹厥志建萬東廟於華陽山中是則朝宗巖爲之兆也且皇壇之始也欲以穆

寧兩陵配之議不一雖已惟此義也文不在茲乎陪臣之從其君猶羣后之從天子也此又壇議之未盡言那夫懷德順也寤寐風泉時不幸也譬之水其不息也同赴海也又同或爲平波行乎其無事或爲洪湍急濤觸龍門盪底柱天下之變極焉是豈水之所樂哉其執則然也 正宗甲辰黃尙書昇源補本郡員岩而擢六楹又名之曰朝宗庵歲久將圯人士之處傍者約同志加修葺焉伐石以文之是何十室多忠信也昔者尤翁與趙滄江涑訪申蔓處士夜闌於語劇趙公誦金濯纓天賦相與太息曰往時士大夫遊觀上國與今人不同嗚呼今人知此義者亦鮮其不磨者惟石面墨痕煌煌焉不啻如朝天冷話尚可謂陽秋一脉寄在天地間否也

崇祿大夫行戶曹判書兼知經筵實錄事弘文館提學 趙鎮寬 撰

正憲大夫原任吏曹判書兼同知經筵成均館事 金達淳 書

大巨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經筵事監春秋館事 徐邁修 篆

崇禎紀元後三甲子月立

* 조종암 대통묘비문²³⁴⁾

경기도(京畿道) 지방(地方)

문화(文化) 제28호(第28號) 조종암(朝宗巖) 대통묘(大統廟)

조종암(朝宗巖)[서방(西方)사백m(四百m)노상(路上)]은 조선조초(朝鮮朝初)에 화하문화(華夏文化)를 전달(傳達)해주고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었고, 또 정묘(丁卯) 병자(丙子)호란(胡亂)에도 동원(東援)한 명국(明國)은의(恩義)에 보답(報答)코자 비원내(秘苑內) 대보단(大報壇), 충북(忠北) 만동묘(萬東廟)와 함께 명국(明國)옥사(屋社)[단기(檀紀)3977, 갑신(甲申)] 후(後), 숙종(肅宗) 십년(十年)갑자(甲子)(4017) 당시(當時) 가평(加平)군수(郡守)이제두(李濟杜) 허격(許格), 백해명(白海明) 등(等)제공(諸公)이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선생(先生)의 지도(指導)를 받아 암면(巖面)에 각자(刻字)하고 그 밑에서 명국(明國)황제(皇帝)에게 봉제(奉祭)하던 곳이며, 순조(純祖)삼십일년(三十一年) 신묘(辛卯)(四一六四) 구의사(九義士)후손(後孫)이 차지(此地)에 이주(移住)하여 대통행묘(大統行廟)와 구의행사(九義行祠)를 창설(創設)하고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선생(先生)문하(門下) 제(諸)선생(先生)과 각지(各地)인사(人士)가 모여 봉제(奉祭)한 춘추(春秋)정신(精神)의 사적지(史

234) 조종암 대통묘비문: 1984년 보존회에서 건립한 것으로 비문은 한문을 주로 한 것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을 병기함,

蹟地)이다. 왜(倭) 강점(强占)중(中) 전개(前掲)삼형지적(三亨之跡)이 전부(全部)철폐(撤廢)된 후(後), 차(此)대통묘(大統廟)만이 지방관민(地方官民) 발기(發起)로 사이구일년(四二九一年) 무술(戊戌)에 복향(復亨)하고 전국(全國)사림(士林)의 성금(誠金)으로 사삼일O년(四三一O년) 정사(丁巳)에 조종제(朝宗齋), 사이일이년(四二一二年) 기미(己未)에 대통묘(大統廟)를 중건(重建)하여 명국(明國)태조(太祖)신종(神宗) 의종(毅宗) 산황제(三皇帝)를 정위(正位)에 배향(配享)하고 한국(韓國)문무(文武)구현(九賢)을 동편(東便)에 명국(明國) 구의사(九義士)를 서편(西便)에 종사(從祀)하여 매년(每年) 음(陰)삼월(三月)십구일(十九日)[의종(毅宗)황제(皇帝)순사일(殉祀日)] 봉제(奉祭)하고 있다.

영력(永曆)삼삼팔년(三三八年)(1984)

창설 후(創設 後) 삼백년(三百年)갑자(甲子)삼월(三月) 조종암(朝宗巖)보존회(保存會) 병인년(丙寅年)부터 매년(每年) 음(陰)삼월(三月)제삼(第三)일요일(日曜日)에 봉제(奉祭)함

3) 조종암 조성 및 운영의 근본정신- 대명보은사상과 주체정신²³⁵⁾

우리 한국은 북에는 중국대륙과 접속되고 남으로는 일본과 대하고 있는 1개 반도로써 우리보다 고도로 발달된 중화(中華)의 유교문화를 수입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와 3강 5륜을 인도(人道)로 삼아 공부자(孔夫子)의 춘추(春秋)대의(大義)를 민족정신으로 전통화하고 예의를 존중하여 오던 중, 고려말엽 주자(朱子)의 성리학이 전입되면서 존왕(尊王)양이(攘夷)와 화가(化家)위국적(爲國的) 충의(忠義)사상이 더욱 철저하여졌으며, 그 외에도 중화에서 창제(創制)된 노장(老壯) 기타 제자(諸子)백가서(百家書)와 불교 기독교 등을 중국에서 중국문자인 한문으로 번역한 서적이 역시 중국에서 전입되었고 의학, 역서(曆書), 농공(農工) 등의 기술과 법제(法制), 병제(兵制), 복제(服制), 예제(禮制) 등 제반제도 사상을 이식(移植) 수용하면서 우리 전통화한 화제(華制)를 수호기 위하여 중화(中華)는 존모(尊慕)하고 우리보다 문화와 예법이 낙후한 여진(女眞) 몽고(蒙古), 일본(日本) 등을 이적(夷狄)으로 천시(賤視)하였고, 한말에 유의암(柳毅庵)선생은 「명국이 망한 후에는 천하에 무화(無華)이아동(無華而我東)에 유화(有和)라」 하여 화(華)의 주체는 바로 아국(我國)뿐이라고 자궁(自矜)하였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3국 이전은 막론(莫論)하고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에는 수, 말갈(靺鞨), 당(唐),

235) 대명보은사상과 주체정신: 상계 증수(增修) 구의사전(九義士傳) 257~259쪽 참조

왜(倭), 고려시대에는 요(遼: 글안), 금(金: 여진), 원(元: 몽고), 조선조시대에는 왜(倭), 청(淸: 후금, 여진) 등 주변 제국의 무력침탈을 당하여 항시 약소민족으로서 외침방어에 거의 영일(寧日)이 없었고, 그 간(間)에는 통쾌한 승리를 거둔 적도 불무하였지만, 혹 참혹한 강압하에서 신음, 복종을 강요 당한 시기도 불소(不少)하였으나, 그때마다 심복(心腹)을 거부하고 와신상담 설욕할 기회만을 노리면서 불행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명국은 조선개국 초에 태조 고황제(高皇帝)가 「한산격해(限山隔海)하여 천조(天造)동이(東夷)하니 비아국소치(非我國所治)라, 성교자유(聲敎自由)하고, 능승천의(能順天意), 종인심(從人心)하여, 이안동이지민(以安東夷之民)이면, 실피국지복야(實彼國之福也)라」²³⁶⁾는 고명(誥命)과 함께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해주고 자주독립을 승인하여 예우(禮遇)예고(譽顧)하고, 수백 년간 이민족의 질곡(桎梏)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2백여 년간 외침을 모르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였고, 임진왜란을 당하여 전국토가 왜에 강점되어 재기할 가망이 없어 선조대왕이 명국으로 건너가려고까지 하셨을 때 신종황제가 8년간 전 국력을 경주 구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소생시켜 주었으며, 그 후 약 30년이 지난 정묘·병자 2차 호란에는 왜란 동원으로 피폐된 채 신흥 청호(淸胡)의 침략을 받아 자국운명이 풍전등화 격으로 위급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종(毅宗)황제가 다시 동원(東援)하여 준 은의(恩義)(조속 항복으로 중도 철군함)에 감격하여 군신상하가 다 같이 그 은의에 결사보은하려는 의리정신으로 효종대왕은 북벌(淸復明)계획을 추진하다가 조속 승하로 대계책해(大計瓦解)됨에 숙종대왕시대에는 대보단 만동묘, 대통묘(조종암) 등을 창설하여 명국 고황제 향을 2백여 년간 봉행타가, 일제 병탄(併呑)후 철폐 당하였다(1908, 율희 2).

그러나 공자께서 존주(尊周)정신을 저작하신 춘추의 대의는 무조건 주나라를 위하한 것이 아니고 주의 문화와 왕도정치를 찬양존중하고 패도를 천시하신 존왕(尊王)천패(賤霸)의 정신이므로 어느 민족이나 지역을 구별한 것이 아님을 한퇴지(韓退之)는 「공자지작(孔子之作) 춘추(春秋也)에 제후용이례칙이지(諸侯用夷禮則夷之)하고, 진어중국칙중국지(進於中國則中國之)²³⁷⁾라」 하였고, 송 우암(尤庵) 선생은 「춘추지법(春秋之法)에 중국이 용이도칙이지(用夷道則夷之)²³⁸⁾」 하시고, 또 「부자지공(夫子之功)

236) 고황제(명 태조)의 고명(誥命): 산과 바다가 가로 막아 떨어져서, 하늘이 동이를 만들었으니, 아국이 다스리지 않는도다, 자유롭게 가리키는 소리가 능히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인심을 따라 동이의 백성이 평안하니 이는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 편집자 역주

237) 諸侯用夷禮則夷之, 進於中國則中國之: 제후가 오랑캐의 예법을 사용하면 이가 곧 오랑캐이고, 나아가 중국의 예법을 쓰면 이가 곧 중국이다. …… 편집자 역주

이 미유대어춘추지이춘추지의(未有大於春秋而春秋之義)는 미유대어존왕(未有大於尊王)하고 존왕(尊王)은 미유대어주체(未有大於主體)²³⁹⁾라」 하셨으니, 요, 금, 원, 청 등은 문화적으로 이적(夷狄)일뿐 아니라 강대한 무력으로 이력복인(以力服人)하여 지배자로 군림한 패도를 행하였음으로 천시(賤視)배척한 것이고, 명국은 문화적으로 중화(中華)인 동시에 약소한 우리 국가 민족을 증구(拯救)하고 예우(禮遇)예고(譽顧)하여 이덕복인(以德服人)하는 왕도를 행하였고 공부자께서 존주(尊周)하신 것과 같이 국민 상하가 다 자발적인 충심(衷心)으로 존명(尊明)한 것이며 이 존명사상의 이면에는 항일, 배청의 주체정신을 내포하여 왔다.

아국이 청호(淸胡)에 항복(1637, 인조15)하고, 명국이 멸망(1644, 인조 22)한 후, 조종에서는 청국에 보내는 항복조건에 따라 부득이 청 연호를 쓰고 국내문서, 비석 등에는 명국 연호인 숭정(崇禎), 영력(永曆) 등을 사용하고, 「유명조선(有明朝鮮)」이라고 관서(冠書)하였으며, 청음(淸陰), 우암(尤庵) 등 제선생을 위시한 의리학파에서도 역시 각종문헌, 족보 등에 청 연호를 위호(僞號)라고 거부하고 명국연호를 사수하여 숭명배청의 대의를 고수하였고, 대한제국독립(1896, 고종33)으로 건양(建陽), 광무(光武), 융희(隆熙) 등 한국연호가 제정공포된 후에도 이는 일제가 병탄(併呑)간계(奸計)로 호칭(號稱)한 사술(詐術)에 동조함이라는 이유로 황제칭호와 연호를 거부하였고 또 경술(庚戌)병탄(併呑)이후 일본연호도 물론 거부하고, 명국연호를 계속 준용(遵用)하여 항일정신을 발휘하였으니, 이는 임진왜란 시의 호국정신인 의병운동과 정묘 병자호란시의 척화사상, 호란이후 민족의 자주자존을 회복하고 명국에 보은하여는 북벌운동, 대보단, 만동묘, 대통묘 등 창설유지 사상, 청국, 일본 등의 위호(僞號) 거부사상,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서세동참시기에 어양(禦洋)척사운동(斥邪運動), 일제침략 앞에 항일 의병운동, 8. 15광복 후에 반공정신과 한국전통 수호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혈맥 속에 일맥상통한 유교의 존화양이의 춘추, 주체정신이 있었는데, 현재 이를 정반대되는 사대사상으로 오해하는 인사가 불무함은 유감이며 춘추시대에 세 쇠(世衰)도미(道微)하고 사설(邪說)이 난진(亂眞)하여 사치(奢侈)방자(放恣)만 범람(汎濫)하는 혼란상[242년간 망국 52, 신시기군(臣弑其君 36)을 광구(匡救)키 위하여 저술하신 충효 의리, 존왕천패의 춘추정신은 현재 이욕, 사치만을 추구하고 도의를 무

238) 用夷道則夷之: 오랑캐의 길을 가면 이것이 곧 오랑캐이다. ……편집자 역주

239) 夫子之功 未有大於春秋而春秋之義 未有大於尊王, 尊王 未有大於主體: 공자의 공이 춘추는 크기에 있지 않고, 춘추의 의에 있으며, 존왕은 크기에 있지 않으며, 존왕은 주체의 크기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시하는 사회를 혁신하려는 「새 마음 갖기 운동」에 2500년 경험방이 될 것이다.

또 이상 승명배척 항일사상은 유림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창설된 주체사상의 종교인 천도교(동학)의 교조 최제우(崔濟愚)선생도 경전에 「개 같은 왜적놈을 하느님께 조화(造花)받아 일야간(一夜間)에 소멸하여 전지(轉之)무궁(無窮)하여 놓고 대보단에 맹서하고 한(汗)에 원수(怨讐) 갚아보세」라고 말씀하여, 존화양이사상을 배양하였으니, 이는 전국민적 전통사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명망 후에도 청구연호와 대한제국 연호, 일본연호 등을 거부해온 사상과 한말에 조종암 만동묘 등을 숭모 수호하면서 항일운동에 헌신해온 제 선사(先師)의 인맥을 살펴보면 여좌하다. …… 이하 생략 ……

4) 신위 배치도

4-1. 중앙(봉안 신위)

가. 태조: 홍무제(명시조 1368~1644: 주원장)

조선이란 국호를 보내고 우리나라를 예의로 대우하고 명예롭게 돌봄

나. 신종: 만역제 즉위(1572~1620);

임진왜란 7년(1592~1596) 동안 명나라 40만 대군을 파병 왜군을 격퇴,
다. 의종(毅宗): 승정제 (1627~1644): 명나라 마지막 황제,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때 구원병 파병하였으나 인조가 너무 일찍 항복함에 따라 철
군, 청의 침범과 이자성의 반란으로 왕후와 함께 자결, 명나라 멸망(1644), 연
호 승정(崇禎)

4-2. 동쪽(한국)

金尙憲 洪翼漢 尹 集 吳達濟 金應河 林慶業 李 浣 李恒老 柳麟錫
(김상헌 홍익한 윤 집 오달제 김응하 임경업 이 완 이항로 유인석)

4-3 서쪽(중국)

王美承 馮三仕 黃功 鄭先甲 楊福吉 裴三生 王文祥 王以文 柳溪山 9의사 (왕미승
풍삼사 황 공 정선갑 양복길 배삼생 왕문상 왕이문 유계산)

5) 신위의 신상내역

5-1. 한국측 인사(240)

240) 한국측 인사: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이라 DAUM 인터넷 역사사전 등에 의거 병자호란에 관련된 사항, 및 본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기재하니, 자세한 것은 역사사전 등을 참조바람,

가. 김상헌(金尙憲) : 1570(선조 3)~1652(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인조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청서파(淸西派)의 영수이며, 병자호란 때는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했다. 본관은 안동.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澗老人). 아버지는 돈녕부도정 극효(克孝)이고, 형이 우의정 상용(尙容)이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예조판서로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다 인조가 항복하자 파직되었다.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났다. 귀국 뒤 좌의정·영돈녕부사 등을 지냈다.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을 추진할 때 북벌군의 이념적 상징으로 대로(大老)라고 불렸다.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661년 효종 묘에 배향되고, 양주 석실서원(石室書院), 정주 봉명서원(鳳鳴書院), 의주 기충사(紀忠祠), 광주 현절사(顯節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나. 홍익한(洪翼漢) : 1570(선조 3)~1652(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習).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 병자호란 때 주전파(主戰派)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으로 청나라로 끌려가서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다가 죽음을 당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최명길(崔鳴吉)의 화의론(和議論)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그의 아내와 아들·사위 등은 모두 난중에 전사하거나 자결했다. 다음해 화의가 성립되자 화친을 배척한 자들을 내놓으라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과 함께 청나라 선양[瀋陽]으로 끌려갔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반청(反淸)의 자세로 버티다가 다른 2명의 학사와 함께 사형 당했다. 광주 현절사(顯節祠), 강화 충렬사(忠烈祠), 홍산 창렬서원(彰烈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다. 윤 집(尹集) : 1606(선조 39)~1637(인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병자호란 때 청과의 화의를 반대한 3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고산(高山). 아버지는 현감 형갑(衡甲)이며, 형이 남양부사 계(槩)이다. 1631년(인조 9)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설서·이조정랑·부교리 등을 지냈다. 1636년 교리로 있을 때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선을 속국시하며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오달제(吳達濟)·홍익한(洪翼漢) 등과 함께 사신을 죽이자고 주장했다으며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하던 최명길(崔鳴吉)·이민구(李敏求) 등을 탄핵했다. 그러나 이듬해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굴욕적 항복을 하며 화의가 성립되고, 청나

라에서 척화론자의 처단을 주장하자 오달제와 함께 소를 올려 스스로 척화론자로 나서 봉림대군(鳳林大君)·오달제·홍익한 등과 함께 청나라에 잡혀갔다. 1637년 4월 심양(瀋陽)에 도착한 뒤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항변하다 심양성 서문(西門) 밖에서 오달제와 함께 처형당했다. 광주(廣州) 절현사(節顯祠), 강화 충렬사(忠烈祠), 고령 운천서원(雲川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라. 오달제(吳達濟) : 1609(광해군 1)~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和議)를 반대한 3학사(三學士) 중 한 사람이다. 본관은 해주(海州). 아버지는 윤희(允諧)이다.

1634년(인조 12)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해 전직·시강원사서를 거쳐, 이듬해 정언·지평·수찬 등을 지냈다. 1636년에 부교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들어가 끝까지 척화를 주장했다. 이듬해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한 뒤, 청에서 척화론자의 처단을 요구하자 스스로 척화론자로 나서서 윤집(尹集)·홍익한(洪翼漢) 등과 함께 청나라 심양(瀋陽)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항변하다 심양성 서문(西門) 밖에서 처형당했다. 그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고향에 정문(旌門)을 세웠으며, 영의정에 추증했다.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평택 포의사(褒義祠), 홍산 창렬서원(彰烈書院), 고령 운천서원(雲川書院), 영주 장암서원(壯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마. 金應河(김응하) : 580(선조 13)~1619(광해군 11).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안동. 자는 경의(景義). 1604년(선조 37) 무과에 합격, 1610년 선전관에 임명된 뒤 경원판관·도총부경력·삼수군수·북우후(北虞候) 등을 지냈다. 1618년 명이 후금(後金)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청하자, 이듬해 2월 도원수 강홍립(姜弘立), 부원수 김경서(金景瑞)를 따라 좌영장으로 출정했다. 이 해 3월에 부차령전투에서 명군이 대패하고 조선의 원군도 후금 군대에 항복했을 때, 3,000의 군사로 후금군을 맞아 싸우다 전사했다. 1620년 명 신종(神宗)으로부터 요동백(遼東伯)에 봉해졌다.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바. 임경업(林慶業) : 1594(선조 27)~1646(인조 24). 조선 중기의 무신.

임경업 영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친명반청(親明反淸)에 투철한 무장으로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활약했으며,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명나라와 협력하여 청을 공격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 판서 정(整)의

7대손으로, 아버지는 황()이다.

사후 그의 무용담을 소재로 한 <임경업전 林慶業傳>을 비롯하여 많은 소설·설화가 전해지고,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되었다. 1697년(숙종 23) 복관되었다. 충주 충렬사(忠烈祠), 선천 충민사(忠愍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사. 이 완(李 莞) : 1579(선조 12)~1627(인조 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열보(悅甫). 이순신(李舜臣)의 조카이다. 임진왜란 기간에 이순신의 휘하에서 활동했다. 1599년 무과에 급제해 평양중군 등을 거쳐 1623년(인조 1) 충청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이천에서 반란군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그 뒤 의주부윤이 되었는데, 당시 요동도사(遼東都司) 모문룡(毛文龍) 휘하의 명나라 군대가 가도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조선측에 군량을 요구하며 약탈을 자행하자 모문룡의 군사를 곤봉으로 때려 위계 한 급이 강등되었다.

1627년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출정했는데 패하자 병기고에 불을 지르고 분사(焚死)했다. 1706년(숙종 32) 아산 현충사(顯忠祠)에 제향되었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강민(剛愍)이다.

아. 이항로(李恒老)²⁴¹⁾ : 1792(정조 16)~1868(고종 5). 조선 후기의 주자학자.

화서학파(華西學派)를 형성하여 한말 위정척사론과 의병항쟁의 사상적 기초를 다져 놓았다. 본관은 벽진(碧珍). 초명은 광로(光老). 자는 이술(而述), 호는 화서(華西).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자. 유인석(柳麟錫)²⁴²⁾ : 1842(헌종 8) 강원 춘성~1915. 1. 29. 한말의 위정척사론자의병장.

한말 서양 및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철저히 반대하면서 유교적인 이념으로써 통치되는 독립된 나라를 구상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초기 항일의병을 주도했다. 본관은 고흥(高興). 자는 여성(汝聖), 호는 의암(毅菴)이다.

5-2. 중국 측 신위의 신상내역²⁴³⁾

가. 왕미승(王美承) 동창 왕상생(東昌 王庠生)

241) 이항로 : 구한말의 학자로 조종암을 민족정기 진흥의 산 도장으로 삼아, 문하생들을 인솔하여 그 수호와 제향에 앞장섰기에 그 문하생들이 조종암 복구 때 합사함

242) 유인석: 스승 화서 이항로와 같이, 구한말 위정척사론을 주장하며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무력항쟁을 감행한 의병대장으로 병자호란 때의 주전론자와 상통한다고 하여 그 문하생들이 조종암 복구 때에 합사함

243) 중국측 인사 신상: 상계 증수 구의사전 55~59쪽 참조

휘(諱)는 미승(美承)이요 자(字)는 계백(季伯)이니 1602년 5월 19일 산동성 동창부(山東省 東昌府)에서 났다. 공이 43세 되던 해(1644년)여름에 이자성(李自成)의 난(亂)이 있음을 듣고 지방 사람들에게 『우리 명나라 신자 된 자로서 화변이 이에 이르렀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국가를 위하여 나가 싸우자』고 의병을 소집하여 쫓기를 원하는 자 천여 명을 데리고 낮에는 은신하고 밤에는 걸어 장차 적과 싸우려고 할 제, 유적(流賊)이 횡행하고 더욱 기근(饑饉)이 심하여 군중(軍中)에 양식이 떨어짐에 총병(總兵) 오삼계가 관문을 열어 청병(淸兵)을 불러드리는지라 별반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 잡혀 심양관에 송치되었다.

나. 임구 풍상생(臨朐 馮庠生)

휘는 삼사(三仕) 자는 유영(惟榮)이니 서기 1607년 1월 18일 산동성 청주부 임구현 부정리에서 났다. 공은 벼슬을 아니 하고 고향에서 살았다.

공이 32세 되던 해(1638년) 11월 청병(淸兵)이 산동에 침입하여 포정사(布政使) 장병문(張秉文)이 전사하니 공은 부인과 가족을 장산도(長山島)에 피란케 하고 하계선(賀繼先)과 협력하여 그 지방 청년들에게 『우리는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어 온 국민으로서 이러한 때에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호유하여 의병을 소집하여 덕주(德州)를 굳게 지키니 적이 감히 진격치 못하였다. 그 다음해(1639년) 淸兵이 무성(武城)을 포위한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인솔하고 구원하러 가니, 미처 닿기 전에 지현(知縣) 이승방(李承芳)이 전사하고 군민(軍民)이 흩어져 달아나는지라 급히 공격함에 청병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 공은 하계선과 호(壕)를 성 주위에 파고 제방을 구축하여 남천(南川)의 물을 들이대니 적이 침입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총병 부우명(傅又明)이 위현(威縣) 박주(撲州)등에 격문(檄文)을 놓아 구원을 청하니 공이 또한 가서 응원하였다. 그때에 군량이 다 없어져 북창의 군량을 갖다가 먹었다. 그러던 중 지현 서공기(徐公器)가 납서(蠟書)로서 공의 구원을 청하니 공은 또 의병을 인솔하고 가서 싸우다가 몇 십 배나 되는 많은 군인과 상대가 아니 되어 결국 패하여 지현 서공기와 같이 적에게 포로(捕虜)로 잡히니 청장(淸將) 다첩이목(多帖爾睦)이 각가지 방법으로 위협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항복하라고 하였으나, 『머리가 끊기더라도 무릎은 꿇지 않겠으니 빨리 죽여 달라』고 항거함에 마침내 그 대의에 감동하여 죽이지 않고 심양으로 보내어 그 해 4월 심양관에 집류(執留)되었다. ... 후략...

다. 항주 황유수(杭州 黃留守)

휘(諱)는 처음에는 전공(詮功), 동도(東道) 직후에는 전(詮), 또 그 후에는 공(功), 자(字)는 성보(聖報)이니 1612년 10월 2일 항주에서 났다. 그 부친은 지휘사(指揮使) 휘(諱) 빈(賓)이고 그 조부 선무사(宣撫使) 휘(諱) 갑(甲)이다, ...중략...

공이 19세 때(1630년) 진사(進士)에 급제하시어 역관(曆官) 수광, 전당지현(壽光, 錢塘知縣) 기산(祈山) 지휘자(指揮者) 중도(中都)유수(留守)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사방에서 도적이 심하여짐에 공이 33세 때에(1644년) 현중(縣中)사민(士民)을 소집하여 병마를 조련하고 서주(徐州)에 진주하였다가 서울(북경)이 함락한 소식을 듣고, 통곡하여 병이 되었다가 사상서(史尙書)가 남경에서 복왕(福王)을 세우려함을 알고 흩어진 병졸 3천여 명을 다시 모아 사상서를 돕고자 회양(淮陽)까지 가다가 청병(淸兵)이 이미 비(邳)땅에 이르러 연락을 못하게 됨에 할 수 없이 그 곳에서 싸우시다가 결국 패하여 적에게 잡히어 심양관에 갇히었다.

라. 낭야 정진사(瑯琊 鄭進士)

낭야 정진사(瑯琊 鄭進士)의諱는 선갑(先甲)字는 시인(始仁) (혹 삼신<三新>))이니 1617년 5월 18일 낭야(瑯琊)에서 났다. ...중략...

공이 26세때(1642년)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병환으로 벼슬을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28세(1644년) 서울에 난이 일어남을 듣고 서울에 올라가니 이미 함락되었는지라 흰옷으로 발상하고 밤낮 통곡하다가 적에게 붙들려 심양관에 갇히게 되었다.

마. 통주 양상생(通州 楊庠生)

휘(諱)는 복길(福吉) 자(字)는 상보(祥甫)이니 1617년 6월 2일 通州에서 났고, 그 선조는 서촉(西蜀) 사람이다. 승정(崇禎)초에 서울(북경)에 유학하던 중 지현(知縣) 한승선(韓承宣)과 친교가 있었는데 한(韓) 지현(知縣)이 역성(역城)을 지키게 됨에 공이 22세 때(1638년) 가을에 한지현과 같이 지키더니, 청병이 산동에 침입함에, 차례로 함락하는지라 공이 지현과 같이 민병을 소집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응종(應從) 하는 자 없어 성을 굳게 닫고 지키다가 결국 함락되어 지현(知縣)은 전사하고 공도 또한 창에 찔려 기절하셨다가 그 다음날 정신이 회복되고 다친 곳도 점차 나아져 신양관으로 송치되어 억류되었다.

바. 대동 배삼생(大同 裴三生)

휘(諱)는 삼생(三生) 자(字)는 지중(之重)이니 1612년 6월 28일 대동(大同)에서 출생하였다. 공이 24세 때에(1644년) 적이 사방에 일어남에 각지에서 의병을 소집하여 고향을 보존하다가 서울(북경)로 향하여 여러 곳에서 적을 무찌르고 기내(畿內)에

이르니 그곳이 이미 청병에 함락되었는지라 휘하(麾下)가 다 흩어지니 공도 또한 적에게 붙잡히어 적장 애리아(愛里阿)가 각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항복하라고 하였으나 끝내 항복치 않음에 심양으로 송치되어 심양관에 억류되었다.

사. 청주 왕상생(靑州 王庠生)

휘(諱)는 문상(文祥) 자(字)는 여장(汝章)이니 1622년 12월 23일 산동성 청주부에서 났고, 그 부인은 조씨(曹氏)니 1634년 12월 13일에 났다. 공은 어렸을 때부터 기절(奇節)이 있었으며 승정(崇禎)말 사방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남에 의병을 모아 적은 성을 쌓고 지방을 수호하다가 23세 때(1644년) 적에게 함락되고 공은 붙잡히어 심양관에 억류되었다.

아. 제남 왕상생(濟南 王庠生)

휘(諱)는 이문(以文: 효종대왕이 지어주심) 처음 휘(諱)는 봉강(鳳崗), 자(字)는 기양(岐陽)이니 1625년 5월 26일 산동성 제남부 장구현 상원장에서 났다.

공이 12세 때(서기1636년) 2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사방에서 적의 형세가 날로 치열하여 동리에까지 침입하니 장례를 못 지내고 외조 상서공 별장 후원에 평장(平葬)하고 옛날 고기(古器)와 세첩(世牒)을 다 소실(燒失)당하였으며 가족을 인솔하고 해도중(海島中)에 피난하였더니 그 다음해 공이 13세 때(1637년 4월)에 그 섬이 함락되고 공과 가족이 다 붙잡혔는데 적이 공이 연소(年少)하면서도 씩씩함을 기특히 여겨 진중에 두고 감언이설로 항복하라고 권하되 끝내 듣지 않으시니, 그 해 9월 부인과 함께 심양관으로 보내어 억류되었다.

자. 대동 유상생(大同 柳庠生)

휘(諱)는 계산(溪山) 자(字)는 허미(許美)이니 1627년 3월 18일 대동에서 났고 그 부인은 남씨(南氏)이니 1622년 3월 9일에 났다. 공은 천성이 담박(淡泊)절속(絕俗)하여 천부산(千夫山)중에서 가동(家僮) 수인을 데리고 은거하더니 공이 18세 때(1644년)에 서울(북경)이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천자(天子)가 순사(殉祀)하셨는데 관대(冠帶)를 할 수 없다』고 처자와 의관을 버리고 거짓광인이 되어 하간(河間)에 전전하다가 청노(淸虜)를 만나 갖은 욕설과 호령을 하니 청병이 의심하고 심양관으로 보내어 억류되었다.

*9의사 심양관 중 생활 및 동도(東渡)²⁴⁴⁾

1637년(승정10, 인조15,) 2월 인질로 심양질소에 가게신 조선의 왕자 중 특히 봉

244) 심양관 생활 및 동도: 상계 증수 구의사 전 59~60쪽 참조

림대군(鳳林大君): 후의 효종)은 틈틈이 명나라의 포로로 같은 심양관 중에 있는 9의사 등과 서로 접촉하여오시던 중 1644(승정17, 인조22) 3월 19일 명나라 서울(북경)이 이자성(李自成)에게 함락되고 의종(毅宗) 열황제(烈皇帝) 및 황후(皇后)주씨(周氏)가 만세산(萬歲山) 수황정(壽皇亭)에서 순사(殉祀)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9의사(義士) 등은 고국이 멸망하여 재기의 희망이 영절(永絶)됨을 탄식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기절까지 하여, 자결코자 하였는데, 봉림대군께서 『통분한 마음을 참기 어려울 줄 아나 내가 장차 고국에 돌아가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만고에 없는 병자의 치욕을 갚을 결심이니 우리가 귀중한 신명(身命)을 헛되이 없애는 것보다 같이 조선으로 가서 합심 협력하여 이 원수를 갚고 명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죽는 것이 명조의 후예남아로서 국가나 선조에게 더욱 땀땀하지 않겠는가』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셔서 이에 감복되어 자결할 뜻을 굽히고 여가만 있으면 서로 만나시어 호국 멸망시킬 계책만을 논의 하였다.

그러다가 1645년(인조23) 2월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귀환하시는 기회에 9의사 등은 봉림대군(鳳林大君)의 간곡한 소청으로 억류생활에서 풀려 같이 고국산천을 영영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너 낯선 땅 조선으로 건너왔다. 당시 봉림대군은 북경<청이 새로 천도한 곳>에 가 계시다가 동년 5월 14일 서울에 도착하셨었다.

이들이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등극한 후 북벌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중국어도 가르쳐 주며, 우리나라에 정착한 인사들이다.

3. 결 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시민혁명에 의하여 민주정치가 정착된 현재, 주권재민의 사상에 의하여 어느 민족이나 자기 나라의 정치제도와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위정자를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가 법을 제정하는 대의정치가 상식으로 되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약소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으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강점하고 핍박하는 패권정치는 용납되지 않는다. 덕으로써 백성을 심복케 하는 왕도정치-춘추대의와 일맥상통한다.

왕권정치 체제에서도 선비들은 조종에 나가 왕을 보필하여 왕도정치를 펼쳐 나가는

것을 본분으로 삼았으며, 초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다가도 임진왜란과 같은 외적의 침략에는, 의병을 모아 호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이 조선조 500년가 이 나라를 이끈 사대부의 선비정신이다.

이 정신은 구한말 을사늑약과 같은 국치를 당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봉기한 의병활동, 그 후의 독립운동으로 계승발전 되었고, 강력한 무력을 앞세운 북방 오랑캐나 일제의 침략과 같은 불의의 침략에는 끝까지 항거하는 우리나라 국민정신의 기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사무사(의종 어필)



2. 재조번방 만절필동(선조 어필)



孝宗大王批辭 (當時領相白江李公上疏에 對한 答) 宋尤庵先生書

3. 지통재심 일모도원
(효종비사, 우암 서)



4. 조종암(선조의 손자 낭선군 서)



5. 고향제



6. 조종암 기실비(좌의정 서매수 서)



7. 조종암 대통묘비(보존회)

파주지역 별묘(別廟) 및 재실(齋室) 조사연구

권 효 숙(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원)

<목차>

1. 시작하는 말
2. 파주지역 별묘 및 재실
 - 1)조선왕실 왕자의 별묘
 - 2)문중별 사당 · 재실 현황
3. 파주지역 사당 · 재실 봉위 주요인물
4. 나오는 말

1. 시작하는 말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사(忌祭祀)는 4대까지만 봉사하고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묘사(墓祀)의 대상으로만 하지만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이나 왕자, 부마 등은 신주를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다. 이를 불천위(不遷位)라고 하기도 하고, 신주를 조매(祧埋)하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고 해서 부조위(不祧位)라고 부르는 곳도 있으며 불천위를 두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고도 부른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별묘(別廟)라고 지칭하는 곳이 많은데 파주에 있는 조선 왕실의 왕자들 사당을 모시는 종친들은 모두 별묘라고 일컫고 있다. 별묘는 종묘에 들어갈 수 없는 신주(神主)를 모시기 위하여 따로 지은 사당²⁴⁵⁾으로서 임금의 생모인 후궁들 또는 왕자들, 그리고 아직 추존하기 전에 따로 모신 사당을 말한다.

245) 『유교대사전』 天, 762쪽

재실(齎室)은 시조나 중시조(中始祖)의 묘소 또는 학문과 덕행·충효가 뛰어난 인물을 추모하기 위해 주로 묘소와 사당 근처에 건립한다. 일반적으로 재실근처에는 선산·종산·위토가 있고, 재실에는 묘직(墓直) 또는 산직(山直)이 살고 있다. 재실은 문중 또는 지파의 공유재산이지만 재실의 유지·보존·수축의 총책임자는 종손이나 직계장손이다.

묘직이나 산직은 위토나 종산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묘소관리, 제수(祭需) 마련, 시향제 및 묘사 준비, 식사접대 등을 담당한다.

재실의 기능으로서는 첫째, 시향제나 묘사의 준비 장소로서의 기능이다.

둘째, 선산·종산·위토 등 문중공유재산 문제, 재실의 유지나 수축문제, 유사나 산직의 문제 그리고 그해 제례과정 전체평가 등을 논의하는 종회장소로서의 기능이다. 요즘은 종회장소를 재실이 아닌 종중사무실이나 다른 넓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실은 주로 제사를 지낼 때만 이용하고 있다.

재실은 그밖에 참례자의 소지품 보관, 식사접대 준비, 원거리 참례자의 숙소 등의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복과 문중회의를 재실에서 행하기도 하였다.²⁴⁶⁾

파주는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과 100리 안에 있는 근교로서 왕릉 및 왕자·공주, 후궁들의 묘소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동안 조선왕실의 왕족들의 묘역은 대체로 조사가 되었지만 왕자들의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별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 또한 1980년대를 전후하여 각 문중에서 선영 아래 많이 건립된 재실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된 일이 없다.

본고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는 조선 왕실의 왕자들의 불천위 사당인 별묘와 일반적으로 각 문중에서 건립한 재실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며, 별묘에 모셔진 조선 왕실의 왕자들과 재실에 봉위된 인물들 중 주요인물에 대해 정리하였다.

2. 파주지역 별묘 및 재실

1) 조선왕실 왕자의 별묘

파주는 서울의 서쪽 교외에 위치하여 수도와 가깝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2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0쪽

나가는 곳이며 뱃길을 따라 국내 어디와도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지에 위치한 곳이다. 또한 고려시대에 도읍의 인근지역으로 예로부터 왕실과 주요 세거성씨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조선의 수도가 한양으로 되면서 그대로 이어졌다. 게다가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통로에 위치하면서 강로와 도로를 이용한 상업이 발달하고 임진강과 그 지류하천변의 개간으로 인한 농지확대로 번성하면서 점차 왕실과 사족의 근거지가 되었다.

이 지역의 명문 거족들은 왕실에 왕비나 후궁을 배출하거나 왕자와 공주들과 혼인관계로 엮어진 경우도 많은데 이로서 문중들은 더욱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게 된다. 혼인으로 인해 왕족들은 파주지역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사후 묘산을 조성하면서 인근에 사패지를 받게 되는데 이는 후손들이 정착하여 동족마을의 형성을 이루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렇듯 도성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왕족들과 세거해 오던 문중들은 이 지역에 묘산을 조성하면서 묘역 아래 사당과 재실을 건립하여 제를 지내왔다. 파주 지역에서 파악된 사당 및 재실의 숫자는 현재까지 67곳이 파악되었다. 이 중에는 조선 초기와 중기에 건립되었던 역사가 오래된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 현대에 새로 증건된 곳이다.

파주는 근현대에 들어와 6.25 전쟁의 피해를 어느 곳 보다 많이 겪은 곳으로 파주의 많은 지역이 전투의 현장 속에 놓이면서 주민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피난을 갔고, 떠나온 그 지역은 전투의 피해로 수많은 건축물과 유물, 유적들이 훼손되었다. 특히 적성이나 장단 지역은 민간인이 통제되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거나 지역 자체가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집단이주하거나 뿔뿔히 흩어져 정착을 한 집안들도 많다.

향토사 연구를 위해 지역조사를 하다보면 오래된 문중들이 조상이 남긴 유물이나 문서 등을 거의 보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파주 지역의 사당과 재실도 이때 거의 대부분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제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대부분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즈음에 새로 건립하거나 증건되었다.

이러한 파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파주 지역의 조선시대 왕족들의 별묘 및 재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완원군 이수(李燧)의 소수재(昭垂齋)

완원군(完原君) 이수(李燧 1480년(성종 11)~1509년(중종 4))는 성종의 넷째 아들

로, 어머니는 숙의(淑儀) 홍씨(洪氏)이다. 1489년(성종 20) 10세 때 완원군(完原君)에 봉해졌다.

1492년(성종 23) 13세 때 같은 나이인 면천군부인(沔川郡夫人) 전주최씨(全州崔氏 : 1480~1500)를 맞이했다. 최씨는 9년만에 1500년(연산군 6) 12월 11일 별세하니, 향년 21세였다. 이듬해 2월 을유일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원리(마장2리) 사패지(賜牌地) 종산의 신좌 인향 언덕에 펴봉(窆封)하고 입석(立石)했다.

공이 15세 때인 1494년 12월 24일 오시, 성종대왕이 승하하자 조석으로 상식을 올렸고 혼전(魂殿)에서 부르짖어 통곡하며 숙직(宿直)과 윤차(輪次)를 가리지 않았다.

1502년(연산군 8) 23세 되던 해, 정선군부인(旌善郡夫人) 양천허씨(1489~1521)를 맞아 이듬해 9월 3일 이성군(伊城君)을 낳았다. 그러나 첫돌도 되기 전인 1504년(연산군 10) 3월에 폐비 윤씨의 복위문제를 배경으로 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충청도 부여현으로 유배되었다.

나이 27세 되던 해인 1506년(중종 1) 중종이 즉위하자 대사령이 내려져 적객(謫客)에서 풀려났다. 성종대왕 본종(本宗)의 존속친으로서 2년간 사가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제조(提調)의 본분을 지켜 문소전(文昭殿)의 친선(親膳)에만 전념하였다.

1508년(중종 3) 29세에 이천군(伊川君)을 얻었고 이듬해인 1509년(중종 4) 10월 26일, 서울 중부 수진방(壽進坊) 수진동(壽進洞 : 현재 한국일보 본사와 종로구청 사이) 사저에서 30세로 별세하였다. 2남 2녀를 남겼으며 소도(昭悼)라는 시호를 받았다.

1510년(중종 5) 2월 병오일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사패지 종산의 간좌곤향 언덕에 장례지냈다. 정선군부인 양천허씨는 1521년(중종 16) 4월 14일에 춘추 33세에 병환으로 별세하였다. 이 때 사자(嗣子) 이성군(伊城君)은 19세, 이천군(伊川君)은 14세, 주손(胄孫) 의원군(義原君)은 강보에 싸인 첫돌 전의 유아였다. 그 해 10월 을유일에 완원군 묘좌(墓左)에 부(示+付)하여 이봉(異封)하고 비석을 세웠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 묘비의 표석이 파손되고 마멸되어 글의 형체도 읽어내기가 어려워, 공이 별세한 지 472년이 지난 1980년 4월 상순에 묘비를 새로 세웠다.

공의 덕행이 돈후함을 부왕이 총애하여 공부자(孔夫子) 영정을 하사하였는데 공이 이를 사저에 모셨다가 별세한 이후에도 대대로 4백년간 종가에서 모셨으나 15대종손 종구(宗九 : 1896~1977)때인 1917년 파주 · 양주 유림들과 협력하여 선파(璿派) 사패지 종산에 '성사영묘(聖師影廟)'를 축공하고, 공부자 영정을 모셨다.

광탄면 마장리에 별묘(別廟)와 재실이 있다. 1980년대에 건립되었으며 별묘 앞에

삼문이 있고, 그 아래 제를 지내고, 숙박,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소수재가 있으며 그 앞에도 삼문이 세워져 있다. 관리사가 따로 없고 종가가 바로 옆에 있어 종손이 관리를 하고 있다. 마장리 일대 넓은 논밭이 위토로 전주 이씨 완원군과 파종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첫째 일요일에 시제를 지내면서 이 때 종중에서 장학사업으로 문중의 대학생들 20명에게 각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파종회에서 《소수재(昭垂齋)》라는 회보를 창간하기도 하였다.

②창원군 이성(李晟)의 창덕사(昌德祠)

이성(李晟 1455년(단종 3)~1505년(연산군 11))은 세조의 넷째 아들로 근빈(謹嬪) 박씨(朴氏)의 소생이다. 창원군은 배위로 교하노씨와 광주정씨를 맞이하였으나 아들이 없어 덕원군의 차남 덕진군을 양자로 삼았다.

창원군은 어린 시절부터 명민한 재질을 나타내 부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하였고, 1464년(세조 10) 창원군(昌原君)으로 봉하여졌다. 1468년 9월 세조가 세상을 뜨자 3년간 죽만 먹으며 예를 다해 ‘하늘이 내린 효(孝)’라 일컬어졌다. 1471년(성종 2) 덕종의 장남인 월산군(月山君)과 함께 전해오는 관례에 따라 태안군의 주요한 자재(資材)를 지급받았다. 이듬해 형인 덕원군(德源君)과 같이 양인 방호련(方好蓮)의 교유(敎誘)를 받아 불사(佛事)를 행함으로써 종부시의 국문을 받기도 하였다. 1481년 소덕대부(昭德大夫)에 올랐다. 관후한 성품을 지녔으며 평소 형제간에도 우애가 깊었던 반면에 방탕한 모습도 보여 궁중의 예법을 자주 어기곤 하였다. 시호는 장소(章昭)이며 이 시호는 현재 액자에 넣어 아직도 전해져 오고 있다.

교하읍 다율리에 묘가 있으며 묘 아래에 재실 및 사우 창덕사(昌德祠)가 있다. 이것은 원래 시흥군 북면 신림리(현 서울대 자리)에 있었는데 10세손 종손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4세손 종손이 1870년에 파주아동동으로 이주해 오면서 사우도 같이 이전되었다. 노후화되어 다시 16세손과 17세손 종손이 종친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그 자리에 다시 중건하였고, 그 이후 1955년과 2002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관리사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토가 없어 종중 기금으로 제사나 별초 등 운영 관리비를 쓰고 있으며 제사는 음력 2월 2일과 10월 첫 일요일 등 일년에 두 번 지내고 있다.

③ 임언군 이녹생(李祿生)의 숭모재(崇慕齋)

이녹생(李祿生 ?~ 1432년)은 정종의 8남으로 어머니는 숙의(淑儀) 윤씨(尹氏)이다. 자는 장수(長壽), 호는 선학(鮮鶴), 시호는 혜안(惠安)이다. 초수(初授)는 정(正)이었

는데 명선대부에 오르고 임언군(林堰君) 현록대부(顯祿大夫)로 증직되고 영종정경부사(領宗正卿府事)를 겸하였다.

임언군은 천성이 온순하고 효와 우의를 근본으로 행동하였다. 정종대왕이 왕위에서 물러나 풍덕(豐德) 땅으로 갈 때 임언군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들을 따라 갔는데 항상 부왕결을 떠나지 않고 극진한 효행을 다하였다. 부왕이 서거하자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3년 동안 산소 곁 움막에 살면서 애통한 예의 절차를 극진히 다하였다.

박부(朴溥)의 딸과 혼인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며, 관직을 탐하지 않고 청렴한 지표(志標)와 높은 충절(忠節)만을 지키며 살다가 1432년 4월 11일에 별세하였다. 사후 임언군(林堰君)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혜안(惠安)이다. 묘소는 처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자동리에 있었다가 후일에 파주시 월릉면 도내리 산 묘좌원(卯坐原)에 면례하였다. 배위는 군부인(郡夫人) 고령박씨로 소윤(少尹) 박(薄)의 딸이다. 정숙하고 온화한 인품이며, 1399년 6월 8일에 태어나 1433년(세종 15) 7월 1일에 별세하였으며 묘는 합장했다.

임언군은 2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판종정경부사(判宗正卿府事) 장택군(長澤君) 효자(孝慈)이고 차남은 달성부수(達城副守) 효의(孝義)이다. 네 딸들은 만호(萬戶) 안동권씨 윤신(允信)·첨정(僉正) 영월신씨 여결(汝傑) · 군수(郡守) 여산송씨 경문(慶門) · 군수(郡守) 순흥안씨 처선(處善)과 혼인하였다.

18세(世)에 이르기까지 장단군 진동면 초리에 백수십여 호가 집단으로 거주하여 오다가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1년 피난, 현재 임언군 묘하를 중심으로 경기도 파주·고양·양주·의정부 등지에 분산 거주하고 있다.

임언군 사우(祠宇)는 임언군 묘 하단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우는 중수시(重修時) 상량문에 의하면 1633년(인조 11) 3월 임인일(壬寅日)에 초가(草家)로 근구(謹構)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후 296년이 지난 1929년 3월 23일에 부평문중 12대손 동호(東鎬), 14대손 균하(均夏), 장단문중 16대손 용선(龍善) 등의 주선으로 중증회의를 거듭한 끝에 각 문중별로 소 요자금을 거출하였다. 그리하여 장단문중에서 두부콩 1석과 현금 350원(圓), 기곡문중에서 250원, 가평문중에서 250원, 문봉문중에서 400원, 청산문중 용선(用善)이 1,000원, 강선(康善) 150원, 제호(濟浩) 150원, 기타 문중에서 200원, 합계 2,750원(圓)이 모금되어 목재는 서울 마포에서 구입, 한강으로 선재운반(船載運搬)하여 당시 문산포(汶山浦)까지 도착하여 다시 우 차(牛車)로 파주시 월릉면 도내리 묘역까지 운반하였으며 도편수(都邊首)는 서울에서 이름있는 기술자를 부

르고 기초석과 장대석은 서울 서대문 신문로 유명 석재상에서 각석(刻石)하여 육로 우차편으로 운반하였으며 단장석은 종중산에서 채석하였고 기와는 장단군에서 구입하여 1년 6개월 안에 중수를 끝냈다.

그리고 사우를 중수하고 잔여금이 있어 종중산 임목을 벌목하여 매각한 대금을 합쳐 그 다음 해인 1930년에 초가 한옥 약 10평 크기의 묘사(墓舍)를 신축하였고 1969년 3월에 당시 도유사(都有司) 18대손 춘근(春根), 총무 16대손 택선(澤善) 등에 의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이 완료되었다.

1980년 5월 18일 묘역정화사업을 벌였다. 임언군 양위를 위시하여 장택군, 달성부수의 3조위를 파주시 월릉면 도내리 산36-1에 면적 한 지 540년이 지나 임언군의 묘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묘역이 협소하여 당시 종친회장 교흥(敎興)이 묘역 정화(淨化)를 결심하고 1980년 5월 18일과 동년 9월 6일 2차에 걸쳐 이사회를 열고 묘역 중수(重修)와 신도비 건립을 제의하여 전원 합의 결의하고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22년이 경과된 족보 수보사업을 병행키로 하였다.

1980년 12월 1일 먼저 수보사업에 착수, 세대별 배당, 관(冠) 동(童) 명하전(名下錢), 특별찬조금 등 일금 8,200만원을 확보하여 1981년 4월 8일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효령대군과 기형(起亨)에게 신도비문을 의뢰하였다. 신도비는 달성부수 묘 하단에 오석(烏石)으로 높이 7척에 거북 받침과 용관석(龍冠石)을 씌워 입석 하는 등 공사기간 1년 6개월에 걸쳐 임술보 수보와 함께 묘역 정화사업을 마치고 1982년 6월 28일 신도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꾸준한 종중사업을 벌여오던 중 1994년 3월 15일 숭모재(崇慕齋)를 건립하고 그 해 10월 9일 낙성식을 가졌다. 이후 다시 2005년에 새로 중수하였다. 사당에는 영정이 모셔져 있고 그 아래 재실인 숭모재와 관리사가 있다. 타성씨의 관리인이 거주하는데 위토를 경영하며 묘역과 재실을 관리하고 있다.

④익양군 이회(李懷)의 순평사(順平祠)

익양군(益陽君)은 1488년(성종 19) 7월 1일 탄생하여 1552년(명종 7) 1월 21일 별세하였다. 휘는 회(懷)요, 자(字)는 순지(順之), 시호는 순평(順平)이다. 성종대왕의 8남이며 어머니는 숙의홍씨(淑儀洪氏)이다. 1496년(연산군 2)에 익양군에 책봉되었고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됐고 1510년(중종 5)에 모친상을 당하자 3년동안 산소에 여막(廬幕)을 짓고 집상(執喪)의 예절(禮節)을 다하였다. 복(服)을 벗자 복직(復職)해서 도총관(都摠官)을 거쳐 문소전 · 연은전 · 중부시 · 사

용원도제조와 종친부의 유사당상관을 지냈다.

자손은 6남 3녀로 제일 번창하여 나라 혼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의 내외에게 명하여 예(禮)를 주관(主觀)하게 했다.

1552년(명종 7) 1월 21일 65세로 별세하자 신도비는 좌의정 김귀영(金貴榮)이 글을 짓고, 주부 한석봉(韓石峯)이 쓰고, 도승지 김응남(金應南)이 전자(篆字)했다. 1984년 10월 25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었고 1987년 8월 17일 파주시에서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터골 묘좌이다. 배위 순천군부인(順川郡夫人) 연일정씨(延日鄭氏)는 1489년(성종 21) 11월 18일 태어나 1550년(명종 5) 10월 18일 별세하여 익양군묘 부좌 쌍분으로 있다.

중손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거주할 당시에는 사당에 위패를 모시고 기신제와 명절 때마다 제사를 올렸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겨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에 1965년 11월 11일 당시의 세정(世禎 : 보명相九) 회장이 사우 중건을 추진하여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터골 묘하로 이전 중건(重建)하게 되었다.

중건된 사우 순평사(順平祠)의 규모는 본당(本堂) 6칸과 정문 부속실 3칸 그리고 외랑장원(外廊牆垣)을 쌓았다. 여기에 공과 순천군부인 영일정씨를 비롯한 익양군 4세 손까지 113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양력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춘계제향과 10월 3일 추계제향 등 두 번을 지내고 있다. 묘막은 6·25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 터만 남아 있는 자리에 1991년 12월 9일 조립식 건물을 지어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⑤익안대군 이방의(李芳毅) 영모재(永慕齋)

익안대군은 태조고황제의 제3남으로 정종대왕의 동생이며 태종대왕의 형이다. 신의 고황후 한씨의 소생으로 1360년(고려 공민왕 11)에 태어나 1404년(태종 4)에 별세하였다. 대군의 휘는 방의(芳毅)이고 시호는 안양(安襄)이다.

성품이 온화하고 사리가 밝았다. 고려 말 혼란한 때 태조가 정국을 안정시킬 무렵 익안대군은 모든 일에 조직적으로 계획을 치밀히 세워 도움을 주었다. 그로 말미암아 1392년 태조가 왕위에 오를 때 개국 1등공신에 책록되었다.

또한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사태수습의 중심이 되어 태종으로 하여금 간신을 제거하게 하여 초기의 왕실을 튼튼히 바로 잡는데 공이 컸으므로 정사공신(定社功臣)에 거듭 책록되었다.

태종은 익안대군을 중히 여기어 끝까지 신임하였고 대군이 병중에 있을 때에 태종은

친히 문병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등 형제 우애가 남달리 돈독하였다.

익안대군이 쓴 '충효전가(忠孝傳家)'의 유훈은 후손들이 받들어 기리고 있다.

1404년(태종 4)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으며 묘소는 경기도 개풍군 홍교면 사곡리 백암동 해좌 언덕에 예장하였고 정종묘정(定宗廟庭)에 배향되었다.

대군은 삼한국 대부인 정경옹주 철원최씨와 혼인하여 익평부원군(益平府院君) 석근(石根)과 2녀를 두었고, 부부인(府夫人) 이씨와의 사이에 영가정(永可正) 승(昇)을 낳아 모두 2남 2녀를 두었다.

대군의 영정을 봉안하는 영당(影堂)은 서울에 있었으나 강원도 원성(原城 : 원주)으로 이전, 다시 경기도 여주로 이전하였고 그 후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종손인 내욱(來旭)이 영정을 부대(負戴)하여 전전하던 중 과중회장 경식(敬植)의 권유와 설득으로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백파도정공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곳의 대군 후손들이 기꺼이 맞아 영당을 건축하고 영정을 봉안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영정과 어필은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기신제와 2월, 8월 중정(中丁)에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대군 배위 묘역에는 남북 분단으로 대군의 묘제를 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설단(設壇)하고 춘추 두 번에 걸쳐 제를 올리고 있다. 1996년에는 재실인 영묘재(永慕齋)를 신축하고 대군의 유훈을 흠모하며 배향하고 있다.

⑥담양군 이거(李王+渠)의 경덕사(慶德祠)

담양군은 세종대왕의 10남으로 신빈(愼嬪) 김씨 소생이다. 휘는 거(王+渠)이고 시호는 이애(夷哀)이며 초시(初諡)는 회간(懷簡)이다. 1450년(세종 32)에 세종이 승하하였을 때에 몸부림치며 애통해 하고 너무 슬퍼해서 몸을 상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다. 문종대왕이 이를 애석하게 여겨 장지(葬地)를 명하여 내려주었고 세조 때에는 형인 계양군(桂陽君)의 차남 강양군(江陽君)으로 후사를 잇도록 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파평산(坡平山) 서쪽 기슭 을좌이다. 비갈이 있고 전면에 부조묘(不祧廟)가 있으며 태봉(胎封)은 경북 성주 선석산(禪石山)에 있다. 공의 계자인 강양군의 휘는 숙(濬)이며 초휘는 융(瀾)이고 시호는 양도(良悼)이며 호는 쌍송(雙松)이다. 세조 때에 특별히 금헌(琴軒)이란 호가 내려졌으며 초수는 정(正)이었으며 홍록대부이다. 묘소는 담양군 묘역 부근에 있다.

별묘는 담양군 사후 불천위로 지정되면서 건립되어 기일인 음력 3월 10일에 제사를 올려왔다가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 그 후 1958년에 다시 개축하여 지금에 이르렀

으며 이때 까지는 재실이 없었다가 2000년에 재실을 신축하였다. 별묘 앞에는 삼문이 있으며 뒤로는 곡장이 둘러져 있고, 재실은 삼문 앞에 있고 그 아래 관리사가 지어졌으며 예전엔 타성씨의 관리인을 두었다가 지금은 종친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⑦순평군 이군생(李羣生)의 순평별묘(順平別墓)

순평군은 정종대왕의 차남으로 모친은 숙의 행주기씨이다. 궁중에서 살지 않고 탄현면 법흥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순평군(順平君)에 봉해졌다. 숙의 행주기씨는 4남을 낳았는데, 순평군 · 금평군 · 정석군 · 무림군이다. 순평군은 의성군과 의신부정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의성군의 자손은 절손됐고 의신부정의 자손만이 퍼져 나갔다. 의신부정은 3남을 두었는데, 장남과 차남은 무후(無後)했고 3남 의상령의 후손만이 번성했다. 의상령은 3남을 두었다. 이들의 순평군과 후손은 3개 지파로 나누어진다.

순평군 묘소는 실전했던 것을 14세손 발원(發源)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고양시 용두동에 있는 것을 찾아내 오늘날의 묘역을 유지하게 되었다.배위의 묘역은 고양시 식사동 군부대 안에 있다.

파주의 탄현면 법흥리 가시내 마을에는 순평군의 큰아들이 거주하면서 순평군의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이 마을에는 순평군의 18세 후손들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이 사당 또한 6.25 전쟁 이후 1960년대에 새로 중건한 것으로 사당 주위에 담이 둘러쳐져 있고 앞문은 삼문이 아닌 외문으로 되어있다. 따로 재실은 건립하지 않았으며 18세 종손이 근처에 살면서 관리하고 있다.

⑧운천군(雲川君) 이인(李仁+寅)의 운천별묘(雲川別墓)

운천군은 성종대왕의 14남으로서 휘는 인(仁+寅), 시호는 소회(昭懷)이다. 운천군은 숙의(淑儀) 홍씨(洪氏) 소생의 7왕자 완원군(完原君) · 회산군(檜山君) · 견성군(甄城君) · 익양군(益陽君) · 경명군(景明君) · 운천군(雲川君) · 양원군(楊原君)과 3옹주 혜숙(惠淑) · 정순(靜順) · 정숙(靜淑) 중의 6남이다.

운천군은 1490년(성종 21) 11월 임인일에 태어나 1524년(중종 19) 5월 14일, 향년 35세로 별세하였다. 호는 빈천(賓天)이며 9세에 운천군으로 봉해졌으나 중종반정 후 종사에 크게 공헌해 갈 즈음 장년의 한창 나이에 별세했다.

운천군은 형조참의 중 좌찬성 인손(仁孫)의 딸 안동권씨와 혼인하여 4녀만을 두었다. 사위는 사헌부 감찰 이구(李軀), 신천군수 이종효(李宗孝), 종묘서령 박순년(朴舜年), 선감주부(繕監主簿) 이경종(李慶宗) 등이고 후사가 없어 형인 완원군의 아들 수례(壽禮 : 후에 伊川君으로 봉함)를 계자(繼子)로 삼았다. 따라서 오늘의 운천군 후손

은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완원군의 후손이기도 하다.

운천군의 계자인 가덕대부 이천군(伊川君)은 아버지 완원군과 어머니 허씨 사이에서 2남 2녀 중 차남으로 1508년(중종 3) 12월 계유일에 태어나 1568년(선조 1) 6월 임진일에 향년 61세로 별세하였다.

그 손자 손녀들이 번창하여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천(伊川) 종실의 어질고 귀한 바가 끊임이 없으니 마장리(이천군 묘가 있는 곳) 현당(玄堂)의 음덕이 백세토록 넘치고 있는 것이라.” 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가계(家系)의 번성을 누렸던 운천군의 현손 이시형(李時亨) 종가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환난을 겪게 된다. 종손 시형은 이 때 변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의 신부인 청송심씨와 5대손 훈련판관 원정(元禎)과 숙부인 거창신씨는 호병들의 난동과 노략질을 당하자 굴하지 않고 칼에 앞드려 자결하였으며, 6대손 충의위(忠義衛) 몽석(夢錫)과 어린 누이 동생은 나이가 겨우 8세 · 6세였음에도 포로가 되어 심양으로 끌려갔다. 다행히 연로한 노비 한 사람이 마니산(摩尼山)에 숨어 있다가 호군들이 철수한 후 세 분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병란 중에 북방 임지에서 귀가한 시형에게 인조가 이를 애석히 여기고 토지와 은 백냥과 집을 하사하고 또한 심양으로 잡혀간 몽석 남매도 돌아오게 하였다. 시형은 국은에 보답하고자 다시 스스로 압록강 수비를 위해 임지를 향해 떠났으나 병을 얻어 1639년(인조 17) 3월 29일에 별세하였다.

아버지마저 잃게 된 몽석 남매는 의탁할 곳이 없어 연로한 노비가 보살폈고 장성하여 신부인 청송심씨, 훈련판관 원정, 숙부인 거창신씨를 강화로 모셨으며, 시형의 묘소도 압록강으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운천군 묘 아래에 옮겨 모셨다.

이 후 종가는 원주 지방 금마촌(金馬村) 유동(柳洞)에서 살다가 다시 노성(魯城 : 현재 平昌)으로 이주하였는데 이 때 종가의 내력을 잘 알고 있는 노성사림(魯城士林)에서 이 슬프고 절의있는 사연을 숙종대왕에게 상소한 바, 숙종대왕은 즉시 세 분을 추앙하는 정문(旌門)을 세우고 조묘(祧廟 : 조상의 묘를 멀리 옮겼다는 의미)를 짓도록 강원도백에게 어명을 내렸다. 그러나 3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퇴락한데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의 운천군 묘와 떨어져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1987년에 후손들이 뜻을 합쳐 마장리의 형 완원군(完原君) 묘역으로 옮겨 별묘로 모시고 단장을 새로 하였다.

이곳은 별묘만 있고 따로 재실을 짓지 않고 완원군의 재실에서 매년 11월 첫째 일

요일에 완원군의 제사와 함께 지내고 있다.

2)문중별(門中別) 사당 · 재실 현황

과주는 고려 때 수도 개성과, 조선시대 한양과 가까운 곳이라 서울 도성과의 접근성이 용이해 사족들이 벼슬생활을 할 때는 경제(京第)를 두고 서울에서 생활하다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향제(鄉第)·별서(別墅)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후에는 이곳에 묘역과 위토를 마련하여 후손들이 정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래된 동족마을이 형성되는데,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지리적 조건으로 한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다는 점이다. 한강과 임진강의 지류인 곡릉천과 문산천 등은 큰 하천이 배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며 이 수상교통을 통해 서울 도성과의 출입과 납세, 수조가 용이하게 이루어졌고, 다른 경기지역의 사족들과의 교류와 소통 또한 수월하였던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과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세거해온 성씨들은 파평 윤씨(坡平尹氏), 교하 노씨(交河盧氏), 과주 염씨(坡州廉氏) 등 과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이외에 진주 강씨(晉州姜氏), 청주 경씨(淸州慶氏), 강릉 김씨(江陵金氏), 청주 사씨(靑州史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창녕 조씨(昌寧曹氏), 청주 한씨(淸州韓氏) 등이 있다.

조선초 부터는 임진강과 그 지류천의 편리한 수상교통을 이용하여 정착하여 세거해온 여러 성씨들이 있다. 임진강 유역 사목리의 장수 황씨(長水黃氏),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교하 낙하리의 안동 권씨(安東權氏), 교하 곡릉천 주변에는 송촌리의 양천 허씨(陽川許氏)와 다울리의 진주 강씨, 동패리의 진주 류씨, 산남리의 거창 신씨, 문발리의 경주 김씨(慶州金氏)등이 있으며 문산천 주변에는 교동 인씨, 반남 박씨, 광산 김씨와 능산리 아가피마을의 함안 조씨와 내포4리의 창녕 성씨(昌寧成氏), 위전리의 수원 백씨(水原白氏), 도내리의 청송 심씨(靑松沈氏) 등이 있다. 247)

이러한 세거성씨들은 과주의 각 지역에 선영을 마련하고 파시조 또는 현달한 선조들을 모시기 위한 사당 및 재실을 건립하여 제를 올리고 있다. 특히 문산 사목리의 반구정 아래 황희 선생의 방촌영정각은 1632년(인조 10) 7세손인 황수(黃修)가 영당을 짓고 영정을 모셔놓고 매년 생신일인 음력 2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표에는 없지만 율곡 이이(李珥)는 김장생(金長生), 박세채(朴世采)와 함께 법원을 동문리 자운서원에, 성수침(成守琛)과 백인걸(白仁傑), 성수중(成守琮)은 성흔과 함께 파평면 늘노리 파산서원에 신제현(愼齊賢)과 백유함(白惟咸)은 백인걸, 김행, 조감과 함께

247) 권효숙, 「과주에 뿌리를 내린 성씨들」, 『坡州市誌』 제3권, 2009.

월롱면 덕은리의 용주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각 성씨들의 파종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재실 및 사당의 현황이다. 모두 67곳이 조사되었는데 아마 좀 더 세세히 살펴보면 이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지역의 재실 및 사당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달리 초창기 건물이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고 대부분 6.25 전쟁 이후로 재건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언급한 대로 이 지역이 전쟁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첫째이고, 또 전쟁 이후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 건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밖에 오랜 세월 풍상 속에서 너무 훼손되고 쇠락하여 헐고 새로 중건하는 경우가 있다.

	재실명	봉위분묘	소재지	종중
1	소수재(昭垂齋)	완원군 이수(李燾)	광탄면 마장리	전주 이씨 완원군파
2	청연사(靑蓮祠)	문정공 이후백(李後白)	광탄면 발랑리	연안 이씨 청령공파
3	인모재(仁慕齋)	전한공 최연(崔堧)	광탄면 방축리	해주 최씨 전한공파
4	여충사(麗忠祠)	문숙공 윤관(尹攽)	광탄면 분수리	파평 윤씨 문숙공파
5	영모재(永慕齋)	고성군 남광보(南廣甫)	광탄면 창만리	고성 남씨 고성군파
6	창덕사(昌德祠)	창원군 이성(李晟)	교하읍 다율리	전주 이씨 창원군파
7	경모재(敬慕齋)	초당공 강경서(姜景叙)	교하읍 다율리	진주 강씨 초당공파
8	충효사(忠孝祠)	동덕장공 허단(許檀)	교하읍 다율리 480-13	양천 허씨 휘안공파
9	본방능재(本房陵齋)	정정공 윤번(尹璠)	교하읍 당하리	파평 윤씨 정정공파
10	도동재(道東齋)	참의공 류완(柳琬)	교하읍 동패리 39-7	진주 류씨 참의공파
11	원모재(遠慕齋)	국당공 이천(李蒨)	금촌1동	경주 이씨 국당공파
12	승보재(崇報齋)	엄헌공 신장(申樞)	금촌1동	고령 신씨 엄헌공파
13	숭모재(崇慕齋)	공간공 정홍(鄭洪)	금촌1동 395-106	연일 정씨 공간공파
14	숭모재(崇慕齋)	희양공 장사길(張思吉)	금촌1동 661	안동 장씨 희양공파
15	경모재(敬慕齋)	제안공 정효상(鄭孝常)	금촌2동 191-8	경주 정씨 제안공파
16	장포영당(長浦影堂)	도승지공 김행(金行)	문산읍 내포리	강릉 김씨도승지공파
17	문형재(文衡齋)	문대공 성견(成規)	문산읍 내포리 611	창녕 성씨 문대공파
18	공모재(恭慕齋)	공도공 성엄(成揜)	문산읍 내포리	창녕 성씨 공도공파

			638	
19	경모사(敬慕祠)	평도공 박은(朴崐)	문산읍 당동리 78-4	반남 박씨 평도공파
20	추원재(追遠齋)	전의판서공 김광이(金光利)	문산읍 마정리	광산 김씨 판서공파
21	방촌영당(龐村影堂)	익성공 황희(黃喜)	문산읍 사목리 산 122	장수 황씨 익성공파
22	원모재(遠慕齋)	소부시윤공 윤암(尹暗)	문산읍 사목리 산 72	파평 윤씨 소부공파
23	충모재(忠慕齋)	충숙공 이세화(李世華)	문산읍 선유리	부평 이씨 충숙공파
24	동헌재(桐賢齋)	통훈공 인성국(印聖國)	문산읍 장산리 359-1	교동 인씨 통훈공파
25	모덕재(慕德齋)	대사성공 신민일(申敏一)	법원읍 금곡리 114	평산 신씨 대사성공파
26	숭모재(崇慕齋)	대사간공 이감(李堪)	법원읍 동문리 99-1	경주 이씨 대사간공파
27	영모재(永慕齋)	익안대군 이방곡(李芳穀)	법원읍 삼방리	전주 이씨 익안대군파
28	영모재(永慕齋)	창성공 최수진(崔秀珍)	아동동 329-6	삭녕 최씨 창성공파
29	영모재(永慕齋)	옥천공 조감(趙堪)	월롱면 능산리	함안 조씨 옥천공파
30	모선재(慕先齋)	감무공 김윤남(金允南)	월롱면 능산리	강릉 김씨 감무공파
31	인경재(仁敬齋)	양호공 이병정(李秉正)	월롱면 덕은리	전의 이씨 양호공파
32	덕모재(德慕齋)	도철서령공 안잉(安仍)	월롱면 덕은리	순흥 안씨 서령공파
33	덕은재(德隱齋)	양경공 조연(趙涓)	월롱면 덕은리	한양 조씨 양경공파
34	경모재(敬慕齋)	곡산공 백홍일(白弘一)	월롱면 덕은리 501-3	수원 백씨 곡산공파
35	숭모재(崇慕齋)	임원군 이녹생(李祿生)	월롱면 도내리	전주 이씨 임원군파
36	영수재(永修齋)	양양공 김교(金嶠)	월롱면 도내리	선산 김씨 양양공파
37	공모재(恭慕齋)	공숙공 심희(沈滄)	월롱면 영태리	청송 심씨 공숙공파
38	숭모사(崇慕祠)	문성공 정기문(鄭起門)	적성면 식현리	하동 정씨 문성공파
39	경모재(景慕齋)	정목공 이주(李澍)	조리읍 뇌조리	연안 이씨 정목공파
40	순평사(順平祠)	익양군 이회(李懷)	조리읍 장곡리	전주 이씨 익양군파
41	일성재(一誠齋)	양안공 허형손(許亨孫)	조리읍 장곡리	양천 허씨 양안공파
42	숭모재(崇慕齋)	직제학공	조리읍 장곡리	전주 이씨

		이성기(李成技)	산70	직제학공파
43	경모재(敬慕齋)	감정공 이하영(李夏榮)	탄현면 금산리 102-4	경주 이씨 감정공파
44	원모재(遠慕齋)	익성공 황희(黃喜)	탄현면 금승리 산1	장수 황씨 익성공파
45	영모재(永慕齋)	사부공 안세구(安世壽)	탄현면 법흥리 48	순흥 안씨 사부공파
46	숭모재(崇慕齋)	문간공 이경서(李敬叙)	탄현면 성동리	전주 이씨 민성군파
47	중추재(仲樞齋)	공효공 박중손(朴仲孫)	탄현면 오금리 85	밀양 박씨 공효공파
48	효사재(孝思齋)	공숙공 노한(盧閑)	파주읍 백석리	교하 노씨 공숙공파
49	사모재(思慕齋)	교위공 신극효(愼克孝)	파주읍 봉서리	거창 신씨 교위공파
50	명학당(鳴鶴堂)	소정공 윤곤(尹坤)	파주읍 연풍리	파평 윤씨 소정공파
51	숭모재(崇慕齋)	감정공 장기정(張麒禎)	파주읍 연풍리	안동 장씨 태상경파
52	청학사(淸鶴祠)	평택현감공 류광후(柳光厚)	파주읍 파주리	진주 류씨 현감공파
53	우계사(牛溪祠)	문강공 성혼(成渾)	파주읍 향양리 산 8	창녕 성씨 우계문화재단
54	경덕사(慶德祠)	담양군 이거(李藁)	파평면 금파리 325-5	전주 이씨 담양군파
55	파평재(坡平齋)	회곡공 성석용(成石溶)	파평면 두포리	창녕 성씨 회곡공파
56	영동재(永同齋)	영동공 이빈(李賓)	월롱면 능산리	전주 이씨 영동공파
57	선인재(宣仁齋)	소위공 이흠(李欽)	문산읍 운천리	전주 이씨 선인군파
58	구암재(龜巖齋)	양평공 허준(許浚)	군내면 동파리	양천 허씨 양평공파
59	경모재(敬慕齋)	판서공 이인신(李仁臣)	탄현면 금승리	경주 이씨 판서공파
60	남계사(南溪祠)	남계공 곽득강(郭得康)	적성면 답곡리	현풍 곽씨 남계공파
61	경모재(敬慕齋)	판서공 이후민(李後民)	광탄면 영장리	전의 이씨 신암공파
62	경모재(敬慕齋)	직제학공 김전(金墳)	광탄면 방축리	안동 김씨 직제공파
63	경모재(敬慕齋)	참의공 김익(金瀾)	광탄면 영장리	경주 김씨 참의공파
64	순평별묘(順平別墓)	순평군 이군생(李羣生)	탄현면 법흥리	전주 이씨 순평군파
65	모성재(慕省齋)	통례공	탄현면 법흥리	광산 김씨 통례공파

		김위남(金偉男)		
66	모선재(慕先齋)	청성군 한서룡(韓瑞龍)	교하읍 교하리	청주 한씨 청성군파
67	운천별묘(雲川君別廟)	운천군 이인(李† + 寅)	광탄면 마장리	전주 이씨 운천군파

3. 파주지역 사당 · 재실 봉위 주요인물

강경서(姜景敍)

1443년(세종 25)~1510년(중종 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이며, 자는 자문(子文), 호는 초당(草堂)이다. 아버지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77년(성종 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자(正字)가 되고 1489년 홍문관교리로서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1497년(연산군 3) 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집의가 되었다. 이듬해 무오사화로 결장(決杖) 1백, 유(流) 3천리, 봉수군정노우정역(烽戍軍庭爐于定役)의 처벌을 받아 회령에 유배되었다. 1501년(연산군 7) 방환되어 직첩이 환급되었으나 당시에는 대간·홍문관에는 서용(敍用)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 대사간이 되어 남간(納諫), 친현사(親賢士), 흥학교(興學校) 등 12개 향을 건의하였다. 그는 남효온(南孝溫)·권경유(權景裕) 등과 더불어 사장(詞章)·정사(政事)·절의·효행 등으로 이름이 높았다. 저서로는 『초당집』이 있다. 묘는 교하읍 다율리 진주 강씨 선영 묘역에 있다.

김윤남(金允南)

? ~ 1361년(공민왕 10)

고려말 조선 초기의 인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호는 운암(雲巖)이다. 공부상서(工部尙書) 김추(金鍾)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를 막아 큰 공을 세운 충의지신의 업적을 남겼으나 고려 말에 국운이 다함을 예견하고 장단(長湍)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다 별세하자 윤남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낭천감무(狼川監務)의 벼슬을 버리고 송악산을 마주보는 임진강 건너 파주 오리곶면 내포리(현 문산읍 내포리)에 은거하였다. 매일 산봉우리에 올라 개경을 바라보며 나라의 쇠망을 한탄하여 그 이후 이 산을 국사봉(國思峰)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묘는 문산읍 내포리에 있다.

김위남(金偉男)

1563년(명종 18)~1618년(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초명은 종남(終男), 자는 자시(子始), 호는 낙산(樂山)이다. 영동현감(永同縣監)을 지낸 표(彪)의 아들이다.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1591년(선조 24) 진사가 되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인 지남(止男)과 함께 의병으로 활약하였고 160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06년 사헌부감찰이 된 뒤 공조좌랑과 병조좌랑을 역임하였고 1610년 천추사의 서장관으로 명에 다녀왔으며 1617년에는 통례가 되었다. 이때 이이첨 등에 의하여 폐모론이 대두되자 그에 반대하다가 하옥되어 추국을 받은 뒤 관직을 떠났으며 이때부터 이름을 '위남'이라 하였다. 그 뒤 구차스럽게 생을 영위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절식하다가 이듬해 죽었다. 문장은 독창적이었고 시는 도연명의 풍격이 있었으며 필법은 안평대군의 것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림 또한 뛰어났다. 탄현면 법흥리에 묘가 있다.

김행(金行)

1532년(중종 27)~1588년(선조 2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강릉이며, 자는 주도(周道), 호는 장포(長浦)이다. 조부 사희(士熙)는 진산군수(珍山郡守)이고 아버지는 국봉(國棒)이다.

1558년(명종 13)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어려서 백인결(白仁傑)과 성수침(成守琛)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수침은 성혼(成渾)의 아버지인데 그는 성혼과 동문수학하고 평생 형제처럼 지냈다.

벼슬은 내직으로 전적, 형조좌랑, 호조좌랑, 예조정랑, 한성부서윤, 사성, 사도시정을 지냈고, 외직으로는 무장현감, 고양군수, 서천군수, 양주목사, 광주목사를 지냈다.

성품이 강직하여 주로 외직에 머물고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다. 글씨에도 능하여 필법이 호장활동하다는 평을 들었고, 1575년(선조 8) 무장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안평대군의 「증도가」를 보완하여 간각(刊刻)했다. 또한 무예와 지략에도 뛰어나서 1588년 광주목사로 있을 때 순변사 신립(申輅)이 그를 천거하여 전라도병마절도사의 물망에 올랐으나 곧 죽었다. 장보포 서쪽에 택지가 있었으며 문산읍 내포리에 묘가 있다.

노한(盧閑)

1376년(우왕 2)~1443년(세종 2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교하(交河)이며, 자는 유린(有隣), 호는 효사당(孝思堂)이다. 교하 노씨 공숙공파(恭肅公波)의 중시조다. 첨의정승 책(頤)의 증손으로 아버지인 대리경 균(鈞)이다. 좌의정 민제(閔霽)의 사위로 부인이 태종 비 원경왕후의 동생으로 태종과는 동서간이다.

16세에 음보로 등용되어 지사간원사를 거쳐 1403년(태종 3) 좌부승지, 이듬해 이조전서·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405년 동지총제, 이듬해 황해도관찰사 등을 거쳐 1408년에 한성부윤에 이르렀다.

1409년 처남 민무구·민무질 형제가 신극례(辛克禮)와 함께 중친을 이간하고 불충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화(李和) 등의 탄핵을 입어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자 양주 별장에서 14년간 은거하였는데, 1422년(세종 4)에 상왕 태종이 “노한이 민씨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고신(告身)까지 거두게 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니 급히 불러들이라”는 전교에 의하여 다시 한성부윤에 복관되었다. 그 뒤 형조판서·참찬의정부사·판한성부사를 거쳐, 1432년 찬성사贊成事, 1434년에 찬성사겸대사헌, 이듬해 우의정 등을 지내고 1437년(세종 19) 사직하였다.

외교에 남달리 뛰어났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 1439년 모친상을 당하자 현재의 노량진에 안장하고 3년간 시묘한 뒤 그 복판에 효사정(孝思亭)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어머니를 기렸다고 한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며 묘는 파주읍 백석리에 있다.

박은(朴耑)

1370년(공민왕 19)~1422년(세종 4)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양지(仰之), 호는 조은(釣隱)이다. 고려 말의 학자인 판전교시사 상충(尙衷)의 아들이며, 이곡(李穀)의 외손이다. 전법판서 주언방(周彦邦)의 사위이며, 어효첨(魚孝瞻)의 장인이다.

문음으로 판승복도감사를 받은 뒤, 1385년(우왕 11) 문과에 2위로 급제하여 권지전교시교감·후덕부승을 거쳐 1391년(공양왕 3)에 통례문부사, 이듬해에 개성부소윤이 되었다.

조선이 개국한 뒤에도 지금주사(知錦州事)가 되어 좌보궐에 서용되고, 1394년(태조 3) 지영주사로 있을 때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1397년 사헌시사를 거쳐 이듬해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 때에는 지춘주사로서 이방원의 집권을 위하여 지방 군사를 동원하였다. 이어 사헌중승·판사수감사를 지내고

1400년(정종 2) 지형조사로 있을 때 발생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역시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방원이 왕세자가 된 1400년에는 세자좌보덕으로 그를 보필하고, 좌산기상시에 오른 뒤 1401년 태종의 즉위 후 중용되어 형조·호조·병조·이조의 4조 전서를 두루 역임하고, 좌명공신 3등으로 반남군(潘南君 :뒤에 潘城君)으로 봉하여졌다. 그 뒤 강원도도관찰출척사·한성부윤·승추부제학을 역임하고, 1406년(태종 6)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는 제주도의 동불(銅佛)을 구하러 온 명사(明使)를 예의로 잘 접대하여 칭송을 받았으며, 이듬해에 진향사(進香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의정부참지사겸사헌부대사헌에 올랐다. 이어 형조판서에 올랐다가 1409년에는 서북면도순문찰리사겸평양부윤으로 평양성 축성을 마쳤다. 1412년에는 관향인 반남이 나주에 속하게 되어 금천군(錦川君)으로 개봉되었으며, 검판의용순금사사가 되어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시행하였고, 1414년(태종 14) 이조판서 때에는 고공(考功) 행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듬해에는 47세의 나이로 우의정이 되었으며, 이어 부원군으로 진봉되고 좌의정겸판이조사에 올랐다.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될 무렵부터 심온沈溫과 대립되어 1418년(세종 즉위년) 심온의 옥사 때에는 심온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관여하였다는 세평을 듣고 있다. 1421년(세종 3) 병으로 좌의정을 사직하고 이듬해에 죽었다.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묘는 문산읍 당동리에 있으며 파주시 향토유적 제25호로 지정되었다.

박중손(朴仲孫)

1412년(태종 12)~1466년(세조 1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이며 자는 경윤(慶胤), 호는 묵재(默齋)이다. 찬성사 강생(剛生)의 손자이고, 교서관정자 절문(切問)의 아들이다.

1435년(세종 1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현전박사가 되고, 부수찬·지제교를 거쳐 사인, 집의, 지병조사, 동부승지,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김종서 등을 제거한 공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고,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지면서 병조참판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세종의 아들로 영빈(令嬪) 강씨(姜氏) 소생인 사위 화의군(和義君) 영(璥)이 수양대군을 반대하다 귀양 가게 되어 한때 난처한 입장에 빠졌으나, 이어 한성부윤에 임명되었다. 그 뒤 대사헌, 공조·이조·형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밀산군(密山君)으로 개봉(改封)되었다. 세조 초에 좌찬성에 승진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고시관이 되어 많은 인물을 등용시켰다. 시호는 공효(恭孝)이다. 묘는 탄현면 오금리에 있으며 묘역 내 장명등이 보물 제1323호로 지정

되었다.

성석용(成石琿)

?~1403년(태종 3)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자는 자옥(自玉), 호는 회곡(檜谷)이다. 창녕부원군 여완(汝完)의 아들이며 영의정을 지낸 석린(石璘)의 아우이다.

고려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시대에는 동지경연사를 비롯하여 대언, 지신사, 밀직부사, 밀직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건국에 공이 있어 원종공신의 녹권을 받았다. 벼슬은 대사헌을 거쳐 개성유후, 보문각대제학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맑으며 말이 없이 벼슬에 마음을 다하여 봉직하였다고 하며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파평면 두포리에 묘가 있다.

성엄(成揆)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이다. 좌찬성 석린(石璘)의 아들이며 중추원지사를 지낸 염조(念祖)의 아버지이다.

음사로 예안현감을 지내고 1400년(정종 2) 사헌부감찰·지평, 각 조의 정랑을 거쳐 승지, 좌우군동지총제, 경기·강원·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어 사헌부대사헌, 판한성부사를 지내고 동지중추원사에 이르렀으나 1433년(세종 15) 병으로 사직하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공도(恭度)이다. 문산읍 내포4리에 묘가 있다.

성현(成俔)

1439년(세종 21)~1504년(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학자로 본관은 창녕이며 자는 경숙(磬叔), 호는 용재(櫛齋)·부휴자(浮休子)·허백당(虛白堂)·국오(菊塢)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염조(念祖)이다.

1462년(세조 8) 식년문과에, 1466년 발령시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로 등용된 뒤 홍문관정자를 역임하고 대교 등을 거쳐 사록에 올랐다. 1468년(예종 즉위년) 경연관이 되고, 예문관수찬·승문원교검을 역임하였다. 형인 성임을 따라 북경에 갔는데, 가는 길에 지은 기행시를 엮어 『관광록(觀光錄)』이라 하였다. 1474년(성종 5)에 지

평을 거쳐 성균관직강이 되고, 이듬해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재차 북경에 다녀와 1476년(성종 7)에 문과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제학·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성종 17)에 첨지중추부사로 천추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간, 대사성, 동부승지, 형조참판,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488년에 평안도관찰사로 있었는데, 조서를 가지고 온 명나라 사신 접대연에서 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그들을 탄복하게 하였다. 같은 해 동지중추부사로 사은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헌을 거쳐 1493년(성종 24)에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 그러나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제조를 겸하였기 때문에 외직으로 나감으로써 불편이 많아지자 한 달 만에 예조판서로 제수되었다. 이해 유자광(柳子光) 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한편 성종의 명으로 고려가사 중 「쌍화점」, 「이상곡」, 「북전」 등의 표현이 노골적인 음사로 되었다고 하여 고쳐 썼다. 또한 관상감, 사역원, 전의감, 혜민서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그곳에 딸린 관원들을 종전대로 문무관의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연산군 즉위 후 한성부판윤을 거쳐 공조판서가 된 뒤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용재총화』를 저술하였다. 죽은 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 당했으나 뒤에 신원되었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저서로 『허백당집』, 『악학궤범』, 『용재총화』, 『부휴자담론』 등이 대표적이다. 시호는 문재(文載)이다. 묘는 문산읍 내포리에 있다.

성혼(成渾)

1535년(중종 30)~1598년(선조 31)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본관은 창녕이며, 자는 호원(浩原), 호는 묵암(默庵)·우계(牛溪)이다. 현감 수침(守琛)의 아들로 서울 순화방(順和坊: 지금의 순화동)에서 태어났으며, 경기도 파주 우계에서 거주하였다.

1551년(명종 6) 생원·진사의 양장(兩場)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해 겨울에 백인걸(白人傑)의 문하에서 『상서』를 배웠다. 1554년 같은 고을의 이이(李珥)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지기가 되었으며, 1568년(선조 1) 이황(李滉)을 만나 깊은 영향을 받았다.

1568년(선조 1) 2월 경기감사 윤현(尹鉉)의 천거로 전생서참봉에 임명되고, 이듬해에 목청전참봉·장원서장원·적성현감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조헌(趙憲) 등 사방에서 모여든 학도들의 교훈에 힘썼다. 그는 「서실의(書室儀)」 22조를 지어

벽에 걸어놓고 학생을 지도하였으며,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주자(朱子)의 글을 발췌하여 읽히기도 하였다. 1572년(선조 5) 여름에는 이이와 9차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하였다.

1573년 2월 공조좌랑에, 7월 장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으며, 12월에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다. 과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관에 임명되기는 기묘사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이이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두 사임하였다.

1575년 6월 지평으로 불려 상경하였으나 병으로 사체(辭遞)하니 선조는 의원을 보내어 약을 지어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공조좌랑·지평 등을 제수하였으나 사임하고 본가로 돌아갔다.

1581년(선조 14) 3월에는 장령에서 내섬시첨정으로 전직되었다. 내섬시첨정·풍저창수를 역임하면서 선정전에 등대하였으며, 특별히 경연에 출입하도록 명을 받았다. 그 뒤 전설사수, 충무위사직에 제수되었다. 그는 경연석상에서나 상소로 계속 퇴귀(退歸)를 청하였다. 그해 연말에 선조의 윤허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582년(선조 15)에는 다시 집의, 사옹원정, 사재감정 등으로 불렸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듬해 특지로 통정대부에 가자하여 병조참지로, 이어 이조참의에 전직하여 은대(銀帶)를 하사받았는데, 이는 이이가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상경을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곧 이조참판에 특배되었다. 이러한 그의 관계 진출은 이이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이가 죽자 사귀(辭歸)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고 동지중추부사를 맡았으며, 그해 7월에 파산으로 돌아와 사직소를 올렸으나 검직만 면하고, 12월에 경감사를 통해 내린 식물(食物)을 사급 받았다.

「편의시무 9조(便宜時務九條)」를 올렸으며, 이어 대사헌·우참찬을 지냈다. 1594년(선조 27) 이 무렵 명나라는 군대를 전면 철군시키면서 대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해와 그는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명나라의 요청에 따르자고 건의하고, 또 허화완병(許和緩兵)을 건의한 이정암(李廷樞)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미움을 받았다. 이에 그는 용산으로 나와 결해소(乞骸疏)를 올리고, 그 길로 사직하여 연안의 각산(角山)에 우거하다가 1595년(선조 27) 2월 파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저서로는 『우계집』, 『주문지결(朱門旨訣)』, 『위학지방(僞學之方)』이 있다.

그가 죽은 뒤 1602년(선조 35) 기축옥사와 관련되어 삭탈관직 당했다가 1633년(인조 11) 추증되었으며, 문간(文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81년(숙종 7) 문묘에

제향되었고, 1689년 한때 출향(黜享)되었다가 1694년(숙종 20) 다시 승무(陞廬)되었다. 제향 서원으로는 파주의 파산서원, 여산의 죽림서원, 창녕의 물계서원, 해주의 소현서원, 함흥의 운전서원 등이 있다. 그의 묘는 파주읍 향양리에 있다.

신민일(申敏一)

1576년(선조 9)~1650년(효종 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자는 공보(功甫), 호는 화당(化堂)이다. 아버지는 사재감첨정 암(黯)이다.

1615년(광해군 7) 사마시를 거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학유, 성현도찰방·감찰, 연서도찰방, 은계도찰방 등을 지내다가 한때 관직을 사퇴하였다. 1624년(인조 2) 예조정랑으로 선릉(宣陵) 단오제 전사관이었는데, 환관 나업(羅業)이 불경스런 행동을 취한 것을 구실로 환관들의 폐를 상소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피난하였고 청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하였다. 그 뒤 장령·사간 등을 거쳤으며, 1631년 보덕으로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송하려는 의논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여 강제로 유배되었다. 1633년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화의가 성립된 뒤에는 영남에 내려가 있다가 1640년 동부승지가 되고 이어 우승지에 임명되었으며, 1650년(효종 1) 대사성에 이르렀다. 시문집인 『화당집(化堂集)』이 전한다. 묘와 사당이 법원읍 금곡리에 있다.

신장(申樞)

1382년(우왕 8)~1433년(세종 15)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제부(濟夫), 호는 암헌(암헌)이다. 고려 전의판서 덕린(德麟)의 손자이며, 고려 공조참의 포시(包翹)의 아들이다.

1402년(태종 2)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예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을 거쳐 춘추관동지사로서 『정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중군도총부총제, 세자우부빈객을 거쳐 공조좌참판에 이르렀다. 오래 대제학을 맡아 당시 유학에 통달한 권위 있는 학자로 추앙을 받았다. 묘는 야동동에 있다.

심회(沈澹)

1418년(태종 18)~1493년(성종 24)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자는 청보(淸甫)이다. 아버지는 영의정 온(溫)이며, 세종 비 소헌왕후의 동생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하기 시작하여 아버지 온은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나, 1418년(태종 18)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중 태종을 비난한 사건에 관련되어 의주에서 체포되고, 이어 사사되었다. 이 때문에 세종 때에는 등용되지 못하다가 세종 말년에 아버지가 신원되자 문종이 즉위한 뒤 음직으로 돈녕부주부에 등용되었다. 이어 동지돈녕부사를 거쳐 1454년(단종 2) 첨지중추원사·동지돈녕부사를 역임하고, 1457년(세조 3) 지중추원사·공조판서를 지냈다. 1458년 중추원부사·판한성부사를 거쳐, 1459년 안주선위사를 겸하고 판중추원사가 되었다. 1461년 영중추원사·형조판서를 거쳐, 1463년(세조 9) 경기도관찰사, 1466년 좌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영의정이 되고, 1468년(예종 즉위년) 남이(南怡)의 옥사를 처리하여 익대공신 2등에 책록되고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뒤 성종의 신임을 받아 국가의 대소 정사에 참여하였고, 1486년(성종 17) 궐장을 하사받았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모친인 윤비의 폐출 사건에 동조하였다는 죄로 관직이 추탈되고 부관참시를 당하였으나 뒤에 신원되었다.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묘는 본래 광탄면 신산리에 있었으나 연산군에 의해 부관참시를 당한 후 월릉면 영태리로 옮겨졌다.

윤곤(尹坤)

?~1421년(세종 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판개성부사 승순(承順)의 아들이다. 젊어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아우 향(珦)과 함께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1400년(정종 2) 이방원이 그의 동복형인 방간(芳幹)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르는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익대좌명공신 3등에 책록되고, 우군동지총제로 파평군(坡平君)에 봉작되었다. 1406년(태종 6) 좌군도총제로 있을 때 다른 사건과 연루되어 파직되어 파평현에 유배되었다가,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평안도관찰사로 기용되었다. 그가 학덕이 높은 것을 알고 있는 세종은 침전에서 환송연을 베풀어 주는 등 크게 총애하였다. 이듬해 9월 이조판서로 승진되었다. 그의 파격적인 출세는 평안도관찰사로 있을 때 기악을 폐지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등 많은 치적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

뒤 우참찬까지 지냈다. 후덕하고 풍채가 좋아 복옹(福翁)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시호는 소정(昭靖)이다. 묘는 파주읍 연풍리에 있다.

윤관(尹瓘)

?~1111년(예종 6)

고려 중기의 문신이자 무신으로 파평면 금파리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파평, 자는 동현(同玄), 호는 묵재(墨齋)이다. 고려 태조를 도운 삼한공신 신달(莘達)의 현손이며 검교소부소감을 지낸 집형(執衡)의 아들이다.

1073년(문종 27) 문과에 등과하여 습유·보궐을 지냈고, 1087년(선종 4)에는 합문지후로서 출추사가 되어 광주·충주·청주를 시찰하였다. 1095년 숙종이 즉위하자 좌사낭중으로 형부시랑 임의(任懿)와 함께 요나라에 파견되어 숙종의 즉위를 알렸으며, 1098년(숙종 3) 동궁시학사로서 조규(趙珪)와 함께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숙종의 즉위를 통고하였다.

1099년에 우간의대부한림시강학사가 되었으나 당시 좌간의대부이던 임의와 친척이어서 간원인 어사대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중서성의 상서에 따라 해직되었다. 2년 뒤인 1101년에는 추밀원지주사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왕명에 의하여 이굉(李宏)과 함께 진사시를 주관하였으며 이어 어사대부가 되었다. 다음 해 이부상서동지추밀원사를 거쳐 지추밀원사 겸 한림학사승지가 되었다.

1104년 2월 동북면행영도통이 되어 3월에 여진과 싸웠으나 고려군은 여진의 강한 기병에 부딪혀 그 태반이 죽고 적진에 함몰되는 패전을 당하였다. 이에 일단 화약을 맺고 철수하였다. 이후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증강과 기병의 조련이 필요하다고 여겨 숙종에게 진언하여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하였다.

1107년 여진족의 동태가 심상하지 않다는 긴급 보고를 접한 숙종은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吳延寵)을 부원수로 삼아 대군을 이끌고 정주를 향하게 하였다. 5만 3천명을 거느리고 정주에 도착한 뒤 중군은 김한충(金漢忠), 좌군은 문관(文冠), 우군은 김덕진(金德珍)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으며, 수군은 선병별감 양유송(梁惟竦) 등이 2천6백명으로 도린포의 바다로부터 공격하였다. 윤관이 총지휘를 한 고려군은 적의 전략적인 거점을 무찌른 곳이 135개처, 적의 전사자 4천9백40명, 생포 130명의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윤관은 조정에 전승의 보고를 올리고 탈환한 각지에 장수를 보내 국토를 획정하고 9성을 축조하였다. 여진을 정벌한 윤관은 개경으로 개선하여 추충좌리평

윤척지진국공신문하시중판상서이부사지군국중사에 봉하여졌다.

한편 전투에 패한 여진은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평화적으로 성을 돌려주기를 애원하였다. 여진의 적극적인 강화 교섭으로 고려는 9성을 돌려주기로 결의하고 다음해 7월 18일부터 9성 철수가 시작되었다. 이후 윤관은 여진 정벌에 대한 패장의 모함을 받고 문신들의 시기 속에 관직과 공신호를 삭탈 당하였다. 그러나 예종이 그를 비호해 준 덕으로 1110년 다시 수태보문하시중판병부사상주국감수국사가 내려졌지만 윤관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다 1111년 5월 쓸쓸히 눈을 감았다.

1130년 예종의 묘정과 조선 문종대에 이르러 왕의 명으로 숭의전에 제향되었다. 파주 여충사(麗忠祠)에 봉사하고 청원의 호남사(湖南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처음에 문경(文敬)이었으나 후에 문숙(文肅)으로 고쳐졌다. 그의 묘는 광탄면 분수리에 있다.

윤번(尹璠)

1384년(우왕 10)~1448년(세종 30)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이며 자는 온지(溫之)이다. 세조의 장인이며, 고려 말 판도판서 승례(承禮)의 아들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신천현감을 거쳐 1428년(세종 10) 군기시판관을 역임하였다. 딸이 수양대군의 부인이 되자 군기시부정에 승진되고, 이어 공조참의가 되었다. 1434년 이조·호조의 참판, 경창부윤을 거쳐 1439년 경기도관찰사·대사헌 등을 지냈다. 1440년 우참찬·공조판서에 이어 지중추원사가 되었으나 풍병으로 사직하고, 1447년(세종 29) 판중추원사가 되었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파평부원군(坡平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정정(貞靖)이다. 묘는 교하읍 당하리 정정공파 묘역에 있으며, 아래에 부인 인천 이씨의 묘가 있다.

윤암(尹巖)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이며, 태종의 딸 숙경옹주의 남편이다. 좌익공신 2등에 책훈되었으나 일찍 사망하였다. 파평군(坡平君)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제도(齊度)이다. 장단에 묘가 있다고 전한다.

이감(李臧)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중친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세종의 고손으로 희안군(喜安君)의 아들이다. 금천군(錦川君)에 봉해졌다. 파평면 금파리에 묘가 있다.

이빈(李賓)

1537년(중종 32)~1603년(선조 36)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아버지는 서흥부수 춘억(春億)이며, 어머니는 첨정 김국량(金國良)의 딸이다. 1570년(선조 3)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회령부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충주에서 신립(申唼)의 휘하에 들어가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 뒤 김명원(金命元)의 휘하에 들어가 임진강을 방어하다가 다시 패하고, 평안도병마절도사로 평양을 방어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이원익(李元翼)을 따라 순안에서 싸웠다. 이듬해 명장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을 탈환한 뒤 이여송의 요청으로 순변사에 임명되어 권율(權慄)과 함께 파주산성을 수비하였다. 같은 해 왜군이 진주와 구례 지방을 침략할 때 남원을 지켰다. 그러나 당시 진주성을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대죄종군하다가 1594년(선조 27) 경상도순변사에 복직되었다. 이듬해 상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물러났다가 임진왜란이 평정된 뒤 포도대장에 임명되었으나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퇴하였다. 월릉면 능산리에 묘가 있다.

이세화(李世華)

1630년(인조 8)~1701년(숙종 2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이다. 병조정랑 계록(繼祿)의 증손으로, 이재(以載)의 아들이다. 큰아버지 희재(熙載)의 양자로 들어갔다. 문산을 임진리 관우물골에 택지가 있었다.

1651년(효종 2) 진사에 올랐으며, 165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정언, 장령 등을 거쳐 황해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689년(숙종 15)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서호(西湖)의 향리로 돌아갔다. 그해 인현왕후 폐비설을 듣고 반대의 소를 올렸다. 왕에게 올린 소에 오두인(吳斗寅)과 그의 이름이 전면 에 올라 있어 숙종은 분노하여 밤중에 친국(親鞠)하였다. 그는 국문에서 “국사로 인

해 죽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다만 신의 죽음에 성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우니, 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옥리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을 밤새도록 친국하니 옥체를 상할까 두렵다” 고 형간(刑諫)하였다. 다음 날 정주로 유배가다 풀려나와 파산(坡山)의 선영 아래로 돌아왔다. 갑술환국 후 1694년(숙종 20) 4월 대사간·호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고사하고 나아가지 않다가 인현왕후 복위도감제조로 차정한다는 말을 듣고 곧 상경하였다. 이후 의금부사겸지경연사, 세자빈객에 오르고, 청백리로 선정되었으며, 공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풍계의 충렬사(忠烈祠)에 향사되었다. 저서로는 『쌍백당집』이 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문산읍 선유4리에 묘가 있다.

이인신(李仁臣)

1457년(세조 3)~1518년(중종 13)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증이조판서 성무(成茂)의 아들이다.

1484년(성조 15) 정시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1489년(성종 20) 정자, 지평을 거쳐 1506년(중종 1) 형조좌랑, 1508년(중종 3) 예조참의, 1510년 공조참판으로 승진했으며 1512년 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 장악원주부를 지냈다. 월릉면 덕은리에 묘가 있다.

이천(李薦)

?~1349년(충정왕 1)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다. 1299년(충렬왕 25) 국자감시에 급제하였다. 1321년(충숙왕 8) 우사보로 있을 때 폐신(嬖臣) 이인길(李仁吉)의 첩의 아버지 최득화(崔得和)가 수주수령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하여 곤장을 맞고 섬에 유배되었다. 1344년(충혜왕 복위 5) 지공거 박충좌(朴忠佐)와 함께 동지공거로서 진사를 뽑고 하을지(河乙止) 등 33인에게 급제를 주었다. 같은 해 첨의평리상의로 원나라에 가서 교사(郊赦: 하늘에 제사지내고 은사를 베푸는 일)를 축하하고 돌아왔다. 또한 왕이 서연(書筵)을 설치하여 판밀직사사로서 시독(侍讀)하도록 하였다.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다. 묘가 맥금동에 있다.

이후백(李後白)

1520년(중종 15)~1578년(선조 1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관찰사 숙함(淑械)의 증손으로 국형(國衡)의 아들이다. 어려서 아버이를 여의고 큰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상을 예법대로 치렀다. 하루는 집안어른이 그에게 단술을 권하자 비록 단술이라도 '주(酒)' 자가 붙은 이상 상주가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1535년(중종 30) 향시에 장원하고 곧 상경하여 이의건(李義健)·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 등에게 배웠다. 1546년(명종 1) 사마시에 합격하여 승문원주서를 거쳐 1558년 승문원박사로 사가독서하였다. 이후 전한, 시강원설서, 사서, 정언, 사간, 병조좌랑, 사인 등을 역임하였다. 1567년(선조 즉위년) 원접사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았고 동부승지에 발탁되었으며, 대사간, 병조참의를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571년 정시문과에 장원하고, 예조참의, 홍문관부제학,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1573년 변무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인성왕후, 인종 비가 죽어 복제문제가 일어나자 3년상을 주장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1574년 형조판서가 되고 다음해 평안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이후 이조판서와 양관의 제학을 지내고, 호조판서로 있을 때에 휴가를 얻어 함안에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선조 23)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으로 연양군(延陽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함안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청련집(靑蓮集)』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광탄면 발랑리에 묘가 있다.

이흠(李欽)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왕족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세종의 증손으로 의인군(宜仁君)에 봉작되었으며 소위장군을 역임하였다.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1431년(세종 13)에 “서반 최진·고성, 지휘 이양(李亮), 천호 이흠(李欽) 등에게 옷 1습(襲)과 모관·신[靴] 등을 하사하고, 두목 106명에게는 옷 각각 2벌과 모관·신 등을 주어 함길도를 향해 떠나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망 연대는 1430년대 이후라고 추정된다. 문산읍 운천리에 묘가 있다.

장사길(張思吉)

1341년(충혜왕 2)~1419년(세종 1)

고려말 조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좌리공신 정현대부 문화부사사 전 공조판서 수명(壽命)의 손자이며 예의판서 문화우정승 화령백 려(麗)의 아들이며, 개국공신 사정(思靖)의 형이다.

아버지는 본래 안동에서 살았으나 북방으로 이주하여 의주의 참리가 되었는데 사어(射御)에 능하였다. 권귀(權貴)에게 뇌물을 바쳐 만호가 되었다. 그뒤 의주지방의 토호가 되어 고려조정에 복종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직을 세습하여 만호가 되었다. 이모부 이성계(李成桂)에게 무예를 인정받아 위화도에서 함께 회군한 뒤 회군공신에 서훈되고, 1390년(공양왕 2) 밀직부사를 거쳐 동지밀직사사가 되었다. 1392년(태조 1) 아우 사정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지중추원사로서 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를 겸하여 이성계의 친병(親兵)을 통솔하였다. 이듬해 황해도에 문화·영녕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으며, 1398년(태조 7) 왕자의 난 때 방원(芳遠)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으로 영가군(永嘉君)으로 개봉(改封)된 뒤 참찬문하부사·판공조사·의흥삼군부우군절제사가 되고, 이어 화산군(化山君)으로 개봉되었다. 1400년(정종 2) 사헌부로부터 제2차 왕자의 난 때 사정과 함께 반역을 모의하였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왕이 두호하여 무사하였다. 태종 때 우군총제·참찬의정부사 등을 지낸 뒤,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진봉되어 공직을 물러났다. 용맹이 뛰어나고 병략(兵略)에 익숙하였으며, 수염이 배에까지 닿았다고 한다. 첩기(妾妓)를 아내로 삼아 좋은 평을 얻지 못하였다. 의주토호의 반란이 멈추고, 의주에서 여연(閔延)에 이르는 압록강연안 1,000리를 조선영토로 편입하는데 공헌하였다. 시호는 희양(僖襄)이다. 묘가 금촌 맥금동에 있다.

정홍(鄭洪)

?~1420년(세종 2)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고려 때 대제학을 지낸 사도(思道)의 아들이다. 1377년(우왕 3) 제릉서령이 되고, 그해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조선 건국 후 판중추부사, 자헌대부, 지의정부사 등을 거쳐 보문각대제학에 올랐다. 이후 우상을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금촌동에 묘가 있다.

정효상(鄭孝常)

1432년(세종 14)~1481년(성종 1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가구(可久)이다. 증좌찬성 화년(和年)의 아들이다.

1451년(문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54년(단종 2)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집현전 부수찬이 되었고 1455년(세조 1) 12월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이듬해 6월 경연 사경으로 있으면서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나 화를 면하였고, 1459년(세조 5) 6월 승문원부교리로서 한관독서의 해택을 입었다. 이후 감찰, 이조좌랑, 세자시강원필선을 거쳐 1466년(세조 12) 문과증시에 급제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년) 10월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어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고, 가선대부에 올라 계림군(鷄林君)에 봉하여졌다. 그 뒤 우부승지, 좌부승지, 도승지를 거쳐 1471년(성종 2)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좌리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정헌대부에 올랐다. 1472년 경상도관찰사를 겸하였고 1474년 공조판서에 승진하고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다. 1476년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77년(성종 8)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학문이 뛰어나고 우애가 돈독하여 명성이 있었다. 시호는 제안(齊安)이다. 금능동에 묘가 있다.

조감(趙堪)

1530년(중종 25)~1586년(선조 1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극기(克己), 호는 옥천(玉川)이다. 참봉을 지낸 정견(庭堅)의 아들이다. 백인걸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1556년(명종 11)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여묘살이를 끝낸 뒤 음보로 장수찰방에 임명되었다. 1570년(선조 3)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이듬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3년간 여묘생활을 하였다. 그 뒤 나이 든 스승을 모시고자 함안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왔다. 이후 사포서별좌를 거쳐 의금부도사와 평시서직장 등을 역임하고, 1585년 종부시주부에 이르렀다.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당대 대문장가로 크게 이름을 날렸다. 파주의 용주서원과 경현단에 제향되었다. 월룡면 능산리 아가산에 묘가 있다.

조연(趙涓)

1374년(공민왕 23)~1429년(세종 1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초명은 경(卿), 자는 여정(汝靜)이다. 아버지는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인벽(仁璧)이며, 어머니는 환조이자춘의 딸 정화공주이다.

음보로 산원이 되었고 1386년(우왕 12)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2년(공양왕 4) 공조총랑을 거쳐, 이해 조선이 건국되자 천우위대장군으로서 왕의 의친(懿親)인 까닭에 별운검이 되어 왕을 호위하였다. 1396년(태조 5) 과의상장군에 승진되고, 중추원우승지, 동지삼군부사를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 4등이 책록되고 한평군(漢平君)에 봉하여졌다. 1402년(태종 2) 우군총제를 거쳐 1404년 도총제를 역임한 뒤 무과회시에 감교관이 되어 33인의 무신을 뽑았다. 1407년 겸좌군총제제가 된 뒤 이듬해 풍해도관찰사가 왜선 40여 척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해 음에 따라 안산·부평의 조전절제사로 파견되었으나 조선의 표류선임이 확인된 뒤늦은 보고에 의하여 돌아왔다. 그해 상호군, 겸좌군도총제, 판의용순금사사 등을 역임하였다. 1409년 병서강토총제가 되고, 이듬해 길주도도안무찰리사로 나가 변방을 침범하는 야인의 수장 등을 죽이고 그들의 근거지까지 쳐부수고 남녀 포로 수십 인을 포획하여 돌아왔다. 1412년 중군도총제겸판사복시사를 거쳐 1413년 공조판서, 지의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416년 판좌군부사가 되고, 이듬해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1419년(세종 1) 세종이 즉위하자 동지총제가 되었다. 1420년 찬성사, 1426년(세종 8) 우의정에 올랐으나 김도련(金道鍊)으로부터 노비를 뇌물로 받은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황해도 수안에 부처되었다가 곧 방면되었다. 성품이 온순하였으며, 문신이면서 야인 정벌에 무공을 떨쳤다. 시호는 양경(良敬)이다. 월릉면 덕은리에 묘가 있다.

최수진(崔秀珍)

1478년(성종 9)~1547년(명종 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삭녕(朔寧)이며 자는 정보(挺寶)이다. 사옹원정을 역임한 영호(永灝)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음보로 선공감역에 임명된 후 선공감주부, 사헌부감찰, 의빈부도사, 중추부도사 등을 지냈다. 다시 외직에 나가 가평군수, 연천군수, 평해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내자시첨정, 내섬시첨정, 종친부전첨 등을

거쳤다. 죽은 후 1579년(선조 12) 이조참판, 1586년 이조판서, 1592년 영의정에 각각 추증되었으며, 1604년 다시 순충적덕보조공신으로 책훈되고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아동동에 묘가 있다.

허준(許浚)

1539년(중종 34)~1615년(광해군 7)

조선 중기의 의인(醫人)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이다. 할아버지 곤(琨)은 무과 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를 지냈고, 아버지 론(礪)도 무관으로 용천부사를 지냈다. 그런데 그는 의관으로 내의원(內醫院)에 봉직하면서 내의·태의·어의로서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을 편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의 수준을 높였다.

1574년(선조 7)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에 들어갔다. 1575년(선조 8) 2월 어의로서 명나라의 안광익(安光翼)과 함께 임금의 병에 입진(入診)하여 많은 효과를 보게 하였다. 1587년(선조 20) 10월 어의로서 태의 양예수 등과 함께 입진하여 병을 호전시켜 호피(虎皮)를 받았으며, 1590년 12월 왕자의 두창(痘瘡)을 낫게 하여 당상의 가자를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으며, 그 뒤에도 어의로서 내의원에 계속 출사하여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다.

1596년(선조 29)에 선조의 명을 받들어 유의(儒醫) 정작(鄭碣), 태의 양예수·김응탁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음 해의 정유재란으로 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일이 중단되었다. 그 뒤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 편집의 일을 맡김으로써 본격적인 편찬은 16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601년 지중추부사로 승진하였고 1604년 호성공신 3등에 책록되었으며, 1606년에는 양평군(陽平君)에 올라 정1품인 보국숭록대부로 승진하였으나 중인 신분으로는 과도한 벼슬이라 하여 대간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책임 어의로서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바로 풀려나 광해군의 어의로서 왕의 측근에서 총애를 받았다. 이후 주로 의서를 편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의보감』의 완성이다. 1610년 완성된 이 책은 총 25권 25책으로 당시 국내 의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의림촬요(醫林撮要)』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의서 86종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의방서 등

을 증보 개편하거나, 알기 쉽게 한글로 해석하여 간행하였다. 죽은 후 보국승록대부에 추증되었다.

허준의 묘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다가 1991년 9월 30일 『양천허씨족보』에 기록된 “진동면 하포리 광암동 선좌 쌍분”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묘역은 약 50평의 규모로 우측 묘는 부인 안동 김씨의 묘로 추정된다. 이들 두 묘 위쪽으로 허준의 생모 묘로 추정되는 묘가 한 기 더 있다. 묘소에는 묘비, 문인석, 상석,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원래의 묘비는 두 쪽으로 파손되어 땅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발굴 당시 원비의 마모된 비문 가운데 ‘陽平□ □聖功臣 □浚’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선생의 묘인 것이 밝혀졌다.

허형손(許亨孫)

1427년(세종 9)~1477년(성종 8)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어린 시절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여 내금위에 소속되었으며, 1453년(단종 1)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부사에 임명되었다. 1455년(세조 1) 오위행사정으로 세조 즉위에 협조한 공으로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457년 무과 증시에 급제한 뒤 지훈련원사겸선전관을 거쳐 1459년 첨지중추원사로 승진하고 같은 해 지병조사를 겸하였다. 1460년 신숙주를 도원수로 하여 북방의 야인을 정벌할 때 위장으로 출정하여 뛰어난 전과를 올렸다. 철군 후 내직으로 돌아와 중추부부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의주목사로 파견되었다.

의주목사로 재직하던 1463년, 사람들과 사냥을 하다가 야인을 만나 포로가 되었으나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의금부의 상계를 받아 평안도 창성군으로 보내졌다. 1466년 사면되어 무과 등준시에 급제하였다. 1467년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사자위장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 전라도병마절도사로 파견되었다. 1469년(예종 1) 절도사로 재직하던 중 징병 문제를 비롯하여 군민에게 뇌물 받은 사건이 발각되어 파면 당하였다. 얼마 뒤 병조판서 박중선에게 의뢰하여 복직되었다가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고 다시 중추부사에 복직되었다. 1472년(성종 3) 자헌대부에 오르면서 행 첨지중추부사, 1475년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양안(襄安)이다. 조리읍 장곡리에 묘가 있다.

황희(黃喜)

1363년(공민왕 12)~1452년(문종 2)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초명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龐村)이다. 자헌대부판강릉대도호부사 군서(君瑞)의 아들이다.

1376년(우왕 2) 음보로 복안궁록사가 되었고, 1383년 사마시에, 1385년 진사시에, 1389년(창왕 1) 문과에 각각 급제하여 1390년(공민왕 2) 성균관학록에 제수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하였는데, 1394년(태조 3)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학관으로 제수되면서 세자우정자를 겸임하였다. 이후 직예 문춘추관, 사헌부감찰을 역임하였다. 1398년 문하부우습유로 재직하던 중 언관으로서 사사로이 국사를 논의하였다고 문책되어 경원교수로 나갔다가 소환되어 형조·예조·이조·병조의 정랑을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경 도평의사사경력에 발탁되고 이어 병조의랑에 체직되었다가 1402년 아버지의 상으로 사직하였으나 그해 겨울 기복되어 대호군겸승추부경력에 제수되었다. 1404년(태종 4) 우사간대부를 거쳐 승정원좌부대언에 오른 후 지신사에 발탁되었다. 그 후 참지의정부사, 형조판서, 지의정부사, 대사헌, 병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416년(태종 16) 세자의 실행(失行)을 옹호하여 파직되었다가 공조판서, 평안도도순문사겸평양윤 등을 거쳐 1418년(태종 18) 판한성부사에 제수되었다. 그해 세자 폐출의 불가함을 극간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교하로 유배되고 곧 남원부에 이치되었다. 그 후 1422년(세종 4) 소환되어 직첩과 파전을 환급받고 참찬으로 복직되었다.

1423년 예조판서에 오른 후 기근이 만연된 강원도에 관찰사로 파견되어 구휼하고 판우군도총제에 제수되면서 계속 강원도관찰사를 겸하였다. 1424년 찬성, 이듬해 대사헌을 겸하고, 1426년 이조판서, 우의정에 발탁되면서 판병조사를 겸하였다. 좌의정겸 판이조사로 있다가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고 기복되어 다시 좌의정이 된 뒤 약산이요충지라 하여 영변대도호부를 설치하고 평안도도제절사의 본영으로 삼게 하였다.

1430년 좌의정으로서 감목을 잘못된 태석균(太石鈞)의 일에 개입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뒤 파주 반구정(伴鵬亭)에 은거하였다. 1431년 복직되어 영의정부사에 오른 뒤 1449년(세종 31)까지 18년 동안 왕을 도와 국정을 보살폈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조선시대의 가장 명망 있는 재상으로 칭송되었다.

1452년(문종 2) 세종 묘에 제향되고, 1455년(세조 1) 아들 수신(守身)이 좌익공신에 책록되면서 순충보조공신남원부원군으로 추증되었으며, 상주의 옥동서원과 장수의 창계서원에 제향되었다. 과주의 문산 사목리 반구정 아래 방촌영당에 영정이 봉안되었다. 방촌영당은 1580년(선조 13) 황희의 5세손인 황돈(黃惇)이 경상북도 상주시 중모면 수봉리에 영정당을 창건하고 유상을 봉안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632년(인조 10) 7세손인 황수(黃修)가 유상을 모사(模寫)하여 반구정 아래에 영정각을 창건하여 봉안하였다. 저서로는 『방촌집(厓村集)』이 있으며,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다. 방촌영당은 1976년 8월 27일 경기도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음력 2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4. 나오는 말

위와 같이 조선 왕실 왕자들 별묘와 문중별 사당 및 재실의 현황과 그곳에 봉위된 인물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주지역은 왕실과 관련되어 왕자와 공주, 부마들의 묘와 사당이 많으며,

왕자들의 별묘와 각 문중별 사당·재실은 현대에 와서 6.26전쟁이후 조성된 것이 많고, 조선 중기부터 있어왔던 건물 또한 전쟁 때 소실, 훼손되거나 낡고 쇠락하여 주로 1970년 대 이후 새로 중건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과주지역의 67곳이나 되는 사당·재실에 대한 충분하고 세세한 조사를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사당 및 재실과 관련하여 재실의 건축물 배치와 문중의 활동, 위토 경영 등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해 봐야 하겠다는 과제를 남기면서 이후의 조사·연구 활동 후 하나의 책자로도 엮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한북지역(漢北地域)의 항일의병전(抗日義兵戰)

-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

안 국 승(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 목 차 >

1. 역사적으로 본 의병 전쟁
2. 조선조 때의 의병 전쟁
3. 전국에서 일어난 한말 의병의 항일 전쟁
4. 군대 해산과 국권 강탈에 반대한 항일 전쟁
5. 십삼도 창의대진소(十三道 倡義大陣所)의 서울 탈환 작성
6. 漢北地域의 抗日 戰爭
7. 결 론

상기 지역의 항일 전쟁을 살피기 전에 역대에 걸친 의병들의 구국전쟁을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1. 역사적으로 본 의병 전쟁

- 1) 해동증자²⁴⁸⁾의 칭찬을 받던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가 보낸 요화 “금화”에 놀아나 성충, 홍수 등의 충신을 몰아내는 등 국정을 문란하게 하자 신라는 이를 기다

248) 義慈王~海東曾子 二百二十37傳 唐書

려 당나라의 “소정방”²⁴⁹⁾을 끌어 들여 백제를 쳐 멸망시키니 35왕 668년만인 서기 660년이였다. 이때 의자왕과 왕자 대신 장사 93명과 무고한 백성 128,722명이 당나라에 끌려 가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이에 무왕의 조카인 복신이 중 도침과 같이 부여 풍을 맞아 왕으로 삼고 부국운동을 하였으나 서로 불화하여 부국운동은 실패하였다.

- 2) 고구려는 영류왕의 南進北守 정책과 연개소문의 南守北進 정책으로 대립하여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안시성, 백암성, 개모성 등에서 당나라와 싸워 국력을 쇠퇴시키는 가운데 죽자 그 아들 남생과 남건이 불화하자 이 틈을 타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이고 고구려를 쳐 멸망시키니 29왕 750년만인 668년이였다. 이에 검모잠이 安勝을 받들어 왕으로 삼고 부국운동을 하였으나,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4,000호를 들어 신라로 도망감으로서 부국운동은 끝났다. 이때 고구려 백성 1차에 20만, 2차에 38,200호 등을 당나라 朝陽²⁵⁰⁾으로 끌려갔다.
- 3) 신라 문무왕 15년 (675) 당나라 이근행이 이끈 당나라 20만 대군을 한탄강가에 있는 지금의 대전리 산성인 매초성에서 고구려, 백제 유민과 양주민과 같이 원술량이 이끈 군이 전마 3만 380필을 얻는 대승을 얻어 안동도호부를 만주신성으로 몰아냄으로서 신라의 三國統一을 이루었다.
- 4) 고려 현종 10년 (1019)에 강감찬이 거란군 10만을 귀주에서 대파하고 몽고침입이 있자 불력으로 이를 막고자 8만대장경을 만들어 항몽 40년으로 고려의 자주권을 지켰다.

2. 조선조 때의 의병 전쟁

1) 임진란 발발전

임란이 일어나기 10년전에 율곡이 양병 10만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대하고 조현이 왜적의 침공에 대비하자고 주장 하자 그를 길주로 유배시키고 의주 부윤 김여물이 성을 수축하고 군사훈련을 시키자 정철의 당이라고 파직 투옥시키고 심지어

249) 申采浩 朝鮮上古史上, 1980. 4. 2. p.399.

250) 資治通鑑 唐高宗, 總章二年 (669)

어 수신사로 갔던 서인 황윤길²⁵¹이 왜적이 침공할 조짐이 있다고 하자 동인 김성일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등 서인의 주장을 반대하는 등 이전투가 되어 동서간에
갈리어 분쟁이 심한 가운데인 1592년 선조25년 임진년 4월 13일에 왜적 소서행
장이 18,700명을 들어 부산포에 침공하였다.

- 2) 이에 부산첨사 정발이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 순국한 것을 비롯하여 동래부사 송
상현과 문경새재의 신립 장군이 잇따라 전사순국 하였다. 그러나 기타 수령 방
백장령들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패주에 패주를 하여 3,000리
국토가 왜적의 손에 넘어가 선조 임금께서 의주로 피난가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 하였다.

3) 의병의 봉기

이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나니 조헌 부자와 문도 700명이 1차 금산성
싸움에서 순국하고 고경명의 3부자 역시 2차 금산성 싸움에서 순국하였고, 진주
성 싸움에서는 창의장 김천일, 고종후, 황진, 이종인, 김준민, 강희보, 강희열 등
남녀노소 성민과 같이 왜적과 싸우다가 6만 성민이 도륙되고 김천일, 최경희, 고
경후, 이종인 등이 남강에 투신자살 순국하였다. 이때 저 유명한 논개가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투신 자살하였다. 또한 곽재우, 김면, 김준민, 김덕령, 홍수남 등
많은 의병들과 의정부 출신인 정문부는 의병을 들어 왜적의 머리 1,135급²⁵¹⁾을
취하는 등 길주 명천에서 7전7승을 거두어 함관령 1,000리 땅을 수복하는 전공
을 세웠다. 이상과 같은 의병의 대일전쟁과 명나라 원병의 도움으로 왜적이 철
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3. 전국에서 일어난 한말 의병의 항일 전쟁

1) 의암 유인석과 면암 최익현의 항일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와 복제개혁과 단발령의 반대를 위하여 이항로의 대표
적인 문도인 최익현, 유인석의 기병을 계기로 전국의 유생이 이에 호응하여 일어
났다. 이때 유인석이 1901년 4월에서 8월까지 황해도 평산, 평안도의 순천, 대

251) 조선왕조실록 선조 수정록

천, 철산, 용천, 안주 등을 순회하며 의병전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요동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항일전쟁을 지도하였다.

2.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하여 대구 부산과 경기지역을 비롯하여

가. 충남 홍주성의 항쟁이 컸다. 1906년 5월에 1,100명의 의병이 홍주성에서 전 참관 민중식은 이세영과 함께 남규진 등이 왜적 田中少佐가 이끈 대병력과 6월 1일까지 싸워 일군 10명 사살, 4명 처단하였으나, 참모장 김상진 등 85명이 전사하고 전태진 등 145명이 체포됨으로 홍주성이 무너졌다.

나. 경북, 충북, 강원지역과 영해에서 이하현, 안동의 임세영, 영양의 동대산에서 정환직, 정용기, 부자가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 순국하고 신돌석 또한 왜적과 싸웠다.

4. 군대 해산과 국권 강탈에 반대한 항일 전쟁

1)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반대, 정미 7조약 강제 체결 반대, 순종 황제에게 군대 해산 협박 등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2) 군대 해산에 맞선 항전으로 조선군 3,411명 가운데 1,812명이 해산군에 참석하고 1,629명인 47.3%가 불참하고 일본군과 맞서 목숨을 바쳐 싸워 대한제국의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

3) 박승환 참령의 권총 자살로 이에 따라 중대장 최우상 정위, 안봉수 부위, 신의군 참위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배속장교 栗原 대위와 기병에 총격을 퍼붓고 1, 2연대 1,180명 병사는 병영을 점령하고 오전 8시에서 3시간 동안 일군과 싸우고 이어 남대문을 중심으로 坂部少佐가 이끄는 일군과 싸워 일본군 대부분을 사살하고 총탄이 떨어지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지방으로 내려가 의병과 합세하여 일군과 항일 전쟁을 계속하였다.

4) 군대 해산후 전국적으로 의병들의 항일전쟁이 일어났다. 강원지역에서 김덕제 정위, 특수장교 민궁호는 병사 250명과 같이 일반시민이 합세하여 원주읍, 제천, 충주, 안성, 죽산, 장호원 등지에서 일군과 싸웠다.

5) 강화 진위대 하사 유명규, 부교 지홍윤이 주민 500여명과 같이 일군과 싸우다가

유명규는 초지진에서 잡혀 총살되고 안성, 보은, 홍천, 풍기지역에서 노병대, 민영팔, 이강년, 지상희, 민공호, 한응수 등 의병장이 해산병과 합세하여 일군과 싸웠다.

- 6)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소재 각호산에 있는 자모산성을 배경으로 400의병이 “평산군 도 평산의진”을 구성하여 1907년 8월 4일에서 동년 9월 4일까지 항일전쟁을 강행했으나, 헌병 보조원과 현지 친일주구인 밀정에 의하여 의군의 작전 규모가 드러나 기관총과 속사포로 무장된 일군토벌대의 대병력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사자 우천보 외 103명, 부상 투옥자 이원배 외 31명, 전쟁계속자 김명길 외 42명, 간도망명자 이진용 외 7명, 행방불명 34명 등 218명²⁵²⁾의 피해를 내는 격전을 버렸다.

5. 十三道 倡義大陣所의 서울 탈환 작성

1. 1차 서울 탈환작전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니 13도 연합 의병 병력수가 10,000명으로 그 가운데 양총은 가진 자가 3,000명이었다.

즉 13도 총대장 이인영 1,000명, 군사장 허위 2,000명, 관동의병대장 민공호 2,000명, 호서의병대장 이강년 500명, 경기, 황해, 진동 의병대장 권중희 500명, 관서의병대장 박인관 80명, 관북의병대장 전봉준 80명, 기타 6,000명 등 48진 총병력 10,000명으로 구성되었다.

가. 1907년 1월 15일 (음력 정월)을 기하여 서울 동대문밖 30리 지점인 경기도 양주에 13대 의병장이 직속부대를 거느리고 집결하여 서울 탈환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의 하였다.

나. 서울 탈환작전 감행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08년 1월에 군사장 허위가 300의병을 거느리고 동두천을 거쳐 목적지 동대문밖 30리 지점인 양주에 진입하며 일본 토벌대와 싸우다 부장 김규식과 연기우가 전상을 입는 격전을 겪으며 목적지에 약속기일인 1908년 1월 15일에 격전을 겪으며 목적지 양주에 도착하였다.

252) 1908년 8월에서 동년 10월까지 황해도 감찰사 趙義聞이 보고한 평산 의군의 피해 상황 보고 (평산군지 1993. 12. 30. p.939~342)

그러나 총대장인 이인영이 1주일이 늦은 1월 23일에야 30여회 일군의 저해를 받아가며 2,000의병을 거느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이강년, 민궁호는 일군의 저해를 받아 도착하지 못하였다.

- 다. 서울탈환작전 중단 이때 이인영이 부친 사망소식을 듣고 『忠孝는 一致』한다고 孝를 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서울탈환 작전중단을 군사상 허위에게 일임하고 귀가하니 이로서 서울 탈환 작전은 실패하였다.

2. 2차 서울 탈환 작전

- 가. 군사장 허위와 각도 창의 대장은 1차 서울탈환작전 중단후 각기 자기 부대로 돌아갔다. 이에 군사장 허위는 2차 서울탈환작전을 감행하기 위하여 임진강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그 밑에 조인환, 권준, 왕희중, 김진묵, 박중환, 김수민, 김규식, 연기우, 이은찬, 김응두 등과 같이 서울탈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나.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작전 계획은 친일 헌병 보조원과 현지 악질적 밀정의 정보에 따라 (1) 한국의병으로 가장한 『의병 변장 토벌대』를 20개를 편성하고, (2) 전국에서 보병 2,000명 헌병 2,376명 친일 주구인 헌병 보조원 4,000명, 경찰서에 배치된 순검 4,900명을 동원 배치하고 서울 외곽 지대와 양주, 적성, 마전, 고양, 파주 등지에 의병 변장대를 배치하여 의병이 있는 곳을 색출하는 한편 의병에 대한 대공세를 취할 때 헌병 보조원이 이에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시키는 등 대공세를 취하자, 허위가 거느린 의군이 이에 맞서 대응 격전을 버렸다. (3) 이에도 불안하여 또다시 일본은 6사단 보병 23연대와 7사단 보병 제2연대 병력 4,000명을 증파하고 불량배로 조직된 헌병 보조원 4,000명을 재배치하며, 총공격을 하자 허위군은 이에 맞서 목숨을 받쳐 싸웠으나 기관총으로 무장한 천문학적인 막강한 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2차 서울탈환작전도 중과부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막대한 병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제되는 것은 동족인 헌병 보조원과 현지 악질적인 밀정에 의하여 우리 작전계획에 대한 정보가 일제 토벌군에게 제공된 것이 패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명기한다. (4) 군사장 허위는 포천 송우리에 몸을 숨겼다가 다시 영평인 현. 포천군 서면 유동리서 박정연(朴政淵) 집에서 1908년 6월 17일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1908년 10월 21일에 서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국하였다. 이와 같은 13도 창의대진소가 주관이 된 전국적 규모의 1, 2차 서

울탈환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허위 순국후 그의 휘하부장인 권중희(權重熙), 고재식(高在植) 등이 임진강 유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으나,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6. 漢北地域의 抗日 戰爭

이상과 같이 전국에서 벌인 의병의 항일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한북지역인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지역에서 벌인 의병들의 항일전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의병들과 해산병의 줄기찬 항일전쟁에 대비하여 일본 본국에서 일본군을 대량 증파하였다.

가. 1907년 7월 20일 보병 12여단

1907년 10월 기병 1개연대

다시 보병 3,000명을 파견하였으며

- (1) 부산대전 지역 1,500명 배치
- (2) 경성 평양 지역 1,500명 배치
- (3) 포천 삭녕지역 각각1개소대 배치
- (4) 연천 적성지역 1개 분대 배치 하고
- (5) 헌병보조원 4,000여명으로 구성

1개면에 2~3명을 배정시켜 의병의 은신처를 밀고, 수색, 보고하거나 경찰관의 의병토벌작전에 담당하거나 앞장서 의병으로 변장하여 의병의 은신처를 탐색, 수색하여 의병과의 교전을 보조 협조하여, 의병들의 토벌 작전에 친일 경찰 헌병 보조원 현지 친일 밀정이 앞장서 의병들의 항일전을 참패로 몰아갔다.

2. 의정부 지역

1908년 2월에 서울탈환 작전에 참가했던 허위, 김수민, 이은찬 부대가 임진강 유역으로 회합하여 새로 서울탈환 작전을 세웠는데 이를 “임진강 연합 의병”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러번 서울탈환 작전을 시도했으나, 동두천 의정부 부근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1908년 6월 11일 13도 창의 대진소의 군사장이며, 제

2대 총대장인 허위가 체포됨으로서, 연합부대가 해체되어 소부대 단위로 유격전으로 전환되었다.

즉 강기동, 정용대를 비롯하여 많은 의병장과 의병24명이 의정부 지역에서 일군과 싸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은 다음과 같다.

가. 의병들의 직업과 부대규모

의정부 지역에서의 의병 활동을한 의병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업	부대규모	성 명	직 업	부대규모
강기동	군 인	20-30	고재석	미 상	20-30
권중설	미 상	미상	권득수	소장수	60-200
권 준	미 상	미상	김교성	상 인	30-80
김규손	순 교	10-40	김규식	육군 부교	40-80
김노수	참 봉	30	김병길	미 상	미상
김봉기	병 사	20	김세경	미 상	미상
김석하	육군 장교	30	김연성	문학박사	40-50
김준식	육군 하사	미상	김진목	미 상	300-400
김찬위	육군 하사	미상	김춘수	농 업	200
권재훈	미 상	14	민궁호	특무정교	1,500
박래승	유 생	70-100	박순근	승 려	13-200
박종환	특무정교	10-50	박팔암	미 상	25
방인관	유 생	8-80	성주사	주 사	미상
신명재	유 생	250	신창현	기 병	미상
연기우	육군 장교	30-90	왕희중	미 상	300-400
원우상	경무사	미상	윤인순	박두두령	20-200
이규태	미 상	20	이근칠	미 상	20
이기철	미 상	미상	이명호	미 상	8-13
이은찬	양반	50-300	이재학	미 상	30
이재익	경무사	30	이한경	육군 장교	12

장계원	미 상	50	전성서	미 상	8-15
정용대	육군 조장	30-40	조인환	미 상	10
최문봉	미 상	70	허 위	유학자관리	50-500
허 준	정 위	60-65	홍원유	병 사	15-16
황순일	포 군	30-40	황재호	육군하사	30-80

나. 전투지역

1907년 11월 03일	일본군헌병 문산·마전·철원·양주·의정부의 분건소에 배치됨
1908년 02월 27일	의병 50여명, 의정부를 습격·헌병대의 반격으로 후퇴
1908년 02월 27일	의병, 의정부분건소를 습격
1908년 04월 08일	경기도 의병 100여명. 의정부 수내리에서 하물호송병 습격
1908년 05월 15일	의병 50여명. 의정부 동방 역20리 지점에서 하물호위대와 교전
1908년 08월 13일	일본군. 경성·의정부 간 경비전화 개통
1908년 08월 16일	일본군. 경기도 의정부·양주 간 경비전화 개통
1908년 08월 18일	일본군. 의정부·포천간 경비전화 개통
1909년 01월 12일	경기도 의병 60여명이 의정부 헌병분건대를 공격
1909년 01월 12일	의병 60명이 양주군 남북방 약4리에서 의정부헌병분건소 헌병과 교전
1909년 01월 30일	양주지역 의병 50여명이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 헌병분건소를 공격
1909년 01월 31일	경기도 의병 50여명이 의정부 서남지역에서 의정부 헌병분건대와 교전
1909년 02월 04일	정용대 의병대. 포천군에서 의정부헌병대를 공격
1909년 03월 04일	경기도 의병120여명이 의정부에서 일군 헌병분건대 3명을 공격
1910년 02월 26일	의병장 강기동 외 17명. 포천군 외소면 수내리에서 양주·의정부분 건소와 교전
1910년 02월 26일	의병 약17명. 포천군 외치면 수내리에서 양주·의정부 헌병 연합수색 대와 접전

1910년 03월 08일	의병장 강기동 외 14명. 양주군 별비면 덕릉리에서 의정부 헌병분견대와 접전
1910년 03월 08일	의병 14명. 경기도 양주군내에서 의정부헌병분견대와 접전
1910년 05월 15일	의병장 강기동 등 약15명. 양주군 노원면 간촌에서 의정부헌병분견소와 교전
1910년 05월 15일	의병 약15명. 의정부부근서 교전
1910년 05월 15일	의병15명. 경기도 의정부 동남방 약20리 지점에서 의정부 헌병분견소원과 접전

3. 양주지역

양주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항일전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으로 13도 창의대진소에서 서울 탈환을 결행하기 위하여 13도 의병장이 각기 자기의 의병을 거느리고 집결하기로 한 장소로 동대문밖 30리에 있는 양주로 정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양주 출신으로서, 양주지역에서 항일전쟁을 한 19명의 의병장과 양주 출신으로서, 그 휘하에서 항일투쟁을 한 의병 61명이 있다.

가. 양주지역에서의 항일전쟁

경기도에서 의병항쟁이 시작된것은 군대 해산군인이 1907년 8월 9일에 강화분견대의 하사 유명규(劉明奎), 연기우(延基羽), 지홍윤(池弘允)이 봉기 한데에서 시작하여 조인환(曹仁煥) 의병부대가 양주지역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면서 비롯되었다.²⁵³⁾ 1908년 1월, 13도 창의대진소의 서울 탈환 작전이 실패한 뒤에 13도 창의 대진소의 군사장 허위와 황해 경기지역의 평민출신 의병장 김수민(金秀敏) 그리고 해산군인 박종한(朴宗漢)등이 임진강 유역으로 집결되면서 새로운 계기가되었다. ²⁵⁴⁾

1908년 8월에는 고재호(黃在浩), 윤인순(尹仁淳), 김경손(金景孫) 등이 이끄는 의병 20-30명씩 무리를 지어 양주, 파주, 포천, 영평지역에서 항일전쟁을 하였다. 그 가운데 윤인순은 양주를 근거지로하여 이장과 유력자를 통하여 군수품을 마련하였으며, 낮에는 연기우, 이은찬, 김수민 등과 연합하여 포천, 양주, 연천, 파주 등지에서 일본군 분견소와 수비대를 직접 공격하는 등의 항일전쟁을 감행하였다. ²⁵⁵⁾

253) 조선 폭도 토벌지 P.727

254) 조선 폭도 토벌지 P.125

255) 조선 폭도 토벌지(편책) 융희 1년 P.319, P.463, P.474 [편책 13]

이은찬이 양주 포천에서 50여 의병과 유인순 등이 20의병을 거느리고 항일전쟁을 감행하였으며, 정용대 역시 동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이 연합하여 2월 27일 고양 양주 죽산 등지에서 200~300여 의병을 거느리고 격렬한 전쟁을 하였다. 이에 1909년에 들어서면서 일본군 토벌대 310명을 양주에 투입하여 대토벌 작전을 시작하자. 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은찬, 윤이순, 정용대, 김연성 등은 소규모 정예화로 편성하여 경기 장단, 삭령 등지에서 항일전쟁을 전개하였다. 윤인순은 3월 19일 적성군 동면 논암리에서 항일권을 하다가 전사하였다. 이은찬은 3월 31일 서울용산 정거장에서 일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국하였다. ²⁵⁶⁾그러나 양주를 중심으로한 항일전쟁은 사그러지지 않았다. 이에 경무사, 원우상, 이재이, 김수길 등이 양주 지역에서 새롭게 거병하였으며, 제2의 이은찬이라고 표방한 승려 박순근(朴順根)이 30명의 의군을 이끌고 양주, 포천, 영평, 가평 등지에서 싸웠다. 5월이후 이은찬의 선봉이던 강기동이 양주, 포천, 영평, 가평 등지에서 연기우 부대와 연합하여 양주경찰서 순사와 고양 헌병 분견소 공동 토벌대와 치열한 싸움을 하였다. 홍원유는 양주, 적성, 파주 등지에서 이은찬, 윤인순 등을 잃었으나, 좌절하지 않고 국권회복의 일념을 가지고 항일전을 계속하였다. 이에 일제의 대토벌전이 더욱 극심하여 정용대는 9월 9일에 적성군 남면 덕도리에서 싸우다가 체포되고, 이어서 김수민이 체포되는 등 극심한 수난을 겪으면서도 우리 의병들의 왕성한 사기는 떨어지지 않고 나라위한 하늘을 찌르는 기세는 더욱 높았다.

본지역에서 항일전 수행 의병장 휘하 보지역 출신 의병장 성명

의병장	본지역 출신 의병
간기동 (6)	신영준(농32), 강원호(농28), 조삼용(부47), 신태성(농26), 손수정(농24), 김금선(어물상32)
이은찬 (5)	윤태산(농19), 이백원(무29), 이사인(학생23), 이주호(무46), 김순복(농28)
조인환 (5)	유상억(26), 이재국(32), 최명우(술장수25), 최유복(농28), 김수만(농25)
권득수 (1)	신재말(침지44)
연기호 (1)	이덕현(33)

256) 경기도급 폭도 토벌[편책14] P.62

권 준 (1)	이문일(농26)
황재호 (4)	전순만(성30), 목자상(농40), 추산만(농29), 김수동(농34)
김병일 (1)	배천봉(농27)
박래병 (4)	이성준(무24), 안배언(농32), 라봉산(농55), 이순기(농23)
황순일 (1)	홍희연(농28)
의병장	본지역 출신 의병
윤인순 (5)	김경득(농29), 김해룡(농29), 홍준성(부22), 백명현(목수27), 송창근(농23)
김참위 (1)	최인서(석유상25)
박순근 (8)	김덕현(농59), 주낙서(농27), 한용성(화부33), 권석만(농26), 이금오(농45), 안경숙(농27), 김용이(농사22), 허평순(고용인22)
연기호 (1)	정홍국(무29)
정은대 (3)	정두화(농31), 백영현(목수27), 이견래(농28)
이인영 (2)	김창식(39), 이기상(·)
김세경 (1)	우윤구(농27)
홍원유 (5)	우윤규(농27), 선경화(농22), 정두환(농33), 이용규(무24), 유경철(농23)
전성서(4)	변성오(동20), 한인수(농30), 문태산(농22), 정홍준(농33)
19명	•연령별 의병수 19세 1 20~29 38 30~39 15 40~49 5 50~59 2 미상 1 (61명)
(61명)	•직업별 농업 37 학생 1 참지 1 상업 7 목수 1 고용원 1 무직 6 불명 7 (61명)

일련 번호	성명	나이	직업	거주지	구형	항일전쟁
1	전수만	30	상	양주이담 상봉안리	5	내란죄 용화 11년(1907) 3월 30일 이후 폭도 괴수 황재호의 부하로서 총기를 들고 재물 갈취

2	전목기	28	농	" 창리	3	폭도 괴수 김연성 부하로서, 총을든 40여명과 같이 양주 적성등지에서 항일투쟁함.
3	목재만	23	농	"	3	상 동
4	홍희영	28	농	" 보사리	5	1907년 10월경 폭도 황순일 부하로서 40여명과 같이 양주 포천 등지에서 활동하고 12월경 양주군 현내면 실촌리 백성으로부터 돈14원 징발하다.
5	추삼만	29	농	하봉안리	교수형	(1)명치40년8월에 폭도 황재호의 부하로서 20여명과 같이 총검을 들고 양주군내 촌민으로부터 돈100량 약탈하고 (2)이재학의 부하로서 30여명과 같이총검을 들고 적성 삭녕군 남면 귀재리에 거주하는 일진 회원으로서 일본군 밀정인 그를 9월 8일에 총살하고 (3)또한 이승령을 동일한 죄로 총살함.
6	이궁래	28	농	이담광안	3	(1)정용대부하로서 을희2년 10월에서 동3년 2월까지 부하 수십명과 같이 총검을 가지고 포천, 양주 적성, 영평등지의 민가에 침입하였으나 실패 (2)10월에 포천군 서면 왕방리 송극태 집에서 벼3섬을 6만원짜게 매입하다.
7	정두환	31	농	이담 안흥리	5	(1)명치 40년 3월경 폭도괴수 정용대의 부하로서 5명과 같이 병기를 가지고 양주 적성등지의 민가에 침입하였으나 실패 (2)9월경 폭도 괴수 홍원유의 부하로서 병기를 가지고 양주군 이담면 하봉암리에 침입하여 김치순에게서 5원 강탈
8	목연옥	33	무		1	북경에서 독립운동에 참여. 밀령받고, 모금운동 1940년 광복원 김관연 만나 초보 공작. 1941년 서안에서 특수장교 훈련 6개월, 1944년 8월 공작중 왜경에 체포되어 1년 4개월 복역, 1945년8월15일광복으로 귀국하다.
9	정충환	22	무	한성부 연치명	5	1909년 5월 12일 재물갈취 목적으로 황재호의 부하로서, 도당 80여명과 함께 양주군 북은면에 총을 가지고 침입하여 동민 의복 10여벌 강탈 또 포천 덕술리 내서 돈500량 강탈하려하였으나 일본 토벌대에 잡혀 실패

4. 동두천 지역

독립운동사료집에 기록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살펴 본것이다. 동두천은 양주군 이담면의 일개면에 불과하나 이담면 직산리 출신으로 양충으로 무장한 3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어등산면 천천면 목은면 등지에서 항일전쟁을한 의병장 金演性에 가담한 의병수가 3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13도 창의군 군사장 許薦가 1차 서울탈환 작전에서 동두천에서 일군과 싸운것을 아울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본시출신 의병들의 항일전을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성명	나이	직업	거주지	구형	항일 전쟁
10	목자상	40	농	양주이 담지동	3	의병을 가장하는 도적의 환난을 두려움을 틈타 도적괴수 황재호와 계락을 꾸며 용의 2년8월1일 양주군 영근면 상원리에가서 동 장 정문친에게가서 돈1900량(38권)약취하 고 11월 24일 이담면, 이학국집에서 돈 6500량(130원)강탈 약취
11	김연성	37	유학 자성 군관 박사 의병 장	보산동 싸리멸	1	민비가 시해되자 을미 의병에 가담하였으며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1907년 군대해 산되자 고향인 동두천에 내려와 기병하자 의병300명을 얻어 양주연천지역의 의병장 이되어 윤인순 정용대 황재호 등의 의병장 과 같이 항일 전쟁을 수행. 13도 창의대장 허위를 도와 1908년 양주 군 전투에 참전. 소요산에서 일군과 싸웠고 양주삭녕 연천 적성 포천 철원 등지에서 항 일전 지휘하다. 그러나 회화에 있던 전복기 유재만이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활동의 제약을 받자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항일 투쟁 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치다.(독립의 병사)
12	김병창	41	농	"	3	1909~1910년 의병 항일전 참전, 1911년 현내면 선암리(현은현면)등지에 군량미 확보,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독립운동사 편찬 위원회 독립운동사 사료집)
13	김명기	64	생 유학	양주출 신	옥고	의병장 김연성의 부친으로 1910년에서 1913년 9월 의병장 임병찬 이인영 정종주 등과 같이 항일투쟁 조직인 독립의 병군 조 직에 참여. 일본 내각총리 대신과 조선총독 부에 국권반환 요구서 전달하는등 항일투쟁 1914년 4월 5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복 역(국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사료 집~1973)
14	김병극	27	무	보산리	옥고 중사 망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일군과 싸우다가 일경에잡혀 모진 고문 끝에 형독으로 순국하다.
15	이명기	26	농업	탑동	"	1907년 연기우 의병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성에서 항일 투쟁을 하다가 1910년 일경 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16	김병원	25	농업	보산리	"	김연성 의병 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 성 항일 투쟁하다가 부상, 평생 불구로서 생활하다가 사망. (이병하76, 이덕형77, 김 석경94 증언)

일련 번호	성명	나이	직업	거주지	구 형	항일전쟁
17	이병하	34	농업	탐동 조안	"	정용대 의병 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항일투쟁중 1910년 일경에 잡혀 모진악형으로 불구가되어 출옥후 사망
18	김병서	16	"	보산리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포천, 적성 등지에서 전복기 유재민 지사들과 항일투쟁 (김석경94 증언)
19	송창근	19	농업	상패3 리	3	1907년에 윤인순 의병부대에 들어가 12월 동료 30여명과 같이 목은면 내목리 1910년 8월23일 백석면에서 군자금 확보 1910년 10월 26일에 일경에 체포되다. (독립운동사 편찬위원 독립운동사 사료집).

나. 동두천을 중심으로한 군사장 許薦의 항일전쟁

(1) 허위의 기병과 격문 보내기

동두천 지역은 13도 창의 대진소의 군사장 허위께서 1907년 9월 경기도 연천에서 거병하여 연천 양주 파주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의병전을 벌였다. 1907년에 전국민에게 격문을 보내고 각국 영사에게 교전단체로서 인정 해줄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부하 대장 김범호를 서울에 잡입시키어 각국 영사에 보내고 또한 대한 매일 신보에 게재하게하고 포천에 있는 소요산의 홍국사 진중에 있는 허위에게 그소임을 다하였다고 보고하였다.²⁵⁷⁾ 그러나 소요산은 동두천에 있고 홍국사는 남양주에 있으며, 소요산에는 자재암이 있다. 이에 소요산 자재암에 있는 주지 혜림 스님(57)에게 상기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자재암에 정식 기록은 없으나 전해 내려오기를 정미 의병난에 자재암이 불타 버렸다고 한다.

그당시 홍국사 주지가 자재암에 와계시었기에 자재암이 홍국사로 잘못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또한 홍국사 사무장 김성님(45)에게 확인한 바, 홍국사에서 의병전이 벌어진 사실이 정식기록이나 전해 내려오는것이 없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재암의 주지 혜림스님(57)의 말이 옳다고 본다.

(2) 허위의 서울 탈환 작전 출정

군사장 허위가 300의병을 거느리고 서울 탈환작전을 감행할 때 상기 사실로 보아 소요산에서 정예 의병 300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곳을 출발하여 동두천을 거쳐 동대문

257) 신용하 「한국항일 독립운동사 연구」 「1차 탈환 작전」 2004. 3. 20. (P.20)

밖 30리 지점에 있는 양주에 진격할때와 서울탈환작전에 실패하여 퇴각할때에도 일본군과 치열한 격전을 버린 곳이 동두천이다. 258) 더욱이 동두천과 일군이 설치한 주내 방위선을 거쳐 진격하다가 기관총으로 주무장한 매복된 일군과 격전 끝에 의병장 259) 김귀석과 연기우가 부상하는 격전을 벌였다.

(3) 허위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다.

1908년 6월 11일에 허위가 양주군에 있는 송우리 민가에 일시 몸을 피하였다가 다시 영평에 있는 유동리 박정연 집에 숨어 있다가 일본 헌병대에게 체포되었는데, 260) 이는 이은찬 부대가 양주 헌병 분소의 포위 공격을 받아 회암면 귀유리로 가서 일시 잠복하였는데, 일본군이 계속 공격하였으나 이에 맞서 싸우지 않고 포천군 송우리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허위가 이때 송우리로 피신한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송우리에 거주하는 노인회 총무 김경섭(75), 임현화(84)에게 송우리에서 의병전을 벌였거나 허위체포 사실을 문의 하였으나, 이지역에서 의병전을 벌인사실이나 허위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한다. 이어 옛 영평인 현재 포천군에 속한 유동리에 가서 몇몇 주민과 몇몇 박씨 등을 만나서 허위에 대하여 문의하고, 의병전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니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출신 이병열 교장(89)을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하기에 찾아가서 확인한바, 허위가 유동리에서 체포된 사실을 들은바 없으며 의병들이 무림리, 헌병 분견소를 들이쳤다는 것은 어릴때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박씨가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외지로 이사갔다고 하며, 그런말을 들은바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에 와서 이곳에서 의병들의 항일전쟁 사실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곳 유동리 어느 곳에서 항일전쟁의 영웅 13도창의 대진소의 군사장이며, 2차 서울탈환작전 총대장 허위께서 우리를 나무라는 것과 같아, 슬픈 마음 몸둘바를 모르겠다.

(4) 이은찬의 양주군 동두천을 중심으로한 항일전쟁

(가) 이은찬, 유인순 의병 부대는 양주군 이담면 축산리에서 일본 헌병을 습격한후 의병부대를 2대로 나누어 이은찬은 1대 100여명과 함께 적성군을 경유하여 천현면 후발리에 도착하여 부근 산정상에 몇 개의 초소를 세우고, 일병에 대비하였다. 그러자 이

258) 신용하 「한국항일 독립운동사 연구」 「1차 탈환 작전」 2004. 3. 20 P.22

259) 東豆川市 郷土誌 「우리지역의 義兵活動」 1988 P.79

260) 許蔭 선생 碑文

정보를 듣고 파주 주재소 순사는 문산 주재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은찬, 유인순 부대를 향하여 일제 공격을 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싸웠다.

15일 양주 후발리 전투후 포천으로 이동한 이은찬, 유인순 의병부대 300명은 포천 군 서면 내동과 가산면을 습격하였다. 다시 1월 19일에 이은찬은 김봉수와 함께 양주 군 율목리에 가서 동장에게 ‘우리들은 황제 폐하의 의주행에 관하여 결사대를 조직하여 이를 지지하려고 하니, 그렇지 않으면 폐하는 반드시 일본으로 납치되어 대한제국은 완전 파멸 할것이다’ 라고하며 활동비, 의류 30점을 조달하라고 명령하였다.

1월20일에 부하 7~80명을 거느리고 양주군 회남면 모정구에 주둔하면서 양주군 주내면 면장 조정후에게 화약대금 2천냥(40원)을 21일까지 제공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면장은 금액이 많다고 경성으로 피하였다. 1월24일에는 양주군 이담면장에게 군량미 30석을 요구하였다. 1월25일에는 의병부대 170여명은 양주군 석전면 하동에서 일본군 경찰대와 양주 경찰서 연합대와 교전하였으며 27,28일에는 석적면 덕둔리에서 헌병대와 교전하였다. 이와같이 교전하면서 이은찬 부대는 군자금과 군량미를 확보 준비하였으며, 일본군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1월30일에는 이은찬이 부하 6명을 시켜 양주군 별내면 면장 유연수에게 전에 요구한 군수품 6백원 모금을 재차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날 유인순 의병부대 10여명이 양주군 둔야면 ²⁶¹⁾누원을 습격하여, 인근 동민에게 전주를 제거시키려다 의정부 헌병분견소에 발견되어 일본 헌병대와 교전한후, 삼각산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이은찬은 김춘식, 맹군집, 윤인순, 오수면 등의 의병장들과 함께 200여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은찬은 부하 50여명을 인솔하고 양주 포천방면으로 유인순은 20여명을 거느리고 양주, 파주 방면을 정용대는 포천군 무림리에서 이은찬과 헤어져 가평, 영평군 방면으로 분산 이동 하였다.

2월 4일 포천 무림리에서 의정부 헌병대와 전투를 버린후 이은찬 부대와 헤어져 가평군과 영평군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2월 6일 이은찬 의병 50여명은 양주군 어등산에서 일본 경찰 川野와 교전하였다. 이은찬은 100여명의 의병이 포천군 무림리에서 양주 헌병 분견소원과 전투를 버렸다. 2월 13일에는 이은찬이 부하 6~7명을 양주군 이담면에 보내 조석근을 처형하였다. 이은찬 정용대 의병부대는 3월1일 부하 80여명을 인솔하고 양주군 고주내면 원랑리에 잠복하였다.

양주 헌병분견소에 연락 합동 출동하여 포위 공격하였다. 이은찬 부대는 이에 의군

261) 현 의정부시 다락원

과 합동하여 회암면 귀율리로 이동 잠복해있다가 일본군이 사격해오자 이를 피하여 포천군 송우리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3월 4일에는 이은찬 정용대 의병100여명이 포천군 외소면 무림리에서 양주군 의정부 헌병의 공격을 받고 30분만에 퇴각하여, 3월 6일 양주군 어등산면 현암리에 잠복하고 있었다 이때 양주 경찰서 소속 下野토벌대가 어등산면 현악리로 통하는 길로 의병을 추적하여 의병과 교전 30분만에 의병측에서 전사자 1명을 내고 퇴각하였다. 현암리 전투가 이은찬 의병장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5. 포천 지역

화서 이항노(華西 李恒老)의 문인인 면암 최익현이 명성황후의 시해와 함께 개화파 내각에 의하여 단발령 강행과 복제개혁에 반대하여 위정척사, 척왜척양(衛正斥邪 斥倭斥洋)의 기치 높이 들고 1906년 6월 4일에 고향 포천에서 이곳에와 태인(泰仁)에 있는 무성서원에서 거병하였다. 이와 같이 포천의 면암 최익현은 의병 기병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포천지역에서는 19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병들의 항일 전쟁을 시작하여 1911년까지 계속하였다. 이은찬, 윤인순, 정용대, 황재순, 강기동을 중심으로 포천, 영평, 양주, 적성 등지로 넘나들면서 항일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지면관계로 중요한 항일전만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가. 포천을 중심으로한 항일전쟁

포천지역에서 처음 의병전쟁이 시작된 것은 1907년 9월20일로 포천군 외면 송우리에서 의병 100여명이 내습하여 마을의 한 사람을 총살하고,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후 일진회원 1명을 납치하자 포천 주재소 순검 신석주가 그곳 수비병과 함께 추격하였으나, 의병을 놓쳐 버렸다. 262)

이때 총살된 자와 중상을 입은 자는 일본경찰서 밀정인 듯하다.

9월 30일에는 의병 30명이 영평 분파소를 습격하여 순검 김도석, 김종업, 김공리 등을 살해하려다 영평군 주사등의 애원으로 대검만 빼앗은후 석방시켜주고 광정리에 토착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나선봉을 납치하여 가평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 의병장은 조인환이요, 임진장 유역을 중심으로한 원회종, 김태목 의병장으로서 포천지역과 관련이 있었다.

10월4일에 의병 50명이 포천 동쪽에 있는 현등사 부근에서 일본 청평천 수비대 소속 木村 소위가 인솔하는 1개 소대와 싸웠고 5일에 또다시 木村 소위 부대와 싸웠다.

262) 「군폭도지 편찬자료」

음력 10월 12일 김순복이 이은찬 의병부대가 의병 50명과 함께 포천군 내동면을 습격하였다. 궁촌리 태생인 유생 이홍응(李洪應)은 허위(許薦)의 수하로 활동하다가 허위 피체후 진동대장(鎭東大將)이라 칭하고, 영평군 서면을 습격하고 12월에는 양주군 이담면 축산리 태생 유생인 김연성(金演性)의 의병 40여명과 함께 포천군 서면 왕방산 등지를 습격하였다. 김연성은 충남관찰 도주사 및 양주군 지방위원을 역임 1907년 황순인의 권유로 거병하여 양주, 가평 포천군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하였다.

1907년 9월부터 12월까지 포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부대는 조인환, 이홍응, 김연성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을 근거지로 포천지역에서 소규모 산발적인 전투를 버렸다.

1908년부터 허위, 이은찬, 김수민이 경기 북부와 임진강 유역을 근거지로 이동 해움에 따라 포천은 의병 항일전쟁의 전성기가 되었다. 이은찬 등이 포천을 주된 활동 무대로 한것은 13도 창의 대진의 2차 서울탈환작전 실패이후 부터이다. 그는 13도 창의 대진소 조직에 주도적 역할하였다. 이은찬은 이구채와 함께 1907년 9월 문경에 은신해 있던 경기 여주 출신 유생 이인영(李麟榮)을 초치하여 관동창의 대장으로 추대하여 연합의병을 형성하였으며 13도 창의 대진소의 서울탈환 작전은 이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1월 19일에 岡崎중장이 막료 2명과 함께 재경성 보명제 51연대 제7중대를 이끌고 포천부근 의병 소탕작전을 지휘 하였으나 의병의 격렬한 저항으로 성과없이 21일 귀경하였다. 3월 29일 영평 서쪽 10리 지점에서 의병 150명이 영평수비대와 교전하여 의병 30명의 사상자를 냈다.

허위의 2차 서울 탈환작전에서 몇 차례의 서울 공격을 단행하였으나, 그때마다 동두천과 의정부 부근에서 일본군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와같이 축령지구대를 등지고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일대에서 평성되어 있던 연합 의병은 1908년 6월11일에 영평에서 허위가 체포된후 연합군이 해체되자 소부대 단위로 편성하여, 소규모 유격전으로 항일 전쟁이 바뀌어갔다.

6월 22일 의병 100여명이 포천읍을 습격한다고 하면서 청원면 금리에 집결하고 있다는 급보를 접한 포천주재소 순사 北村은 수비대에 연락하여 순사 尾澤과 유근직등 2명을 인솔하고 출발도중 宮崎中尉가 인솔한 1개 소대와 합류하여 고금리 북방 고지에서 3시간에 걸쳐 격전을 벌였다. 7월 4일에는 의병 40명이 포천군에 내습하여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하였으며 이어 의병 80명이 포천군 내동면 소작리 부근 장거리에서 항일전을 버려, 전사자 5명과 부상자 30여명을 내는 격전을 버렸다.

허위 피체후에도 포천군 내에서 의병 활동이 끊이지 않자 일제는 내부 교란작전을

실시하였으니, 이는 1907년 가을 부터이다.

이은찬이 박순근 이운명 등을 모아 스스로를 중군(中軍)이라 칭하고, 포천, 영평, 가평, 양주 등지에서 항일전을 버리자 이완용이 경남 감찰사와 내부대신을 임명 한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이어 일제는 포천군의 기독교 신자 최구립을 통하여 이은찬을 귀순시키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1908년 8월 20일 吉江中尉와 하우상의 권유로 박순근 임군명등 120여 의병이 귀순하여 포천군과 임진강의 연합부대에게 큰돈요가 있었다. 9월 20일에 한인광부가 단발한것을 보고 국적으로 알고 총살하였으며, 9월 26일에 영평군 북면 대화산에서 의병 50명의 일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연기우가 인솔하는 의병 50여명과 김복규의 의병 60명이 포천 지역에서 연합군을 편성하여 전투를 벌였다. 일동면 화대리에서 의병 활동을 밀고한 이영석을 총살하였다.

1908년 10월부터 이은찬, 윤인순, 정용대의 항일전이 활발하여 이지역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으나, 이은찬이 허위 피체후 동요되었던 의병부대를 수습하고 자신을 정점으로 하여 항일전쟁을 전개하였다.

1908년 10월 10일 이은찬은 김수민과 함께 의병 50명을 이끌고 포천군 송우리에 나타나 신곡의 수출을 금하는 방곡령을 선포하여, 의병의 기세를 올리는데 힘썼다. 이것은 의병의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한 조치이었으나, 이에 불응하는자가 있는듯 의병의 전황을 일본 수비대에 밀고한 궁촌리에 거주하는 김치범을 총살하였다.

12월 3일 이은찬, 김교정, 유인순 연합의병 120명이 가평군 상명 서파동 도로변에 매복하였다가 일제 사격을 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격렬한 싸움으로 선봉장 김선봉장 등 6명이 전사하였다. 그는 한국군 보병소위 출신으로 연합군 참모장이었다. 이은찬은 가평군 상면 사파선 전을 비롯하여 양주군 고주내면 광수리 전투에 이어 80명 부하를 거느리고 의병의 항일 전쟁을 반대 주동한 동장 김재기를 처형하고, 12월 15일에 유인순과 연합하여 150명 부하와 같이 포천 산내면 통과하면서 미곡징발서 2통을 배부하고 12월 19일 유인순과 연합한 140명은 퇴계원 현병 분건소에서 교전중 2명이 부상하였으며, 또한 130명 부하와 같이 퇴계원에서 퇴각한 현병과 전투하였으며 부상자 7~8명을 냈다. 이에 일군은 이를 막고자 양문리와 강원도 지포리 간을 연결하는 경비 전화를 개통시켜 일본군의 병력기동성을 강화하여 의병의 항일전을 어렵게 하였다. 1909년 · 1월 4일 부하 200명이 포천 분건소 수비대와 싸웠다. 1월 7일에는 양주군 이담면 축산리 현병 분건소를 습격하고 1월 4일 포천 수비대를 습격한 의병 400명은 7일 양주군 동두천 소재 현병 분건소를 습격하여, 이때 일 현병 4명과 보조원 약간명

이 행방불명되었다. 1909년 1월 8일 강원도 금수대장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김화부대 江口중위 이하 16명

삭령부대 특무조장 이하 16명

철원부대谷소위 이하 10명

포천부대 香月중위 이하 10명

적성부대 특무조장 이하 11명

용산부대 우익부대 古川대위 이하 10명

좌익부대 하사이하 6명등으로 편성하여 의병토벌 작전을 감행하였다.

나. 포천지역에서 항일전쟁을 행한 의병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지역 의병장의 이름·직업·출신지역·부대규모·활동지역

이름	직업·신분	출신지역	부대 규모(명)	활 동 지 역
姜 基 東 (基 周)	헌병보조원	서울 명동	20~30	양주·포천·영평·양평· 용인·광주
高 在 奭				양주·포천·광주
權 東 說				양주·포천·광주
金 敎 盛	상 인	포천	30~80	영평·포천·가평·양주· 광주
金 貴 孫	농민·순교	파주군 천현면	10·40	풍덕·양주·적성·파주· 포천·영평
金 白 山				연천·포천
金 秀 敏 (守民·洙敏)	농 민	장단군 소남면	300	장단·개성·마전·풍덕· 강화
金 演 性 (範 一)	유 생 (문학박사)	양주군 이담면 죽산리	40~50	포천·파주·양주·영평· 적성·연천
金 應 斗				적성·가평·지평
金 俊 植	하 사			양주·포천
金 溱 默 (容 默)		양주	300~400	평강·신계·삭령·적성· 안협·토산·양주·파주· 적성·고량포
朴 來 秉	유 생	가평군		양주·포천
朴 順 根	승 려	서울 장동	13~120	영평·포천·가평·양주· 고양
朴 宗 漢	특무정교		10~50	지평·적성·가평

(宗 煥)				
朴 八 岩	양 반			영평 · 포천
成 主 事				양주 · 포천 · 광주

이 름	직업 · 신분	출신지역	부대 규모(명)	활 동 지 역
延 基 羽	군인(강화 진위대 부교)	삭령	30~90	장단 · 마전 · 포천 · 삭령 · 연천
王 會 鍾		연천군 미산면	300~400	양주 · 파주 · 적성 · 연천
柳 文 在	농 업	포천군 청송면		양주 · 포천
尹 仁 淳	농 업	양주군 석적면	20~200	양주 · 파주 · 적성 · 포천 · 영평 · 연천 · 삭령 · 금천 · 배천 · 연안
李 建 七 (根 七)	병 사		7	파주 · 양주 · 적성 · 고양
李 明 鎬 (允 明)			8~13	적성 · 포천 · 양주
李 延 年	양반 · 농업	지평군 마천	14	지평 · 양근 · 여주
李 殷 明		양주	8	양주 · 파주 · 적성 · 포천
李 殷 瓚	유 생	강원 원주군 부흥사면	50~300	포천 · 양주 · 연천 · 삭령 · 금천 · 배천 · 연안
李 洪 應	유 생	포천군 청송면	십수명	적성 · 마전
田 聖 瑞			8~15	적성 · 파주 · 양주
鄭 用 大	구한국군정교		30~40	적성 · 양주 · 풍덕 · 교하 · 포천
曹 仁 煥	양반 · 상인	양평	400	파주 · 양주 · 적성 · 이천 · 양근
許 蔦	성균관 박사 평리원 재판장 (대법원장)	경북 선산군	50~500	연천 · 적성 · 양주 · 파주 · 포천 · 삭령 · 철원 · 이천
洪 元 裕	구한국군	서울	15	적성 · 파주 · 양주 · 포천
黃 順 一	포 군	양주군 고추내면	100	양주 · 포천 · 가평 · 영평 · 적성 · 연천
黃 在 浩	구한국군 보병하사	포천군 산내면	30~80	포천 · 양주 · 가평 · 양근 · 적성 · 영평 · 연천

(2) 포천지역 의병의 이름·나이·직업·출신지역·소속의병부대·활동지역

이름	나이	직업 신분	출신지역	소속 의병장	활 동 지 역
姜元浩	28	농업	평북 강계	강기동	양주·포천
權承默	39	농업	포천군 청송면	강기동	적성
金巨福	23	농업	장단군 고량포	김수민	양근·장단
金京錄	29	농업	장단군 고량포	윤인순	파주·양주·적성
金福吉	35	농업	포천군 내동면	강기동	포천
金三石	39	질그릇행 상	포천군 군내면	윤인순	포천
金守同	34	농업	포천군 서면	황재호	양주·포천
金順福	28	농업	포천군 내소면	이은찬	양주·포천
金海龍	29	농업	풍덕군 남면	윤인순	파주·양주·적성
金顯基	21	농업	강원 화양군	정용대	양주
白永賢	27	목수	양주군 석적면	정용대 윤인순	양주
徐春萬	25	무직	포천군 상송우리	윤인순	고양
宋炳台	31	-	연천군 군내면	연기우	영평·포천
宋昌根	23	농업	양주군 덕도리	윤인순	양주
申寬秀	25	농업	풍덕군 남면	정용대	통진·교하·풍덕·연 안
安慶肅	37	농업	양주군 고주내면	-	포천·양주
魚鳳善	20	농업	양주군 석적면	윤인순	포천
尹致大	35	무직	포천군 천현면	윤인순	고양
尹泰山	19	농업	포천군 내소면	이은찬	양주
李今玉	45	농업	포천군 화산면		포천·양주
李白元	29	농업	포천군 청량면	이은찬	포천·양주
李思容				정용대	양주
李思仁	23	학구업	포천군 가산면	이은찬	양주
李用奎	24	무직	양주군 석적면	홍원유	양주
李仁植	43	농업	장단군 서도면	김수민	장단·마전·삭령
李章福				정용대	양주
李宗根	40	농업	통진군 양릉면	정용대	통진·교하
李周文	46	무직	경성 서부	이은찬	양주

(周 鎬)					
李 昌 根	33	농업	장단군 강란면	김수민	장단
李 致 玉	30	농업	용인군 천곡	정용대	고양·교하
李 學 善	24	술장사	여주군	정용대	교하·풍덕·김포·통진·부평
全 福 奎	32	농업·유생	연천군 서면	김수민	연천·마전·장단
鄭 錫 萬	26	농업	포천군 화산면		포천·양주
鄭 忠 煥	22	-	한성부 동부	황재호	양주·포천
趙 三 龍	47	무직	포천군 송우리	강기동	양주
崔 起 西	24	소금장사	장단군 고량포	김수민	연천·마전·장단
韓 用 成 (永 台)	33	차부	포천군 서면	-	포천·양주
韓 仁 秀	30	농업	양평군 북면	전성서	양주·포천·영평·적성·연천
洪 俊 成	22	무직	개성군 북부	윤인순	적성·양주

나. 각종 통계에서 보이는 결과

(1) 지역별 의병수

병수	4	21	41	61	81	101	171	191	211	251	271	301	351	401	501	601	801	미 상	계
지역	20	40	60	80	100	170	190	210	250	270	300	350	400	500	600	800	1500		
의정부	9	11	4	3	2			3			2		2		1		1	12	50
양주																			19
동두천																			61
포천	6	4	2		2	2	1		1				1	1	1	2	1	8	32
계	15	15	6	3	4	2	1	3	1		2		3	1	2	2	2	20	82 (162)

상기표에서 20~40명 소규모 부대가 찾아 하는 비율이 각기 25%이고 60명 규모가 10%이며, 200명~300명 규모가 각기 0.5%이며, 1500명 대규모 부대가 0.1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규모 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지역에서 유격전을 통하여 여러지역에 설치된 헌병 분견소와 주재소 친일파를 추출하기 위한 항일전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부대의 비율이 적은 단위 부대로서 일본대규모군과 항일전을 통하여 일제를 추출하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 단체로 본다.

(2) 연령별

연령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계
----	----	-------	-------	-------	-------	-------	-----	---

지역								
의정부								
양주	1	37	15	5	2	1		61
동두천	2	8	5	2		2		19
포천	1	18	11	4				34
계	4	66	32	11	2	3		114

상기 표에서 20대가 52%이고, 30대가 28%이며, 40대가 2.8%, 19세 0.35%, 60세 0.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30세가 의병의 주력을 이루고 특히 19세이하~60세 이상의 비율이 비등한 것은 노소가 다같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의병이 되어, 항일전쟁에 참가한 것을 나타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3) 직업별

구분 지역	농업	군인	유생	헌병보조	양반	학생	순교	승려	창본	경무사	상업	목수	소장수	주사	고용자	백두두령	술장사	질그릇상	무직	미상	계
의정부	1	15	3		2		1	1	2	2	1		1	1		1				18	50
양주	37	1	1			1					7	1			1		1		6	7	61
동두천	13		2								1									3	19
포천	22		2	1	3						1	1			1		1	1	5	4	32
계	73	16	8	1	5	1	1	1	2	2	10	2	1	1	2	1	2	1	11	32	162

상기 표에서 볼때 농업의 비중이 월등이 크고 해산군인 그 뒤를 차지하고 유생과 양반 또한 크며, 심지어 술장사, 질그릇상, 소장사까지 신분의 제한없이 전국민이 의병이 되어 일제와 싸워 상실된 국권을 찾기 위하여 총궐기 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이다.

(4) 지역별 의병장 및 부대규모

구분 지역	의병장 서명	직업 신분	부대 규모
서울 지역 (3)	강기동 박순근 홍원유	헌병보조 승려 구한국군인	20~30 13~120 10

구분 지역	위병장 서명	직업 신분	부대 규모
파주 (1)	김귀손	농업	10~40
장단	김수민	농업	300

포천 (3)	김교성 이흥응 황재호	상업 유생 구한국군인	30~50 10~ 30~80	(1)			
				삭녕 (1)	연기구	강화 진위대	30~90
				연천 (1)	황희준		300~400
양주 (5)	김연성 김진목 유인순 이은영 황순일	유생 농업 포군	40~50 300~400 20~300 8	강원 원주 (1)	이은찬	서울탈환 작전계획	50~300
				경북 상주 (1)	허위	13도 의군 군사장	50 ~500

상기 표에서 볼때 의병장 17명 가운데 양주 포천지역 출신은 8명이고, 인근지역 출신이 3명, 의병 규모면에서 본지역인 양주지역이 300명 이상의 의병을 거느린 의병장이 2명으로서, 거의 타지역 출신의 의병장이 본지역에서 항일전쟁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강원, 경북출신 의병장이 두드러진다.

VII. 결 론

1.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탈취당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의병의 항일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당시의 일본과 우리 나라의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 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일본

신진 세력에 의하여 1867년 왕정복고(王政復古)를 이루어져 일왕(日王)을 중심으로 국론의 통일을 가져와, 1871년에 정부 요원 50%이상을 유럽 선진국에 시찰시켰다. 이때 독일을 방문하였을때, 비스말크가 말하기를 ‘국가간의 도의는 외교적인 표현에 불과할뿐, 실재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는 피와 철이 있을뿐이다.’ 고 말한것에 충격과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지금까지 선진국 중국으로부터 배우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선진국 유럽 특히 독일에서 우선 배워 단발과 복제 개혁을 실시하여 전각원이 이에 따랐고, 1870년 학제 개혁과 1871년에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산업근대화로써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루었다. 이어 1902년 일영공수동맹(日英攻守同盟)을 맺어 세계 각국의 식민 정책에 눈을 돌려 우선 우리나라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식민 정책의 독수를 뺏기 시작하였다.

나.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서 다투어 식민 정책에 혈안이된 국제정세를 모르고 1886년 척화비를 세워, 세계에 문호를 여는 것을 굳게 닫고 명나라를 받들어, 위정척사(衛正斥邪) 로써 명분을 내세워 척왜척양(斥倭斥洋)을 주장 일본과 서양을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로 알고 개화 신진세력의 정책을 배격하여 산업 근대화와 군사력의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것도 모르고 명분을 들어 하늘찌르는 위기(義氣)를 내세워 반대하니, 오늘날의 눈으로 볼때 도저히 이해 되지 않은 단발령과 복제개혁 등 개혁 정치에 대하여 신구세력으로 분리되어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양보와 타협없이 목숨을 걸고 반대로서 분열하여 국론(國論)의 통일(統一)을 가져오지 못하고 끝내 나라를 결단내고 마는 민족의 비극을 자초했다. 이는 동양의 증자(曾子)라고 칭송받던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가 밀파한 요화 금화에 놀아나 나라를 결단냈고, 고구려에서는 영류왕의 북수남진(北守南進) 정책에 맞서 연개소문이 북진남수(北進南守)정책으로 서로 대립하여 급기야 연개소문이 구테타를 일으켜 이를 반대하는 영류왕 등 100여명을 살해하는 등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고, 심지어 그 아들 남생 남건이 분쟁을 일으켜 끝내, 고구려가 멸망하여 죄없는 국민 35만명이 평양에서 중국 조양에 끌려가는 비극을 가져왔고, 임란에서 동서 대립에서 왜란을 막아 내지 못하여 죄없는 백성 20만이 끌려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는 비극을 가져왔으며 지나친 예론으로 호란을 막지 못하고, 지나친 명분을 내세운 국론분열로써 나라를 결단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해 또다시 국권을 탈취당하는 비극을 자초하였다. 이에 의병이 구국 전선에 나서게 하였다.

2. 의병의 항일전쟁이 주는 교훈

초기의 의병전은 위정척사와 척왜척양을 내세워 명성황후의 시해에 대한 복수와 “신체발부는 수지부모” 라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상투” 는 효의 상징으로서 내목을 찢를지 언정 상투는 찢를수 없으며, 500년 전통으로 내려오는 복제를 개정하여 짐승과 같은 오랑캐인 왜놈과 양인은 될수 없다고 전국의 유생을 필두로 거병으로써 반대하였다. 화서 이항노의 문인, 면암 최익현과 의암 유인석과 그제자와 같이 반대하였으며, 제일먼저 제천에서 거병하였으나, 패배하고 이어 면암 최익현이 태인에서 반대 거병하여, 응소자가 800여명에 이르렀으나 교전이 시작되자 모두 흐트러지고 불과 11명이 남아 실패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실사구시(實事求是)가 무시된 위정척사 척왜척양의 하늘을 찢르는 높은 기개와 의기(義氣)는 서양 과학문명의 산물인 양총과 잘훈련된 힘

있는 군사 앞에 무력하여 맥없이 무너진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이들의 義氣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항일전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었다.

3. 十三道 倡義 大陣所의 서울 탈환 작전의 실패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행하던 의병 항일전쟁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연합군에 의한 항일 전쟁으로 전개하는 한편 서울탈환 작전을 감행하기 위하여 이인영(李麟榮)을 총대장으로 전국 13도 의병장들로 하여금 13도 창의 대진소를 편성하였다.

우선 서울 탈환 작전을 감행하기 위하여 1907년 1월 15일에 각도 의병장이 각기 의병을 거느리고 동대문밖 30리 지점에 있는 양주(楊州)에 집결하여 음력 정월을 기하여 서울 탈환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상기 사항이 교활한 현지 친일 악질 밀정의 밀고에 의하여 사전에 탐지되어, 일본군에 보고되어 군사장 허위가 목적지 양주(楊州)에 침공하는 도중에 우선 동두천에서 일군의 저해를 받고 또다시 도중에서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매복된 일군과 격렬한 격전을 벌여 부장 김귀순과 부장 연기우가 부상당하는 등의 많은 피해를 입는 격전을 벌였다.

총대장 이인영이 역시 30여회의 일군의 저해를 받아가며 1주일이 늦은 1월 28일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머지 의병장은 일군의 방해로 기일내에 목적지에 도착 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이인영의 부친 사망 소식을 듣고 충와 효는 같다고 하며, 장례를 치르기 위한 효를 위하여 목전의 탈환 작전을 중단하는 등 제반사항을 군사장 허위에게 일임하고 귀가하였다. 적과 마주해 최전선에서 장병을 총지휘하던 총대장이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효를 위하여 귀가 한다는 것을 전세계 고금을 통한 전쟁사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만류하는 측근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국가 존망을 눈앞에 두고도 장례를 치르는 효를 위하여 귀가하는 것이 옳다고 만류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이 당시 유학자의 근본사상이요, 국가관이라고 본다. 이는 심히 잘못된 것으로 국권상실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 본다.

군사장 허위의 2차 서울탈환 작전실패 역시 군사력과 무기의 열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1차대전과 같이 간교한 현지 친일 밀정의 정보 수집과 제공 등에 의하여 작전 계획이 노출된 것이 실패의 근원이 된것이다. 더욱이 2차 탈환 작전때는 더욱 헌병 보조원 순검 현지의 교활하고 악질적 친일 밀정의 사전 밀고가 구체적이어서 이에따라, 본국 육군 대신의 명에 따라 속사포 기관총으로 중무장된 잘훈련된 천문학적 수의 병력을 파견하여 의병토벌대를 편성하여 4,000헌병 보조원을 여러 조의 의병으로 변

장하여 의병의 은신처를 탐색, 은신처를 수색하고 의병과의 교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경찰을 도와 의병의 은신처를 밀고 등으로 일병의 의병토벌 작전을 도왔다. 서울 탈환 작전은 이와 같이 동족인 친일 순검 헌병 보조원 현지친일 밀정의 밀고에 의하여 사전 계획이 노출되어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였다.

4. 의병의 항일 전쟁에 대한 국민의 방관적 태도와 이가 주는 교훈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친일과 순검 헌병보조원 악질 친일 밀정이 활동 할 수 있는 풍토가 존재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이다. 만일 전국민이 합심 협력하여 의병전을 도와 상기자들이 발붙일 곳없는 풍토가 조성되고 전국민이 의병전을 도왔다면 의병전은 끝내 승리를 가져와 상실된 국권의 회복도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병이 되어 항일전쟁에 참전 한다는 것은 국가적 보호나 명예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폭도로 낙인 찍히거나, 전사하거나, 직결처분으로 총살되거나, 형식적인 재판에 따라 교수형을 받거나, 고문 치사 되거나, 복역하다가 불구자가 되어 석방되어 불구자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의병의 운명인 것을 알면서도 오직 빼앗긴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결연이 참전한 것이 우리 국민이요, 의병이 준 교훈이다. 국제적으로 교전단체로서 인정받았다면 이렇게 외로운 항일 전쟁은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13만 젊은 호국 영령이 잠들어 계시는 동작동 국립묘지와 광복군 선열 묘지 그리고 4.19민주화 묘지를 참배하고 이를 돌아보며 젊음과 내 목숨을 내 민족 내 나라에 바친 16,700여의 호국 영령과 전사자 36,770명 의병들은 저렇게 국립묘지에 편히 잠들어 계시지도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우러름조차 받지 못하는 잊혀진 외로운 호국영령을 그리며 민족의 영웅, 의병을 우러러 모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들을 위한 국립묘지 조성과 전시관 기념탑이 세워져, 의병들의 호국 영령이 편히 쉬고 잃어버린 명예가 새로워져 전국민이 우러러 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 형식에서 벗어나 일반이 읽기 쉽게 서술형으로 긴 여정을 끝맺음한다. 국익보다 우선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명분을 들어 국론의 분열을 가져와 나라를 결단내는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와 민족에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이 글을 맺음한다.

2009년 7월 20일

참고 문헌

1. 基本資料

義兵運動史 金義煥

抗日獨立運動史 研究 愼鏞廈

許蔦全集

韓末 13道倡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各市郡誌

2. 著書

韓國獨立運動史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大韓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

資治通鑑 (4)

韓國古代史 申采浩

中國正史 朝鮮傳 註譯(二)

詳說日本史研究 笠原一男

騎驢 隨筆

大韓每日申報

市政四十年史 議政府 文化院

東豆川市史 東豆川市史編纂委員會

楊州郡誌 楊州郡

抱川郡誌 抱川郡

廣州郡誌 廣州郡

楊平郡誌 楊平郡

漣川郡誌 漣川郡

坡州郡誌 坡州郡

平山郡誌 平山郡

延白郡誌 延白郡

東豆川市 鄉土誌

사진으로 본 獨立運動 (上)

매국노 송병준(宋秉駿)이 용인에 남긴 자취 소고(小考)

-전통정원 영화지(映華池)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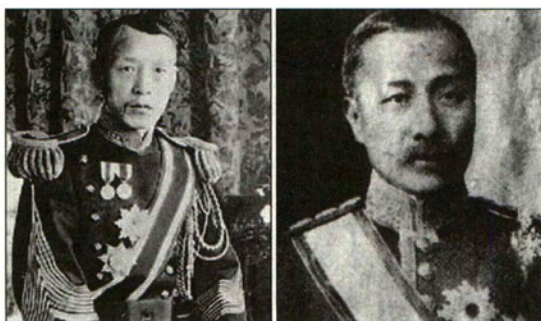
김 장 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목 차 >

1. 서언
2. 송병준에 대하여
3. 송병준과 용인의 인연
4. 전통정원 영화지 분석
5. 결언

1. 서언

이완용(李完用)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 파인 송병준(宋秉駿)은 그 출생이 미천했지만 자기만의 처세술과 임기응변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입지전적 인물이다. 국 제정세와 일본의 실체를 재빨리 파악한 송병준은 강화도조약 이후 철저한 ‘일본통’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워 일본의 조선침탈에 협력했으며, 일진회(一進會)를 이끌며 고종의 퇴위와 한일합병을 적극 추진한 인물이다.



그런 송병준이 용인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용인에 남겨진 그의 자취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본고의 집필 동기이다.

송병준이 1889년 양지현감(陽智縣監)으로 부임하여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대를

이어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고 곳곳에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저택 가까운 곳에 조성해 놓은 영화지(映華池)이다.

영화지는 조성되었던 당시의 형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간정원이 충청 이남, 특히 영호남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중부지방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희소의 가치도 있다고 하겠다.

먼저 송병준의 생애를 추적해 보고 용인과 관련된 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송병준에 대하여

송병준(宋秉峻)의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호는 제암(濟庵)이다. 1857년(혹은 1858년이라고도 함) 8월 20일 함경남도 장진에서 출생한 송병준의 아버지는 장진군 속리(屬吏)인 송문수(宋文洙)였고, 생모는 덕산 홍씨인 기생이었다고 한다. 부친 송문수와 본처(濟州高氏)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나, 너댓 명의 첩을 두었기 때문에 송병준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셋이나 있었다.

어린 시절에 우연히 민태호(閔泰鎬)의 눈에 띈 뒤로 그를 배경으로 하여 출세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 1871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수문장청(守門將廳)에 배속되었고, 1873년에는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사(都事), 1874년에는 훈련원(訓練院) 판관(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 송병준은 접견사의 수행원 역할로 조약에 참석하였는데, 이 때 일본측 수행원인 오쿠라(大倉喜八郎)를 만나게 되었다. 오쿠라(大倉喜八郎)는 메이지 유신 무렵에 무기를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남겼던 군납업자였다. 이때의 친분으로 1877년에 오쿠라(大倉喜八郎)는 송병준을 앞세워 부산에서 고리대금업과 무역업을 겸하는 부산상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부산상관은 군중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이에 생명을 위협을 느낀 송병준은 일본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의 습격 대상은 송병준이 아니라 개항장을 중심으로 심한 횡포를 부렸던 일본 상인들이었다.²⁶³⁾

이후 조선에서는 박영효(朴泳孝)를 정사(正使)로 하는 수신사(修信使)를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송병준은 박영효의 도움으로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송병준은 당시 일본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등 풍부한 경험의 ‘일본통’이 되어 있었는데,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는 송병준의 이러한 경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²⁶⁴⁾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박영효·김옥균(金玉均)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는데, 송병준은 이들을 암살하라는 밀명을 받고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송병준은 오히려 김옥균과 동지가 되어 귀국하였다. 1886년에는 김옥균과 ‘공모’한 혐의로 일시적으로 투옥되었으나 민영환(閔泳煥)의 주선으로 풀려났다.

이후 민비의 총애를 받아 흥해군수(興海郡守), 양지현감(陽智縣監), 은진군수(恩津郡守) 등을 거쳐 1891년에는 장위영(壯衛營) 영관을 지냈다. 무과출신인 송병준에게 있어서 수령을 지냈다는 점은 곧 출세 길을 보장받았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⁶⁵⁾ 왜냐하면 일본이 고등관리 중 유일하게 조선인으로 충원하려 한 것이 바로 군수 자리였는데, 이 때문에 조선인으로서 사회적 명망을 얻기 위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군수—참서관—지사’로 승진하는 방법, 혹은 사법관이 되는 방법뿐이었기 때문이다.²⁶⁶⁾ 송병준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자 민씨 세력으로 지목된 송병준에게 체포령이 내려졌다. 송병준은 체포령을 피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노다헤이지로(野田平治郎)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양잠전습소(養蠶傳習所)를 열어 생계를 꾸려갔다.

그 뒤 10여 년 동안 송병준은 조선인 학생들을 양잠전습소로 불러서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일본 고위층과의 교류도 하면서 생활하였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소장 오다니(大谷喜久藏)와 테라우치(寺內正毅)의 고정 군사통역관으로 조선에 귀국하였다가 군납상인이 되어 이권을 챙기기도 하

263) 역사문제연구소, 『인물로 보는 친일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4), p.66.

264)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99인—1』 (돌베개, 1993), p.89.

265) 조선시대 법전인 『經國大典』에 의하면 수령을 거치지 않은 자는 정4품 이상의 품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非經守令者, 不得陞四品以上階”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또한 총독부 관료체계 내에서 수령은 고위관료에 해당하였고, 고등관료의 말단이며 판임관의 승진처이기도 했다.

266) 이송준, 「일제하 조선인 군수의 사회적 위상과 현실 인식」 (일제하 조선인 엘리트의 사회적 기반과 정체성), 한국역사연구회, 2006), pp.58-59.

었다.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자 송병준은 일본군을 배경으로 정치활동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송병준은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작자금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대한제국 내에 친일단체를 만들고 유력인사를 친일화하며, 러일전쟁 과정에서 동학조직을 일본에 협력하도록 하는 일 등등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송병준의 정치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던 중 송병준이 고종황제의 옥새를 위조하여 각종 이권을 챙긴 이일식(李逸植)을 숨겨준 사건으로 인해 통감부 당국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송병준은 이 때 이토(伊藤博文)의 막료이며 흑룡회(黑龍會) 회장이었던 우치다(內田良平)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송병준은 일본 우익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12월, 일본 군부는 윤시병(尹始炳), 유학주(兪鶴柱)의 유신회(維新會)와 동학 이용구(李容九)의 진보회를 병합하여 일진회(一進會)로 개칭하였다. 이때 이용구는 회장으로, 송병준은 평의회 의장 및 지방총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송병준은 일본 우익 단체인 흑룡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를 발판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 송병준은 일본인 여자를 첩으로 얻어 요릿집 ‘청화정’을 열어 정계 및 종교계 인사들을 친일화하는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이곳을 일본인 및 일진회 간부들의 밀회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07년에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송병준은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이 되었다. 이 때 고종이 이준(李儁), 이상설(李相高), 이위중(李瑋鐘) 세 특사를 헤이그로 파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송병준은 칼을 찬 채 어전회의(御前會議)에 들어가 고종(高宗)을 협박하고는 황제 직위를 양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이완용 내각과 결탁한 송병준은 내부대신(內部大臣), 중추원(中樞院) 고문을 역임하였다.

1909년 이토(伊藤博文)가 하얼빈에서 안중근(安重根)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점진적 병합을 주장하던 이토(伊藤博文)가 사라지자 조선을 병합할 좋은 기회를 잡게 된 데라우찌(寺內正毅) 등의 육군세력은 즉각적인 병합여론을 조성하였다. 이 때에 송병준은 이용구와 함께 「합방성명서」를 비롯하여 「상소문」, 「상통감서(上統監書)」, 「상내각서(上內閣書)」 등을 발표하며 병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찌(寺內正毅)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이 조인되었고, 일주일 뒤인 29일에 순종(純宗)은 조약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한일합병이 이루어진 그 해에 송병준은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고 10년 후인 1920년 백작으로 특별 승작되었다. 1925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사후 6개월만에 아들 송중헌에게 백작의 작위를 승계하였다.

일제시대의 귀족 작위는 공작 · 후작 · 백작 · 자작 · 남작 등 다섯 단계가 있었는데, 조선인에게는 공작 작위는 주어지지 않았고, 후작이 이재완·박영효 등 6명, 백작이 이지용·민영란·이완용 등 4명, 자작이 22명, 남작이 45명이었다.

송병준이 노다 헤이지로(野田平治郎) 라는 일본 이름을 1895년 일본에 머물 때부터 사용한 이래, 그의 아들인 송중헌은 야전중헌(野田種憲), 손자인 송재구는 야전태랑(野田太郎)이라 창씨개명을 하였다.

3. 송병준과 용인의 인연

<양지군 최고의 지주>

송병준이 용인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889년 11월 양지 현감으로 도임하면서 시작된다. 그가 양지 현감으로 부임할 당시 양지와 용인은 각기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나 한일병합 후인 1914년 용인군은 양지군 전역과 죽산군 일부를 편입하여 군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송병준은 양지 현감으로 부임한 1년 뒤 추계리(秋溪里)에 저택을 짓고 논밭을 마련하다. 1901년 <양지군 양안>에 의하면 당시 군내의 최대 지주였던 송병준의 아들 송중헌이 소유한 토지는 135필지, 15,275결이었고 88%가 소작으로 경작하였다.²⁶⁷⁾

이때는 양지가 용인군에 통합되기 전인데 해방 무렵 송병준의 아들이 소유한 용인군 관내의 토지가 무려 75만평이었다고 한다. 양지면 추계동에 있었던 웅장한 규모의 송병준 저택과 75만 평에 이르는 토지 소유 상황으로 볼 때 송병준은 양지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가렴주구로 재산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병준은 1920년대에 조선의 100대 재산가의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는 매국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과 중추원 고문 따위의 일제측 급료와 민영환 · 김시현 등의 재산 횡령, 대정권변과 교풍회를 통한 기생 착취 등의 수단으로 용인 지역에 70만여 평의 부동산을 증식 소유하였을 것이다. 송병준은 용인군 양지면의 토지 뿐만 아니라 국내 여

267) <龍人市史> 1.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p 638

기저기와 일본에도 광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대단한 부호였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의 사후 복잡한 송사와 빚 등으로 재산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의 많은 재물이 줄었고 또 해방 직후 아들 송중헌이 양지의 저택과 토지를 헐값에 팔고 서울로 가 살았다.²⁶⁸⁾

<고종이 하사한 99칸 송병준 별저>

양지면 추계리에는 송병준이 양지현감으로 부임해 있던 1891년 고종황제에게 하사 받은 것으로 알려진 99칸의 별저가 있었다. 임야 25만평에 둘러 쌓인 송병준 별저는 조선시대 전통가옥 구조로 지어졌으며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헐리고 새로 지어져 지금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친일파의 대표 격인 송병준의 별저가 소재한 양지면은 항일의병들이 친일파 처단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었다. 의병들은 1907년 8월 송병준 별저를 습격하여 일진회 지회장인 심의혁(沈宜赫)을 타살하기도 했으며 의병과의 교전으로 일본군 다수가 사상하였다. 의병의 공격으로 송병준과 일진회 회원들이 위협을 느끼자 그의 집에 50명의 일본군이 상주할 정도였다고 한다. 양지면 일대 의병들은 1908년까지 약 300명 규모로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²⁶⁹⁾

별저는 광복과 함께 송병준 후손들이 떠나고 폐가로 방치되다가 6.25 전쟁 때에는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상이군인을 위한 정양원(靜養院)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서울 영락교회 정이숙 권사가 매입하여 기독교 수양관으로 사용했으며 뒷 쪽의 산기슭에 지금도 남아 있는 낙원벤엘교회가 당시에 지어졌다. 정이숙 권사의 남편은 선우 영빈(하야시)으로 고향이 평양 낙원동이라서 낙원벤엘이라 하였고 그가 지은 종로2가의 빌딩도 낙원빌딩이다.

저택에서 금박산 쪽으로 500여m 떨어진 곳에 1989년 11월 개관한 한국기독교1백년기념관이 있는데 이곳도 정이숙 권사가 헌납한 10만여 평 부지 조성된 것이다.

오늘날 송병준 저택은 모두 헐리고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종교시설을 건립하고 있어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으나 저택 동쪽으로 조성된 정원 ‘영화지’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268) <용인문화> 2008년 겨울(Vol.7)

269)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4일, 8월 27일, 9월 5일자

송병준 별저는 봄, 가을이면 인근 학교의 소풍 장소가 되고 지방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왔었다고 한다. 송병준의 집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자 추계리 간이역도 그때 만들었다고 한다.

<수여선과 추계 간이역>

송병준과 그의 아들 송중헌이 일제시대에 누린 특권은 실로 대단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수여선의 간이역을 송병준의 집 근처에 개설한 경우이다.

일제시대에 수원에서 여주를 오가는 산업수탈용 횡단철도가 수여선이다. 일제는 이천과 여주 등지에서 생산되는 쌀과 시탄(땔나무, 목재) 등을 수탈해 일본으로 수송할 목적으로 총 길이 73.3km의 수원-여주간 협궤열차를 1931년 12월 1일 개통하였다.

여주 이천 방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수원까지 운반하고 이를 수인선으로 연결하여 인천까지 가서 배편으로 일본에 수송하는 노정이었다.

수여선 역은 출발지 수원역·본수원역(광복후 화성역)·원천역·신갈역·어정역·용인역·양지역·오천역·유산역·이천역·매류역·여주역 등이 있었다.

그런데 송병준의 저택에서 가까운 곳에 추계역이 있었다. 역의 건물도 없는 간이역 형태인데 순전히 송병준의 저택 때문에 생긴 것이 추계 간이역이었다. 수여선이 개통한 것은 송병준이 죽은 후이지만 그의 아들 송중헌이 귀족 작위를 승계하여 ‘백작 송중헌’이라 호칭되고 있었다.

일제시대 백작은 일본인 총독과 일제의 고위 관료들도 특별 예우를 할 정도였으므로 그 위세는 대단했다. 더구나 추계리 송병준의 저택에는 그가 농상공부대신으로 재직하던 1907년 이래 일본 헌병이 언제나 상주하여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

수여선의 추계간이역은 송병준·송중헌이 백작이었기 때문에 설치된 특권의 하나였을 것이다. 일제시대 36년 동안 조선인 한 집을 위해 비록 간이역 형태긴 하지만 면 소재지인 양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추계역을 설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예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예는 일제시대 전 기간을 통해 추계역이 유일했다.

<송병준·송중헌 부자 공덕비>

98년 8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소재하고 있는 양지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인조 잔디 설비공사를 하던 중 송병준 선정비와 그의 아들 송중헌이 직접 쓴 일제 찬양 비석 등 4기의 석물이 발견되었다.²⁷⁰⁾

양지초등학교는 구한말 대한제국 당시인 1908년 4월 1일 사립 추향학교라는 교명으로 설립되어 200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교육기관이다.²⁷¹⁾

학교 정문 바로 오른쪽에 벤치용 돌의자로 사용되던 석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八紘一字²⁷²⁾ 三位 伯爵 野田鍾憲 謹書²⁷³⁾

八紘一字(팔굉일우)는 송중헌의 친필이다. 온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뜻으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건 구호이다. 왼쪽 면에는 開校 30年 記念 昭和 16年 9月 1日 同窓會 後援會 贈呈이라 쓰여 있다. 소화 16년은 1941년으로 양지초등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동창회 후원회가 비석을 기증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당시 양지현감을 지냈던 송병준의 아들 송중헌이 양지초등학교의 모태가 되는 사립 추향학교 설립과정에서 초대 교장을 역임하였고, 1921년 6년제로 편제가 바뀌면서 부족한 교실을 짓기 위해 후원금 5천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학교 동창회에서 제작하여 세운 것이다.²⁷⁴⁾

양지보통학교 당시에는 각 교실마다 일장기 옆에 이 학교를 세운 송병준 백작의 큼지막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또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부설 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발견된 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縣監 宋公秉峻 善政碑

伯爵 宋鍾憲 永世 記念碑

즉 현감 송병준 선정비와 백작 송중헌 영세 기념비이다. 이는 송병준, 송중헌 부자의 공덕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서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조선시대 지방 관료의 공덕비는 지극히 관례적이고 그 자체가 부패의 수단으로 활용된 예가 비일비재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70) <용인시민신문> 2008년 09월 10일자

271) <양지면지>, 용인문화원 2001. p.680

272)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자신의 침략을 정의, 공영, 팔굉일우 등으로 표현하였다.

273) 伯爵 野田鍾憲은 송병준의 백작의 작위를 아들 송중헌이 물려받았으며 중헌의 창씨명이 野田이다.

274) <동아일보> 1926년 12월 28일자

<송병준 가문과 지역사회>

송병준과 그의 삼대(아들, 손자)는 친일과 매국의 삶을 살았지만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있다.

일제시대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에서는 한국 잠업과 제사업(製絲業)의 초기 개척자로 송병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²⁷⁵⁾

송병준은 일본에서 잠업과 실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또 관련 학원을 설치해 조선인들에게 가르쳤으며, 합병 후에는 일제 측의 보조금을 유치해 양지면의 잠업장 설치와 뽕나무 보급에 기여한 바 있다.²⁷⁶⁾

송병준이 남긴 미담 한 토막이 있다. 그는 1913년 4월 부산 해운대 온천에서 요양하였는데 이때 일본인 성천문칠(星川文七)이 송병준에게 빈민구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송은 뽕나무 묘목 2만 그루, 비료 등 2백원 어치 가량을 부산의 빈민 399명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²⁷⁷⁾

추계리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송병준 3대는 지역사회 학교를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도로 및 다리를 준설하는데도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택에 행사나 잔치가 있으면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과 술을 후하게 대접하였다고 한다.

송병준의 손자 송재구(1901-1976)는 1937년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양지면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할아버지 송병준이 양지현감으로 5년간 근무한 관청에서 비록 위상은 격하되었지만 같은 지방관아의 우두머리가 되어 백작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살았던 것이다. 그는 백작의 후손이라는 위세로 상급 관청에서 할당되는 가마니 공출 수량을 줄여주는 등 면민들을 배려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에는 비교적 인심이 후한 편이었다는 추계리 노인들의 회고담을 들어보면, 송병준 가문의 인물들이 친일 매국노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치부한 부자였지만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족과 나라를 팔고 은인의 재산을 강탈한 재물로 약간의 인정을 베풀었다 하여 대대로 지은 그들의 악업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송병준이 악랄한 수단으로 모았던 재산도 이제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케 되었으니 그의 친일 악업도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다.

275) <경성일보> 1928. 5. 26.

276) 합병 직후 일제는 恩賜授産金(은사수산금)이라는 명칭의 산업 장려금을 각지에 주었다.

277) <매일신보> 1913. 4. 17.

<송병준 묘소>

송병준은 1925년 1월 사망한 후 양지의 저택과 가까운 추계1리 인근의 산에 묻혔다. 그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안추계의 저택에서 송병준의 묘까지 길이 잘 닦여 있었고 양쪽 길가에는 벚 나무가 줄지어 심어져 봄이면 벚 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광복이 되던 1945년 봄 벚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누렇게 죽는 나무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광복 직후 서울에서 대학생 20여 명이 내려와 송병준의 묘소에 세워진 비석과 여러 가지 석물들은 파괴해 땅에 묻었다. 송병준의 저택은 임자가 바뀐 탓으로 손을 댈 수 없었다. 이후 묘소로 가는 길이 없어지고 길가의 벚 나무도 점차 사라졌다.

송병준의 묘는 붉은 페인트칠을 당하거나 친일청산을 외치는 사회단체의 표적이 되어 심한 수난을 겪었다. 예를 들면 2005년 10월 18일 인천 지역 17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시민회의 회원들이 대거 몰려와 송병준의 묘지에 '친일청산' 이라 쓴 플래카드를 수십 장 걸어놓고 친일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벌였다.²⁷⁸⁾

2007년 12월 하순 송병준의 후손은 송병준과 관련 분묘를 파악해 유체는 그 자리에서 화장한 후 수습하였고, 약간의 유품도 챙겼는데 현재 송병준의 유체와 유품의 행방은 알 수 없다.

4. 전통정원 영화지 분석²⁷⁹⁾

꽃이 물에 비친다는 뜻의 영화지(映華池)는 양지면 추계리 송병준 별저 진입로 우측에 조성된 조선시대 전통정원이다. 일제 강점기 이완용과 더불어 친일매국노를 대표하는 송병준이 양지현감으로 부임하였을 때 고종이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99칸 별저를 지으면서 영화지도 함께 조성한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송병준 별저는 99칸으로 지어진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사대부 저택이었지만 광복 후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건물이 대부분 헐리고 최근까지 솟을대문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대문마저 헐어버려

278) <연합뉴스> 2005. 10. 18 기사

279) 본고는 필자가 <용인문화> 2008년 겨울호에 발표한 내용을 전제한다.

당시에 심겨진 고목과 석물 몇 점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저택 동쪽 숲과 연해 있는 영화지는 섬과 못가에 지어졌던 정자의 초석과 함께 전체적인 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조선시대 민간정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이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충청도 지방의 일부 고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경기도 일원에는 능원이나 묘원 외에 이렇다 할 민간정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화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방의 민간정원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서쪽 계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끌어들이어 조성한 인공샘



인공샘 바로 아래 조성된 작은 못-큰 못과 합쳐져 8자형 원지를 형성하고 있다

영화지는 송병준 별저에 부속되어 있는 정원으로서 전체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다양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원은 크게 못과 섬, 그리고 못을 감싸고 있는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못의 형태를 살펴보면 궁원이나 민간정원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지원도형(方池圓島型)의 구조가 아니라 크고 작은 두 개의 타원형 호안을 합쳐 8자 형의 원지(圓池)를 만들고 큰 못 가운데 둥그런 섬을 조성한 원도형(圓島型)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호안이 단순한 원형이나 타원형이 아니고 영화지 서쪽 계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끌어들이어 인공샘을 조성하고 그곳에 작은 못을 만들어 아래쪽 큰 못과 8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특별히 의도하여 8자 모양의 호안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지세(地勢)를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원을 조성할 때 자연을 영적 존재로 생각하여 자연의 질서를 심하

게 흘뜨리거나 조작하지 않는 습성으로 인해 여기서도 지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이용한 것이다.

또 호안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 부분에 석축을 쌓았는데 길가 쪽의 석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너져 내린 곳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이다.

큰 못 가운데 조성된 원도(圓島)를 살펴보면, 석축을 쌓아 둥그런 섬을 만들고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형태의 원도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보통 방지원도(方池圓島)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져 있다는 관념의 표현으로 성리학의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화지는 지세를 이용하다 보니 구조상 방지(方池)의 형태는 아니지만 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구조를 볼 때 일반적인 정원 조성기법의 원리인 방지원도형(方池圓島型)을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⁰⁾

또 섬에는 수령 10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당시 찍은 사진에서도 이 소나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원도에 회화나무나 목백일홍을 심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식재하는 나무가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상록수라는 생태적 속성으로 인해 유교적 윤리 규범에 조응시킨 지조나 의리의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수목이다. 추운 겨울이 되어 다른 모든 식물들은 낙엽이 지는데 오직 소나무만은 푸르름을 잃지 않아 공자는 <논어>에서 찬바람이 일 때라야 비로소 송백이 늦게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여 세상이 어지러워 정의가 설 땅이 없을 때라도 소나무처럼 사람도 본뜻을 잃지 말고 절의와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송병준이 섬에 소나무를 심은 뜻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한 원도에는 정자가 세워졌던 흔적이라 생각되는 추춧돌이 몇 개 남아 있고 북쪽 숲과 연결되는 철제(鐵製) 다리가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에서 원도에 정자를 짓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섬에 철다리를 연결한 것은 이색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80) 허균, 한국의 정원-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2005.



옛사진에 담겨 있는 아치형 다리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철제 다리

그러나 옛 영화지의 사진을 보면 나무 기둥을 세운 둥근 아치형 구조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화지가 조성되던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송병준이 친일 행각을 벌이면서 일본 총독부 관리나 친일 인사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식 목조 다리를 부설하였다가 목재가 쉽게 썩으므로 자주 교체해야 하는 취약성 때문에 강한 철골 구조로 바꾼 모습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기둥을 세우고 받침대 위에 얹은 통나무를 연이어 깔아 만든 아치형 다리는 일본 전통정원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일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옛사진에 담겨있는 8각정과 그 터에 남아 있는 주춧돌

섬과 연결된 철다리 북편에는 정자가 있었던 자리에 주춧돌이 남아 있다. 화강석을 깎아 만든 8각의 주춧돌은 모서리 마다 2개씩 16개가 박혀 있고 가운데 2개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세워졌던 정자는 8각정이 확실하고, 옛 사진의 지붕을 분석해 보면 추녀마루가 모이는 중심점에 2-3단의 장식기와를 세운 절병통(節瓶桶) 구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자는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형식이다. 즉 자연과 일치하고자 했던 관념에 따라 경치와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며 정신을 수양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팔각정의 주춧돌은 호안의 원도와 함께 영화지가 우리나라의 전통정원 조성 기법에 의해 축조된 정원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영화지를 감싸고 있는 숲을 둘러보면 100년이 훨씬 넘는 정원이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수많은 고목들이 숲을 메우고 있다. 소나무, 측백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고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거진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공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고 정원 조성 당시 주변에서 자라고 있던 그대로의 나무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영화지에 수령 100년 정도 된 금송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송은 백제의 무령왕과 왕비의 관재(棺材)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일본 나무이다.



영화지 숲에 자라고 있는 금송

금송(金松)은 소나무처럼 침엽수에 해당하는 상록수이지만 소나무와는 촌수를 세기도 어려운 먼 친척일 따름이다. 세계의 어떤 곳에도 없고 오직 일본열도의 남부지방에서만 자라고 키가 수십미터에 지름이 두세 아름을 훌쩍 넘치게 자라는 나무이다.

금송이란 이름은 처음 우리나라에 이 나무가 들여올 때 중국에 있는 다른 나무와 혼동하여 잘못 알려진 것이고, 일본인들은 고히야마끼(コウヤマキ)라고 부르는데 마끼란 큰 나무를 뜻하니 이름을 풀어보면 ‘고야(高野)라는 산에 자라는 큰 나무’란 뜻이다. 고야산은 한때 일본의 수도로서 백제와 관련이 깊은 ‘나라’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금도 금송은 고야산을 중심으로 일본 남부에 자라고 있는 나무이다. 고야의 한자 읽기가 일본식인 ‘다카노’가 아니고 우리발음 그대로인 고야란 점이 흥미롭다.

국립공주박물관의 앞뜰에 일제강점기에 심겨진 세 그루의 금송이 자라고 있는데 수령이 80년이라고 하니 100년된 영화지의 금송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목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본 총독부로 부터 감사의 선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직접 캐다 심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택 마당 한 켠에도 다소 키가 작은 금송이 하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송병준은 용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용인에 남아 있는 그의 행적과 자취들이 비록 어두운 역사의 증거들이지만 반면의 교훈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영화지는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다양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 경기도 지방 민간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원형대로 복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영화지가 세인들의 무관심속에 수 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사유지인 관계로 주변 지역의 개발과 함께 당장이라도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시급히 지방 문화재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정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전통정원의 원형을 살려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 강동신,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역사문제연구소, 『인물로 보는 친일과 역사』, 역사비평사, 1994.
-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99인 1권』, 돌베개, 1993.
- <龍人市史> 1편,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 <용인문화> 2008년 겨울(Vol.7).
- <양지면지>, 용인문화원, 200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M&B, 1999.
- 친일문제연구회, 『조선총독10인』, 가람기획, 1996.
- 김동명, 「제1차 연구발표회 발표요지—일진회와 일본」, 『민족문제연구』 2, 민족문제연구소, 1992.
- 최광옥, 「특별기고 : 친일파」, 『한국논단』 80, 한국논단, 1996.
- 강창일, 「일진회의 ‘한일합방’ 운동과 흑룡회」, 『역사비평』 가을호, 역사비평사, 2000.
- 김도형, 「한말 친일파의 등장과 문명개화론」, 『역사비평』 겨울호, 역사비평사, 1993.
- 이송순, 「일제하 조선인 군수의 사회적 위상과 현실 인식」, 한국역사연구회, 2006.
- 허균, 한국의 정원—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2005.
- 주남철, 韓國의 庭苑,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京畿郷土史學

발행인 : 오 용 원

편집인 : 김 성 문 · 진 속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경기문화재단 6층)

Tel .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 2009년 12월 21일

발행 : 2009년 12월 31일

인쇄처 : 대창기획사 031-721-10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785

편집위원 : 한 동 역 · 김 장 환 · 나 명 철

이 책자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음<비매품>

1. 삼국사기에 나타난 경기지역 성터 및 지명연구	한동익
2. 남한산성에 서린 민족정기의 재인식	윤종준
3. 신라사의 재조명	김택기
4. 태종실록에 나타난 소요산 태상왕 이성계 변궁리 연구	이명수
5. 팔대수(八大藪)와 청심루(淸心樓)의 문화생태적 고찰(文化生態的 考察)	조성문
6. 대보단의 설치·운영을 통해본 선비정신	신일균
7. 파주지역 별묘(別廟) 및 재실(齋室) 조사연구	권효숙
8. 한북지역(漢北地域)의 한일의병전(抗日義兵戰)	안국승
9. 매국노 송병준(宋秉峻)이 용인에 남긴 자취 소고(小考)	김장환